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KWMC1996**

**1996.7.22(월)-26(금)**

**빌리그래함센터/윗튼대학/시카고**



## 환영의 글



**차헌리** / 대표대회장, YWAM 총재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 올림픽인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고문 여러 어른들을 비롯한 강사님들, 각급 위원님들, 특별히 지구촌 도처에서 선교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간곡한 기도와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동참하신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인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후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이다라」 (눅 8:26-40)하신 그 말씀을 연상하면서 그동안 주님 대신 보냄 받은 선교지에서 충성을 다하여 성역을 이루고 계신 자랑스러운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을 다시금 본 대회의 공동대회장님들을 대표하여 환영하고 환영하며 또 환영합니다.



**한경직** / 명예대회장

한민족이 복음을 받은 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명은 제3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수출인바 북미주의 우리 동포교회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 분투노력하는 것을 보니 무한히 기쁩니다. 금번 북미주에서 열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운동의 불길을 땅끝까지 확산하기 위한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재천명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라함** / 명예대회장

1985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성회를 포함해서 수차례의 전도대회를 하면서 나는 한국교회의 기도 생활, 전도열정, 교회성장, 그리고 선교사 파송 등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996년도 한인 세계선교대회는 주님께서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 북아메리카 대륙의 한인교회를 총동원하시는 시대적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토마스 왕** / 명예대회장

'기독교 21세기운동'이 주도한 '지구촌복음화전략선교대회(GCOWE)'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렸을 때 나는 21세기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 성취에 있어 한국교회가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금번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북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소수민족교회들에게도 영적각성과 지구촌복음화를 위한 강한 기폭제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빌 브라이트** / 명예대회장

이 시대에 한국성도들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의 모범적 교회상을 보여줍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한국과 전세계에서 사역하는 한인목회자들과 한인선교사들을 통해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일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미국과 전세계에 불붙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함께 보며 함께 경험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회의 일부를 맡겨주신 것은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임동선** /대회장

인간지식이 창출해낸 과학문명과 물질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정신계와 영계는 극도의 타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영적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류의 희망은 없다 할 것입니다. 금번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예루살렘 다락방 성령강림의 역사가 재폭발하는 오순절적 사건이 일어나 인류 구원을 위한 선교운동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운태** /대회장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다. 이 선교(생명)가 우리 세대에 힘차게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다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선교는 대회나,운동이나, 전략이나, 과업이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생명이다. 금번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지구촌 복음화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 주님! 금번 대회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이 되게 하소서!



**김택권** /대회장

이 3차 선교대회가 20세기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미스바 모임이 되길 진심으로 빌며,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 분이 우리를 통해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되신 것과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일을 (고후 4:5) 위해 기도하며 의논하려고 모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장영춘** /대회장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우리 한국 민족은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이자 추수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멀리서 은은히 들려올 조짐을 보면서 우리 세대의 모든 종족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을 하는 이번 선교대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인찬** /대회장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사람들이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사건의 대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학의 아버지 맥가브런 교수는 성령은 행동하는 하나님이며 선교의 주역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연합하여 선교의 새 장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에 모든 종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면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회가 선교의 공동목표 지향을 성취시켜 개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선교의 우열 의식을 극복하는 동반자 선교의 성공적 사례를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추수기를 당한 이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선교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일어나 이 일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제3차 선교대회에 부름받은 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성령의 대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상현민 / 대회장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빌리그래함센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역사를 되돌아보면 20세기에 들어오기까지 별로 해외로 흩어져 나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6백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Korean Diaspora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만도 150만이 넘는 Korean-American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함께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살게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Korean Diaspora의 실존적 의미와 사명이 무엇인가? 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이 21세기에 세계선교의 리더십과 사명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4년만 지나면 21세기가 시작되는데 21세기는 환태평양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할 합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2천년대까지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 1,000명을 한인 이민교회가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다 마치 초대교회가 유대주의에 갇혀 세계선교의 비전을 안다옥교회와 이민 2세인 바울에게 빼앗겼듯이 21세기에는 Korean Diaspora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가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시대를 열기 위해 새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준택 / 대회장

주 21세기에 살고 있는 평신도에게 맡겨진 중대한 사명중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진실로 주님께서 평신도에게 분부하신 중대한 주님의 지상명령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요, 자기민족은 이 땅을 소유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고,성읍은 견고하고,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는 그들에게,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오늘 예수님께서 평신도들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라고 명령하였으며 (the Mandate of World Evangelization)(마28:18-20),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힘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행 1:8)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은 갈렙과 같이 담대한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다함께 이 선교사역에 참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7대 목표 및 해설

###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7대 목표 및 해설

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과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긴박성 재천명
2. 한인세계선교운동의 영적쇄신과 재무장을 위한 성령폭발
3. 한인세계선교역량의 결집과 동반자적 협력선교의 대광장
4. 2000년대 한인선교사의 좌표설정과 범세계적 연대성 형성을 위한 공동모색
5. 2000년대 북미주 한인선교사 1000명 파송을 위한 대학생청년선교운동의 기폭제
6.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한 평신도선교운동의 활성화
7.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을 위한 북미주 한인교회 300 미전도종족 입양운동과 총체적 북한선교운동의 교두보 구축
8. 그리고 「세계선교비상기도운동」 제창

### 일곱가지 비전성명, 한가지 기도탄원

### Severn Vision Statements, One Pray Plea



고석희 사무총장

21세기에 살고 있는 평신도에게 맡겨진 중대한 사명중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Jesus Christ for Every People in our Times! 21 세기의 여명이 밝아오는 역사의 분수령 시기 2000년은 새 시대를 향한 희망과 도전을 요청하며, 특히 우리들 각성된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지구촌복음화의 기념비적 이정표를 세우도록 독촉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한다.

그리하여 왕의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시대감각과 지상명령의 긴박성을 절감하는 범세계적 복음주의선교운동들이 2000년대를 「천국추수의 년대」 로 상징하는 공통된 비전을 나누는 현시점에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Korean World Missions '96)는 이 시대 한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성명」(Vision Statement of God)이라고 확신한다.

사상 유례없는 800명 한인선교사를 비롯하여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여성, 청년, 대학생 등 한국교회의 선교동반자들이 한 광장에 집결하는 이 역사적 선교대회는 비전의 융합(Fusion of Vision), 기도의 연합(Concert of Prayer), 사랑의 교제, 사명의 재무장,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영적, 인적, 재정적, 시간적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ing), 번식(Multiplying)을 도모하여 한 목표인 세계복음화의 미완성 과업(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성취를 위한 새 지평을 창출하는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실된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는 오순절적 성령폭발의 현상이 될 것이며, 고통하는 인류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치 불이 바람에 시달리듯 우리의 성령이 그렇게 시달리게 될 위대한 고통의 축제가 될 것이다.

선교는 「예수운동」(Jesus Movement)이다. 「생명운동」이다. 생명의 불길이다.

선교는 대회(Conference)나, 과업(Task)이나 전략(Strategy)이나 사역(Ministry)이기 이전에 생명에 대한 감동이며, 열정이며, 끓어오르는 연민이며, 타오르는 사명감이다.

호흡하는 생명은 누구나 지상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차 지옥에서 유희불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 한가지 준엄한 사실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의 심장이 타오르는 선교의 불에 고통하며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불타시겠는가?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Jesus Christ For Every People In Our Times!」

여기에 이 위대한 비전과 함께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향하는 일곱가지 선교과제(Mission Task)가 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긴박성 재확인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Uniqueness of Jesus Christ)에 대한 사탄의 치열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적대시하는 로마제국의 불과 피의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의 장엄한 행렬이 끊없이 줄을 이었고, 사탄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광란의 기독교 박멸공작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간 무려 420여회의 순교적 극한상황에 처했었다. 10만명 이상 순교한 상황이 56회, 50만명 이상 순교한 상황이 20회, 100만명 이상 순교한 상황도 12회나 발생했다. 순교자 총계는 무려 4천만명에 달하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매년 평균 17만명의 순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위해 피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불꽃은 꺾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치열하게 타오르는 법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탄생한 그의 몸된 교회는 순교성도들의 피로써 이렇게 성장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것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온 인류의 생명이다.

초대교회의 저 위대한 성도들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모도, 처자도, 재산도, 명예도, 공민권도, 목숨조차도 포기해버린 순교적 신앙 이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공동묘지 땅굴 속에서 무려 300여년 간이나 카타콤 생활을 하며,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하고, 원형극장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 갔던 사람들!

저 위대한 순교적 복음주의자들의 심장을 불태웠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성령의 불길이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사랑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울리게 한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심장에 불을 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화가 지상과 지신에 대한 상대화를 가능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구원받은 성도의 절대적 신앙 고백이며, 교회의 초석(foundation rock)이며, 선교의 심장(Heart of Missions)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은 어떠한가?

종교적 신학적 혼합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 날로 범람하는 다원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선교운동은 어느 시대보다 강한 도전을 받고있다.

다원론자(Pluralist)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길 가운데 한 길로 치부하며, 우리 복음주의자들을 주관적, 독선적, 배타적 종교관의 희생자들로 비판한다.

사탄의 오른 팔이 복음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자이며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고부동한 구원의 진리와 선교의 명제로 불기둥처럼 선포해야 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할」(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것을 우리들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사명이요,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신앙고백이요, 유일한 존재이며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위한 우리들의 유일한 도전장일 것이다.

## 2. 한인세계선교운동의 영적쇄신과 재무장을 위한 성령충만

성령(Holy Spirit)은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이며, 선교는 「성령의선교」(Mission of Spirit)이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며, 사람은 성령의 병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령충만은 언제나 선교적 각성과 도전과 헌신과 동원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선교의 불길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에 의해 점화되고 계속 타 올라야 한다.

사탄의 간교한 꾀활은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가로막지 못할 때 그 운동을 가차없이 더럽히는 일을 한다. 사탄이 만약 그 운동만 앞에 내세우고 그 운동의 영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영적 운동을 가차없이 물질화시켜서 철저히 부패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운동의 세속화와 물질화에서 그 운동을 구출해내는 유일한 길은 선교사역자들의 영적쇄신과 성령충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영적원칙(Spiritual Principles)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적원칙을 떠난 어떠한 운동이나 그 전술전략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What we do) 보다도 「우리가 누구냐」(What we are)에 더욱 관심을 두신다.

우리들 선교사역자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우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교사역자의 영적쇄신과 충만은 세계복음화운동의 핵심적 요소이다.

무엇이 전도의 문을 열겠는가?  
무엇이 선교현장에서 이교도들의 마음을 열겠는가?

막강한 조직력도, 효과적인 전략도, 풍부한 재정적 지원도 마침내 이교도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문을 열고 우상숭배의 마음에 감동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결정적 힘은 되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며 성령은 선교사역자들의 영적쇄신, 신앙적 단련, 도덕적 무장, 복음적 설교, 구령의 열성, 기도의 헌신, 희생적 사랑 등을 사용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선교운동의 불길은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타올라야 하며, 선교사역자들은 끊임없는 성령의 재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계속 무장돼야 하지 않겠는가?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참여한 모든 선교동반자들의 영적각성과 쇄신과 충만. 그리고 영적 재무장을 위한 성령폭발의 현상이 되며,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열망한다.

### 3. 한인세계선교역량의 결집과 동반자적 협력선교의 대광장

진정한 협력(genuine cooperation)은 진정한 능력(genuine power)이다. 협력만큼 큰 능력이 있겠는가?

최고의 능률은 자유인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복음화운동의 능률은 「그리스도의 자유인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세계복음화」(World Evangelization)의 약자가 WE인 것처럼 선교는 「우리(WE)」가 하는 일이지 「나」(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협력정신과 공동체훈련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통일성이 파괴되고 선교운동의 집중력이 훼손될 때마다 승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로 인한 소아적 갈등, 경쟁, 대립, 분열, 분쟁이라는 슬픈 사실을 절감하고 1974년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1989년 제2차 마닐라/로잔세계복음화대회, 그리고 1995년 5월 214개국 대표 4662명이 서울에 집결한 「세계복음화지구총전략대회」(GCOWE'95)를 통해 「동반자협력선교」(Partnership Mission)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말할 수 없이 강조되어 왔다.

이렇게 2000년대 지상명령 완성의 공동목표와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범세계적 범교회적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인선교세력들의 동반자적 협력문제 역시 핵심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분파의식이 농후한 민족성의 비극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영적 활력은 배웠어도 영적 연합은 배우지 못

했다」고 지적한 어느 서구신 학자의 비판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 교회 성장을 세계 1위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 만약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긴박한 지상명령을 위해 소아적 개인주의 교파주의 민족주의를 초월하고, 범교회적으로 총동원되어 협력선교의 큰 길을 열고 타 문화권선교의 큰 문을 열기만 한다면, 2000년대는 선교사 파송을 세계 1위의 진실로 위대한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의 협력선교를 위한 위대한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셨다.

신학적 견해, 신앙적 노선, 교회적 입장, 교파적 배경을 초월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과 복미주 한인교회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선양하자는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1,500명의 선교동반자들이 KWMC의 이름으로 회동한 1988년도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그리고 다시금 한국교회의 긴박한 선교적 사명과 동반자협력정신을 재확인하고 재선양하기 위해 2,500명이 재집결한 1992년도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금 2000년대 지구총완전복음화의 위대한 비전과 긴박성을 재확인하고 3,500여 복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강권하시는 성령의 독촉을 받고 3,000명 한인세계선교역량이 총집결하는 금번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이 사상최대 협력선교의 대광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교회 사상 최대의 한인세계선교세력이 총집결하는 광장이므로 진실로 동반자적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되기를 열망한다.

#### 4. 2000년대 한인선교사의 좌표설정과 범세계적 연대성 형성을 위한 공동모색

세계복음화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이리안 자야까지(from Jerusalem to Irian Jaya) 대행군을 계속해 올 때 하나님은 복음의 전령들을 친히 차출하시고 성령의 선교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과 심장, 전인격과 전생애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오대양 육대주, 사막과 바다, 산악과 평야. 도시와 촌락, 감옥과 유형지에서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며. 복음의 철장권세로 사탄의 면상을 후려치며, 생명을 포기하며. 고난을 찬미하며, 「매를 맞으며,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고후 11:23-2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항상 심령에 눌린 바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오직 그 하나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역사를 관통하여 달려온 저 장엄한 선교사의 대행군을 보라!

보라. 기독교 2,000년의 장구한 세월을 성령과 함께 달려온 저 위대한 복음의 전권대사들. 저 고독한 믿음의 영웅들. 저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들의 대행군을!

그들의 눈은 역사를 꿰뚫고, 그들의 입은 복음을 외치며, 그들의 손은 인류의 고통을 쓰다듬고, 그들의 발은 귀신의 처소를 짓밟으며 그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쏟아지며, 그들의 영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불타고 있지 않은가!

저 장엄한 선교사의 대행군은 오늘도 오대양 육대주에서 서구선교사 85,000여명과 제3세계 선교사 55,000여명 포함 140,000여명의 개신교선교사들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북미주한인교회가 파송한 4,000여명의 한인선교사들, 그리고 이렇게 KWMC'96 협력선교의 대광장에 찾아온 800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인선교사들로 그 대행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제7차 세계한국선교사대회가 2000년대 한인선교사의 좌표설정과 범세

계적 연대성 형성을 위한 공동모색을 통해 세계복음화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기를 희망한다

#### 5. 2000년대 북미주 한인선교사 1000명 파송과 대학생선교운동의 기록제

하나님의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은 19세기 말엽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D. L. Moody)와 피어슨(A. T. Pierson) 등의 영적 감동력. 프린스턴대학 졸업생 로버트 윌더(Robert P. Wilder)의 선교적 비전, 코넬 대학생 존 모트(John R. Mott)의 천재적 조직력을 사용하여 당시 북아메리카대륙을 풍미한 「대학생 자원해외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일으키셨다.

당시 성령의 선교적 충동에 도전받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 이라는 찬란한 비전성명(Vision Statement)을 외쳤다. 그들은 서기 1900년까지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Unfinished Task)을 끝내자고 하는 비장한 환상과 열정을 불태우며, 동시대 교회들의 선교적 대각성을 독촉하며, 오대양 육대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위대한 비전은 세계선교운동사에 빛나는 대약진의 장(章)을 기록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혼잡한 언어를 땅끝까지 정복하는 지상명령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사명의 쟁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역사의 휘장 뒤로 물러갔다.

그렇게 그들은 갔다. 역사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향한 불타는 비전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비전은 지금도 살아 있다. 그 비전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 심장을 불태웠던 그 위대한 비전,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들의 심장을 불태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이제 그것은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이다.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동원명령을 받은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의 기도 속에, 증언 속에, 고백 속에, 대회 속에 분명히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이라고 하는 비장한 결단과 헌신과 열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세계 비전」(World Vision)의 열망이 북미주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한민족의 젊은 심장들을 불태우며 확산된다면 마침내 전세계를 석권하는 「한인대학생 자원 해외선교운동」 (Korean 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폭발하는 것도 가능치 않겠는가?

19세기말 선교적 선풍을 일으켰던 「대학생 자원 해외선교운동」(SVM)의 위대한 신화를 20세기말 한민족의 젊은 후예들을 통해 다시금 찬란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역사창조의 가능성들, 「하나님의 기폭제」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미주 전지역의 신학교, 대학교, 그리고 한인교회에 숨겨두신 젊은 「엘리아의 700명」이 오늘 여기에 동석한 1000명 자랑스러운 선교소명자들이 들어 올리는 봉화불을 기다릴 것이다.

KWMC는 이 「예수의 젊은이들」을 위한 모성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역사의 미래이며, 세계선교운동의 견인차(牽引車)이며, 차세대의 주자(走者)이기 때문이다.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2000년대 북미주 한인선교사 1000명 파송을 위한 대학생청년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

## 6.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한 평신도선교운동의 활성화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의 「로잔언약해설」(Lausanne Covenant Commentary)에서 존 스토틀(John Stott)는 「온 교회의 총동원 없이 온 세계의 복음화는 불가능하다」(Unless

the Whole Church is Mobilized, the Whole World is not likely to be Reached)고 외치며 세계선교를 위한 세계교회의 각성과 헌신을 호소했다.

그리고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온 교회를 부르신다」(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고 선언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체 교회의 협력과 총동원을 촉구했다.

선교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기 위한 성령과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세계선교는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있는 지상명령이므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노력에 대한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전쟁이다.

이 거룩한 전쟁을 휘나 전방전투부대에 투입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오늘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후방지원부대인 교회는 이 전쟁의 치열성과 긴박성을 깨닫고 분발하여 총동원되어야 한다. 전쟁은 전방을 향한 후방의 병력보충과 전력지원 없이는 승리는 쟁취할 수 없다. 그런데 후방의 총동원은 사실상 교회의 99%를 점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선교적 각성과 헌신과 동원과 후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 교회의 절대다수인 평신도를 향한 선교적 계몽운동이 세계복음화전략의 필수조건이다.

고통하는 세계를 향해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이 신속히 움직일 때 측량할 수 없는 선교역량이 창출될 것이며,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복음이 온 지면을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한 평신도선교운동의 활성화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열망한다.

7.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을 위한  
북미주 한인교회 300 미전도종족 임양운동과  
총체적 북한선교운동의 고두보 구축

세계복음화 완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지상명령의 「미완성 과업」(Unfinished Task)은 얼마나 남았는가?

세계복음화는 「모든 민족, 온 세상」(마 24:14), 「온 천하, 만민」(막 16:15), 「땅끝까지」(행 1:8), 「모든 족속」(마 28:19)에 대한 복음화를 의미한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보고 기록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세계복음화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종족복음화운동의 개념인 것이다. 언어를 혼잡케 한 바벨탑의 심판 이후로 지구촌의 인류는 수없이 많은 종족들로 분할되었다. 데이빗 바렛(David Barrett)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촌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무려 24,000여개의 타문화권 종족그룹(Cross-Cultural People Group)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지구상의 24,000여 종족그룹 가운데 지금까지 약 13,000여 종족그룹이 복음화되었고, 나머지 약 11,000여 종족그룹이 지상명령의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있다.

이 11,000여 미전도종족그룹(Unreached People Group)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착교회가 없는 「숨은 종족」(Hidden People)을 말한다.

이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은 주로 10/40창 지역의 30여개국 안에 산재하였으며 현재 60억5천만 인류 가운데 22.5%에 해당하는 13억에 이른다. 이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오늘날 범세계적 선교운동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세계복음화의 대상을 통제가능한 단위(Manageable Units)인 종족그룹별로 분할하여 도전하는 「종족단위 복음화전략」이 1970년 맥가브란(McGavran), 랄프 윈

터(Ralph D. Winter), 그리고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을 통해 보편화된 이후 세계복음화의 개념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갑자기 「한 촌락의 이야기」(talk of the town)가 되었고 손에 잡히는 절대적 가능성의 실상이 되었다.

미전도종족선교는 1930년 중반에 이미 시작된 운동이다. 근대선교운동사를 일별하면 대략 3단계로 전개된다.

1792년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에 의해 「해안선선교운동시대」(Coastal Land Mission Era)가 열렸고, 1865년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에 의해 「내륙선교운동시대」(Inland Areas Mission Era)가 열렸고, 1935년 카메론 타운센드(Cameron Townsend)에 의해 「미전도종족 선교시대」(Unreached People Mission Era)가 열렸다.

그리고 1936년 WEC 선교사 브리어레이(L. G. Brierley)는 최초로 미전도종족그룹(Unreached People)에 대해 전세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1955년 맥가브란(D.A. McGavran)은 「하나님의 교량」(The Bridges of God)을 발행하여 종족단위 복음화운동의 개념을 재천명했다.

1974년 제1차 로잔세계복음화 국제대회(Lausanne I International Congress for World Evangelization)를 통해 이 종족단위복음화의 개념은 일반화되었고 랄프 윈터(Ralph D. Winter)를 비롯한 세계선교미국본부(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미개척선교운동」(Frontier Mission Movement)을 통해 「서기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 개척을!」(Church for Every People Group by A.D. 2000) 주창하는 이 개념은 한층 더 구체화되었으며 토마스 왕(Thomas Wang), 루이스 부시(Luis Bush) 등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21세기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을 통해 「서기 2000년까지 모든 족속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Gospel for Every Person by A.D. 2000) 주창하는 이 종족선교개념은 한층 더 현실화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11,000여 미복음화종족에 대한 미완성 과업을 끝낼 것인가?

첫째, 「서기 2000년까지 11,000여 미전도종족 안에 생동력 있고 성장하며 선교적 열정이 충만한 토착교회들을 세우고」



(to plant vibrant, growing and mission-minded indigenous churches)

둘째, 「그 토착교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종족을 복음화하도록 한다」(let these indigenous churches evangelize their own people)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약 19억의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주의자는 약 5억7천만명, 그들의 복음적 교회는 660만개에 달한다. 만약 이들이 11,000개의 미전도종족을 위해 선교적으로 동원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600개의 복음적 교회가 한 종족씩만 입양한다면 세계복음화는 통쾌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환상적인 산술인가!

만약 이와 같이 「종족입양」전략이 하나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교회의 전폭적 순종과 성령의 선교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적중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천국추수(Harvest of the Kingdom)의 영광은 인류역사 속에 불기둥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성령의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실 것이며 마침내 복미주한인 교회는 2000년대까지 300 미전도종족을 입양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붕괴를 예고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과 화급한 식량난 문제 등을 고려한 총체적 북한선교운동을 전개하는 교두보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8. 그리고 세계복음화 비상기도운동 제창

기도는 세계선교운동의 최우선 전략이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을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하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며,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

을 소성케 하고, 지구를 복음으로 석권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들의 기도가 불타기 시작하면 세계는 변혁되고 천사들은 더욱 능력있게 움직이고 더욱 신속히 날며 하나님의 복음운동은 급속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과연 고통하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하는 사랑을 느끼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고통하는 세계를 위해!

World Vision의 창설자 밥 피얼즈(Bob Piers)는 늘 지구본(globe)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종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1723년 이미 스코트랜드의 기도의 사람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는 미개인 개종을 위한 중보기도운동을 부르짖었고, 20년 후에는 대영제국 식민지 전역에 원주민을 위한 200개 이상의 「기도그룹」(Prayer Group)을 작동시켰다.

1747년 북아메리카의 영적 거인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는 영적 부흥과 그리스도의 왕국 확장을 위한 비상기도를 촉구하며 「세계복음화 비상기도동맹」결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뉴잉글랜드 대각성운동과 아메리칸 인디언선교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18세기 영국에 「기도부대」(Unit of Prayer)를 일으킨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앤드류 홀러(Andrew Filler), 존 섯클리크(John Sucliffie).

1794년 미국 모든 교파의 목사들에게 「기도탄원서」(Plea for Prayers)를 보낸 이삭 박커스(Isaac Backus).

1799년 캔키에서 「기도합주회」(Concert of Prayer) 운동을 일으킨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

1858년 뉴욕시에서 80만 인구 중 불과 6명으로 시작된 합동기도운동이 마침내 「기도의 사태」(Landslide of Prayer) 현상을 일으켰던 예레미야 렌피어(Jeremiah Lanphier).



뉴욕의 「기도사태」는 시카고로 번져 디 엘 무디(D.L. Moody)를 불질렀고 당시 3천만의 미국 인구 중 1년에 1백만 이상을 구원시켰으며 이 북아메리카의 부흥운동은 계속 영국으로 남인도로 남아프리카로 퍼져 나갔다.

1905년 예일(Yale)대학은 25%의 학생들이 기도그룹에 가입했으며 뉴저지의 아틀란틱시티는 6만 인구 중 50명만 불신자로 남고 전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오레곤주 포틀랜드는 200개 이상의 상점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제히 기도를 위해 문을 닫았다.

영국 웨일스의 한 청년 에반 로버츠(Evan Roberts)의 고독한 기도의 투쟁은 마침내 웨일스에서 대영제국으로, 노르웨이로, 스웨덴으로, 덴마크로, 독일로, 캐나다로, 오스트랄리아로, 뉴질랜드로, 아프리카, 브라질로, 멕시코로, 칠레로 끝없이 산불처럼 오대양 육대주를 휩쓸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간단하다. 사람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루셨다! 언제나 기도운동은 부흥운동을 촉발시켰고 부흥운동은 선교운동을 촉발시켰다! 언제나 시작은 기도운동이었다! 기도의 투쟁은 사탄과 세상을 향한 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선교운동의 저변확대, 다시 말하면 교회의 99%를 점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선교적 각성과 헌신과 동원과 후원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뿌리 없는 나무가 쓰러지듯 뿌리 없는 운동은 열매가 없다. 선교운동이 평신도운동으로 연결될 때만 교회의 선교적 동원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교회의 절대다수인 평신도들의 선교적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선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인적, 물적 지원확대, 그리고 선교운동 자체의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이신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위한 최선의 전략, 최우선의 전략은 무엇인가?

「기도선교운동」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기도의 열정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은사이며 영적 자

부심이 아닌가? 한국교회 4만5천여 재단에 그리고 북미주 한인교회의 3500여 재단에 끝없이 타오르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의 불길 속에 세계선교의 미완성 과업이 불쏘시개처럼 타오르기만 한다면 세계복음화는 신속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교회를 향해 「세계복음화 비상기도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다.

## 7 Goals of the Conference

1. To Recognize the Urgency of Evangelical Missions and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2. To Experience an Explosion of the Holy Spirit for Spiritual Renewal and Re-equipment of the Korean World Missions Movement
3. To Provide a Platform for Maximizing the Mission Force and for Forming Partnerships for the Korean World Missions Movement
4. To Plan strategies of Korean Missionaries for the 21st Century and to Create a Global Unity
5. To Support the College Student and Young Adult Missions Movement in Sending out 1000 Korean Missionaries in North America by A.D. 2000
6. To Bring about a Great Awakening and Full Participation in Missions and Lay Mobilization of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by A.D. 2000
7. To Adopt 300 Unreached People Groups by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and to be a Bridge for Missions to North Korea for the 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8. To Plead the Urgent need to Prayer and Spiritual Awakening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 of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 Seven Vision Statements, One Payer Plea /

**Rev. John Suk Hee Ko**, General Secretary of KWM '96

Jesus Christ for Every People in Our Times!

In these final years of the 20th century, we evangelical Christians sense an urgent call of the Holy Spirit for world evangelization. I am certain that the 3rd KWM'96 is the Vision Statements of God for the Korean Christians of these times to be greatly aware of and participation in world missions. In this historical conference, a public square of partnership in missions, more than 800 Korean Missionaries as well as pastors, theologians, laity, men and women, young adults and other mission partners will gather together. Their Fusion of Vision, Concert of Prayer, Fellowship of Love, Re-armament of Calling, Exchange of Information and Strategy, Re-assessment of Spiritual and Man Power, Catalyzing, Mobilizing, Multiplying of the financial and timely resources, will achieve our one goal, the 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I believe this conference will also be the place where the Pentecostal explosion of the Holy Spirit will touch the lost.

Mission is Jesus' Movement and Life Movement. Missions is the flame of life. Mission is neither a conference nor a Task, Strategy or Ministry, it is rather a passion for life and a fiery sense of calling.

The fact that those who have not been born again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ill suffer in the fiery chamber of

hell, urges us to be on fire for mission.

Oh, People of God! Won't you be on fire Until the King comes back?

"Jesus Christ For all people In Our Times!"

There are seven Mission Tasks to be dealt with in the 3rd Korean World Missions '96.

### 1. To Recognize the Urgency of Evangelical Missions and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From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has continually been challenged by Satan, and the early Christians faced a bloody and fiery persecution of the Roman Empire.

Jesus Christ's heart was destroyed. And water and blood were shed for us. That love is still putting our hearts on fire.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is the confession of faith of the saved, the rock of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and the Heart of Missions.

However, what is the spirit of the present time? Religious and theological synchronization, secularism, liberalism, humanism, materialism and pluralism have assaulted the evangelical faith and the mission movement.

The pluralists consider Christianity as one of many religions, Jesus Christ as one of many ways, and us, the evangelicals, as the victims of a self-righteous and exclusive religious concept. The right hand of Satan is crawling into the heart of the gospel.

Therefore, this 3rd KWM'96 must proclaim Jesus Christ as the captain of the Great Commission for world evangelization, and we must also confess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as the absolute truth for salvation and the theme of missions, and vow "to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as our priority. This is the calling of the evangelical missions movement.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This is the only truth for us, and our only confession of faith, and Jesus Christ is the only person whom we desire.

## 2. To Experience an Explosion of the Holy Spirit for Spiritual Renewal and Re-equipment of the Korean World Missions Movement

The Holy Spirit is the Mission Spirit, and the mission is the Mission of the Spirit. The core of missions is the Holy Spirit, and man is merely an instrument. Therefore, the church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always be involved with the awareness, challenge, sacrifice and participation of missions. The flame of missions must be set and kept on fire by the Spirit.

Satan's cunning strategies are to pollute the missions movement when he fails to block it. If Satan would allow only the work of the mission movement without the spirit, he could absolutely corrupt the movement. The only way to avoid that destruction is by spiritual renewal and by having mission worker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though we are striving to do the work of God and His Kingdom, we can never succeed without His Spiritual principles.

God does not bless movements or strategies because of what we do, but because of what we are, therefore, the spiritual renewal of the mission workers is the core of World Evangelization.

What would open the door to World Evangelization? What would open the hearts of non-believers in the mission field?

No effective strategies, abundant financial support, and great administrative skills would open the hearts of the unreached and break down the walls so that Jesus Christ can enter.

Only the Holy Spirit can achieve the work of God. He completes the work through spiritual renewal, discipline, moral training, evangelical preaching/teaching, passion for souls, and the fervent prayer of the mission workers.

Therefore,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mission workers must be continually recharge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personally desire that the 3rd KWM'96 will be the place where all the mission workers and partners experience the spiritual renewal of the explosion of the Holy Spirit, and bring the book of Acts to life.

## 3. To Provide a Platform for Maximizing the Mission Force and for Forming Partnerships for the Korean World Mission Movement

Genuine cooperation is genuine power.

There is no power stronger than cooperation. The most effectiveness comes from voluntary cooperation. The effectiveness for World Evangelization is determined by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free men and women in Christ.

As the abbreviation of World Evangelization is WE, WE must do world missions, not I.

Whenever there is a lack of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community training, it destroys the spiritual unity of the church, and we give the victory to Satan. We are aware that self-centeredness, childish conflicts, competition, division among mission workers has been the greatest hindrance to World Evangelization. Therefore, the im-

portance of Partnership in Mission has been emphasized throughout the 1st Lausanne World Mission Conference in 1974, the 2nd Manila / Lausanne Conference in 1989, and GCOWE in 1995 for which 4,662 delegates from 214 countries participated in Seoul.

During these periods of coming together to become strengthene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World Evangelization, the Korean Mission partners need to focus on this cooperative mission effort.

We Koreans need to overcome the national character defect of disunity. Let us not forget the justified criticism of a western critic. He said, 'the Korean church has learned spiritual power, but not spiritual unity.'

The Korean church was blessed with the highest church growth in the world in the 1980's. If we overcame our self-centered and individualistic denominationalism and nationalism, and begin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open the door to other cultures' mission fields, we might be blessed once again a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number of missionaries in the world.

Hallelujah! Sing praises to the Lord!

God has alread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a cooperative missions movement among Korean churches.

Overcom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nominations, theological backgrounds and faith, and realizing our Korean identity wild living in North America, 1,500 mission partners came together under name KWMC in 1988 with a pure motivation and passion for World Evangelization (1st KWM'88). 2,500 gathered again in 1992 to reaffirm the urgency of the cooperative partnership mission (2nd KWM'92). Throughout those historical events what did God reveal to us?

More than 3,000 mission partners who have been deeply touch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realize the

urgency of the great vision for global evangelization will gather again for this 3rd KWM'96, what will God tell us through this historical conference, the platform of partnering together?

I hope that KWM'96 will be the center for collecting and maximizing all resources and power for the cooperative effort of World Evangelization.

#### 4. To Plan Strategies of Korean Missionaries for the 21st Century and to Create a Global Unity

God has chosen the workers as the carriers of His gospel, and helps them to be on fire with the Spirit for World Evangelization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Hallelujah! Sing Praises to the Lord!

Let's look at the march of the martyrs who have brought down satan's kingdom, sacrificing their lives, joyfully enduring their suffering for the Lord, 'being hungry, thirsty, cold, naked, beaten, and without sleep' (II Cor. 11:23-27).

They have always felt indebted to Christ's church while joyfully carrying out the will of God.

Look! The ambassadors of the Gospel Who have come a long way 2,000 years, With the Holy Spirit, The lonely men and women of faith, The march of the chosen,

Their eyes Penetrate history, Their mouth Proclaim the gospel, Their hands Console suffering humanity, Their feet Trample upon the evil forces, Their blood Shed on Christ's church, And their spirits Burning with their holy vision Of World Evangelization!

The march for missions is being continued with 85,000

western missionaries, 55,000 third world missionaries and 140,000 protestant missionaries in the whole world. Now the 4,000 Korean missionaries sent out from Korea and North America, and 800 Korean missionaries who join this conference will continue to march.

I hope that the 3rd KWMC and the 7th World Korean Missionary Conference will crystalize the goals for the Korean missionaries and discover global unity for World Evangelization.

### **5. To Support the College Student and Young Adult Mission Movement in Sending out 1,000 Korean Missionaries in North America by A.D. 2000**

The Mission Spirit of God touched the heart of D.L. Mood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T. Pierson with spiritual power, Robert P. Wilder with the vision of mission, and John R. Mott with genius administrative skills, From these men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was born.

The young evangelicals at that time declared the Vision Statement - "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 They ran out into the world proclaiming the urgency to complete the Unfinished Task by the 1900's. Their great vision was a turning point for World Evangelization.

However, they did not witness the completion of their vision, but to this day it has never diminished. That vision is still very much alive. That vision is dominating the history of the world. That vision of missions which set their hearts on fire is burning our hearts today for missions.

Jesus Christ For Every People In Our Times!

During KWM'96 we will witness the passion of the youth through their prayer, testimonies, confessions, and dia-

logues, we will hear them cry out to the whole world: "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

Isn't it possible for the Korean Student Volunteer Movement to break out when young Korean students in Korea and North America experience the Spirit of Mission with the desire for the World Missions?

Just like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urgent call of God will to revive a movement for this century by the Korean descendants like 'the 7,000 for young Elijah,' there are those who have been hidden by God in colleges, Bible colleges and seminaries, who are waiting for the signal fire lit by the 1,000 young Korean students who will join in this conference.

KWMC must do its part with motherly guidance and love, to assist these 'young people of Jesus.' For they are the future of our history, the tractor for the World Mission Movement and the runner for the next generation.

I believe that KWM'96 will be the impetus for the fulfillment of World Evangelization to begin by sending out 1,000 Korean young people in the coming century.

### **6. To Bring about a Great Awakening and Full Participation in Missions and Lay Mobilization of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In 1974, at the First Lausanne Mission Conference, John Stott made an appeal in the Lausanne Covenant Commentary "Unless the whole church is mobilized, the whole world is not likely to be reached," to world church. At the Second Lausanne Mission Conference in 1989, he proclaimed that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I strongly desire that the fire for the mobilization of the lay mission and great awakening of mission among North American Korean churches will be lit.



## 7. To Adopt 300 Unreached People by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and to be a Bridge for Missions to North Korea for the 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What would it mean to have world evangelization complete, and how much of the unfinished task still remains to be done?

World evangelization means to reach out to "all nations, the whole world"(Matthew 24:14), "the ends of the earth"(Acts 1:8), and "all tribes"(Matthew 28:19). The apostle John wrote on the phenomenon of world evangelization in accordance to the vision he saw: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midair, and he had the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the earth - to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Revelation 14:6)

Therefore, what it says in Matthew 28:19,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mplies evangelization of tribes.

The tower of Babel has caused many tribes to be scattered over all the earth.

David Barrett states that the globe consists of around 24,000 Cross-Cultural People Groups that have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al backgrounds. About 13,000 out of 24,000 tribes have been evangelized and 11,000 tribes are left unreached.

Since these 11,000 unreached people groups have never heard of the gospel, they not only never heard of the name of Jesus Christ but they are also hidden people without any indigenous churches. These unreached people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10/40 window area in 30 nations.

To evangelize those nations is our priority and the number of people involved is 1.3 billion, which is 23% of the whole world's population of 5.75 billion.

D.A. McGavran and Ralph D. Winter implanted the tribal unit mission strategy in 1970's, and the outcome of the Lausanne Movement made the strategy universal. World evangelization is no longer a hazy pipe dream but the talk of the town, and it has been taken out of the realm of impossibility and has become reachable.

The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is the movement that began in the mid 1930's.

Modern mission movements can be divided into three eras. They are 「The Coastal Mission Era」 by William Carey in 1792, 「The Inland Mission Era」 by Hudson Taylor in 1865 and 「The Unreached People Mission Era」 by Cameron Townsend in 1935.

In 1936 WEC Missionary L.G. Brierley began his research on The Unreached People Groups, and D.A. McGavran reaffirmed the concept of the Tribal Unit Mission Movement in his book 'The Bridges of God' in 1955.

The concept of the Tribal Unit Mission Movement became universal due to the outcome of the Lausanne I International Congress for world evangelization.

It became more crystallized by The Frontier Mission Movement of Ralph D. Winter and U.S. Center for World Mission and their motto was "Church for Every People Group by A.D. 2000."

How can we, then, possibly complete the mission to the 11,000 unreached people groups, the unfinished task?

First, we need to plant vibrant, growing and mission-minded indigenous churches among the 11,000 unreached people groups.

Secondly, we must let these indigenous churches evangelize their own people.

At the present time, around 570 million out of 1.9 bil-

lion Christians are considered evangelical, and they are from 6.6 million churches. If these churches would utilize their resources (manpower, finances and spiritual support) for the mission to these 11,000 unreached people groups and adopt one tribe each by 600 evangelical churches, the world mission would be fulfilled in a very short time.

What a fantastic calculation! The glory of the Harvest of the Kingdom of heaven would reveal its power like a pillar of fire if the evangelical churches of Christ were to completely obey the Spirit of Missions for the Great Command of our captain Jesus Christ.

Therefore, the Spirit of Missions will expand the unreached tribal adoption movement through KWM'96, and it is very possible that the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will be able to adopt 300 unreached people groups by the year 2000.

We must create a mission strategy for North Korea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ituation as well as the shortage of food.

## **8. To Plead the Urgent need to Prayer and Spiritual Awakening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 of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Prayer is the best strategy for the mission movement. The power of prayer overcomes evil, puts bits into the mouths of enraged lions finishes wars, calms the tempests, drives out demons, breaks the bondage of death, heals the sick, stops the sun, brings the dead to life and wins the world with the gospel.

When prayers of the churches for world missions are set on fire, the world will change, the angels will fly even more swiftly, and God's gospel movement will gain even more powerful momentum.

Do we have the love the lost souls? We must pray for those souls. Do we feel the love of God in pain for the suffering world? We must pray for the suffering world. Bob Piers, the founder of World Vision, used to pray like this: "Oh, Father! What is the pain in your heart today? Let it also make my heart so painful today!"

In 1723, Robert Miller, a Scottish man of prayer, appealed for intercessory prayer for the conversion of savages, and in twenty years he was able to operate more than 200 Prayer Groups for the natives in British colonies.

A great man of God in North America in 1747, Jonathan Edwards, pleaded for a spiritual revival and urgent prayer for the expansion of the Heavenly Kingdom, and gave a call to unite the World Evangelization Urgent Prayer Alliance. As a result, the Great Awakening in New England and the mission movement to American Indians broke out.

William Carey who began 'The Unit of Prayers' system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the Isaac Backus who sent a 'Plea for Prayer' to all the ministers of every denomination in America in 1794, the James McGready who initiated 'The Concert of Prayer' in 1799, and Jerimiah Lanphier, who organized the prayer movement with 6 people in New York out of 800,000 population of the city, expanded and 'The Landslide of Prayer' phenomenon!

This Landslide of Prayer of New York ignited D.L. Moody in Chicago, and won more than a million souls every year when the national population was just 30 million. This movement continued to spread to England, South India and South Africa.

In 1905, 25% of the students of Yale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prayer group, almost the entire population of Atlantic City (600,000) in New Jersey were saved except 50 people, and in Portland, Oregon, more than 200 stores were closed between 11 in the morning to 2 in the afternoon to pray.

The battle of prayer of Evan Roberts, a young man from Wales, spread to Great Britain, Norway, Sweden, Denmark, Germany,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frica, Brazil, Mexico and Chile.

What was the main force behind these movements? Very simple! People prayed and God responded! Prayer movement always initiates a revival usually ignites a mission movements.

A Prayer movement is always in the beginning! The battle of prayer guarantees the victory over satan and the world!

How can we complete world evangelization? We need to expand the foundation of missions. In other words,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full involvement of the laity which consists of 99% of the church, to complete world missions.

Just as a tree without roots falls down, movements without roots cannot bear fruits. It is needless to say that mobilization of the church for missions becomes possible when the mission movement is connected to the laity. What then is the best strategy of the Mission Spirit? I believe it is a prayer mission movement.

KWM'96 is appealing to you, the Korean churches of the world, "to Plead the Urgent need Prayer and a Spiritual Awakening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

##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조직

<b>명예대회장</b>	한경직 빌리 그레함 토마스 왕 빌 브라이트 김득렬 김의환 안병국 조천일 한진관
<b>대회고문</b>	계화삼 곽규식 김동명 김리관 김성남 김영철 김의환 김해중 남기철 박근서 박재훈 박희소 손명걸 안수훈 윤영봉 이병설 이상현 이승만 이영재 조덕현 조동진 조병철 조효훈 최찬영 최창덕 함성국 허경삼 황성수
<b>대표대회장</b>	차현희
<b>대회장</b>	나운태 림택권 박희민 서준택 임동선 장영춘 정인찬 제임스 크라케빅
<b>부대회장</b>	고원용 권영배 김경진 김남수 김동형 김만우 김상구 김상묵 김상백 김성만 김순철 김영한 김영훈 김용주 김정국 김종기 김주영 김택규 김화일 김홍수 나광삼 목사균 박광자 박기영 박세록 박이섭 박재영 방지각 서삼정 신성종 신현국 김춘근 김충일 양희철 유병준 이기홍 이병희 이석환 이순각 이승운 이연길 이요한 이정근 이종형 이호영 임동하 임영규 임 호 장동찬 장석진 전익삼 전희근 정남식 최용규 최인순 허영진
<b>준비위원장</b>	강인덕 고인호 김상모 김영진 김택용 박광철 송용걸 유효명 이상남 이승제 이영희 이원상 조용중(영어권)
<b>사무총장</b> 고석희	서기 김상우 부서기 김성수 회계 황승민 부회계 백송학 감사 김창제 부감사 변승지
<b>총무</b>	강밝내 강세대 강준원 김만풍 김용출 배현찬 안성기 안창의 오정현 이용걸 장현식 전덕영 최은종 홍춘만 황의춘
<b>협동총무</b>	김동운 김영식 박사무엘 손인식 양춘길 유재송 이상진 이승중 이승태 장세운 정수용 조권행 조현배
<b>중앙위원</b>	강기석 강부웅 강재구 김성득 김영남 김영길 김원기 김은대 김의식 김정복 김풍운 민대식 박종만 손영호 손용억 송성자 양영배 오재호 윤사무엘 은춘표 이기우 이순정 이승재 이용창 이이삭 이희문 이종복 이훈경 정상균 정중진 조규현 진성인 최영기 최동필 한혜원 황규명 황은영

## 주강사



**김준곤** /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1958년에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창설하고 현재까지 대표 및 이사장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기독교학생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일으켜 온 김준곤 목사는 장로회신학교, 조선대학교(문학과), 미국 플러신학교 대학원을 거쳐 전북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남서침례교대학(미조리)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국가조찬기도회 창설, 엑스포로 '74, '85 준비위원장 및 주강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독교 21세기 운동 한국대표이사이다. 저서는 「성서조감」, 「요한복음 개론」, 「예수칼럼」, 「김준곤 문설집 전 6권」, 「김준곤 예화」, 「김준곤 명상」, 「김준곤 설교」, 「영원한 첫사랑과 생명언어」 등 다수가 있다.



**임동선** /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대표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임동선 목사는 서울신학대학, 숭실대학, 미북침례교신학을 나왔고 가주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로 철학박사,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대한민국 군중감으로 군복음화와 특수선교에 전념하였고 세계각국을 순회하며 선교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는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로 월드미션대학교/신학대학원 총장으로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절망의 극복」, 「스스로 개혁하라」,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등 다수가 있다.



**토마스 왕** / AD 2000 & Beyond Movement 국제디렉터

토마스 왕 목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11세 때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했고 15세에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1953년 대만의 감리교 두 곳을 목회하였고 국제전도자로 유럽과 전세계에서 사역하였다. 1989년 마닐라 로잔회의의 국제 디렉터로 임명되어 사역하였고 현재 2000년까지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대사명을 달성하도록 교회들을 독려하는 기독교 21세기 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의 국제 디렉터를 맡고 있다. 1989년 대사명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조지 버워** / OM 총재

OM 총재이며 국제선교대회 강사로 크게 활약한다.



**빌 브라이튼** / 국제대학생선교회 CCC 창설자 및 총재

국제대학생선교회(C.C.C.)의 창설자이며 총재인 빌 브라이튼은 70 노령에도 불구하고 두차례나 40일 금식기도를 강행하면서 18세기 중엽 조나단 에드워드 등을 통해 일어난 뉴잉글랜드 대각성운동과 19세기 말 D.L. 무디를 통해 일어난 제2차 대각성운동의 맥락을 이어 오늘날 북미주의 영적부흥과 세계선교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제3의 영적물결을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거목이다.





**김삼환** / 명성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를 졸업하고 서울명성교회를 설립, 장로교단의 굴지의 대교회로 성장시켰으며 특별히 새벽기도운동을 크게 일으켰다. 한국외항선교회 회장을 역임한다.



**이중표** / 한신교회 담임

한신교회 담임목사로 설교, 행정, 심방, 교육 등의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이중표 목사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별세의 지도자」와 다수의 저서와 「교회성장과 케리그마설교(논문)」이 있다.



**장영준** / 퀸즈장로교회 담임

총회신학교 본과 졸업 및 대학원 제1회 졸업, 미국 Central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 미국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ical 철학 박사를 수여하였고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회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미주기독교복방선교회 이사장, 미주기독교복음주의교회연합회 회장,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의장, 미주크리스찬신문사 사장, 미국동부 개혁장로회신학교 교장 등을 역임,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설립 및 현재 담임목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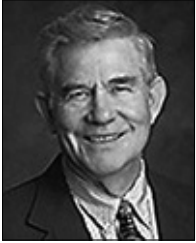
**하용조** / 온누리교회 담임

연예인교회를 1976년 창립하여 4년간 시무하였고 현재는 두란노서원 원장 및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용조 목사는 건국대학(축산가공학과), 장로교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저서로는 「정신차리고 삽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마태복음강해설교 시리즈 6권」 등이 있다.



**홍정길** / GBT 이사장

숭실대학교(철학)과 총회신학교(목회학)을 나와 1975년 이래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다 최근 은혜장애인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했으며 GBT 이사장, 연변기술대학 재단이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십계명 강해」,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다윗의 노래」,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외 7권이 있다.



**로버트 콜먼** / 트리니티신학교 세계선교대학 학장

현 트리니티신학교 교수와 세계선교대학 학장인 로버트 콜먼 박사는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도에 관한 교과서와도 같은 베스트셀러 전도의 마스터플랜 등 다수의 책과 글을 출판하였다.



**패트릭 존스톤** / 세계기도정보 저자

영국 버킹햄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C International Research Office의 대표로서 전세계를 다니며 선교에 동기부여와 전략수립, 정보수집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세계선교운동에 사전과 같은 Operation World(세계기도정보)를 제작하였다.



**루이스 부시** / D2000 & Beyond Movement 국제 디렉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브라질에서 성장하여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나온 루이스 부시 박사는 기독교 21세기 운동(AD2000 & Beyond Movement)의 국제디렉터를 맡아 2000년까지 모든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세계교회를 동원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조니 에릭슨 타다** / JAF 회장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선교단체인 JAF Ministires의 회장으로 1967년 자동차 사고로 인해 휠체어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살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후 긴 시간동안의 노력을 통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늘날 그녀는 미술가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바울선교회 회장

2,700명의 교인이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갱신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휘 목사는 한국신학대학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바울선교회 회장과 전주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정영관** / 서울중앙감리교회 담임

196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감리교회를 담임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해외선교단체협의회 회장, 아랍선교회 회장,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건국대 교목으로 사역하는 정영관 목사는 감신대, 연세대 신학대학원을 나와 풀러신학교에서 도시목회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저서로는 「증인이 되라」, 「산상 보훈의 축복 연구」, 「도심지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감리교 복음주의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도전」 등의 저서가 있다.



**림택권** / 필라델피아연합교회 담임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인 림택권 목사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필라델피아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총회신학교, 커버넌트신학교, 시카고신학교, 웨스터민스터신학교를 나왔고 저서로 「또 한번의 기회」 등이 있으며 시카고한국일보에 컬럼 「실로암」(5년), 크리스찬신문에 컬럼 「이런 삶에도 은혜가」를 연재하고 있다.



**김의환** / 총신대학 총장

영국칼빈신학교, 웨스터민스터신학교를 거쳐 템플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총신대학 교수, 미국국제신학대학(ITS)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1974년부터 나성한인교회를 창립하여 20년간 시무하다 현재 총신대학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저서는 「도전받는 보수신학」, 「성경적 축복관」, 「복음과 역사」, 「현대신학 개설」, 「기독교회사」,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등 다수가 있다.



**이상현** / 프린스턴신학교 교수

1980년부터 현재까지 프린스턴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재임 중인 이상현 박사는 1955년 도미 우스터 대학과 하버드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간주 호프대학에서 재직했다. 지난 15년 동안 북미주의 이민신학 정착과 2세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문구** / 한국선명회 총재

한국선명회(World Vision Korea) 총재



**빌 윌드롭** / 프린스턴신학교 교수

빌 윌드롭 목사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나와 미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있었고 후에 지휘관과 펜타곤에서 직책을 맡았었다. 고든콘웰신학교를 나온후 아틀란타에서 10년간 목회하였고 현재 미션 아메리카의 국제사역 조정자로 또 기독교 21세기 운동 (AD2000 & Beyond Movement)의 미국책을 맡고 있다.



**데이빗 브라이언트** / 기도함주회 창시자

세계기도함주회를 창시자이자 회장인 데이빗 브라이언트는 미국국가기도협회 의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그와 그의 기도팀은 부흥과 전도를 위한 도시별 기도회를 수백회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저서로 「손안의 희망: 21세기를 향한 미국과 전세계 부흥을 위하여」가 있다.



**상희민** / 성영락교회 담임

나성영락교회에서 담임목회로 목회하면서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 학장, 풀러신학교 이사 및 미주 복음방송국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을 거쳐 프린스턴, 토론토, 하버드를 나와 목회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 1968년에서 71년까지 에티오피아에서 교회, 병원사역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전호진** /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전호진 목사는 고려신학교를 나와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고 피어선신학교에서(현 평택신학교) 학장과 고신대학 교수 및 총장을 입양하였으며 현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및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교회와 선교 1,2집(편저)」, 「한국교회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선교학」,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아세아기독교와 선교전략」 등이 있다.



**정인찬** / 휴스턴한인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 신학박사(Th.D.)를 취득하였고 휴스턴한인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며 휴스턴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대백과사전(편저자)」, 「은사와 은혜」, 「젠센성경교재 시리즈」 등이 있다.



**서정운** / 장신대 총재

장로교신학대학, 미국칼빈신학교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서정운 목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5년간 사역하였고 한남대, 장신대 교수를 거쳐 현재 장신대 총장으로 재임중이며 저서는 「성서개설」, 「교회와 선교」 등이 있고 역서에 「현대선교신학의 동향」, 「성서적 교회 성장」 등 다수가 있다.



**이상남** / 한인등대교회 담임

한인등대교회의 이상남 담임목사는 매년 1회씩 한인등대교회 선교부에서 단기선교훈련으로 중국 연변, 소련, 칠레, 멕시코 등지에 단기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성결교신학대, 송전대, 서울신학대학을 거쳐 C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여러 책을 집필했다.



**고원용** / 애틀란타영락교회 담임

1975년부터 10년간 IMA 국제총무를 역임하는 동안 58개국을 순방하며 탁월한 선교활동을 벌였고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애틀란타영락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고원용 목사는 장로회신학교, 송실대학교(철학), 풀러신학교(선교학)를 나왔으며 국제선교신학교 학장, 그레이스맹인재단 이사장이다. 저서는 「교회성장학」, 「선교사명자 안내」, 「신앙성장의 과정」, 「계시록의 7인의 비밀」 등 다수가 있다.



**신홍식** / 태국 선교임

1971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선교사로 최장기 사역을 하며 태국기독교총회, 방콕신학원 부원장 겸 신학대학 원장인 신홍식 목사는 총신대를 거쳐 달라스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저서로는 「현대선교전략(역서)」, 「The Thought and Life of Hina yana Buddhism」,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as Luis Trated in Thai」, 「Theravada Buddhist Context」 등이 있으며 선교사역으로는 신학교육으로 현지인 교역자 양성 및 신학서적 출판, 도시교회(방콕), 개척지도 및 지원, 태국한인교회를 통한 교포선교 등이 있다.



**정진경**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일제강점기와 공산 치하,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질곡의 한국 근대사 속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켜온 정진경 목사는 서울신학교, 아주사대학, 예즈베리신학대학원을 나와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사역하였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공주성결교회로 시작된 목회는 신촌성결교회 은퇴하기까지 계속되었다.



# 선교전략회의 패널



**박종순**  
에장통합 총회장



**이원상**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임종표**  
케냐 선교사



**김유식**  
필리핀 선교사



**강성일**  
브라질 선교사



**정민영**  
WBTI 선교사



**김원호**  
터키 선교사



**조용중**  
필리핀 선교사



**오정현**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영진**  
나성한인교회



**정필도**  
부산수영로교회



**김종현**  
KACWM



**한정국**  
한국OMF 대표



**이태웅**  
필리핀 선교사



**서준택**  
평신도대표 공동대회장



**정인수**  
한국기독교21세운동



**김명혁**  
서울 강변교회



**배순호**  
사랑의교회선교위원장



**유효명**  
KWMC평신도운동



**김수웅**  
온누리교회 장로

## 선교보고 선교사



김은호  
필리핀 선교사



이재환  
감비아 선교사



이준교  
이집트 선교사



황윤일  
페루 선교사



김영자  
인도 선교사



김정웅  
태국 선교사



이은무  
싱가폴 선교사



김상욱  
가봉 선교사



탁수연  
무슬림권 선교사



정형남  
요르단 선교사



김재광  
러시아 선교사



이영호  
루마니아 선교사



이길소  
칠레 선교사



신종혁  
뉴질랜드 선교사

KWMC1996 일정

일시	7/22(월)	7/23(화)	7/24(수)	7/25(목)	7/26(금)	
06:00-07:00	<p>새벽기도회</p> <p>김삼한 하나님 나라와 세계선교 김은호/필리핀</p> <p>아침식사 / 친교</p> <p>경배와 찬양</p> <p>성경강해</p> <p>정인찬 출애굽기</p> <p>특수선교</p> <p>조니 에릭슨 타다 지체장애자 선교</p> <p>휴식</p> <p>주제강연</p> <p>패트릭 존스톤 세계복음화 동향</p> <p>박희민 2천년대 북미주 한인 선교사 천명 배출전략</p> <p>신흥식 한인선교사 사역과 전략</p> <p>점심식사 / 선교전시장 / 친교</p> <p>경배와 찬양</p> <p>선교전략</p> <p>저녁식사(4-6)</p> <p>개회예배 (6-7)</p> <p>개회선언 차현희 선교사환영사</p> <p>나운태 개회설교 정진경 성찬집례 방지일</p> <p>성찬설교 김우영</p> <p>영상메시지</p> <p>선교대회</p> <p>아시아의 밤 김영자/인도 김정웅/태국 이은무/싱가폴 김준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세계선교</p>	새벽기도회				
		김삼한 하나님 나라와 세계선교 김은호/필리핀	이중표 별세의 은혜와 세계선교 이재환/감비아	이상남 왕의 복음과 세계선교 이준교/이집트	고원용 초냉전시대의 세계선교 황윤일/페루	
07:00-08:10		아침식사 / 친교		북한을 위한 금식		아침식사 / 친교
08:10-08:30		경배와 찬양				
08:30-09:10		성경강해				
		정인찬 출애굽기	홍정길 이사야서	정영관 사도행전	하용조 요한계시록	
09:10-09:50		특수선교				
		조니 에릭슨 타다 지체장애자 선교	이윤구 세계선교와 구제사역	이상현 차세대지도자 양성	김의환 북한선교 전망과 전략	
09:50-10:00		휴식				
10:00-10:40		주제강연				
		패트릭 존스톤 세계복음화 동향	데이빗 브라이언트 세계기도와 기도합주회운동	빌 월드롭 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	로버트 콜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	
10:40-11:20		박희민 2천년대 북미주 한인 선교사 천명 배출전략	전호진 선교와 문화	이동휘 교회재정 60%를 선교로!	서정운 동반자협력선교	
11:20-12:00		신흥식 한인선교사 사역과 전략	루이스 부시 10/40창 지역 미완성과업	림택권 북미주한인교회 선교활동현황과 전망	빌 브라이트 21세기 기독교 지도자상	
12:00-01:30		점심식사 / 선교전시장 / 친교				
01:30-01:45		경배와 찬양				
01:45-03:00		선교전략			폐회예배 (2-3)	
		선교사의 날 2천년대 한인선교사 좌표설정과 협력모색 김유식 임종표 정민영 강성일 조성덕 조용중 김원호	미전도종족의 날 북미주한인교회 미전도종족입양전략 김영진 오정현 김종현 정필도 이태웅 한정국 정인수	선교사의 날 지역교회와 평신도 선교활성화 전략 이원상 서준택 유효명 박종순 김명혁 김수웅 배순호	설교 장영춘 축사 제임스 크라케빅 선언문 나운태	
03:00-03:30		개회선언 차현희	휴식 / 선교전시장 / 친교			
03:30-04:30		선교사환영사	선택강좌			
04:30-05:00		나운태	휴식 / 선교전시장 / 친교			
05:00-06:00		개회설교 정진경 성찬집례 방지일	선택강좌		지역별 모임	
06:00-07:30		성찬설교 김우영	저녁식사 / 선교전시장 / 친교			
07:30-08:00		영상메시지	경배와 찬양			
08:00-10:00		선교대회				
		아시아의 밤 김영자/인도 김정웅/태국 이은무/싱가폴 김준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세계선교	아프리카의 밤 김상욱/가봉 박상욱/케냐 탁수연/수단 조지 버워 성령의 역사와 세계선교	중동/공산권의 밤 정형남/요르단 김재광/러시아 이브루스/중국 토마스 왕 마완성과제와 세계선교	유럽/태평양의 밤 이영호/루마니아 이길소/칠레 신중혁/뉴질랜드 임동선 보내는 교회 가는 사람	





## 개회예배

개회선언/ 차현희 목사 대표대회장  
선교사 환영사/ 나운태 목사 공동대회장  
개회설교/ 정진경 목사 신촌성경교회  
성찬집례/ 방지일 목사 초창기중국선교사  
성찬설교/ 김우영 목사 분당만나교회

## 제석선교대회

아시아의 밤

사회/ 박형은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김성택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보고/ 이요한 선교사 T국  
선교보고/ 이태현 선교사 가나  
선교보고/ 김영섭 선교사 요르단  
특순/ 최경선 여사 메트로폴리탄성약가  
선교사 격려사/ 정희수 감독 UMC 감독  
봉헌기도/ 송만호 목사 KWMC 부의장  
성경봉독/ 이찬우 목사 KWMC 부의장  
찬양/ 선교사연합성가대 지휘/ 송규식  
설교/ 존 파이퍼 목사 Desiring God Ministries  
통역/ 전병철 목사  
"한인세계선교대회" 지휘/ 송규식  
축도/ 강준원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 [개회선언]

대표대회장 차현희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섭리와 경륜은 일찌기 1903년 주님의 이름으로 한인들 이 땅에 뽑아 보내시어 (요 20:21) 대망의 2000년대의 세계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삼으심을 믿고 먼저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나이다.

세계선교의 사명을 지상명령(마 29: 19-20)으로 받아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사랑하는 선교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을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들어 세워 21세기 세계복음화(주체)의 성역을 맡기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선교의 도구로 들어 쓰임받고 계신 존경하는 동역자들이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마 13:33)은 우리 민족의 고유적인 선교방법을 통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고난받는 왕국」(Suffering Kingdom)에 살고는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세계선교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딤후 4:7-8)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 제3차 선교의 장은 21세기의 창을 내다보며 복음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원한 Vision이 창출되고 제시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 앞에 서었습니다.

우리는 모였고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껏 사귀며, 대화와 나눔을 가짐으로써 선교정책의 모색은 물론, 자기분석을 심도있게 다루며 비판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세계선교사역의 지체인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끝까지 함께 계시는(마 28:20) 주님을 모시고 그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데 죽도록 충성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하오며, 본대회의 최고의 대회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 [선교사 환영사]

공동대회장 나윤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이며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96년도 대표의장인 나윤태 목사는 서울신학대학, 국제대학, 국제신학대학을 거쳐 맥코믹신학교(인디애나)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C&MA 교단 한인총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시카고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저서는 「이민교회의 구역개편」 등 다수가 있다.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개최함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오신 동역자와 북미주에서 수고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젊은 역군들! 그리고 선교사역에 충성을 다 바치는 평신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의장단과 시카고 준비위원회 그리고 시카고 교계를 대표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120개국에 흩어져 몸바쳐 충성하는 사천여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금번 이 대회에 참석하신 800여 선교사님들을 벅찬 가슴으로 감격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급변하는 격동기에 살면서 최악으로 질주하는 범죄와 퇴폐문화는 수정할래야 할 수 없는 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명령을 바로 인식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한민족을 사랑하사 시대적 선교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모인 만큼 하나님께서 금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는 바입니다.

## 선교대회 7대 목표

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긴박성 재천명
2. 한인세계선교운동의 영적쇄신과 재무장을 위한 성령폭발
3. 한인세계선교역량의 결집과 동반자적 협력선교의 대광장
4. 2000년대 한인선교사의 좌표설정과 범세계적 연대성 형성을 위한 공동모색
5. 2000년대 북미주 한인선교사 1000명 파송을 위한 대학생청년선교운동의 기폭제
6.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한 평신도선교운동의 활성화
7.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을 위한 북미주한인교회 300 미전도종족 입양운동과 총체적 북한선교운동의 교두보 구축
8. 그리고 「세계선교비상기도운동」 제창

이러한 선교의 정책, 방법, 협력, 추진 등의 방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3세계 교회지도자, 선교사,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책임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이 모인 만큼 이러한 협력방안이 모색될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대회는 성령님의 인도로 불기둥과 같은 뜨거운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대회가 되기를 염원하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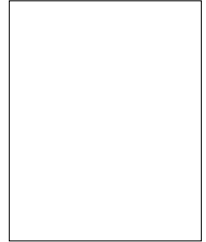
[개회설교]

신촌성경교회 원로 **정진경**



[성찬설교]

분당만나교회 **김우영**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인도 선교사 **김영자**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태국 선교사 **김정웅**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싱가폴 선교사 **이은무**



#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세계선교

## [저녁선교대회 설교]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및 이사장 **김준곤**



1958년에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창설하고 현재까지 대표 및 이사장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한반도에서 기독교대학생 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일으켜 온 김준곤 목사는 장로회신학교, 조선대학교(문학과), 미국 플러신학교 대학원을 거쳐 전북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남서침례교대학(미조리)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국가조찬기도회 창설, 엑스포로 '74, '85 준비위원장 및 주강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독교 21세기 운동 한국대표이사이다. 저서는 「성서조감」, 「요한복음 개론」, 「예수칼럼」, 「김준곤 문설집 전 6권」, 「김준곤 예화」, 「김준곤 명상」, 「김준곤 설교」, 「영원한 첫사랑과 생명언어」 등 다수가 있다.

### I. 전도, 신앙의 이유 동기

복음은 최대최고의 기쁜 소식임(눅 2:10). 유앙겔리은의 뜻. 금생과 내세의 복되고 기쁜 소식

### II. 주님의 대명령(마 28:18-20, 행 1:8)

두 가지 최후의 대명령은 전도, 사랑

### III. 유일의 구원(요 14:6, 행 4:12, 롬 3:23)

전도의 신앙과 신학은 개혁주의적인 전도의 신앙과 신학을 고수해야 한다.

Sola Fide  
Sola Gracia  
Sola scriptura  
Sola Christos

기독교 인간론의 3대 원칙

- 1)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생자이다. 지음 받았고 삶을 입고 있다.
- 2) 죄인의 삶 -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적대하며 유형 무형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따라서 영치가 되고 영사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진노 하에 있다. (롬 8:1-6)
- 3)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일의 구주이다. (요 3:16)

### IV.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벧후 3:9, 딤후 2:4)  
크리스찬은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고전 1:21)  
지열매(갈 5:22-23)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도, 구령의 열정이다. (요 15)

### VI. 지금은 종말론적 비상전도의 시기이다.

종말론의 징조는 도처에 있다.

- 1) 천문학적 종말
- 2) 생태학적 종말
- 3) 생화학적 전쟁의 종말
- 4) 도덕적 종말 (도덕적, 인간적)
- 5) 심리학적 종말
- 6) 묵시록적 종말

기독교 역사관의 세가지 극점

- 1) 창조
- 2) 십자가
- 3) 재림

### VII. 한국교회 21세기의 도전과 전망

- 1) 기독교 인구의 25% 벽을 깨고 70년대의 부흥이 다시 한번 폭발해야 한다.

70년대 10년간 400%의 교회성장이 일어났고 국가적으로는 980%의 경제성장이 일어났다. 지금의 성장의 정체와 감퇴현상이 나타났음.

2)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면 비서구권에서 최초의 복음화된 7천만 통일민족, 삶과 인간의 질이 중생한 거룩한 백성이 된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3) 북한은 김일성 절대 유일사상사로 가짜 메시아에 의해서 (반면교사) 복의 영토가 조성되어 있다.

모국교회와 재미한인교회가 조직적으로 협력해서 교파싸움을 지양하고 10만의 대학생의 양손선교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해야겠다. 지금부터 지역별, 직능별 기도 입장을 해서 준비해야겠다.

"집 몽고메리의 DOWN2000"이나 중국의 7천만 교인이 가정에서 자비량으로 모이는 신약교회 같은 모델이 처음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 큰 교회는 한 교회가 한 교회 세우는 캠페인도 필요하다.

4)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사회적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다.

5) 한국교회의 기도자원, 인적자원, 재정자원이 세계선교를 위해 최대한 쓰임 받게 해야 하겠다.

### VIII. 재미한인교회의 책임과 도전

100만 한인교포는 왜 미국에 있는가?

- 1) 안디오교회의식과 제2의 청교도의식을 일깨우자.
- 2) 100만 교포 신자화 운동을 위한 조직과 기획과 전략을 세우자.
- 3) 한인2세의 세계선교자원화 계획을 세우자.
- 4) 이민종족의 정체성 확립, 유대인이 모델이다. 정체성의 요소들.
  - ① 언어 ② 종교 ③ 도덕성 ④ 상부상조 단결성
- 5) 교회가 그 중심이 되기 위한 운동체가 필요하다.
- 6) 이벤트를 기획할 것.
  - ① 여성기도꾼들을 교회 단위, 도시 단위, 전국 단위로 가동할 것
  - ② 목사님들의 조직과 모임의 이벤트
  - ③ 전교인 전도인 훈련
  - ④ 실업인들, 전문인들 조직화

⑤ 십대와 학생들 총동원, 전미주 수련회, 헌신대회 구상

"Missionary 교회" 아닌 교회는 주님 재림 때 "Missing 교회"가 된다고 한다. 교회마다 두 목사님 섬기자 한 분 담임 목사와 다른 한분은 선교사 목사님...

선교하는 만큼 교회도 민족도 부흥한다. 열 두 제자 중에 선교사 아닌 사람은 유다 한 사람뿐이었다.





## 새바람기도회

선교도전/ 김은호 선교사 필리핀  
설교/ 김삼환 목사 서울 명성교회

## 성경강해

강사/ 정인찬 목사 휴스톤한인교회

## 주제강연

특수선교 강사/ 조니 에릭슨 타다 JAF Ministries  
주제강연 I 강사/ 패트릭 존스톤 WEC International  
주제강연 II 강사/ 박희민 목사 나성영락교회  
주제강연 III 강사/ 신홍식 선교사 태국  
선교전략 강사/ 김유식 선교사 필리핀  
임종표 선교사 케냐  
정민영 선교사 위클리프  
강성일 선교사 브라질  
조성덕 선교사 소말리아  
조용중 선교사 필리핀  
김원호 선교사 터키

## 제약선교대회

사회/ 김영진 목사 나성한인교회  
선교보고/ 김상욱 선교사 가봉  
선교보고/ 박상묵 선교사 케냐  
선교보고/ 탁수연 선교사 수단  
설교/ 조지 버워 OM 총재  
통역/ 강세대

## 하나님 나라와 세계선교

### [새벽기도회 설교]

서울명성교회 담임 **김삼환**

장로회신학대를 졸업하고 서울명성교회를 설립, 장로교단의 굴지의 대교회로 성장시켰으며 특별히 새벽기도운동을 크게 일으켰다. 한국외향선교회 회장을 역임한다.



## 출애굽기에 나타난 선교

### [성경강해]

휴스턴한인교회 담임 **정인찬**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 신학박사(Th.D.)를 취득하였고 휴스턴한인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며 휴스턴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대백과사전 (전 8권 편저자)」, 「은사와 은혜」, 「젠센성경교재 시리즈」 등이 있다.



### 서론( Introduction)

마르틴 노트(Martin Noth)교수는 그의 출애굽기(Exodus)에서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 (Heilsgeschichte)의 의미 이상을 가지며 하나님 선교의 선교사적 (History of Mission) 의미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말하지만 선교의 역사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출 1:8)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그 왕은 요셉이 섬기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믿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 하리라" 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I will be that I will be"(출 3:14)임을 그 백성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 됨을 알리는 하나님 선교(Mission Del)를 하신 것이다. (Mencil: the book of Exodus) 이  
하나님 선교는 십계명을 주신 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과 성막의 건축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십계명은(출 20:3-17)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이방 나그네(출 23:9)와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지켜야 할 계명이었다. 동시에 유월절(출 12:48)을 지키는 일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할례만 받으면 타국인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새 유월절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절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하는 절기였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한편 성막의 건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장막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신약에 와서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그 개념이 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전 인류로 확대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을 단지 구속사적 개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교사적 개념에서도 보아야 한다. 이제 4장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선교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 이교도인 바로의 도전과 모세의 하나님 선교

빅둠(George F. Vicdom)은 '하나님 선교'(Mission Del)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그는 그 책에서 "선교는 이교도들과 큰 싸움으로 시작하였다"고 하였던 것처럼 모세는 이교도인 바로와의 싸움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선교사역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호켄다이크(Hoekendike J.C)가 말한대로 이런 싸움에 누구를 보내며, 어디로 보내며, 왜 보내며, 무엇을 위해 보내며, 언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누구를 보낼 것인가

출애굽기 3: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압박 밑에서 구출해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한 정치적 세력을 가진 바로와 싸워 이길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바로와 대결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광경을 보게 하시고(출 3:3) 그다음으로는 신을 벗게 하시고(출 3:5)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다(출 4장).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을 주시고 선교의 도구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세우신 후 그다음에 능력을 주셨음을 볼 수 있다

### 왜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바로와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명도 있었다.

바로와 모세에게와 그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 계셔서 역사함을 보고 결국 굴복하고 만다. 출애굽기 8:28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며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만다.

오늘날도 선교를 할 때 많은 이교도들의 지도자들과 정치적 권세를 가진 바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17세기 초 화란 개혁과 신학자인 보에티우스(Voetius)는 그의 명저 "Politica Ecclesiastica"에서 선교는 1. 이방인의 회심, 2. 교회성장과 확장, 3.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서까지(출 9~11장) 회심케 하셨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출 12~14장)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하였다.(출 25~40장)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에게 임함을 보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다.

역압받는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선교사는 보내져야 하는 것이다.

윌리엄 케리는 한 때 울부짖는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 따라 보내져야 한다고 하였다.

### 무엇을 위해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백성을 육체적 정신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 선교사로 쓰시고 세계의 새 언약의 일군으로 쓰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 언제 보내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선교의 시간은 이른 법이 없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 빠른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가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리빙스톤이 마태복음 28:20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선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에 대한 것이다.

### 정치적 사회적 도전과 하나님의 선교열심

'열심히' 라는 용어는 Enthusiasm이다. 이 말은 "Into God" 곧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열심히 난다는 말이다. 바클레이는 출애굽기를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이끌어 내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였다고 하였다.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를 쓴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는 저서에서 "역사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 긍정적으로 대응한 백성은 살아남았고 부정적으로 대응한 백성은 소멸하였다"고 하였다.

더욱이 기독교는 항상 어떤 정치적 또는 사회적 도전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해 왔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죽는 것 같아도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세계 여러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는 항상 억압을 받을 수록 더욱 창대 번성하였다.

출애굽기 1: 12철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 정치 사회 억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였다. 선교의 도전은 사명자를 더 강하게 하고 그 백성을 더욱 강하게 했다는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문화적 도전과 유일신 사상

선교학의 아버지 맥가브란(McGavran)교수는 출애굽의 구속사 신학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자유가 문제였다고 하였다. 헨리 패트릭(Henry Patrick)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할 것같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기가마와 그들의 잘 익은 떡을 자유로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문제였다.

더욱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문제였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왕중의 하나님(God of Kings)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신중의 하나님(God of gods)의 의미이다.

모든 신은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 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유일신앙을 모세는 강조하였다. (Monotheism) 그러나 그 사회는 우상과 물질주의가 만연하였다. 애굽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우상의 도시였고 사회 또한 부패해 있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동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잊어 가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일신 신앙으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올브라이트(Albreit)교수는 그의 저서 구약신학에서 모세는 유일신 선교를 위해 선택받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하였다.

### 애굽에도 여러 계층의 종교사상이 있었다.

첫째는 무신론(Atheism)자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상류계층으로 바로를 신격화해서 황제숭배 사상을 백성들에게 고취시켰다. 폰 라드(Von Rod) 교수도 그의 저서 구약성서 신학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로의 신격화를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술사들의 술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보여 주었다. (모세의 지팡이 능력, 손의 회복, 애굽강의 피)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는 자들이 아니요 인간을 신격화하여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 놓은 것이다. 폰라드 교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황제 숭배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고행과 박해가 더욱 컸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우리는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인본주의 때문에 선교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음도 사실이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신은 없고 인간 같은 신은 있다는 사상이라고 폰라드 교수는 지적하였다.

다음은 다신론(Polytheism) 사상이다.

다신론은 신이 둘 이상 있다는 사상이다. 애굽에는 남신과 여신까지 믿어 다신론이 만연하였다. 아이히로드(Eichrod)는 그의 출애굽 강해에서 애굽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믿을 수 없이 다신론을 주장했으며 그들의 종교문화에서 그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여자를 신격화하여 아텐의 여신상 같은 여신상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을 믿었고 이 유일신 사상은 다신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범신론(Pantheism) 사상이다.

범신론은 모든 물질에 신의 속성이 있다는 사상이다. 바로는 애굽의 박사들과 술사들을 수시로 불렀고 그들은 술법을 행하였다. 그리고 모세와 대결하게 하였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범신론에 빠진 자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범신론에 빠진 자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오른 서이에 금송아지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은 그 금송아지를 부수기에 충분했다.

폰라드 교수는 말쏠의 능력도 그렇게 컸거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컸겠느냐고 덧붙였다. 애굽의 우상문화 인본주의 문화 세속문화 더 나아가서 물질문화의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신 사상은 억제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좋아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다. 신약에서도 g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따로 준 적이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 문화와는 정반대 되는 문화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는 애굽에서의 유일신 신앙을 전한 모세와 그 백성과 같음을 상기 하여준다.

선교는 한 사람의 Non-Christian을 Christian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하는 것을 말한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교수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아무리 강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도 그리스도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며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의 기독교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였다.

## 대적의 영과 성령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History가 아니라 일한다는 의미의 역사(Work)를 말한다. E.H. Carr는 그의 역사 연구에서 역사는 보는 역사와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세속역사(Secular History)는 인간이 일한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한 역사라고 하였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한 역사는 대적의 영들과 싸운 성신의 역사였다. 올브라이트(Albright)교수는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바로의 왕권의 압박보다 그 속에 역사한 악령의 역사가 더욱 컸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 고통과 두살 아래 아들을 죽이는 박해보다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막는 일이었다고 하였다.

이사야에서도 애굽은 육이요 그 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주석가 벵겔(Bengel)은 그의 출애굽 주석에서 "모세의 바로와의 대결은 왕권과 모세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의 부린 악



령과 하나님 영과의 대결이었다고 하였다. 뱁겔은 다음 4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적의 영을 물리치셨고 모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모세가 본 떨기나무 가운데의 불꽃사건이 그 첫째다. 하나님은 바로가 부린 악신의 불은 꺼질 것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였다. 둘째 술사들과의 대결 사건이다. 애굽의 술사들이 부린 악령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훨씬 강하여 그들을 제압하였다. 셋째로는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다. 바로 왕의 말(Speaking)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셔서 쓴 십계명의 말씀(Word of God)의 권능은 더 컸다고 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막 사건이다. 바로의 궁에는 악신의 운동장이었으나 성막 안에는 성령의 전이었으며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났다.

오늘날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의 왕권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같이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왕권과 교권과 세력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선교의 주역인 역사에 의한 선교의 길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선교의 주인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 결론

출애굽기(Exodus)는 구속사적(Heilsgeschichte) 의미에서 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Mission Dei)와 그리스도 선교(Miscio-Christ)에서도 보아야 한다.

선교는 아무 도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더 나아가서 영적 도전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듯이 지금도 선교의 역사는 진행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 될 것이다. 바로의 술사들과 그 왕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모세의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무릎을 꿇은 것 같이 이 세상 정치권과 이교도들의 세력과 세속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선교의 새 역사를 막을 권세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선교 주역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최후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 Church Growth: What Does God Want?

### [특수선교]

### JAF Ministries 회장 조니 에릭슨 타다

Joni Eareckson Tada 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JAF Ministries, an organization accelerating christian ministry in the disability community. A driving accident in 1967 left Mrs. Tada a quadriplegic in a wheelchair, unable to use her hands. She Spent long months learning how to paint, holding a brush between her teeth. Today, she is an internationally known mouth artist.



Over the phone, I could hear the puffing and wheezing of Lori's respirator as she labored to speak between breaths. "Joni, I don't see why God ...is putting me through ... all this suffering ... Why doesn't He just .. take me home ... now?" I leaned my head against the receiver and wondered, for the thousandth time, what to say. Lori was a 21 year-old woman who became severely paralyzed as a result of an accident six years ago.

In that time Lori had been shifted from one hospital to another. The doctors have done all they can and now they are deliberating over where to send her next.

Lori's parents can't take her in. Independent living centers for people her age are overcrowded with long waiting lists. The only option? A nursing home.

"I'm a Christian," Lori continued, interrupting my thoughts. Why do I ... have to go through all ... this?"

Lori's question is not for Lori only. It's ours. However, questions like Lori's lose their academia when couched around the struggles of someone like her who is thrust out into a no-man's land where most believers are rarely placed.

What is God's purpose for the "Lori's" in our communities? The Korean World Mission'96 conference asks, "Do we care about the marginalized groups in society?" In other words, do we care about people like Lori, the disabled people in and beyond our church? And not only those with disabilities, but those who are poor, elderly, orphaned or sick. If we are to share Christ's heartbeat for people, we must care.

But "care" has sometimes carried with it a pity the poor unfortunate" way of viewing the plight of these people. This is why I want to turn the question around. Instead of asking what "we" can do for her", let's examine how Lori's struggle serves not only her, but the church at large. Persons who are consigned to the fringes have something to say to us; they have something to teach. And God, for the sake of His Son's body, wants us to listen.

So let's allow Lori to "speak" to us for a moment. What, from her example, does God want us to hear? What can she show us about church growth? I touched on this when I talked with Lori on the phone. I told her the story of the apostle Paul who, with his disability, also groaned and was burdened in an earthly tent falling apart at the seams. He, too, desired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But!" as the apostle said in Philippians 1:24. "but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that I remain."

God is not ready to take her home yet. She may think it's for better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but, as I told her on the phone, "it is more necessary that you remain. As long as you remain in the body, Lori, your family and friends can learn a thing or two from that handicapping condition of yours."

It's for the sake of the Father's house that He desires to people it with disables to people it with disabled individuals like Lori Disabled people and, for that matter, anyone who we might consider the "least, the little, the last, the unlikely, or the unlovely" do more for the spiritual wellbeing of a church than they, or a congregation can imagine.

Yes, for the sake of the modern church in this culture of comfort, I am glad that God has not taken Lori home. It's for the Church's benefit that not only disabled people remain but that the church learns a thing or two about itself and about God when the Father's house is full of wheelchairs and white canes. So, what can the church learn?

First, God wants those who face lesser conflicts to learn powerful lessons from those in greater conflict who experience the grace of God. Lori, who faces far more many problems than me, a quadriplegic, teaches me how to handle my own paralysis. I learn something about God's ability to sustain from observing her. Margaret Clarkson has put it this way, "Perhaps the greatest good that suffering can work for a believer i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his soul for God. The greater our need, the greater will be our capacity; the greater our capacity, the greater will be our experience of God. Can any price be too, much for such eternal good?"

Lori's life speaks volumes to believers in the modern church who are infected with a spirit of complaint as a result of living in our culture of comfort. But when a person prone to complaint looks at someone like Lori, they understand 1 Corinthians 12:9 in a whole new way. "God's power is made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The church forgets this powerful truth until it observes the truth magnified in the life of a ventilator-dependent quadriplegic in a wheelchair.

"That is why", I said to Lori, quoting the rest of 1 Corinthians 12, "That is why for Christ's sake you can delight in perfect in weaknesses, in insults and in hardship, in difficulties... but when you are weak, then you are strong." Believers who are disabled remind us all that if God's grace can sustain a quadriplegic on a ventilator, or a single mother handling an autistic teenager, and sustain her with grace, then we all ought to be "boasting" in our affliction and "glorifying" in our weaknesses.

And the greater the number of "Lori's" in our churches,

the greater the opportunity for those who face lesser conflict to learn this powerful lesson. The world already known this. When I was in Oklahoma City the week the Federal Building was bombed and 168 people were killed, I was required to go to the American Red Cross center to receive my volunteer badge in order to gain access into the family center. When I wheeled up to the volunteer table, a woman in a white coat exclaimed, "My God, am I glad to see you!" I learned she was the mental health supervisor for the national office of the American Red Cross. When I asked her why she was so excited to see me, she explained, "we need people in wheelchairs to volunteer. Because when a family in crisis comes into this center, it helps them to see someone like you handling your own personal crisis. Your example speaks volumes."

As I left with my badge, I commented to my friend, "I wish the church would say to disabled people who wheel through the front door, "Thank God, are we glad to see you!" It's the power of example. This is one way that a marginalized person such as Lori can enrich and strengthen the rest of the body of Christ.

Another lesson: Welcoming a person like Lori into the body of Christ is like presenting God sacrifices of praise. Nothing pleases Him more. How so? For example, if a person with severe cerebral palsy baked you a birthday cake, it would probably mean more to you than the efforts of an able-bodied person who did the same thing. Why? Because you would know that the gift from the handicapped person involved cost and sacrifice.

I think about this when my husband and I attend worship services in our own church. Eleven-year-old Vicky has cystic fibrosis and when I watch her sing,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I can't help but think how her feeble song gives God great glory. She fights for each breath; and to sing praise to God, for her, involves cost and sacrifice. This pleases the Lord. And this teaches the rest of us how to present a genuine "sacrifice of praise"

wrenched from our own painful circumstances.

Another lesson: The Christian witness of someone like Lori prickles unbelievers. And that's good! For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to shame the strong. He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 - and the things that are not - 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When people like Lori aspire to show faith, then through their weak and despised striving, unbelievers are shamed and their boasting is nullified. Disabled people can do that, and the body of Christ benefits.

Thank the Lord, there is no shortcut for Lori. Her striving helps the church, makes the church a stronger body reminding them, "Broth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s; not many of you were influentia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We all are stronger when we recognize our weaknesses; we all are richer when we understand our poverty; we become fat on God's grace when we recognize our empty-handed need of Him.

Question! Does this make a person with a disability just a utilitarian audiovisual aid in the hands of God? Is Lori nothing more than an object lesson from which others can learn? No way. What others gain from watching this disabled woman is being credited to Lori's account I believe this is what the apostle Paul meant when he said in Philippians 1:25: "Convinced of this, I know that I will remain and I will continue with all of you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 so that through my being with you, your joy in Christ Jesus will overflow on account of me."

What others gain from observing Lori gets credited to Lori's eternal account listen to II Corinthians 1:5-6, "For just as the sufferings of Christ flow over into our lives, so also through Christ our comfort overflows. If we are distressed, it is for your comfort and salvation; if we are

comforted, it is for your comfort, which produces in you patient endurance of the same sufferings we suffer." It's one way in which someone like Lori produces fruit in the lives of others. It's the old principle of John, chapter 15: When a disabled person remains in the Vine, the Lord will bear fruit in the lives of others through that disabled person. And as it says later on in the chapter, "This is to the Father's glory that we bear much fruit."

Yes, it's all being credited to Lori's eternal account. What a weight of glory is being accrued in heaven when she decides each day that it's worth "fighting on." What's more, it's all to the Father's glory. Take a look at Romans 8:17,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In other words, believers who face the greatest conflict, yet remain faithful, have the greatest confidence of sharing in Christ's glory.

This is good news for every severely disabled person who thinks his life doesn't count ... who thinks his usefulness is over ... who thinks there's no purpose for the wheelchair or the mental impairment. For God considers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And what an eternal weight of glory is being amassed for Lori!

I said this to Lori on the phone: "If you remain faithful, despite the odds, it helps people like me more than you'll ever know. The facts that you hang in there ... does something for the rest of us Christians. I'm not talking about you being an inspiration. It's more than that ... it's a mystery. God somehow strengthens others by your faithfulness."

Praise the Lord that He delights in making the Father's house ful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would to God that the church understood the valuable asset of a congregation cluttered with white canes, walkers, and wheelchairs. Little wonder that Jesus made such a point

of inviting the deaf, the blind, and the lame to the banquet He had in mind to fill up His Father's house.

And He had in mind people like Lori to serve as living examples of just why the good news sounds so good.

Disabled people may as well paste a bumper sticker on the back of their wheelchair for all to see. A sticker that reads: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The church needs to see flesh and blood wrapped around this verse. The body of Christ needs to see a truth like this "work" in the life of someone - and no one is more visual than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The conversation I had with Lori occurred many years ago. A short time ago, I was speaking at a disability confer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fter my message, I heard someone wheel up behind me. I also heard the huffing and puffing of a ventilator. Immediately I knew it was Lori. I could tell from her smile that she recognizes her value in the church -- and not so much for her benefit but for the benefit of others. No longer does the church look at Lori and "pity the poor unfortunate." The church now understand the meaning behind Christ's words in Luke 14 When He says "Bring the disabled in ... and you will be blessed."

Lori realizes that it is more necessary for us, for her family and friends, for her church ... for me ... for you ... it is more necessary that she remain and not depart to be with Christ. There are too many lessons which yet need to be learned. Too many people in her church need to learn about God from her handicapping condition. Lori and thousands like her are the most powerful apologetic, God's best reason for something called... disability ministry." God willing, may each church represented at KWM'96 have people like Lori sitting in the aisles.

It would be a sacrifice of praise to God and a service to people in the church. If you don't believe me, ask L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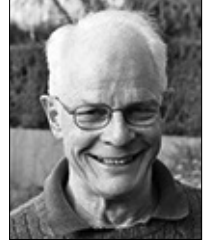


# Trends in World Missions

## [주제강연]

WEC International Research Office 대표 **패트릭 존스톤**

영국 버킹햄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C International Research Office의 대표로서 전세계를 다니며 선교에 동기부여와 전략수립, 정보수집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세계선교운동에 사전과 같은 Operation World를 제작하였다



### Introduction

My background as missionary, mission leader, author in evaluating the world situation

My ministry : to encourage with what God is doing in the world and that we have a finishable task to challenge that we finish world evangelization as soon as possible.

We are a privileged people. Never before has any generation had such a real prospect of actually seeing the fulfillment world evangelization. The tragedy is that few Christians realize this and miss the sense of privilege and awe that God has called us into the Kingdom for such a time as this. The clever schemes of the enemy have made missions seem irrelevant or unimportant to the average congregation and Christian.

We are also an accountable people. It will involve costly commitment, wholehearted resolve and sacrificial co-operation if we are to achieve this in our generation.

My basis for sharing: The statements of the Lord Jesus Christ in Matt 24:14 concerning world evangelization.

### 1. Unprecedented global church growth-but not everywhere.

The WILL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The definiteness of the Lord Jesus Christ' sword -even in the midst of the global chaos He has just described (Matt

24~ 13). It WILL happen; nothing will stop it, though I believe our disobedience delays it

#### 1) The encouragements

##### a. The 200-year expansion of Protestantism

1792-1850 Denominational missions to the Coastlands

1850-1910 Faith Missions to the Inland areas

191~ 1970 International Missions to the Countries of the world

1970-present Global Missions to the Peoples of the world

##### b. The 30 years of Evangelical growth

The Great Congresses- Berlin, Lausanne, GCOWE

##### c. The decades of growth:

- The '60s for Africa, the '70s for Latin America, The 80's for East Asia, The '90s for Eurasia

- The Future breakthroughs- Islam?

##### d. The Global plans for world evangelization

- David Barrett's book 700 Plans for world evangelization.

- Thomas Wang's message "Is God saying something to us?"

- The birth of the AD2000 and Beyond Movement

- The networking for global plans:

- The Radio Missions and their plans for every language spoken by over 1 million by 2000).

- The Bible translation Missions and plans for every language spoken by over 100,000 people.

- The Jesus Film plans for every language spoken by over 75,000.

· The Saturation Church Planting/DAWN Movement and plans for nations of world.

e. The collapse of ideologies

· Communism- challenge of Brother Andrew, '84 for a 7- year prayer warfare to bring down the Iron Curtain, Islam - The surprising impact of fundamentalist Islam on increasing the number of converts to Christianity.

· Buddhism- discredited in Sri Lanka, on defensive in S.E. Asia,

· Hinduism - Religion in politics in India, the turning to God in Nepal

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s with a witness this century.

Many examples: The Kurds, The Tuareg, The Kabyle, The Iranians, The afghans, Indonesia

2) The Challenges.

a. The West; The emerging post- Christian society with its secularism, "tolerance", New Age world view. The loss of confidence that the Gospel is the ONLY hope of humankind. The loss of vision, people, and enthusiasm for missions. The need for the re-evangeliazion of Europe.

b. The 10/40 Window region. Islam, Hinduism, Buddhism -the major challenges.

2. Unique message- but it is often compromised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message that changes lives, that gives eternal hope, that is worth dying for.

1) The popularization of Evangelicalism,

· A plea for evangelical success not to allow a watering down of the content of the Gospel The astonishing growth of Evangelicalism in the world since 1960.

· The danger of shallow teaching, easy-believism, doc-

trinal fads.

· We need to restore to our people the power of the Gospel the glory of the Cross, the joy of the Christian Hope, the essentiality of missions.

· The teaching of the whole councils of God is also part of the Great Commission -Luke 24:45-49.

2) The syncretization of the Biblical message.

· The West- with materialism, The preoccupation with material things even in missions

· Africa and Latin America - with paganism,

· South Asia -with Hinduism,

· East Asia - with Buddhist works and Confucian ancestor Veneration

The loss of confidence in the uniqueness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message of the Gospel; a creeping universalism that is afflicting the West and South Asia, Tolerance is very intolerant of any absolutes.

3) The building of empires rather than the Kingdom

· Denominationalism, isolationism, personality worship among Christians are a sad characteristic of much Christian work today - examples: what Christians did in the Eurasian Communist Bloc with the collapse of doctrinaire Communism,

· A plea for Co-operation - the trend of the future. The networking now the major source of effective long-term missionary endeavor.

3. The unprecedented clarity of our information-but it is not being used enough

· The broad and total double coverage of the world required by the Lord Jesus Christ.

· These fit the basic Mark and Matthew versions of the Great Commission

1) Global- Mark 16:15 : Preach the gospel to every person, The Evangelism challenge.

- a. The Evangelized and the unevangelized. How many have never heard?
- b. The 10/40 Window and what it means to us today.
- c. The Countries with the fewest Christians.
- d. The provinces and districts with the fewest Christians.

2) Ethnic-Matt 28:19: Make disciples of every people. The church planting challenge.

- a. The 12,000 peoples in the countries of the world
- b. The 12 Affinity Blocs
- c. The 140+ Gateway peoples
- d. The Joshua Project
- e. How close are we to seeing a church planted in every people in the world?

4. The exciting global mobilization for missions -but not always in partnership.

- The challeng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there be preachers and testifiers.
- The eras of mission endeavor - Early Church 100-400, Celtic Church 400-800, Eastern Churches 800-1300, Roman Catholics 1300-1800, Protestants 1800-20XX). The last 15 years - Missions go global.
- Recent surveys: Larry Keyes, Larry Pate, Operation World.
- The impact of Pacific, African, Latin American, and Asian missionaries on the world.

The lessons we must learn:

- a. We must work together. Partnerships are the wave of the future. We are funning out of countries and even peoples. The time of the lone ranger missionary is past.
- b. We must learn to handle cultures and multi-cultural teams

c. We must share resources, skills, information

d. We must plant th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not our own denomination or culture.

5. The finishability of 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 - if we commit ourselves to it.

The end and world evangelization are intimately linked. Jesus will return when the job is done. What can be achieved by the year 2001? The need for every Christian, theological training institution, congregation, denomination to be committed. The cost is great - What that cost will mean in time, money, pain, loss, death - that life may come to others. Let us be willing and eager for this! We want Jesus back as soon as possible! We therefore want, by God's grace, to finish the job He has given us!

# 1000명 선교사 파송전략

## [주제강연]

나성영락교회에서 담임 **박희민**

나성영락교회에서 담임목회로 목회하면서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 학장, 풀러신학교 이사 및 미주복음방송국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을 거쳐 프린스턴, 토론토, 하버드를 나와 목회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 1968년에서 71년까지 에티오피아에서 교회, 병원사역으로 봉사하기도 했었다.



## 서론

4년후면 21세기가 시작된다. 21세기는 환태평양시대로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더욱 커지며 선교 리더쉽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거기에 발 맞추어 한인이민교회의 세계선교의 사명과 리더쉽이 확대되리라 생각된다.

성경에도 예루살렘교회가 유대주의에 갇혀 안디옥 교회에 세계선교의 리더쉽이 옮겨져 이민 2세인 바울에 의해 이끌어졌듯이 cross-culture와 세계무대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1세와 2세들에 의해 크게 주도되는 시대로 전개될 것이다.

## 본론

지난 1년간 영락교회가 Center for Korean-American world Mission에 의뢰하여 조사 연구한 리서치에 의하면 2000년대까지 1000명의 Korean-American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mobilize하느냐가 큰 문제이다. 현재 미국 신학교에 등록된 한인학생이 약 2000명, 한인신학교에 등록된 수는 3000명 알바니아에 다녀온 젊은이가 93년도에 2000여명, 미션 퍼스펙티브 코스를 마친 젊은이가 500여명, 88년도 제1차 한인 선교대회와 92년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때 헌신자가 모두 800여명에 달하며 그동안 여름 단기선교에 참여한 젊은이가 5-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 각 지교회가 좀 더 Missionary Church가 되는 목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 크리스천 가정들을 교육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들 직업선택의 올바른 지도).

나) 선교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다) 2세 교육과 영어목회에서 선교헌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라) 안식년을 갖는 1.5세, 2세 선교사들을 잘 활용하여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동기부여와 이미 헌신한 자들을 monitoring하게 한다.

2)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한 선교대회를 통하여 교육하고도 천하며 활성화한다.

선교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별히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를 들어 몇 교회가 힘을 합쳐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3) 신학교교육

신학교에서 선교교육에 잘 되도록 커리큘럼의 변화나 개혁이 필요하다. 21세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요청된다.

4) 선교단체

현재 서양선교단체를 통해 파송되고 있으며 몇 개의 선교단체들이 Korean-American 교회를 위한 지부를 두고 있지만 한인이민교회에서 자란 2세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선교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 기관들이 서양 선교기관들과 한국의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해야 할 것이다.

## 결론

21세기는 양보다 질의 시대이다. 누가 더 좋은 질(quality)의 상품을 생산하는가에 의해 승부가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선교에서도 이제는 참으로 헌신되고 훈련된 정예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선교사를 길러내야 할 줄 안다.

# 한인세계선교사 사역과 전략

## [주제강연]

태국 선교사 **신흥식**



1971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선교사로 최장기 사역을 하며 태국기독교총회, 방콕신학원 부원장 겸 신학대학원장인 신흥식 목사는 총신대를 거쳐 달라스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저서로는 「현대선교전략(역서)」, 「The Thought and Life of Hina yana Buddhism」,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as Luis Trated in Thai」, 「Theravada Buddhist Context」 등이 있으며 선교사역으로는 신학교육으로 현지인 교역자 양성 및 신학서적 출판, 도시교회(방콕), 개척지도 및 지원, 태국한인교회를 통한 교포선교 등이 있다.

기독교 선교역사 가운데 지난 2세기는 기독교가 유럽 지역 종교에서 세계종교로 약진했던 축복의 계기였으며 지난 4 반세기는 한국교회가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기 위하여 세계를 끌어안는 선교도약의 기간이었습니다. 1910년초에 20명 내외였던 한국 선교사가 작금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이름 없이 수고하신 모든 선교동역자들에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세계선교의 세기' (the century of the world mission) 마무리하는 21세기 문턱에 있습니다. 1.2 차 세계대전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꾸준히 전진하여 오는 2000년까지는 '모든 사랑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이라는 구호 아래 복음의 '밀어붙이기'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선교 역시 일선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선교활동과 함께 일련의 선교회들로 나타난 국내의 한인교회들의 선교각성과 노력은 세계회의의 시대적인 선교사에 부응케 하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돌이켜보면 동란 후 60년대까지 소수의 선교사를 보낸 선교의 명맥을 잇게 하신 성령께서는 근대화 작업을 계속하던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신앙선교단체들의 출현과 선교운동으로 선교의 불을 붙이시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던 80년대는 교회 가운데 선교의 각성을 일으키시고 세계화를 표방하는 90년대에 와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선교의 대진출을 기하게 하셨습니다.

차제에 미주한인세계선교협의회 주최로 세번째 한인세계 선교대회를 갖게 하심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주님의 지속적 도전을 깊이 의식합니다.

선교동역자 여러분! 본인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한인선교의

발전을 보면서 현지선교의 효율성을 생각하던 한 사랑으로 본 선교대회 앞에 "한국선교사의 사역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교의 최종적 성패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복음의 전사에 게 있겠기에 한국선교의 시대적 요청도 일선의 선교부대가 어떻게 효능적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국선교사의 사역현황을 분석하고 그들이 지나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살핀 후 신세기를 향한 선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사역의 현황분석입니다.

한국선교사들의 사역은 그 양상이 다양합니다. 신학교 설립과 운영, 신학교육과 교역자 재훈련, 각급 제자훈련 등 사역자 양성사역은 선교지 형편 따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교회 개척에 주력한 자들은 교단을 설립한 곳도 있고 전도를 위주로 하는 이들은 그룹별 전도(어린이, 청소년, 학생, 산업인, 선원 등), 특수층 전도(불우아, 장애인, 환자 등), 복음선 전도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때로 교회개척 사역과 연결을 짓지 못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오지에서의 성경번역 선교와 신학이나 경건서적을 출판하는 문서선교도 진행되고 있고 선교사는 현지 한인교회 사역을 통하여 선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선교도 일정치 않습니다. 각급 학교와 기숙사 등을 설립하여 전도하고 있는 교육 선교, 병원을 설립 운영하거나 주기적으로 선교지에 나아가 진료하는 의료선교, 직업보도소, 고아원, 각종 재활원 등을 세워 전도하고 있는 사회사업 선교, 빈민가와 난민수용소에서의 구제선교, 그 외에도 농업선교, 체육선교, 음악선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에 종사하는 인원도 목사, 평신도, 전문인(의사, 간호원, 체육인 등), 직장인, 교사, 학생 등이 있고 현지 선교회의 행정업무를 돕는 선교위원도 있습니다. 사역기간도 단기, 장기, 평생 등 다양합니다. 오늘의 우리 선교는 실로 문자 그대로의 총력선교입니다.

그러나 각종 장비를 갖춘 부대가 배치되었다고 선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닐 것 이기에 사역 효율면에서의 현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돌파(Break Through)의 문제입니다. 선교사에게 평생 만족할 수 없는 것 한가지는 눈앞에 가로놓인 언어와 문화의 두꺼운 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항 속은 환히 들여다 볼 수 있어도 어항 속의 분위기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와 같이 현지 인의 문화를 띄고 마음을 사로 잡기가 힘들다는 고백입니다.

알고 보면 지난날의 어려움도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장을 녹이던 Visa문제, 사역의 형태를 찾아 한참이나 헤매던 일, 경쟁의 대상으로 착각하던 동역자 문제, 캄캄하던 자녀들의 앞길, 오해와 갈등으로 고민하던 선교부와와의 관계, 믿음에 도전하던 선교비. 보다 낮게 보이는 육신의 기회들, 예기치 못하던 위험한 사고들, 후원자의 오해와 현지인의 배반, 그 어느 하나 건디기 쉬운 것은 없었으나 당면한 돌파의 과제만큼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이는 이 문제로 현장을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인내로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던 바울처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돌파의 봄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사역의 불균형과 중복입니다. 전체 선교사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말씀사역자의 수는 불과 30% 내외에 불과하고 그밖에는 각종 전문 내지 보조 사역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사역과의 협력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보조사역이나 전문사역만을 힘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령사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혼의 중생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은 중생이 성령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

로 된다 하였으나 같은 진리의 신적측면과 인적측면을 가 르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열매는 인적측면에서 말씀사역의 중요성이 선교지에서 얼마큼 강조되고 기타 모든 사역이 보조사역으로 얼마큼 협력되고 있는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위원의 균형적 배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사역의 중복입니다. 한 지역 내에서 신앙노선이 같으면서도 자신의 독자적 사업 성취를 위하여 같은 사역을 막대한 선교비를 따로 드려 시설을 별도로 준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황분석의 세 번째는 현지사역지도체계의 결여입니다. 소대원은 있는데 소대장, 분대장이 없으며 소대들은 있는데 중대본부가 없고 보병과 포병은 있어도 그들을 효력있게 지휘할 지휘관이 없는 격입니다. 고참선교사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역에 몰두하고 신참선교사도 단독으로 사역을 개발하려고 분주하고 각기 후원교회의 사역 방향에 따라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진의 정보도 없이 작전하는 지휘관과 같이 현지의 문화, 종교, 습관 등 특수 정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일반적 정보도 부족하여 복음전파의 기술, 사역자 양육, 목회자 지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내 식으로' 아니면 '한국식' 으로 몰고나가 현지인 사역자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한국선교의 빛난 내일을 위하여 선교지 지도력 무정부 상태를 속히 탈피하고 현지 정보에 밝은 지혜로운 사역 사령부가 형성 되기를 멸망하고 있습니다.

사역현황의 마지막 분석은 선교지 방문 단에 관한 것입니다. 후회교회 지도자로부터 각급 선교 수련 생들의 방문에 이르기까지 본국성도들의 방문은 크게 격려가 되기도 하였 습니다만 때로는 사역의 주객이 전도되어 현지인선교는 차선이 되고 방문단 안내에 정력과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현상도 빚어집니다.

상대방 Ground에서 노는 것 보다 자기 Home Ground에

서 노는 축구경기와 같아 현지민 상대 활약보다는 본국 상대 캠페인이 많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한국선교사들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선교사의 선교잠재력 가운데 강점은 영성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해 크게 사용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선교를 위임하실 때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다 하더라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사도행전은 중요한 전환점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에 복음을 전하던 일, 빌립의 사마리아와 구시 내시 전도. 사울의 회심에 싸인 사건들, 안디옥에서의 파송, 선교지 안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고린도에서의 사역연장 등 모두 성령의 간섭이었습니다.

그 후의 선교역도 정령께서 선교사역의 동력이 되셨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 선교운동이나 중세교회의 수도원이나 중세교회의 수도원 선교운동. 종교개혁 이후 18세기의 모리비안 선교운동이나 William Carey 이후의 선교단체 운동은 모두 성령께서 주도하신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명시기에 성령운동은 선교운동을 낳았고 선교운동은 성령운동과 더불어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하였고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살전 1" 5) 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선교사역의 최대 관심은 선교사 자신과 그의 영성의 심도(the depth of spirituality)에 있기에 한국선교의 장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세기의 선교학자 George Peters 박사는 선교의 동력(Missionary Dynamics)을 '성령'과 '복음'과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Peters: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pp. 299, 306, 339). 이 세 요소야말로 선교의 삼위일체로써 성령의 주도가 영성의 신적측면(the divine aspect of spirituality) 이라면 복음과 기도는 영성의 인적측면(the human aspect of spirituality)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인적영성의 핵인 복음과 기도에 있어서 한국선교사들은 대개의 경우 기도사역에는 강하나 복음사역에는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사역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각종 기도 성회 등 한국교회에 주신 독특한 은사에 힘입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삐는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교의 신약형태가 이루기전부터 유대인의 diaspora 삶속에서 이방선교의 강한 표본(pattern)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선교는 생활(Life-Style)선교였고 그것은 기도하는 삶(Life in Prayer)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정한 "선교사업"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기도 사업" 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룩한 선교의 열매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에서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찌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견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단 6:26-27)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Edward Woods 박사는 '성경은 시편을 제외하고도 총 657회의 기도요청에 454회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고, 기도는 하나님의 주관적 영적 활동만이 아니라 구체적 결

과를 이루는 하나의 힘이요, 기도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Edward Woods: Modern Discipleship pp 89,92)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선교의 동력도 기도에 있습니다.

자신을 구출하는 힘, 인도받는 힘, 전도의 문을 여는 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알리는 힘. 주의 말씀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힘, 섬기는 일을 받음직하게 하는 힘 등 그 선교의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롬 15:3-22, 고후 1:10-11, 엡 6:18-20, 빌 1:19, 골 4:2-4, 살전 5:25, 살후 3:1-3, 문 22). 한인교회들의 그 간절한 선교기도와 선교지에서 부르짖는 구령의 기도 등으로 이제도 대륙마다 나라마다 족속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인도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한국선교사가 유념할 분야는 복음사역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현지인의 생각과 삶에 관련성 (RELEVANCY) 있게 전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계교사의 사라지지 아니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나의 것에서 현지인의 것이 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Don Richardson의 Peace Child(평화의 동자)는 이 관련성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Sawi부족에 대한 살아있는 훌륭한 전도 실화입니다. 족장의 유아를 원수 부족에 위탁하는 동안 평화를 보호하는 관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갈파하고 회개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도용 자료와 관습은 선교지마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송불교권만 해도 Dukha(고통)의 교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깨닫게 하는 천부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와 의의 "전가"에 대한 좋은 문화적 관건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태국 만의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사 투입 연륜이 오래지 않아

아직은 선교지마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실재(Objective Reality)로서의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전도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는 개인의 전달능력과 수용능력에 따라 제한을 받게되어 주관적 실재(Subjective Reality)로서의 상대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면의 영적 통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영성문제에 한가지 더 부언할 것은 선교관련자들의 인격(Integrity)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민족으로 택하여 윤리적 유일신 사상(Ethical Monotheism)을 수립하셨던 하나님께 윤리는 영성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영성도 개인의 인격과 덕성개발로 이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위대한 영적지도력은 "은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 12:5)라고 한 그의 성품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선교재정의 효능적 관리도 중요하나 정직한 재정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선교의 조속한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관습과 법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선교동역자 상하간의 예의와 동료간의 신의도 지켜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도 큰 발전을 이룩함으로 우리들의 영성이 현대세계 선교에 놀라운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려고 합니다. 영성이 강한 반면에 협력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크고 작은 사역으로 구성된 거대한 합동작적입니다. 후원교회와 선교기관(교단 및 비교단), 선교기관과 현지선교회, 현지선교회와 선교사, 현지선교회와 타 선교회, 현지선교회와 현지교회, 한국선교사와 현지인 동역자 또는 타국 선교사, 말씀사역자와 전문 또는 보조사역자 등 그 유례는 무수합니다. 이중에서도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현지선교회와 선교사, 현지선교회와 현지교회 등의 협력은 시급히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기능들을 묶어서 더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한때는 구조와 권위를 너무 부각시키는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빠졌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기능과 실제만을 앞세우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도취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전자에서 동역선교사들의 자발성이 저해되기도 하였고 후자에서 선교사역의 독선적 형태 내지는 독주라는 기현상도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도급 선교사들의 이해와 수용력의 확대와 함께 후배 동역 선교사들의 인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그것들을 선교효율화의 기술과 방편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주의(Structural-functionalism)의 정착이 아쉽습니다.

바울이 선교에 성공한 인적요소는 동역에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 같이 복음을 위하여 동역한 후배 선교사의 희생, 의견은 달랐으나 바울의 교훈을 높이 평가한 선배의 사랑. 바울을 앞세웠던 동료의 미덕,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평신도, 떠났다가 돌아온 보조자, 바울의 개척사역을 이어 계속 키웠던 후임자들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들이었는지요! 우리에게도 횡적 사역관계(Coordination)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종적 사역관계(Subordination)의 미를 창출하고 동역자(Partner)로서의 합동작전(Cooperation)이 우리의 선교전선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협력의 약점을 보장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선교지는 계속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수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팀사역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에 붙들려 유리하면 협력하고 불리하면 쉽게 물러선다든지 경쟁심과 공명심의 충동으로 내일을 보는 인내보다 사상누각의 오늘로 성급하게 만족할 것이며 사역의 증복은 여전할 것입니다. 복음전교의 집약력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복음화 장기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쌓여지는 선교경험과

지혜는 녹슨 장구가 될 것이고 현지선교회는 계속 유명무실할 것이며 현지인의 불신감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우리의 선교전선을 가로막고 있는 이 험한 준령을 넘어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몇 가지 선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선교가 지난 10년간 선교 증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국내 선교기지(Home base)는 더욱 튼튼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열기에 찬 선교호응은 물론 선교사도 한 주일에 10여 가정씩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주한인교회 역시 2000년까지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만큼의 놀라운 선교잠재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성령의 계속적 역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10년내에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선교사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선교폭발기가 도래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원합니다.

이 같은 국내와 북미주 한인선교기지의 눈부신 성장에 따라 우리의 선교현장도 엄청나게 확장에 되었습니다. '10/40 창문' 지역만 아니라 명실공히 전세계에 퍼져 선교의 새 세력(New Force)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 방법론에서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상 선교의 파장은 한세기를 단위로 변화하였기에 우리의 전략도 이제부터 한세기를 내다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전략은 구조상 전문화입니다. 말씀사역은 국내외가 다 같겠지만 그 수행방법은 다릅니다. 개교회 담임목사는 본교회 목회와 지역전도에 충실하다 보면 선교현지의 특수성에 익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 밝은 선교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들의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교회 선교사명의 실효를 오히려 더 잘 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선교의 시급한 과제는 선교집행 구조의 전문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교회주도 선교사역 형태가 조속히 지양되고 선교사역을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선교전문기관이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전문기관의 확립은 교파 선교기관이나 초교파 선



교기관을 막론하고 몇가지 점에서 한국선교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먼저는 사역전문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인도, 태국, 일본, 북한 등), 종교별(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그리고 사역별(어린이, 청소년, 캠퍼스, 미전도족속, 교회개척 등)로 전문선교기관들이 출현함으로 사역의 질을 크게 높여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강력한 사역지휘 계통 확립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인바 선교사의 경륜과 달란트를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사역의 중복을 피하고 선교사간에 동역정신을 크게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선교의 장기계획과 책임성있는 재정관리로 일괄성 있는 사업개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후원교회 담임목사의 경질에 따라 현지의 선교 프로젝트가 좌우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년 약 4,800만불(2,000불 X 4,000명)의 엄청난 선교비(자정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선교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교기관의 신뢰성(Credibility)과 선교사의 자발성(Spontaneity)이 깊이 고려되어야 하며 선교기관 간의 협력체제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선교기관 육성은 교단측 선교 증진에도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노선이 같을 경우 초교파 선교기관을 협동선교기관으로 인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교세에 따라서는 교단 내에 여러 전문선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교기관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교단선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선교체제(Modality)요 다른 하나는 초교파 독립선교기관체제(Sodality)입니다. 독립선교기관(Faith Mission) 체제는 선교헌신과 현장전도에 강한 반면 교단성이 없어 현지교단형성이 약한데 비해 교단선교체제는 교단성이 강함으로 교회설립에 강하나 헌신도와 자발성이 약함으로 두 체제가 병용할 때에 교단교회 선교동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현지 교회설립에도 참여도를 높여 그 기능을 크게 강화하리라 믿습니다. 이 경우 교단 내 선교기관 간의 강력한 협력체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같은 다양성 단일체제(Diversity in Unity)는 일찍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예수회, 프란

치스칸회 등으로 그들의 교단영역을 넓히는데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려할 것은 집중선교전략입니다. 작금의 한국선교는 너무나 산발적이며 확산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선교대상 족속이나 나라(Target People)를 정하고 모든 가능한 선교자산(Missionary Resources)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선교"라는 추상명사에 붙들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지역의 복음화에 책임성 있게 대처할 일입니다.

차체에 미전도족속 입양운동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까. 만여 족속 20여억 인구가 무복음 무교회 지역에 거처 있으니 그들의 복음화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까. 한편 미전도족속 입양에 못지 않게 긴급한 것은 국가별로 한 지역을 입양하여 그 복음화에 힘쓰는 일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선교사를 여러 나라에 파송하여 개교회 선교노력이 분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개교회별로 그 후원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짬은 보다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그 나라 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교회설립 전략입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무리(the redeemed community) 뿐만 아니라 구속을 베푸는 무리(the redeeming community)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구속받은 무리들의 구속역사가 지속된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여러가지 형태의 선교노력은 가능한 한 이에 관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설립이 아직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복음침투에 성경번역 등 은갓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토착교회 설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같은 교회설립 전략에서 첫번째로 고려할 일은 한 지역에 신앙이 같은 한국선교사가 여러 가정 협력하여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현지선교기관을 통해 한국이나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선교지 교회개척 프로젝트를 입양하여 시작부터 토착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육성토록 하는 운동입니다. 이는 적은 선교비로 선교의 열매를 속히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고려할 것은 현지인 교역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목양권을 위임하는 일입니다. 선교사에게 성령의 지도가 있을 것이라면 현지인 교역자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인도가 있을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Breakthrough" 문제로 고심하는 우리들의 현명한 유일의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위임의 믿음"입니다.

세번째로 고려할 일은 교회개혁 지원금의 운영입니다.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거나 지나친 지원도 삼가야 할 것입니다. 현지인 교역자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재정지원은 교회자립에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교회 개혁입니다. 새 세기초엔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32억)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요,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65%인 55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1990, pp. 106-7, 118-9). 이같은 도시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보다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수준의 차이가 심한 2/3세계에서 급격히 불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도시안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어 미전도족속 만큼이나 긴급한 미완성 과제입니다. 거기에도 도시는 경제능력도 있어 교회자립의 잠재력도 많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에 변화의 폭이 큰 반면, 전통과 관습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져 복음의 수용도가 높아 교회개혁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번째 전략은 현지인 교역자 그룹형성과 지도입니다. 교회 담임교역자 간에 동역자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룹형성과 헌신의 질적향상 이야말로 선교의 사활을 가름하는 긴급한 과제입니다.

신학교 설립이나 교역자 재훈련도 이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교단별로 또는 지역별로 담임교역자들간의 거룩한 규합과 그들에 대한 목양은 교회 도착화 작업의 일환으로 자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교역자 그룹 안에 "사표"(model figure)가 될만한 현지인 지도자의 유무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무리"의 사표를 창출키 위해서 선교기관이나 후원교회들 간에 각별한 지원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전문과 단기사역의 활성화 전략입니다. 사람을 거둬나가는 것은 말씀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만 이 중생 전후에 이룩할 심적 변화나 영적성장에 전문사역이 끼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선교에 많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투입된 일은 얼마나 고무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투입된 수만큼 효능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말씀사역 지들과의 협력관계도 좀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교가 그야말로 총체적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전문사역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전문인 사역지들의 사역별 초교파 지원체제의 확립과 복음적 선교사업이라면 교파를 초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선교기관 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신선교사를 포함한 여자 선교사의 보다 긴밀한 사역협력 방안도 중요합니다.

전문분야에 따라 그들의 잠재력도 엄청납니다. 앞으로의 선교는 선교기관이 이같은 전문적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여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 그 효율이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기 선교세력의 제도적 운영방안도 거교회적으로 요구되는 일입니다.

무질서한 개별적 선교지 방문이나 봉사 보다 선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밑에 그 기관의 단기선교나 선교지 방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분야 따라 선교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없듯이 오늘의 모세 없이 인류의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시급한 문제는 선교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에 세계선교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선교사를 내보내는 데에도 먼저는 우리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선교지는 "또 하나의 선교사" 보다는 "또 다른 바울"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역중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지 선교사의 적응력(adaptability) 향상과 창조력(creativity) 개발과 은통성(flexibility)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실제적 사역훈련(on the job training) 방안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역 후 훈련은 더 더욱 중요합니다. 사역 중에 얻은 선교 경험과 높아진 관심도를 살려 현장적응력 (applicability)을 높이 현지복음화 연구가 반듯이 뒤따라야 합니다. 서구선교의 이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사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은 더욱 요긴합니다.

우리 한국선교에는 서구선교가 지니지 못한 강점도 있겠지만 반면 서구 선교가 저지르지 않았던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학적으로 체제에 가칭 "한인세계선교진흥원"과 같은 범교회적 선교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제자의 거룩한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세계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은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사울의 갑옷이 사울에게는 훌륭하였지만 다윗에게는 거북스럽기만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 물뱀들도 골리앗에겐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랜 선교경험도 깊은 선교이론도 강한 선교조직도 편리한 선교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동지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하고 계속 돌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선교자산으로도 오늘의 난공불락의 여러 적진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3-29)

# 2000년대 한인선교사의 좌표설정과 협력모색

## [선교전략]

## 각지역 선교사들



김유식 / 필리핀



임종표 / 케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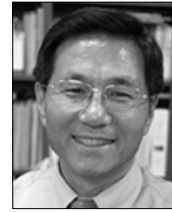
정민영 / 위클리프



강성일 / 브라질



조성덕 / 소말리아



조용중 / 필리핀



김원호 / 터키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가봉 선교사 김상옥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수단 선교사 탁수연



## 성령의 역사와 세계선교

[저녁선교대회 설교]

OM 총재 **조지 버워**

George Verwer is OM 총재이며 국제선교대회 강사로 크게 활약한다.





세계날

7/24(수)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재환 선교사 감비아  
설교/ 이종표 목사 한신교회

## 성경강해

강사/ 홍정길 목사 은혜장애인교회

## 주제강연

특수선교 강사/ 이윤구 목사 World Vision Korea  
주제강연I 강사/ 데이빗 브라이언트 COPI  
주제강연II 강사/ 전호진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주제강연III 강사/ 루이스 부시 AD2000 & BM  
선교전략 강사/ 김영진 목사 나성한인교회  
오정현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종헌 목사 한미세계선교센터  
정필도 목사 수영로교회  
이태웅 목사 한국해외선교회  
한정국 선교사 한국OMF  
정인수 목사 한국기독교21세기운동

## 제석선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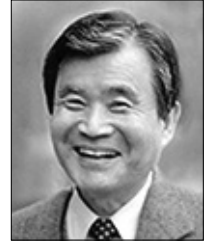
사회/ 송용걸 목사 시카고헤브론교회  
선교보고/ 정형남 선교사 요르단  
선교보고/ 김재광 선교사 러시아  
선교보고/ 이브루스 선교사 중국  
설교/ 토마스 왕 목사 AD2000 and Beyond Movement  
통역/ 박광철



## 별세의 은혜

### [새벽기도회 설교]

한신교회 담임 **이중표**



한신교회 담임목사로 설교, 행정, 심방, 교육 등의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이중표 목사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별세의 지도자」와 다수의 저서와 「교회성장과 케리그마설교(논문)」이 있다.

### [누가복음 9:28-26]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 은혜의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영광이고,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도록 사역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사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도 못받고 강단에 선다면 남에게 어떻게 은혜 받으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동안 유대땅을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으로, 내일은 나사렛으로. 모레는 가나로 이렇게 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신 목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병 고치러 다녔습니까? 배고픈 군중에게 떡을 먹이러 다니셨습니까? 전지하신 예수님이 아무데나 다닌 것이 아니고 오늘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없이 다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곳에 가면 만날 사람이 있고, 이곳에 가면 내가 감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을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없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용 수많은 군중이 따라도 그 가운데서 병이 나올 사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보고 가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3년동안 유대땅을 다니시면서 은혜 받을 사람을 찾으러 다니신 것입니다.

### 민중이 받는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민중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부자들은 은혜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은혜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은혜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세한 관료들이나, 권력 잡은 자들은 은혜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대개 은혜 받을 사람은 가난한 민중들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당한 막별이꾼들.

이 민중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됨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는 언제나 민중이 따라 다녔습니다. 민중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마 10:45)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두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섬기러 왔고, 하나는 죽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소외당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민중들에게 떡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도 그 사람은 결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자가 빵을 먹어도 그 사람은 날이 새면 또 배가 고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중들을 돌보아 주어도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중들을 섬기기도 도와주고도 '나를 따라 오너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베풀어야 할 은혜는 깊은 비밀이었고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은혜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야 할 은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별세(別世)의 은혜였습니다.

### 별세의 은혜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신비한 은혜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졌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너무 제자들은 황홀했습니다.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엘리야와 모세

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별세하러 왔다는 것은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별세는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별세가 출애굽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져 넘어가는 다른 세계가 별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최고의 은혜가 별세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별세하실 것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8절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 팔일 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23절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팔일 쯤 되어 산에 데리고 간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을 읽읍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별세하러 오셨고 이 일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일직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3년동안 따르고 배웠으며 이 별세를 말하면 알아듣겠지 하였으나 제

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 은혜보다 다른 은혜를 베푸는 메시야가 될 것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참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하고 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별세는 따로 받아야 할 은혜였습니다. 별세도 최고의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모든 신앙이 헛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고향에 갔더니 아버지 한 분이 '자네 서울에서 무슨 대학 다니나' 하기에 '신학대학입니다' 했더니 '귀신 신(神)자 대학인가' 하기에 '아니올시다. 하나님 신자입니다' 했더니 '한자로 귀신 신이네' 하기에 '하나님 신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대학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하신 이 말은 "귀신아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0네가 귀신 대학생이구나' 책망한 것입니다.

귀신대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제쳐두고 배우는 신학은 귀신대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제외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변질은 벌써 신앙을 소홀히 하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별세하지 못한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단 3일을 넘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산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에 아닙니다. 당장 싫증을 느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땅에서 소외된 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성육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은혜를 즐기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별세하려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민중을 섬기러 왔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습니다. 대속물로 준다는 성경의 내용과 별세한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참 착합니다." 그러나 나는 착한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적은 양심이지 그제 깨끗한 양심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위선을 봅니다. 누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겉으로 웃고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보면서 자신의 위선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별세되지 못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별세의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살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이제 예수가 나를 속였고 나를 살렸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믿는 것이 별세신앙입니다. 별세신앙은 나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도 함께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지은 인간들을 죽이기 위하여 당신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부활에서 자기의 부활을 보는 것이 곧 별세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비밀이었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두가 받아야 할 절대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 할 절대적인 은혜.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이 은혜를 최고로 받은 자가 누구냐? 목사 자신입니다. 목사는 먼저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능력받아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려리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러 온 별세의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십니다. '나는 별세하였기에 별세한 사람을 믿고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를 받아야 사건이 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참 목회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군중들의 그 열광하던 소리가 십자가 밑에서 입은 다뭉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성령이 입을 열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별세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회가 이 별세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육신의 예수에게서 얻어먹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청중과 제자가 있습니다. 청중은 예수님은 보면서 따릅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믿고 자기도 별세하려고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 별세 은혜를 받은 동기

별세 은혜를 받게 된 저의 개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어린시절 참 특이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가 부모에게 효자가 되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세 예수님에게 들려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부모님을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보내주셨고 나의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대리자로 보내사 감동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야지' 이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였던 예수님에게 들려준 음성이 늘 가슴을 울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된 분이요,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내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좋아 내가 네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따로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로 받은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은혜가 별세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아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늘 안나왔는데 그날도 시험을 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무슨 시험을 치니?" "신학이웁니다." "신학이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나한테 쳐야지 왜 교수한테 치느냐?" "교수한테 시험을 쳐서 점수를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쳐야지" 하고 시험지를 덮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교수가 문제를 다 알고 와서 그래요. "이군 다 썼어?" "예, 다 썼습니다." "벌써 다 썼어?" 그때는 내 실력이 없는 것을 아시니 좀 이상했던가 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어디에서 칩니까?'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 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디에서 쳤는가. 그 점수를 어떻게 얻었는가' 감동에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점수를 별세로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부활 안되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정수가 아무리 좋아도 별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나님의 시험을 쳐라." "오, 주여 이제 이 종이 십자가에 죽는 점수를 따고 부활의 점수를 따서 살겠나이다." 그 점수를 따면 된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 점수 따는 것은 알 수 있나요. 안보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교수들이 나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군에게 점수를 좀 많이 줄 것을, 어떻게 학적부를 바꿀 수 없나?' 왜? 제자 가운데 괜찮은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하늘이 별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때 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점수를 따라." 그래서 그 점수를 따려고 지금까지 일직선으로 갑니다.

나는 밤에 누우면 가끔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면 천사가 "어디에서 왔나?" "예.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아무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은 별세하라고 했는데 저는 별세가 안된것 같으니 모른다고 해라." 그럴 것인가 아니면 "누구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 아무개입니다." "아, 내 사랑 하는 종이 왔구만 빨리 모셔라." 그렇게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말로는 별세를 찾아놓고 별세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고민 아닙니까 공연히 내가 별세 받아가지고 고민입니다. 안 받으면 편할 것을 받아놓고 생각하니까 말만 별세지 속은 안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따로 데리고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속으로 '예수님 우리를 편애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너는 용케 걸렸다는 것입니다. 따로 무엇을 줄 때는 그만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세의 은혜를 내리셔서 유명해져 가지고 강사로 다니는데 겁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준만큼 심판을 요구할 것이니까요.

저는 은퇴할 때가 고민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려 고생하여 한신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 분당에 교회를 지으려고 6,500평의 땅을 샀습니다. 지금 건축준비를 하고 7월초에 착공합니다. 이 큰 공사를 마치면 곧 은퇴를 합니다. 나는 힘들게 일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는 눈치 보가면서 용돈 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불평하면 "말로만 별세지 별세 안되었구만" 그럴텐데 이것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는 천당가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땅의 것을 많이 가졌으니까요.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작은 교회 계시는 분들은 천당을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땅에 매인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교회가 3층에 있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천당 가기가 더 쉽습니다. 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좋잖아요. 부자 교회일수록 땅을 차지하고 천당가기가 더 힘듭니다.

한국에서 6,500평이던 엄청난 땅입니다. 하나님은 별세했는가 안 했는가 연습해보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미리 주었으면 거기에 매일까 싶으니까 별세를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별세를 강의는 해도 내가 별세 안된 것을 아니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야, 너는 입으로만 별세 잘 한다마는 속은 멀었다." "주여, 생긴 종자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도 고민이고 나도 고민이다" 그러세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날 인가는 새벽에 종줄을 잡고 종을 치는데 30분동안이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세요. 그래서 제가 종줄을 놓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 왜 우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우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내가 날마다 울고 있노라.'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이 이 패역한 도성을 위하여 울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멸망할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눈물이 날마다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어느날 오후에 나무 밑에 앉아서 로마서 1장 13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빛진 자다.' 이 구절을 읽는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셨습니다. "너는 빛진 자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빛진 자입니다. 저 피어있는 꽃 한송이에게도 나는 빛진 자이옵니다. 이 조국 민족에 빛진 자이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가만해서 빛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빛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전부가 빛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나눔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나누지 않으면 벼락을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의 마음에 내 마음예요, 꼭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썼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 종을 2천년 전에 나게 하셔서 이런 글을 써서 성경이 되게 하시지 왜 이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좀 아쉬운 심정으로 탄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바울처럼 신비한 은혜를 받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은 "중아 내가 바울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바울 같은 믿음이 있으면 바울 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종이 세 번의 수술을 하고 사경을 헤매던 토요일 오후에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별세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별세의 은혜를 받아 일생 동안 별세를 살아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 별세의 밥상

이외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누리어 주신 그 놀라운 자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별세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별세를 이룬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별세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성찬으로 제자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아놓고 떡과 잔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 6:51)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밥상에 앉으셨습니다. 이 떡과 내 잔은 영양이 되거나 배부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습

니다. 별세하려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세의 밥상이었습니다. 이 밥을 먹으면 나도 죽고 세상도 죽어 별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별세하여 별세의 밥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밥을 먹으면 별세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밥을 먹은 열한 제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제 이 밥을 먹고는 내 맘대로 못산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 밥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밥에 되어 주시듯 이제 목사는 죽어서 교인들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밥이 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밥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자신이 용해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부서져야 합니다. 목사가 별세할 때 교인들의 밥이 되고 목사의 영이 저들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자기를 밥으로 먹였고 또한 제자들을 교회의 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떠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그러나 너는 양의 밥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강단에서 순교할랍니다. 교인들이 쫓아내더라도 나는 기필코 여기에서 죽어나갈랍니다." "목사님, 왜 교인에게 죽으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핍박자의 손에 죽어야 순교입니다. 목사는 별세신앙으로 교인들의 사랑의 밥이 되어야지 교인들과 싸우다가 혈압 올라 죽는 것은 맞아 죽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교과가 갈라진 때마다 싸우다가 죽는 것이 순교인줄 알고 싸웠습니다. 별세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순교자는 핍박자의 손에 죽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순교자는 자원적 죽음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원적 죽음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죽였지만 예수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순교는 저쪽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리 예수와 함께 죽고 저쪽이 죽일 때는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로 산다'는 확증을 보이는 것이 순교입니다.

스테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돌로 쳤는데 죽는데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자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별세의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죽어 제물로 올리지만 우리는 살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지금까지의 순교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핍박자에게 맞아 죽어야만 순교인줄 압니다. 소용없습니다.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그 공산당을 원수로 보고 죽으면 순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원수로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은 순교가 아닙니다. 원수놈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자기 심령 속에 예수로 꽂았기 때문에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와야만 순교가 됩니다.

### 별세의 성령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찬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똑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찬 받은 자리에 성령이 오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성령의 강림으로 완성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성령의 강림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한갓 예수의 단독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사건으로 임재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가난해도 좋고 핍박을 받아도 좋았습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똑 같은 제자였는데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이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똑 같

은 밥을 먹고 사는데도 그들의 눈동자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사는 세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예수로 산다'는 신앙으로 별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별세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보여줄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신앙으로 사는 일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설교할 때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돈이 생길 때 예수님께 바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눈동자가 주께로 갑니다. 전 성경을 열어도 성경속에서 예수가 나와서 중언됩니다. 목사는 핍박을 받고 짓밟아도 그 속에서 '예수야' 하고 나와야 합니다. '별세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고 별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을 별세시켰습니다. 별세 신앙으로 사는 자만이 그 삶 전체가 별세에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가 내게 계시니 감옥에 와도 좋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죽어도 좋네" 하였습니다. 가난해서 울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못받은 자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경지가 별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이 바로 교회요 별세의 삶을 이루도록 사역하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별세를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 존재가 별세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서를 통해서 자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산다.' 내각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죽여주셔야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노력하고 힘써도 안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건을 이루십니다. 제작년에 우리 시참회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을 등정했습니다. 여섯시간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하면서 올라

가는데 참 신기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라갈 때 보니까 아름드리 소나무가 전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맞아서 다 쓰러졌습니다. 만져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런데 큰 소나무가 벼락맞아 쓰러지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보면서 비를 맞고는 파릇파릇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그 큰 나무를 붙잡고 "큰 나무야, 큰 나무야, 너 벼락맞아 잘 죽었다" 그랬더니 주의 성령이 이 종의 마음을 감동하는데 "좋아, 나도 벼락맞아 죽었다. 너도 벼락맞아 죽어라."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붙들고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잠잠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 큰 사람, 인류역사의 큰 사람 예수가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 죽었구나!"

벼락은 큰 불을 벼락이라고 합니다. 큰 불은 시시한 것 안칩니다. 큰 느티나무나 전봇대나 빌딩을 칩니다. 시시한 것은 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사람이라 이 사람을 벼락으로 쳐야 그 밑의 많은 새끼 인류들이 살아날 것을 아시고 큰 사람 예수를 성령의 불로 지져서 요단강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벼락맞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너도 살아라, 너도 살아라. 이 비 맞고 너도 살아라' 해서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큰 불이 오늘 아침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큰 종입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총회장 된들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벼락을 안칩니다. 왜. 쳐봤자 저것 죽여서는 나올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 자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아무 새끼도 살아날 자리가 없습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의 불벼락으로 치셔서 이 종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그 나무를 부둥켜 안고 '주님, 이 종을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 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양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로 벼락을 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치셔서 로마에 가서 죽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전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 죽는 선교사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 이사야서의 선교적 이해

### [성경강해]

은혜장애인교회로 담임 **홍정길**

숭실대학교(철학)과 총회신학교(목회학)을 나와 1975년 이래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다 최근 은혜장애인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했으며 GBT 이사장, 연변기술대학 재단이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심계명 강해」,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다윗의 노래」,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외 7권이 있다.



# 구제와 개발의 사역

## [특수선교]

한국선명회(World Vision Korea) 총재 **이윤구**

한신교회 담임목사로 설교, 행정, 심방, 교육 등의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이종표 목사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별세의 지도자」와 다수의 저서와 「교회성장과 케리그마설교(논문)」이 있다.



### 1. 머리말

'세계선교'는 초대교회 이래 20세기의 막을 내리고 21세기의 새벽을 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의 지상지교의 과제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선교'나 '전도'의 방법이나 개념, 혹은 강조점이 시대와 장소를 따라 조금씩, 더러는 크게 다르고, 때로는 적지 않은 논쟁과 끝도 안 보이는 분열을 신학계나 선교학계에서 보여 온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힘듭니다.

복음의 전파가 단순한 협의의 전도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혹은 다양하고 복잡적이고 전인적(全人的)인 접근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학자들이나 학파들 사이에 엄존하고 있습니다. 체계 주어진 명제는 '구제와 개발'이라는 20세기의 세계선교 이론의 한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21세기에 우리 한민족이 지고 나가야 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해 보는 노력을 시도해 보는데 있을 듯합니다.

### 2. 선교의 네가지 모형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내린 선교의 명령은 너무도 분명하게 전도인의 일을 실천하고 복음이 전령된 직분을 다 하는데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복음선포는 메시지, 설교, 기쁨 소식이 내포되어 있고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역은 그의 나라를 이 땅 방방곡곡에 여제나 오늘, 그리고 하늘나라가 온 땅에 임할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이냐에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충실한 복음의 전령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사의 바른 직분인가에 있습니다. 로널드 사이더(Ronald Sider)의 이론을 참고로 하면 대체로 네가지 다양한 모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려 깊은 관찰이며 흥미있는 이론입니다. '개

인구원,' 혹은 '개별전도(Individualistic Evangelism)'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개개인의 영혼구체에 역점을 두어 온 큰 선교의 줄기를 뜻합니다.

아마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좋은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절대적으로 사회구원, 또는 구제와 개발을 배척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복음전파의 주력은 개인구원 쪽에 경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근본적 재침례파(Radical Baptist)' 모형이 또 하나의 선교학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믿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인식합니다. 이 계파는 그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행사나 운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좋고 빛나는 본보기로 특히 16세기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강조해 온 점은 교회의 내적 활동에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번째 모형은 집중적, 통합적 사회구원론(Dominant Ecu-menism)'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학파, 혹은 선교론은 개인 구원과 동시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거시적 사회공동체가 선교와 천국건설의 양대 주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 차원과 함께 사회적 차원이 공존하며 사회가 전체적으로 개발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완성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구제나 개발이 선교와 전도의 중요한 일부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번째 모형을 '교회 밖의 기독교 운동(The Secular Christian Model)'이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모형은 사회적, 정치적 체제의 개혁, 경제쟁의의 실천, 그늘진 사회단연(심신 장애인이나 극빈지역의 재활 등)을 밝히는 사역이 선교의 중핵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체 세속사회의 구조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없이는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이 학파는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일꾼이 되려면 주님이 삶으로 가르치신 대로 가난한 사랑, 눈이 먼 사람, 압박을 당하는 이들과 고난을 나누는 일, 빈곤에서의 해방운동이 참 전도요, 위대한 선교라고 이들은 믿어왔습니다.



### 3. 구제와 개발의 선교신학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눅 4:18).

"우리 주님 예수의 복음은 이 통전적, 혹은 전인간적(Holistic, Wholistic) 구원의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기쁜 소식이었었고 그의 짧지만 심오한 목회, 선교, 치유, 교육의 동기요 방법이요, 목적의 전부였다고 믿고 그렇게 사역해 온 선교사들은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력이나마 그런 길을 걸어서 갈보리의 주님 뒤를 따라보려 애써 왔습니다.

빈곤의 구제는 물론 물질적 상대성 곤궁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문화적, 전통적 빈곤이 단순한 가난보다 훨씬 중증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 특히 20세기의 국가 팽창, 군국식민주의, 세계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도 극악해서 60억이 가까운 세상 인구의 무엇보다 비(非)복음적이고 반(反)선교적인 체계적 죄악을 극복하는 일은 세계선교의 중핵적인 전략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이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예수께서 '지극히 적은 이들'에게 극진한 관심을 표명하신 까닭은 빈곤은 육이나 영을 초월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치를 뼈아프게 인지하셨던 까닭입니다. 영혼의 빈핍을 구원의 복음으로 충족시키는 일이 중차대함은 너무도 지당한 접근이지만 동시에 육체의 빈곤을 해방시키고 더욱이 그 빈곤이 사회구조적 죄악을 경우 이를 과감하게 물리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 대로 동시에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일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분의 분부를 지치는 일입니다.

현대의 사회복음운동은 19세기 후반 즉 백여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자라왔습니다. 복음의 사회성은 세상의 전체적(세속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금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칼 헨리(Carl F.H. Henry) 등은 소위 새복음주의 운동을 강하게 주창하면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 평화, 반압제, 인종차별 반대 등의 관심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외쳐 왔습니다.

1960년대의 '젊은 전도주의자들(The Young Evangelicals)'은 복음전파운동의 내재적 모순과 비생산적 논쟁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복음이해의 총체적 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기본적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서적 재조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원론을 깨뜨리는 이념입니다. 둘째는 선교학(Missiology)의 영역 확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협의의 전도를 통한 새신자들을 낚아내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온 세계의 모든 분야로 침투, 사역에 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디아코니아의 신학이라고, 혹은 봉사의 선교학이라고, 섬기는 전도적 전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믿고, 그렇게 행해보려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대회의 선언(Lausanne Covenant)이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적 개혁은 기독교인의 두 종류의 책임'이라고 설파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 4. 맺는 말

구제는 주님의 선교활동 가운데 어찌면 제일 많은 시간과 정력을 경주하신 부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교사업이 이 분야를 다소는 소홀히 생각하고 관심 밖의 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굶는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걸칠 옷을 제공하고, 병들어 누운 사람에게 약과 위로를 베풀고 전쟁으로 희생을 당하는 이들에게 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처럼 소중한 선교사업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스런 피흘림을,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난 이를 꺼안고 피를 씻어주고 미음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보다 더 귀한 전도가 있을까요?

21세기는 지난 100년 동안 5000년의 암흑역사에서 우리 겨레를 건지시고 풍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계선교에 임하는 한민족에 의해 온 인류가 살아남던지 함께 아마겔돈의 불속으로 같이 들어가 전멸하는 이 인간, 생명역사의 대기로, 카이로스(Kairos)의 선두주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모임을 아버지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6천7백만 배달민족이 새 이스라엘로 오대양 육대주에 번져나가 구제와 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그리스도화, 새 예루살렘의 새벽을 만드는 백성으로 힘찬 걸음을 내어딛고, 뛰고, 날고, 바다를 누비는 환상에 취해서 이 성회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 세계선교와 기도합주회운동

## [주제강연]

Concert of Prayer International 회장 데이빗 브라이언트



Many have called David Bryant a messenger of hope." Founder and President of Concert of Prayer International, and chairman of America's National Prayer Committee, David Bryant and his team have conducted hundreds of city-wide mass prayer rallies for renewal and evangelism (called National Concert of Prayer) and his latest book is THE HOPE AT HAND: National and World Revival for the 21st Century

### Introduction

- My own pilgrimage over the past 25 years and what I've learned.
- When God spoke to me: "If you bring them to me, I will take them from that point forward" By prayer we bring them to the Throne (Hebrews 10:19-25)
- That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the movement of concerted prayer around the world today. And it is precisely what He can do on your campus.
- A story from India
- The model of Zechariah 8:20-23
- A model in Acts 13:1-4

### 1. What is it that we are praying for?

- The history of concerts of prayer over the past 300 years
- The prayer agenda in concerts of prayer
- Three major themes for every 6-12 concert of prayer:
  - For a fresh focus on all that Christ is-for us, in us, through us, and out ahead of us
  - For a renewal and deepening of our life together in Christ
  - For the advance of our mission for Christ with great power
- Why should this kind of praying fill us with "abounding hope?" (Romans 15:13)

2. The singl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prayer mobilization: Help people to be clear on the vision toward which they are praying. The biblical word is "hope"

- Hope is foundational to the whole Christian life and mission
- See the power of "hope" in the scriptures
- Take note of the power of "hope" in our life of prayer
- This is why "hope" is also crucial to prayer mobilization
- "hope" is also vital to sustaining a movement of united prayer

### 3. How do we express this "hope" toward God?

- Remember to express all three themes in a Concert of Prayer (see above)
- Express these theme by six major approaches to how we pray:
  - Rejoice in who God is, what He has done, and for all He has promised to do. Worship and praise Him in anticipation of what more He is preparing to do.
  - Repent of every sin-personal sin and corporate sin-that would hinder God from pouring out a greater work of His Spirit in World evangelization. How is the Church grieving the Spirit, or quenching the Spirit, or resisting or disobeying the Spirit in our life together?
  - Resist the forces of Darkness, who are so dramatically opposed to what work of the Gospel around the world. Where has Satan raised up barriers and stronghold-both inside the church and among the nations-that could hinder world evangelization?
  - Request boldly by petition and intercession, that God would fulfill all He has promised to do in reviving His people and in advance the cause of Christ around the world. Our vision and hope in God that caused us to

rejoice and praise Him, now should be turned into strong, faith-filled requests. The promises of God and the purposes of God, so clearly revealed in the scriptures, should now become the basis of all we ask Him to do for us in our generation.

- Receive everything God wants to give you as you pray. Prayer is really a two way conversation. As we pray, God is listening and God is also speaking. He will also answer our prayers. So as we

pray, we need to be alert and constantly asking ourselves: How is God renewing me as I pray? What new promises of His Word have come alive in my heart. Have I gained any new sense of hope about what God wants to do in me-in my church, in my generation, in my nation or among the nations? As I've prayed has God spoken to me reassurance about any of my prayers, that He will in fact answer us? Has He reinforce my hope that I will see Him do great and mighty things because we have prayed? Are there any specific steps of obedience He is asking me to take right now so that I can be better prepared for the answers, or so that I can actually become apart of the answers to our prayers?

- Finally, we need to recommit ourselves to God, to obey Him, to remain faithful in our prayers, to mobilize others with us into the same kind of prayer, and to be used by Him to be an answer to any of the prayers we have prayed no matter where it may take us or what it may cost us.

4. In leading a Concert of Prayer, We can combine the 3 themes and the 5 approaches into one "picture" that describes everything we could ever pray about. See the GRID on the followin page. These 18 squares make up the full prayer agenda that must become a part of the prayers for all of us.

- Let me explain the GRID ("How To Pray For Revival")
- Let me show you some practical ways to use it as you lead a Concert of Prayer

5. Conclusion: It all comes together in the book of Ephesians

# 선교와 문화

## [주제강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전호진**



전호진 목사는 고려신학교를 나와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고 피어선신학교에서(현 평택신학교) 학장과 고신대학 교수 및 총장을 입양하였으며 현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및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교회와 선교 1,2집(편저)」, 「한국교회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선교학」,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아세아기독교와 선교전략」 등이 있다.

### 1. 서론

현대선교는 미완성의 과제이면서도 선교를 해야 할 나라나 지역은 대부분 앞문이 닫혀서 선교사가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도전세력은 바로 종교와 현대 사회에 갈수록 더 유행하는 주술적 신앙(Occultism)이다. 물론 선교지의 문화나 정치도 선교의 장애 요소이지만 선교지에서 기독교를 가진 전통종교는 타종교의 유입을 절대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들 종교에 기초한 신정국가(Theocracy)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최근 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심지어 신도의 원리주의는 자기나라를 종교국가로 만들려는 극단적인 종교세력들로서

이들은 물론 철저히 기독교에 대하여는 저항적이다. 제3세계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서구의 일부 신학자들은 안이하게 모든 종교는 평화적 공존을 해야 하며, 어떠한 절대구원이나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제창한다.

그러나 세계의 현실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 절대주의와 폐쇄주의로 나아간다. 현재 아시아, 러시아, 남미 등에서 일어나는 종교현상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폐쇄주의의 전형적인 실례이다.

비기독교 종교의 부흥운동과 자아의식.

정교회와 천주교회의 선교운동 등은 기독교 선교에 도전이 거니와 현 국제정치를 갈등과 종교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Samuel Huntington은 현대세계를 문명충돌의 시대로 결론지었다. 그가 말하는 문명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권이다.

즉 남미의 천주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러시아. 신도의 일본, 힌두교의 인도, 회교권, 유교권, 아프리카 원시종교. 서구의 기독교인데, 이들 문명권은 종교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하거나 협력, 혹은 충돌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종식되었지만 이제 국제정치는 바야흐로 종교전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중대한 교훈이다. 기독교 선교는 곧 타종교와의 조우이며 대결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는 기독교 선교는 무장 없이 적진에 뛰어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구에서는 다른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 등장하여 모든 종교의 평등성과 평화적 공존을 말하면서 기독교 종교적 제국주의로 정죄함으로 기독교 선교의 무용론을 제기한다. 현대 세계종교가 기독교 선교에 왜, 그리고 어떻게 도전이 되는가?

### 2. 현대종교의 경향

19세기는 서구세계가 아시아의 종교를 학문적으로 발견하였다면 20세기는 서구 기독교가 아시아의 종교와 심각하게 조우하고 충돌하는 시대로 규정하고자 한다.

19세기 서구인들과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은 아시아종교(비기독교 종교는 거의 아시아에서 일어남으로 아시아종교로 표현함)는 우상종교임으로 과학과 합리주의 시상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퇴화하고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공산주의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되어도 오히려 아시아 종교는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여 기독교 선교에는 물론 서양세계에 도전이 된다. 최근 이슬람 국가는 서구와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 현대 아시아 종교의 경향은

### 1) 종교의 부흥이다.

20세기에 기독교는 강력한 선교적 열의로 인하여 세계적 종교로 확산되지만 이슬람 역시 20세기초에는 1억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거의 10억을 넘었고 21세기에는 회교인구가 기독교를 추격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힌두교와 불교의 수적인 성장은 기독교나 회교에 비하여 약하지만 아시아지역에서 날로 증가한다. 이것은 우선 한국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인구가 실제인구보다 더 많다는 데서 나타난다.

기독교 선교가 유의할 것은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단이 성행하고 부흥한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 폰 나이스 빗은 Megatrend: 2000에서 21세기는 전통적 종교는 쇠퇴하고 천년왕국적 이단이 성행한다고 예언하였고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The Heretical Imperative에서 현대는 이단의 시대임을 역설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각 종교가 문화적 정체감의 위기에서 전통종교의 부흥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감을 찾으려고 한다. 여기서 지성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종교가 더 성행한다. 한국, 일본, 대만, 이라크, 인도 등에서 종교부흥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은 최근 기독교는 성장이 중단된 반면 불교, 유교, 무속종교가 갈수록 성행한다. 심진송이라는 여점쟁이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것을 잘 입증한다.

### 2) 종교의 상황화이다

1970년대 초기 기독교는 신학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논하고 타종교는 이미 20세기 초기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문명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종교를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옷을 바꾸는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였다.

스리랑카는 불교의 조직을 기독교에서 차용하여 불교청년회(YMBA) 같은 기구를 만들었고 일본불교는 학문적인 발전과 더불어 불교의 과학화를 시도하였고 일찍이 명치유신 때는 기독교 청교도를 본받아 불교청도동지회를 형성하기

도 하였다. 불교의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불교에도 최근 잘 보여진다. 한국에서 불교는 산 위의 불교에서 도심지 속의 불교로 변신하였고 최근에는 조계종에 맞먹는 포교원을 설립하여 불교포교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과 조직을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찬불가, 불교학교, 교리공부는 물론 민중불교, 불교야학 운영 등으로 현대화하고 나아가 사회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다.(1)

한국의 사회사업은 95%가 기독교에서 운용하는 것을 인식하고 불교도 사회사업에 참여할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아시아에서 타종교도 근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세계적 조직으로 상호유대를 가지는데 타종교도 동일하다. 즉 종교의 세계화는 기독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 3) 종교의 선교강화이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 회교, 불교를 선교적 종교로 규정하지만 그것은 옛말이다. 힌두교나 시크교, 심지어 신도도 선교를 강화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기독교 선교가 일방적으로 비서구를 대상으로 열렬히 선교하여 라토렛이 지적한 대로 19세기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이다. 과거 불교는 선교적 종교이면서도 선교에 열의가 약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스리랑카의 불교는 1950년대 이미 서구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기독교 선교사에게서 기독교 신학서적을 빌려 연구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선교를 제창한 독일의 신학자 G.F. Vicedom은 이미 1950년대에 이미 '아시아의 종교는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깨닫고 자기들의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기독교적 서구를 넘어다보기 시작하였다.(2)

선교가 가장 조직적인 종교는 회교이다. 회교의 확산은 평신도에 많이 의존하지만 아라비아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회교 선교를 후원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고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회교국가에 회교선교 훈련원을 세워서 조직적 선교에 임한다. 기독교 선교가 개인이나 선교회 중심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면 회교는 국가후원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가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전개되는 회교 복구운동은 바로 이것을 잘 입증한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라비아 등은 중앙 아시아를

회교공화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다시 부언하지만 아시아 종교의 선교강화는 기독교 선교에 크게 자극을 받았다. 즉 기독교 선교는 아시아에서 소수의 개종자를 얻는 반면 도리어 타종교의 선교운동을 크게 자극하였다. 기독교가 방송을 통하여 선교하는데, 회교 역시 아프리카를 회교화하기 위한 고출력 방송국을 운영한다.

#### 4) 종교의 정치화이다

과거 기독교는 유럽에서, 특히 로마 천주교와 희랍 정교회 선교가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져 기독교가 정치화하였다. 정치가들이 기독교를 통치이데올로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단개종을 통한 전 국가를 기독교화하였다. 즉 강제성을 띤 기독교 신정국가(theocracy)의 시도이다.

여기서 타종교나 이단은 발을 붙이지 못하였다.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정치와 종교는 항상 함께 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치화이다.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서구 기독교, 특히 천주교회는 십자군전쟁을 일으켰고,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지금 기독교 선교에서 치명적인 장애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아시아에서 재현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신정정치의 대표적인 것은 이란의 회교혁명이다.

지금 이란은 회교원리주의에 기초, 이맘(Imman: 회교성직자)이 정치가로서 정치를 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현재는 날로 악화되어 청년들은 나라를 떠난다. 종교의 정치화는 배타주의로서 자기사회에서 타종교의 존재나 선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종교가 정당을 창설, 정치에 진출하여 자기들의 종교이념을 정치에서 구현하여 신정국가를 획책한다. 인도의 힌두교민당(Bharatiya Janta Party), 터키의 이슬람복지당, 일본의 공명당, 이스라엘의 리쿠드당은 이러한 종교의 정치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현대 세계에서는 정치는 어떤 점에서 종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는 종교를 무시하고는 정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최근 국제정치에서 종교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저서들이 많다.(3)

아시아 많은 나라는 종교정당이 수상을 낼 때 기독교 선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종교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급진적인 종교세력은 각 종교의 원리주의이며, 이 원리주의는 종교적 민족주의나 광신적 신앙이 되어 기독교는 물론 타종교의 존재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한다.

#### 3. 원리주의 위협

현대 아시아 종교의 원리주의는 기독교 선교는 물론 국제정치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서방세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리주의(fundamentalism)는 본래 193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와 소위 근본주의 신학간의 논쟁에서 나온 용어인데, 다른 종교에서 적용되었다.(4) 이슬람학자들 중에는 이 용어보다는 자신들을 이슬람주의로 불리달라고 주문한다. 원리주의란 자신들의 종교의 핵심원리를 파수하고 더 나아가 종교의 이념을 정치, 사회, 교육분야, 문화 등에 강제나 폭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는 종교 파격주의자들이다.

특히 회교 원리주의가 가장 과격하여 늘 테러와 폭력으로 신문지면을 장식하며, 이스라엘에서도 유대교원리주의자가 라빈 수상을 암살하였고 인도에서 Communalism의 이름으로 인도를 힌두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면서 회교도와 기독교는 인도 땅에서 물러가라고 외친다.

불교의 원리주의는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강하고 일본은 종교와 정치가 결합한 정치적 원리주의가 항상 한국과 중국을 거슬리는 일본 국수주의적 발언을 정치가들 중에서 심심찮게 한다. 이스라엘의 리쿠드 당의 네탄야후의 등장은 유대교 원리주의의 승리로, 앞날에 중동의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예고한다.

그러면 왜 원리주의가 등장하는가? 원인은 바로 아시아 나라들의 서구화와 근대화에 대한 종교적 저항운동이다. 즉 서구화와 근대화로 인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이 위협당하는 데서 전통종교를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종교적 부흥을 도모한다.

그러나 아시아 종교의 원리주의는 반서구적, 반기독교적 감정을 배경으로 한다. 회교원리주의자들은 서방과 기독교



를 동일시하면서 서구는 십자군전쟁을 통하여 회교를 공격하였고 20세기에 와서는 중동 국가들을 식민지화한 것을 신랄하게 비난한다.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기독교적 서방세계에서 자기들이 당한 수난과 독일에서 학살을 회고하면서 철저한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한다.

원리주의자들이 시도하는 목표는 바로 자기들 종교에 의한 신정국가의 건설이다. 즉 인도는 힌두교 공화국이, 이스라엘은 유대교 공화국이, 회교국가는 이란처럼 회교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종교이념이 정치, 행정, 문화, 사법,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다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유명한 회교권 선교사 사무엘 즈웨머는 알라의 주권을 강조하는 회교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주의간에는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각 종교의 원리주의 등장은 기독교가 회교와만 대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된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다. 하지만 원리주의자들의 신정개념은 정치적 힘을 통한 강제성을 띠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정정치의 개념은 율법적이어서 종교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윤리를 통제한다. 회교국가에서는 여성에게 차도를 강요하는 것,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사업과 오락행위를 금지하고 kosher 음식을 강요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원리주의는 배타주의이고 율법주의이고, 폭력도 불사하는 과격주의이다.

#### 4. 종교간의 갈등과 선교의 위협

사무엘 헌팅톤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충돌론을 주장하였는데, 그의 이론대로 세계 각 지역은 종교전쟁화의 현상을 보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교를 중심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나라안에서도 종교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긴장과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충돌이며 유교 내전은 회교, 천주교, 개신교간의 종교전쟁과 인종간의 갈등이 맞물려 있다.

체첸사태도 체첸의 독립이지만 회교국가인 체첸은 회교정

신으로 무장하여 결국 무신론적인 러시아와 회교의 전쟁으로 비쳐진다. 4년전 나이지리아에서의 회교도와 기독교 신자간의 싸움은 인종갈등이고 종교갈등이다.

아일랜드의 종교전쟁은 같은 기독교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민망함을 금치 못한다. 94년도에 한 비공식보고에 의하면 93년에 발생한 전세계의 전쟁은 무려 53개에 달하며 수백만이 희생되었는데, 그 중에 약 48개가 종교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최근 중국 위굴족의 독립운동과 티베트 독립운동은 인종과 국가의 독립 못지 않게 종교문제가 개입되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카슈미르주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종교전쟁이며, 스리랑카의 종교내전이다. 카슈미르주는 인도땅이지만 인구의 90%가 회교도이고 힌두교는 소수로서 실제로 정치와 경제 등의 권리를 장악하여 회교도들의 교육과 정치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는다.

국내적으로 종교로 인한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는 단연 인도이다. 인도는 힌두교와 회교도간의 갈등과 내분은 종식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특히 아요다 사원을 둘러싼 두 종교간의 사원전쟁은 언제 해결될지 요원하기만 하다. 라르손은 <종교로 인한 인도의 고민> 에서 인도의 종교로 인한 갈등요소를 지적한다. 펀잡에서 시크교도의 분리운동, 카슈미르와 잠무주에 대한 회교도들의 독립운동, 이혼법을 둘러싼 시민법제정 논쟁, 카스트제도, 아요다 사원 문제이다. 라르손은 인도가 종교다원화사회를 제안하지만 요원하다는 것을 시인한다. 결국 세속적 국가로 남느냐 혹은 힌두교 국가로 남느냐가 인도사회의 큰 과제이다.(5)

종교간의 갈등은 기독교 선교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 인도에서 힌두교와 회교도간의 갈등에서 최근 일부 인도지식인들은 종교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인도는 바로 힌두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교도와 기독교인들은 인도를 떠나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여기서 원리주의 힌두교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힌두교로 개종시키는 소위 재개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1995년도 한 소년과 청년이 회교사원에

낙서함으로 회교를 모독하였다라는 신성모독법 (Blasphemy Law) 위반으로 사형에 처하는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국제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사형은 면하고 독일 국가의 도움으로 청년은 독일로 피신하였다. 파키스탄에서는 마호메트를 거룩한 선지자로 표현하는데 반드시 단어 뒤에 괄호를 하고 PBUH를 표기해야 한다 (영어로 Peace Be Upon Holy Prophet을 의미한다).<sup>(6)</sup> 방글라데시에서 유명한 여류작가 타슬리마 나스린은 회교는 여성을 차별한다는 한 마디로 방글라데시를 탈출하여야만 하였다. 일본사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알려졌으나 종교 문제에 관한 한 결코 자유사회가 아니다. 옴진리교 사건으로 야기된 종교법은 기독교 선교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도로의 개종은 일본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 금년도 남미의 로마 천주교회는 개신교 선교의 위협을 중대시하고 신자들을 개신교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종교갈등은 특히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개신교 선교에 가하는 압력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비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기독교 선교는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단순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데이빗 바렛은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2-30만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쫓겨나거나 억압 또는 사형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면 최근 이란은 타종교박해의 일원으로 비회교도 상점은 자신의 종교를 알리는 간판부착과 종교신분증명서 소지를 강요하고 기독교교인들은 Farsi 언어로 예배를 못 보게 한다. 심지어 회교극단주의자들은 이란내의 약 10,000명의 기독교 신자를 처형하라고 요구한다. 2년전 이란의 기독교 지도자 Haik Hovespian Mehr이 이란의 종교자유를 위하여 투쟁다가 살해당하였다. 그는 이란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이요 이란 복음주의 목회자회 회장이기도 하다.

호메이니는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선한 것으로 회교도들이 찬양하지만 살았을 때 많은 신자를 죽였다. 이집트 남부지방에서는 회교원리주의자들로 인하여 목사들이 항상 불안한 가운데 일한다. 한국교회에서 이스라엘은 비교적 선교가 보장되는 나라로 좋게 평가하려고 하지만 최근 유대교 원리주의의 등장으로 약 3-5,000명의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비유대인이라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로부터는 유대적 기독교 신자로 취급 받아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벽에 못을 박는 것처럼 꺾박할수록 성장하고 생명력을 유지한다.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는 중동에도 수만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존재한다.

한 아랍국가에서 리비아 석유회사 일꾼 4명이 기도그룹을 조직. 현재는 60명의 지하교회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작업 시작 전에 큰 소리나는 디젤트랙터 옆에서 기도회를 가진다고 한다. 중국은 개방으로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허용과 억압의 2중정책을 견지하여 기독교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하여 WEC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약 3천만명으로, 요나단 차오는 7천만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현재 기독교가 성장하는 지역이나 선교가 가능한 곳을 종교적으로 분석하면 유교지역은 기독교에 강한 저항을 보이지 않아 비교적 유리하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오히려 개방으로 나아가 선교의 기회로 등장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교, 회교, 힌두교, 유대교 문화권은 선교의 저항지역이다.

아시아에서 기독교 선교는 라토렛이 지적한 대로 아마니즘의 일부 지역에서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이러한 상황은 유교문화권과 공산권을 제외하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5. 결론

타종교의 도전이 심각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는 종교다원주의의 장애가 등대되는 상황에서 안으로는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에 대처해야 하고 밖으로는 타종교의 도전에 기독교 선교는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 초대교회와 같이 기독교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한국기독교는 신도와의 전쟁에서 이미 항복한 불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WCC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나 대화의 신학이 복음주의적 대안은 못된다.

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개인적 대화를 통하여 전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복음주의 기독교도 교회의 세계성(Catholicity)에 근거하여 복음주의 진영에서 세계적 유대를 강화하여 공동전선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으로 한국선교는 선교지에서 현지교회와의 깊은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한다. 고난받는 교회를 먼저 품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복음주의 종교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세계의 인권단체와 협력하고 국제기구를 움직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종교자유를 허용하도록 대대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노출되는 선교를 지양하고 은밀한 누룩의 선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 1) 월간법회편집부 현찬. <포교사와 포교법> (서울: 도서출판여래, 1995)은 불교 전도법과 불교학교 운영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한다.
- 2) G. F. Vicedom, Die Mission Weltreligion (Munchen: chr. Kaiser Verlag, 1959), p.15 고 부언하였다.
- 3) 일본의 언론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많은 저서들에 나왔다.
- 4) 원리주의가 국제정치나 세계종교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카고 대학교는 원리주의 프로젝트 시리즈로 5권의 원리주의에 대한 방대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The Fundamentalism Project Series인 Martin Marty and Scott Appleby의 편저 The Fundamentalism Observed, Vol.2 (The Press of Chicago University, 1991) 등 기타 4권을 참고할 것.
- 5) Gerald J. Larson, India' s Agony Over Relig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5)를 참조할 것.
- 6) 파키스탄 기독교회는 이 사건이 기독교 박해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파키스탄 언론이 다룬 내용을 편집하여 전세계 기독교에 기도를 부탁했다. G. M. Felix Martisari et al, compiled, The Blasphemy Law (Karachi: Idara, E. Amn, O. Insaf, 1995)를 참조할 것

## 10/40창 지역 미완성 과업

### [주제강연]

기독교 21세기 운동 국제디렉터 루이스 부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브라질에서 성장하여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나온 루이스 부시 박사는 기독교 21세기 운동 (AD2000 & Beyond Movement)의 국제디렉터를 맡아 2000년까지 모든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세 계교회를 동원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 "The Unfinished Task"

It was nearly two thousand years ago that Jesus challenged His church with the Great Commissio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oday, as we rapidly approach the 21st century, we are nearing a milestone that Christians once only dreamed of reaching. Within sight for the first time ever is a goal that for centuries has ignited the hearts of missionaries: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This great "Unfinished Task" is the motivational goal of the AD 2000 & Beyond Movement - not only that it be done, but that it be done by the end of the millennium -by December 31, 2000!

Perhaps this overwhelming goal sounds too ambitious, too far-reaching. But consider for a moment Coca-Cola's well-publicized goal to place "a Coke in the hand of every person on earth by the year 2000." If reaching the entire world with a soft drink is not too ambitious for a business corporation, how much more should Christ's own church be committed to reaching that same world, in the same time frame, with the saving Gospel of Jesus Christ?

A hundred years ago, evangelist D.L. Moody said concerning the spread of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by the end of 1900, "It can be done; it ought to be done; it must be done." However, five years before the end of that century, his colleague, A.T. Pierson, conceded, "we despaired of hope."

Today, a few years before the end of our century and millennium, hope and anticipation have regained the upper hand over despair and pessimism. More than 4,000 Christian leaders representing 186 countries have committed themselves in writing to the goal of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With that common goal in sight, they gathered in May of 1995 for the 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GCOWE '95) in Seoul, Korea, which Ralph Winter- founder of the U.S. Center for World Mission - said may have been "the most strategic Christian gathering in history."

It is apparent, then, that many Christian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believe "The Unfinished Task" can, indeed, be finished. They have committed themselves and their resources to the effort, joining hands to seek completion of the task in this century. Embracing the conviction of D.L. Moody from a century ago, they accept even more strongly that, It can be done; it ought to be done; it must be done. "

#### It Can Be Done!

Because So Much Has Been Accomplished Already

The first thing we must understand about the goal of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is that the greatest portion of the task has already been done. As Operation World author Patrick Johnstone (Chairman of the AD2000 Unreached Peoples Network) has observed/ "There is cause for much praise to

God in the progress over the past 200 years, and more especially in the past 30, and cautious hope for the initial attainment of our goals."

Planting "a church for every people" is a task that is already well underway and entirely within reach. Of 12,000 known ethno-linguistic peoples in the world (distinct cultures with their own ethnicity and I or language), an estimated 10,000 already have a church-planting movement in their midst! Because of God's power and faithfulness, His many servants have prepared the way for this great moment in history.

"The Gospel for every person" is entirely possible as well. We have long been told that by the year 2000, over 95% of the world's population - people from every culture, language and country - will have access to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rough a portion of scripture in their own language, literature distribution, radio transmission, audio recordings, the Jesus film or public evangelism. In fact, it is no longer a case of one means or another in terms of access to the Gospel, but one means and others .. By Ethno-Unguistic Peoples with a Church Planting Movement the end of the century, experts now tell us that 95%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have access not only to some portion of scripture in their own language, but also to Christian radio broadcasts ... and audio recordings ... and the "Jesus" film!

Throughout the world we see much evidence of a rapid acceleration in divine activity toward the fulfillment of the goal. God is moving as never before.

#### Because Of Prayer Mobilization

God's Word promises that He answers the prayers of His people when they pray according to His will. These promises underscore the pivotal role of a growing prayer movement focused on world evangelizations. Revival expert and scholar J. Edwin Orr once wrote/ "when God

is about to do something new He sets His people a-praying." This is already happening in churches around the world.

In 1994 an article in Christianity Today asked, "Is a Global Great Awakening Just Around the Corner?" The article answered, "With millions of Christian believe holding mass prayer rallies worldwide, scholars and prayer movement leaders are asking whether this development foreshadows church renewal on a global scale." It went on to cite prayer initiatives like the Day to Change the World, held June 25, 1994, and the AD2000 Prayer Mobilization Network's Praying Through the Window in October, 1993. The article then proposed that "a prayer movement that greatly surpasses anything, perhaps in all of Christian history, is rapidly gaining momentum."

And this momentum of prayer is still growing. Praying Through the Window II, held in October of 1995, focused on the influential "Gateway" cities of the "10/ 40 Window." A third Praying Through the Window scheduled for October of 1997 will focus on the least-evangelized peoples targeted by Joshua Project 2000. Add to this the thousands of churches and small groups who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adopting and praying for specific people groups and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God's people are praying as never before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 Because Of Accelerated Outreach Efforts

"The Gospel for every person" means that every person on earth will have access to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ut how can we know for sure that worldwide access to the Gospel can be accomplished?

First,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can become a reality because of the technology available today. Consider the ministry of one evangelist who is honorary co-chairman of the AD2000 & Beyond Move-



ment - Billy Graham. Since 1949, Graham has preached to more than 180 million people in more than 180 countries and territories. Yet the impact of just one day-April 14, 1996- dwarfed even that lifetime exposure. The global broadcast of Graham's 1996 World Television Special that day to near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exposed more people to the Gospel than all his combined audiences in 45 years of ministry! Never before in history have so many people heard the Gospel message in a single day.

If the combination of today's technology and one evangelist can expose so much of the world's population to the message of Jesus Christ in such a short time, just imagine what great things - by God's grace Bible Translation Response to Literature Distribution and power- are possible!

Seco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can become a reality because the scriptures are available in the language of the world's people. By the year 2000, eight out of every ten people will have access to the entire Bible in their own language. Nine out of ten will have access to a New Testament. Today the acceleration in Bible translation is so remarkable that more than 18 different language portions per year are being translated, compared to just over three years in 1900.

Thir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can become a reality because of massive literature distribution, which is occurring systematically as well as randomly throughout the world. The AD2000 God's word and literature Network, for example, is systematically distributing Christian literature to every home in the world. In India, whose population will reach nearly one billion by the year 2000, Final Thrust 5000 and other agencies are working to distribute Christian literature to every home in the more than 600,00 villages by century's end, with an average of seventeen new churches per day emerging there.

Fourth,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can become a reality because of audio communications. This includes all radio and recorded Gospel messages as well as other media that do not require reading skills for the hearer.

Because of a dramatic rise in illiteracy, the United Nations has called the 1980s "the lost decade." Audio technology has emerged as the obvious and vital mass medium for reaching these estimated two billion people.

In less than ten years, the number of languages within evangelistic broadcasting has increased from 170 to 249. By the year 2000, radio broadcasts are expected to cover an estimated 99%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AD2000 Audio Communications Network, with the involvement of more than 20 agencies, seeks through a plan called Target 4000- to recruit at least 70 recording teams to finish the cassette recording work that began in 1940. By the year 2000, audio Gospel recordings will be available to 96% of the world's population.

Fifth,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can become a reality because of the "Jesus" film. As of January, 1996, over 730 million people in 217 countries. The "Jesus" Film Estimated Viewers tries of the world have seen this stirring film, with 42 million known decisions for Christ. With 445 churches and mission agencies involved, a new translation is being completed every 10 days. The goal is that by the year 2000, the "Jesus" film will be available in languages known by 99% of the world's population.

#### It Ought To Be Done!

A close look at the Bible tells us that "The Unfinished Task" of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ought to be done.

Jesus said,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

mand" John 14:15). When Jesus gave the Great Commission to His followers, He commanded them,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atthew 28:19). The word He used for "nations" was *ethnos*, which can easily be translated "ethno-linguistic peoples" instead of "nations" (countries with politically drawn boundaries). In reaching the world for Christ, believers should tak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unreached ethno-linguistic peoples.

The Bible tells us that people from every ethno-linguistic group will be in heaven. John wrote in Revelation 7:9,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in front of the Lamb."

Scripture not only stresses the need to reach all people groups, it also emphasizes that every person should hear the Gospel message. When Jesus commissioned His disciples He said,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Mark 16:15). Based on these verses, the AD2000 & Beyond Movement is mobilizing Christians worldwide to bring to each ethno-linguistic people a church and to provide each person access to the Gospel.

### It Must Be Done!

Knowing that "The Unfinished Task" can be done and ought to be done, we also acknowledge it must be done. But what has to happen before we can realize the vision of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Through the AD2000 and Beyond Movement process, we believe God has raised up a number of specific, effective strategies for completing the task - country-wide efforts, denominational initiatives, region-wide projects, city-wide programs, networks of agencies, and partner-

ships between many organizations who labor together toward the year 2000. "The Unfinished Task" among unreached peoples is a common focus for all of them.

Over several years, more than 2,000 plans which target the year 2000 have emerged independently, in country after country around the world. Together they are an indicator of what we must do in the years ahead. We must acknowledge, support and encourage them, filling any gaps that emerge and enriching them any way we can.

The Apostle Paul admonished all believers to run the race to obtain the prize. By God's grace and provision, we have come a long way. But as we approach the end of the race, it is time to quicken our pace. It is time to begin our sprint. Paul wrote to the Romans,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Romans 13:11-12).

We acknowledge "The Unfinished Task" includes several serious concerns. We must not oversimplify the scope of the work. We must guard against a failure to cooperate within the Body of Christ.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human, spiritual and financial costs of reaching the world's remaining unreached peoples.

But we must remember that God is on the move! He is superintending the events of our time. He is the source of the world's growing spiritual thirst. That means that now is the time. Let us go forward with God's help and work together in harmony toward the year 2000 and beyond to complete "The Unfinished Task" that lies before us.

It can be done! It ought to be done! It must be done!

## What Can You Do?

The data shows that the Gospel will soon be available to almost every human being alive today. What can be done to assure that people respond and churches are planted, especially in the remaining least-evangelized peoples without a church? Joshua Project 2000 has been launched to give you a way to contribute to the completion of the task. The goal of Joshua Project 2000 is to pioneer a church-planting movement among each of the approximately 2,000 least-evangelized peoples through prayer, research and mobilizing church-planting teams.

You can pray for the least-evangelized peoples. The Joshua Project 2000 list is available for free. Encourage your church, Bible study group or prayer circle to adopt an unreached people group for prayer. Make plans to participate in the October 1997 Praying Through the Window III which will focus on the least evangelized peoples.

You can form or join a research team to visit one of the Joshua Project 2000 peoples. A Joshua Project 2000 video and a training manual prepared especially for short-term research teams are available. The research data that you collect will be shared with missions researchers and will be used to produce people profiles for prayer and strategic planning.

You can explore joining a long-term church-planting team. Your church or fellowship can link with an agency or denomination sending church planters to one of the Joshua Project 2000 peoples and support them financially and in prayer.

# 미전도종족입양의 성경적 근거

## [선교전략 / 미전도종족의 날]

나성한인교회의 담임 **김영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브라질에서 성장하여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나온 루이스 부시 박사는 기독교 21세기 운동 (AD2000 & Beyond Movement)의 국제디렉터를 맡아 2000년까지 모든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세계교회를 동원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 1. 서론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란 복음을 받기는 했으나 받은 사랑들이 자기들과 언어와 종족이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종족집단(People Group)을 말한다.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는 전세계의 모든 교회가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공동과제이며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가 미전도종족을 "입양"(Adoption)하는 일이다.

종족접근식 선교방식은 21세기 세계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써 이 방법은 총체적인 사역(복음화와 사회개발)을 전개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세계교회의 선교사역을 쉽게 측정 및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집단개종(People Movement)을 일으키는 장점도 갖고있다.

성경의 핵심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이 계획이 보여주는 비전은 작은 구도가 아니라 항상 종족과 민족과 세계와 같은 큰 규모인 것이다.

### 2. 본론

1) 아브라함과 미전도종족 - 전세계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구원축복을 받게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 (창 12:3, 18:18, 22:18, 26:4, 행 3:25)

2) 이스라엘 민족과 미전도종족 -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열국의 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출 19:5-6)

3) 시편과 미전도종족 -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세계의 많은 열방들(the nations)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시 22:27)

4) 선지서와 미전도종족 - 이방 모든 족속이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사 11:10, 사 49:6, 사 53:11, 단 7:13-14, 미 5:2-4, 스 9: 9-10)

5) 예수님의 사역과 미전도종족 -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모든 민족의 구속을 위한 사역이다. (마 10:28, 24:14, 8:11, 요 1:29, 3:16-17)

6) 제자들의 사역과 미전도종족 - 제자들의 사역범위에는 지상의 모든 족속(All the nations)이 구별 없이 포함되어 있다. (마 28:16-20, 눅 24:47-49, 행 1:8)

7) 사도 바울의 사역과 미전도종족 -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며(행 9:15, 롬 1:5, 15:16). 그의 서신들은 모두 이방인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8) 새하늘의 소망과 미전도종족 -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을 반영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계 7:9-10)

### 3. 결론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전세계 모든 종족을 포함하고 있다. 복음은 어느 특정 종족이나 민족만을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

주님은 민족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 모든 종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 미주한인교회의 미전도종족입양 현황과 사례연구

## [선교전략 / 미전도종족의 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비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 칼빈신학대학원을 거쳐 탈봇신학대학원 및 남아공의 포체스트롬대학교 신학부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오정현 목사는 서울 사랑의교회 협동목사를 역임했고 현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KOSTA) 총무, 미주한인OM, 국제선교회 이사장이다.



지난 95년도 서울에서 열린 GCOWE대회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각지에 흩어진 한인교회들이 새로이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도 자기 종족내에서 복음을 나눌 만한 공동체나 교회가 없는 종족을 미전도종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세계에 이러한 미전도종족이 11,000종족이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종족을 복음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입양을 통한 총체적인 선교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전통적인 선교접근은 대개 나라나 지역에 역점을 두고 선교사를 파송해 왔었다.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로 선교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다는 자부심을 갖는데 만족해있다. 그러나 세계선교에 있어서 미완성과업의 중차대함을 인식하면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협력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완성과업이 지역교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또한 선교단체만으로도 불가능하기에 함께 사역을 분담하는 일의 중요함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적인 대립이 한때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사이에 있었던 적도 있다. 세계선교라는 과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지역교회는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선교단체와 경쟁할 수 없기에 선교적인 직접동참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교회의 선교적인 참여가 유기적인 (Synergic)관계로 선교단체와 정립이 되면서 새로운 선교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역교회가 선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참여가 아니라 미전도종족입양을 통해서 세계선교에 직접 동참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도 미전도종족입양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 2000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는 일을 선교과제로 삼고 교파, 선교단체를 초월하여 공동사역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이번 3차 미주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도 300개의 미전도종족을 입양해야 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선교관련 지도자들에게도 미전도종족 입양사역을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고 교회의 입양사역의 사례는 손에 꼽을 만큼 미약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과 환경에 있는 여러 이민교회들이 이 미전도종족입양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세, 선교예산, 선교헌신자들의 정도, 선교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들에 따라서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적합한 단계를 밟아서 입양사역을 시도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세가지 모델은 현재 미주한인교회에서 모집한 모델

- 1) 미전도종족입양본부와의 전문적인 지문을 통하여 교회가 미전도종족입양을 하는 모델.
- 2) 미전도종족을 입양하기를 원하는 선교단체와 먼저 협력해서 입양하는 모델.
- 3) 교회 자체에서 선교사를 발굴. 발굴된 선교사를 기도하는 미전도종족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위의 세가지 모델은 지역, 교세,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이 다른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다. 각각의 모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미전도종족입양사역을 돕고자 한다.

### A 모델

위의 모델은 지역교회가 오랫동안 미전도종족입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합한 미전도종족을 찾아서 입양하는 것인데,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 부단한 준비와 정보수집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지역교회가 미전도종족입양을 결정하고 난 후라도 사실 어떤 미전도종족을 입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입양사역은 간단히 말하면 한 가정에서 갓난 아기를 입양하는 것과 같다. 부모가 직접 그 입양할 아이를 대면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 초기단계의 bonding이 생겼을 때에 입양하는 것과 같이 지역교회도 무작정 아무 미전도종족이나 입양할 수가 없다.

지역교회의 선교전략과 자원에 있어서 제한성을 고려해 본다면, 여러지역에 교회 지도자를 보낸다거나 직접 미전도종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단순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순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도 무엇보다도 입양사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어떤 미전도종족을 애정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입양할 것인가가 이 교회의 큰 숙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담당자를 세워서 콜로라도에 있는 Adopt-A-People Group Clearing House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단체의 정보들을 먼저 점검하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대륙에 산재해있는 미전도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몇 종족을 선정해서 종족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모아서 선교위원회에 발표하고 입양하는 단계이다. 그 이후에 이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교단체를 찾아내고 또한 인종을 초월해서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선교사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입양식을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드림으로써 교회가 미전도종족과 입양의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모델에 있어서 강점은 미전도종족입양사역을 교회전체가 기도로 참여함으로써 일반성도들의 깊은 헌신과 애정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전도종족 클리어링하우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연 입양사역이 입양사역 주류단체와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미전도종족입양사역이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강한 인상을 주어서 성도들 모두가 동참하고 우리의 일이라는 강한 공동사역의식을 가진 수가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미전도종족을 결정하거나 선교단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 성도들이 사역이 어렵다는 인상을 받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된다. 어쨌든 이 모델은 강한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 B 모델

교회가 선교단체와 어느 정도의 협력사역을 해온 교회들이 취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여러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 미전도종족에 대한 비전이나 사역방향을 타진해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선교단체는 각각 독특한 사역의 방향과 영역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OMF선교단체의 경우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곳이다. 또한 한인선교사들이 많이 사역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활동하는 선교사들이나,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의 사역의 비전들, 특히 미전도종족에 대한 사역의 계획들을 알아 보고 입양사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재 협력하고 있는 한인선교사 중에서 미전도종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는 선교사를 찾아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고 그 선교사가 속해있는 선교단체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교회개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기존의 선교 협력관계를 사용한다는 데에 있어서 훨씬 수월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교회의 성도들에 이제까지 협력해온 선교사를 신뢰하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파송선교사를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우수한 선교단체와의 기존협력관계를 미전도종족입양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종족 입양모델은 기존 선교단체와 협력이 긴밀하고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미전도종족 내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개종자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교회가 기존 협력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시작하는 미전도종족입양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과제도 남는다.

성도들로 하여금 미전도종족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고 교회가 취해온 기존 선교협력형태와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선교형태의 하나로 인식되어서 성도들의 참여가 저하되고 관심과 기도를 얻지 못하는 우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관계 설정은 미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

C 모델

이 경우는 교회가 선교후보생들을 교회의 선교교육을 통해서 매년 여는 선교대회를 가짐으로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성도들에게 선교의식과 동참을 고취함으로써 매년 여름에 허는 단기선교를 통해서 발굴해냄으로서 가능한 모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교회에서 미전도종족입양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의식을 고취하고 그 가운데서 젊은 선교사를 발굴, 미전도종족에게 선교단체와 전문적인 협력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다양한 선교적인 사역을 해온 가운데 열매로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는 사례이다.

개척선교를 지양하는 교회일수록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는데, 발굴한 선교사가 미전도종족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격려하고 또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이다. 현재 몇 이민교회들이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미전도종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선교사를 일정한 지역에 파송, 지원하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다.

미전도종족을 입양한다는 사실은 한 지역교회가 미전도종족과 혈연이상의 관계를 맺음으로서 사실상 그 종족을 책임진다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7장 9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중에서 우리의 비전과 사역의 헌신, 애정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는 것이다. 선교사발굴과 파송을 자연스럽게 미전도종족과 연결시켜서 사역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델은 지역교회가 충분히 선교에 대한 의식과 헌신이 고취된 상태에서 선교사를 자체 지역교회 내에서 자라고 도전받고 준비된 사람으로 파송하는 것인데, 선교단체도 이 사역에 필요하고 관심이 있는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훈련과 현지의 사역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협력의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대개 선교단체의 전문성에 지역교회가 끌려간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지역교회가 자체선교사와 미전도종족입양과 개척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헌신을 함으로서 밀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파트너십을 공유하게 된다. 성도들 또한 선교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도 상세하고 개인적이고 선교사를 향한 애정이 미전도종족에게로 잘 전이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미전도종족의 사례는 지역교회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왔고 또한 장단기 선교사역의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가 있다. 현재 미국교회들은 미전도종족을 입양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한 교회개척팀을 자체교회에서 형성해서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들은 안정되고 충분한 인원과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개의 미전도종족이 창의적인 접근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개척 파송선교사나 팀들을 전문적인 선교단체를 통해서 충분하고 확실한 선교훈련, 전략을 수립해야만이 인원이나 투자되는 재원이 실질적인 열매 없이 허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와 충분한 사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가 자칫하면 교만하게 독단적으로 선교정책과 사역방향을 결정하여서 협력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제언

위의 사례들은 현재 이민교회가 나름대로 해 온 케이스들인데 이민사회의 한인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전도종족 입양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전도종족입양에 관심이 있는 지역교회를 이미 입양사역을 원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미전도종족입양사역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교회가 미국의 주류선교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데 있어서 장벽들을 해소해 주고 자료와 교육,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미전도종족을 위한 정보교환소나 전문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미전도종족입양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도 지역교회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고 어떻게 각 지역교회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미전도종족을 입양할 때에 선교단체도 협력하게 되고 구체적인 일군도 나와서 11,000의 미전도종족에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확신한다.

## 미전도종족 현지조사연구팀

### [선교전략 / 미전도종족의 날]

한미세계선교센터 대표 **김종헌**



북미주한인교회의 탁월한 차세대 선교지도자로 부상되는 김종헌은 UCLA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부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 박사 밑에서 사사하며 90년대 부터는 한미세계선교센터를 창설하고 현재까지 대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교실 세미나」, 「퍼스펙티브 코스」 강사로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해 뛰고 있다. 미전도종족중보기도 책자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선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다.

Joshua Project 2000(JP2K)는 95' 세계선교대회(GCOWE '95)의 구체적인 사후조취 협력적 전략으로서 1685여개의 미전도 종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2억의 인구에 달하는 1685종족 목록은 기독교 21 세기 운동본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문화적으로 조화된 교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위한 좀더 커다란 전략을 위해 작성되었다.

이 JP2K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 중 세 번째가 현지 답사를 통한 조사와 교회 개척을 시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다. 본 한미세계선교센터에서는 북미주 한인교인들이 이 현지답사를 통한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해왔다.

현지 조사 연구에는 세단계로 참여할 수 있다.

첫번째로, 좀더 심각한 민족지학상의(Ethnographic) 조사를 요하는 지역이나 종족에는 훈련과 debriefing을 포함하여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의 장기 연구팀을 필요로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경제적, 인력, 그리고 투자하여야 하는 시간 등으로 인해 교회에 커다란 도전을 제공한다.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이 일을 이루는 데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다. 2-3주 동안 진행되는 조사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며 가능해 보이지만 일을 이루는 데는 그다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단기팀은 연구조사팀이라 부르기보다는 실태조사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

한미세계선교센터에서는 이런 장기 연구조사를 해 왔으며 이미 세 번에 걸쳐 한미선교정탐대라고 부르는 연구팀을 미전도종족의 전략적인 지역에 보냈다. 베다니 세계기도센터의 Rickward는 약 300여개의 종족이 이런 장기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두번째로, 많은 현지 조사 연구는 4-5개월의 장기적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상하기는 2-3주에 걸친 조사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많은 미전도종족은 이미 철저히 조사되었으며 소개서(Profile)가 준비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세속적 자료에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정보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할 것인가이다.

어쨌든, 이미 충분히 정보가 있으므로 2-3주동안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공동체에 관한 어떤 면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으며 또한 설정된 개인들과 만날 수 있다. 캔사스의 River of Life 교회가 중국의 Naxis 종족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가 이 두 번째 종류의 연구를 잘 나타내 준다.

Institute of Chinese Studies를 포함한 다양한 선교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그들이 모으고 있는 많은 Naxis에 관한 자료를 얻었다. ICS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사진과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비디오 등의 확실한 실태를 조사하는 단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연구조사는 2-3주 동안 이면 이룰 수 있다.

세번째로, 어떤 지역이나 종족은 꼭 현지조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1992년도에 한미세계선교센터가 터키의 버사라는 도시에 연구팀을 보내려고 고려하고 있을 때 이미 그곳에 두, 세 선교사가 가정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들에게 연구 조사 필요 여부를 물어 보았을 때 필요치 않음을 알았다.

그들과 또한 다른 단체의 반응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에 연구팀을 보내지 않아도 됨을 알게 하였고 그 대신 코냐로 팀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지역이나 종족에는 2주 정도의 기도팀을 보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모든 연구에는 어떤 표준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모든 연구가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일에 참가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오히려 유해하거나 손실을 입힐 수 있다. 그럼으로 전략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한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 현지 답사를 연구 조사는 많은 단체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현지 그리스도인 - 교회라는 조직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연구 조사 대상 종족 혹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힘을 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전세계적 지체의 부분인 지역교회들의 헌신과 참여가 없이는 JP2K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한편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와 현지 그리스도인과의 연결이 없이 연구 조사를 주도하며 팀을 보내려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역교회가 현지답사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솔직히 현재 북미주 한인교회의 경향에 대해 염려가 된다. 대부분의 대규모(500명 이상의 교인 출석) 한인교회들의 경향이 선교단체의 역할을 감당하여 스스로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세계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지만 일의 초기부터 선교 단체와 현지 그리스도인의 참여가 없어서 생기는 불이해와 불상사의 소식은 매우 슬픈 일이다.

확신하기는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일을 한다면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일랜드와 북영국 켈트족의 수많은 수도사들이 유럽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를 비추이는 등불이 되었다.

토마스 카힐의 '아일랜드인들이 어떻게 문명을 구했나'라는 최근의 책의 제목이 꽤 적절하지만 실은 켈트 수도사들이 그 당시의 문명을 구했던 것이다.

윌리엄 케리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업적은 200여년전에 선교단체를 세운 일이다. 이 선교 단체의 조직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그리스도의 자체가 지난 2세기 동안

전세계를 복음화하는 일과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놀라운 발전을 보인 것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는 조직이 아닌 Faith Mission 선교단체(조직)와 선교부 조직으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그후 교회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양성함으로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으며 교회들에 다시 이러한 선교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교회도 선교조직으로 인하여 세워졌다.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고 초기교회의 아버지들과 같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전 지역에 복음 전도의 운동을 조직함으로 물을 주며 양성하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자라게 하셨고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게 된 것이다.

한국의 교회나 북미주의 한인교회가 기독교 21세기 운동의 비전과 세계복음화의 일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이때에 선교단체가 기독교 역사의 움직임에 의미심장한 공헌을 한 것을 잊을 수 없다.

현지 답사 조사팀을 보내는 것은 적은 일이지만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일의 중복을 피하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심을 기해야 한다.

선교단체와 현지 그리스도인을 통한 현지 사정의 적절한 인도와 명확한 가르침이 없이는 이 조사팀의 노력은 열매를 맺기가 힘들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현지일의 퇴보를 초래하는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교회들은 선교단체들과의 창조력과 대화를 통해 이 일의 소유권을 -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면 -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현지 답사팀을 보내기 전에, 그 사이에,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숙제를 하며 단체들과 연결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 지역교회 미전도종족입양사례 보고

## [선교전략 / 미전도종족의 날]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 정필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총회신학원을 거쳐 미국 리폼드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를 취득한 정필도 목사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 총신대학 재단이사, ACTS 이사, 부산선교협의회 회장, 국제기아대책위원회 이사, 학원복음화협의회 회장, 중국선교회 이사장, OM국제선교회 이사, 수영로세계선교회 총재이며 1975년에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여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이며 복음전도자이다.

수영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목회비전을 창립초기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입양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양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선교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게 된다.

### 1. 종족선정

수영로교회의 종족 선정방식은 주로 초기단계에서는 본교회 선교사들의 사역활동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미전도 종족을 신청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종족을 선정하기 위해 이미 2-3년 전부터 단기 선교팀 파송 등을 통해 다양한 정탐활동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가 파송 또는 후원하는 선교사의 선교대상 종족이 곧 입양 종족이 됨으로써 종족선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선교사역에 효율성과 연속성을 더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도차이나의 Lao Song 종족을 입양하기로 한 것은 첫번째 입양이어서 모델로 삼아야 하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델과 접근방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L종족은 10/40창문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지리적 위치와 유사불교 문화권에 속해 있고, 인구 20,000의 작은 규모의 종족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다.

현재 본 교회 파송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훈

련원생 중에 L족 자국민이 있으므로 종족정보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용이하고 입양 후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입양 종족을 선정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2. 입양경과

선교위원회는 미전도종족입양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계속해 오다가 인도차이나를 전략선교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전도종족입양과 관련하여 지난 95년 6월 20일 총회선교국이 주관하는 세미나가 본 교회에서 있었으며,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본 교회에서 주관한 부산 '95 세계선교대회에서 강조되었다.

#### 준비단계

- 1) 94년 10월 / 김동원 선교사를 인도차이나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 2) 95년 1월 / 교회선교국 안에 미전도종족입양선교부를 조직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 정탐활동 및 종족리서치 단계

- 1) 95년 1월 / 선교담당 김한국 목사의 선교대학 청년학생 10명이 현지를 정탐하였다.
- 2) 95년 7월 / 아시아선교부 7명의 선교현신자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
- 3) 95년 10월 / 선교담당 목사와 당회원 강중백 장로의 현지방문이 있었다.
- 4) 95년 12월 / 현지선교사들의 AAA전략회의가 있었다(장사: 한정국 선교사).



종족선정 및 책임분담기관 결정

- 1) 96년 1월 / 입양종족을 Lao Song 종족으로 결정하였다. (교단선교국과 AAP와의 협의)
- 2) 96년 2월 / 종족입양계획을 당회에 승인을 받고 입양식 일정을 결정하였다.
- 3) 96년 3월 / 종족입양을 위한 책임분담 기관을 결정하였다(청년회 책임분담). 책임분담 기관은 AAP 운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동력화 할 수 있는 1000명의 회원을 가진 본 교회 청년회가 맡기로 하였다.

입양대표단 현지방문 및 입양식

- 1) 96년 4월 14일 / 입양대표단 파송식을 주일예배 시 본당에서 가졌다.
- 2) 96년 4월 15-19일 / 입양대표단을 현지로 파견하고 현지에서 입양식(자매결연)을 하였다. 선교담당목사, 선교위원장, 청년담당목사 및 청년회 임원단, 의료선교단

종족입양예배

- 1) 96년 4월 21일 / 주일예배 시 입양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다.  
종족입양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고 기도제목을 배부하였다.

종족대표단 초청 및 현지인 선교의 날 행사

- 1) 96년 6월 / 종족대표단을 교회에 초청하기로 하였다.
- 2) 96년 6월 / 현지인 선교의 날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입양종족복음화를 위한 총체적 지속적 접근

- 1) 96년 4월 이후 / 단기선교학교(선교정탐학교)운영
- 2) 96년 7, 8월 / 입양분담책임기관, 청년회 단기선교팀 현지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지인 사역자를 계속 발굴하고, 지도자로 육성하여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협력교회 및 선교단체와 공조체제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한다.

3. 입양전망

수영로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전략을 그 종족의 땅을 정탐하고, 구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재정적인 인적후원을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L종족의 입양은 현지선교사와 L족 자국민 사역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국민 교회가 탄생하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현재 하고 있는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이며, 연속성을 더해주고 선교동원 체제를 극대화하며, 그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자국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기도의 땅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 미전도종족운동 역사적 관점

## [선교전략 / 미전도종족의 날]

한국해외선교회(GMF) 이사장 **이태웅**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태웅 목사는 현재 한국해외선교회(GMF) 이사장과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Mission, Commission) 선교위원회 회장이며 저서로는 「한국교회의 선교 - 그 이론과 실제」, 「제자훈련은 이렇게」, 「심령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등과 다수의 선교훈련분야 논문이 있다.



### 서론

미전도종족운동이 혜성처럼 선교계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74년 제1차 로잔대회 이후이다. 이제는 선교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교전략으로 그 위치를 굳혔다. 누구든지 미전도종족 전략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선교계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전도종족운동에 대하여 늦게나마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이 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선교계의 동향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미전도종족운동이 탄생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 선교학적 이론이나 운동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셋째로, 미전도종족운동에 대한 역사적 개요를 보겠다.

넷째는, 한국교회는 미전도종족운동을 어떻게 수렴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1. 미전도종족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세계선교의 동향

- 1) 복음주의 진영
- 2) 에큐메니칼 진영

### 2. 미전도종족운동의 뿌리

- 1) McGavran의 현대 교회성장운동과 Fuller신학교
- 2) 제1차 로잔대회와 그 후속조치들

- 3) 랄프 윈터 박사와 미주세계선교센터의 역할
- 4) 다운센트와 성경번역 운동

### 3. 미전도종족운동의 역사적 개요

- 1) MARC(Missions Advanced Research & Communication Center)의 역할
- 2) 제1차 로잔대회의 방향
- 3) 로잔 연속 위원회의 역할
- 4) 랄프 윈터의 지도력과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역할
- 5) 1982년에 40여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시카고에 모여서 의논한 결과로 미전도종족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6) 1990년 미전도종족입양자문회의
- 7) AD 2000년 운동과 미전도종족 개념
- 8) 전문인 선교운동과 미전도종족과의 연계성

### 4. 한국교회는 미전도종족운동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 1) 종족선교 개념의 필요성
- 2) 미전도종족 개념과 전형적인 선교에 대한 균형
- 3) 하나님의 소명

# 한국교회의 미전도종족입양전략

## [선교전략 / 미전도종족의 날]

한국OMF 대표 **한정국**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합동신학교, 싱가포르 ACTI선교훈련원을 나왔고 무역회사 5년, 목회 부교역자 사역 4년을 거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OMF와 함께 대학생선교운동과 순다종족사역을 6년간 하면서 싱가포르 ACTI선교훈련원 책임자로 2년간 사역하고 92년부터 한국OMF 대표와 한국미전도종족 실행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1. 우리는 미전도종족 입양선교방식의 주체는 지역교회이며, 분명한 목표로 미전도종족 내 자전적(自傳的) 교회 설립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3단계 전략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첫째, 중보기도운동

선교의 최대 강력 무기인 대포(기도)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퍼부어 적의 진지를 궤멸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즉 중보기도를 분산시키지 않고 동력화(動力化) 시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선교기도를 많이 하나 이를돌격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Peter Wagner).

한 지역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매일마다 매 기도 모임 때마다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 MP(미전도종족입양운동)가 기도 Profile 을 공급하고 있다.

각 교회가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기도제목(그 해당 종족)의 꾸준히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째, 정탐 실시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인의 용사를 생각하고 신가나안인 미전도종족을 정탐하는 방법이다. 정탐대는 담임목사를 비롯 교회의 각부서 지도자로 구성된다.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기, 사진찍기(Slide 포함) 사람들과 사는 모습 관찰, 영적인 현황을 표시하는 지도 만들기, 자전적(自傳的)교회 설립을 위한 Vision 그리기 등으로 진행

된다. 이들은 귀국 후 교회에 보고하며 기도 열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셋째, 선교사(선발, 훈련 및) 파송

교회는 그 선교지에 꼭 필요한 선교사를 선발하며 적절한 훈련을 시켜 그 종족 내로 파송을 한다. 따라서 1996년 이후의 모든 선교사를 종족으로 파송한다. (마28:19, 예장합동 선교부 결의) 이것은 선교의 중복투자를 피하며 선교회 우선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선교사는 첫 2년간 언어, 문화숙지 및 정보통신사의 역할을 함으로 후방 대표부대(입양교회)의 화력을 유도한다. 선교사 자신이 땅을 밟고 중보기도, 정탐을 계속하며 시사적인 기도제목을 계속 공급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지(Base)를 구축하도록 하며 그것을 교두보로 삼아 전략적 선교를 추진한다.

## 2. 구체적인 입양전략 (사례와 현황)

### 1) 교단 선교부내 미전도종족 입양본부를 통한 방법

기존 파송된 선교사를 동역화시키는 방안이다. 즉 그들 인근에 포진한 미전도종족집단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동의를 표하면 그들의 파송교회(또는 주후회교회)로 하여금 해당 미전도종족을 입양케하는 방법이다.

예장합동측은 이런 방법을 550개 종족을, 예장통합은 500개 종족을 입양기로 결의하였다.

### 2) 개교회가 직접 연구하고 입양하는 방식

수원형제침례교회, 부산 신평로교회, 창원 가음정교회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원 형제침례교회는 중앙아시아 카자흐 종족을 입양하면서 개교회 선교의 방법이 더욱 고차원화됐다. (협력선교에서 입양선교로)

3) 교단선교부, 해외선교단체 그리고 지역교회의 공동작품 경우

서울 혜성교회, 용천교회, 그리고 인천 양문교회가 이 사례이다. 이들 교회는 교단과 해외선교단체(OMF, 예수제자선교회)와 협력하여 이런 결실을 맺었고 또한 발전시키고 있다.

4) 해외선교단체가 이끄는 방법

우리나라 90년대 초창기부터 예수전도단은 12개 종족을 입양하고 지역교회를 후원하도록 연결시켰다. 실험적인 방법이었으나 종족입양의 주체가 교회인 점에서 이 시도는 더 연구해야겠다.

5) 학생선교단체와 해외선교단체의 합작품

서울 IVF 지방회는 PWM 김형익 선교사의 소개와 도움으로 인니 수마트라 스문도 종족을 입양했다. 재미있는 방법으로 더 진전시켜 볼 만하다.

### 3. 한국교회의 미전도종족 선교 결의

96년 5월 28-29일 이틀간의 대회에 참석한 600여명의 교회 목회자 및 선교지도자는

1) 미완성 과업을 미전도종족선교로 규정하고 영적, 인적, 물질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2) 금년 내에는 500개 그리고 2000년대까지 2000개 최우선 교회설립이 필요로 하는 종족집단을 입양케 한다.

3) 이를 위해 각 교단은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로 가동시키며 KWMA내 한국 미전도종족입양본부로 그 조정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4) 보다 효율적인 동력화 작업을 위해 일선 한국 선교사 4300명을 동참시키고 국제적인 Network도 갖기로 하였다.

## 여호수아프로젝트2000과 미전도종족선교

[선교전략 / 미전도종족의 날]

한국기독교21세기운동 사무총장 **정인수**

한국기독교21세기운동 사무총장이며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핵심사역자로 활약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 선교보고]

요르단 선교사 **정형남**



[저녁선교대회 / 선교보고]

러시아 선교사 **김재광**



저녁선교대회 / 선교보고

전략지역 선교사 **이부르스**





## 미완성과제와 세계선교

### [저녁선교대회 설교]

### 토마스 왕

Thomas Wang was born in Beijing, China. He was converted at the age of 11 at a crusade of the evangelist John Sung. He was discipled in his faith by the beloved and dedicated pastor Wang Ming Dao. At the age of fifteen Dr. Wang dedicated his life to God for fulltime ministry. In 1953 he served as a preacher and pastor in two Methodist churches in Taiwan and as an international evangelist in Europe and around world.



In 1989 He was international director of the Lausanne Congress for world evangelization He is presently is serving as the International Chairman of the AD2000 and Beyond Movement, motivating churches of the world to reinforce their evangelist effor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especially to unreached peoples with the goal of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by the year 2000.

In 1989 he founded the Great Commission seminary which later became the Great Commission Center.

The following honorary degrees have been conferred upon Dr. Wang.

- 1989 Doctor of Letters (litt. D.)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 1990 Doctor of Divinity (DD.)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What is God trying to say to us today? Are we listening with discernment?

Recently, as we are drawing near to the close of this century, significant things are happening around us. Gigantic plans of evangelism on a global scale are being creatively conceived, planned, and to a degree executed by different groups and orders within Christendom. So much so that I think if only one or two of them succeed in all their objectives, they would truly turn the world upside down.

What is equally noteworthy is that most of these movements take AD 2000 as their target year for an unprecedented world in gathering of harvest for the Kingdom. These are overwhelmingly significant happenings. What is God trying to say to us through them all?

Let me share with you a number of movements of evangelism that are currently either in the planning stage or are already in operation.

#### The World by 2000

By the year 2000 the entire world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through radio broadcast. This goal was set by a historic meeting between leaders of three major Christian broadcasting groups in the fall of 1985; they were Ron Cline(HCJB), Bob Bowman(FEBC) and Paul Freed(TWR).

A statement was jointly signed by the three presidents saying, We are committed to provide every man, woman and child on earth the opportunity to turn on their radio and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so they can become followers of Christ and responsible members of His church. We plan to complete this task by the year 2000\*.

"Technology is already in place to reach virtually every corner of the earth since short wave signals can literally travel thousands of miles. Cline explained. 'Our signals can already reach the remote hidden peoples.'"

The three major Christian broadcasters are spreading the gospel in more than 100 languages. Cline estimates that more than 9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can now hear the good news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 Bold Mission Thrust

This is the Southern Baptist denominational strategy on world evangelization which gives adequate emphasis to both discipling and evangelizing.

It is a "massive movement involving scores of denominational agencies, thousands of churches and millions of church members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Its progra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iscipling, centered on the phrase evangelism that results in churches. - Indeed, it has been labelled as "one of history's most extensive, most organized, most detailed and most determined evangelistic plans.

Its pronounced objectives include:

- To provide every person on earth the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by the close of the century
- To enable every person in the world to have an opportunity to hear and respond to the gospel of Christ by the year 2000

### Charismatic Initiatives

#### 1. Singapore Consultation (February 9-11, 1987)

Organized by Larry Christianson, Director of the Lutheran Renewal Center, St. Paul, Minnesota, the Consultation took place in Singapore. It was attended by 30 charismatic leaders from a wide spectrum of denominations, including Roman Catholics,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A consensus was reached among the conferees that the Singapore Consultation is to be a "Consultation to consider a 1990 World Conference that would usher in a Decade of Evangelization leading up to the year 2000:

#### 2. General Congress on the Holy Spirit and World Evangelization (July 22-26, 1987)

The Charismatic conference attended by 50,000 in Kansas City in 1977 was followed last year by New Orleans '86: Leaders Congress" attended by 10,000 and sponsored by the North America Renewal Service Committee. This again will be followed by another huge gathering in July of this year-the North America Congress on the Holy Spirit and World Evangelization.

According to Congress Director, Vinson Synan, "Between 35 to 50 thousand members of over 40 denominations, ministries, and fellowships are coming to New Orleans in July to worship and to learn how they can work together to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by the year 2000.

### DAWN MOVEMENT

As a youth, Jim Montgomery had specific calling to commit himself to world evangelization. He served as a missionary for twenty-two years with Overseas Crusades in several overseas posts. In July of 1984 he had a clear calling from God to launch the DAWN (Discipling A Whole Nation) movement worldwide.

DAWN's concern is that the whole church in every country work at the discipling of the whole nation, including all its people groups.

DAWN's nation-by-nation strategy is to communicate the DAWN vision to national leaders, identify the "John Knoxes" of a nation (Give me my country or I die!), and serve as a consultant to him to fulfill the task.

The whole nation approach of DAWN has enjoyed successes in the Philippines and Guatemala. More national churches are requesting their service. Their recent status sheet said, Worldwide movement is taking shape! Twenty-seven countries now involved!"

#### EXPLO '90

On December 31, 1985, at the 'dosing day of EXPLO '85 in Mexico City, Dr. Bill Bright, President of Campus Crusade for Christ, announced that a similar but expanded event will take place in 1990.

"There is a great worldwide excitement that EXPLO 85 will accelerate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Bright stated. 'Because of this overwhelming response ... (we) have decided to announce to you ... our plans for a greatly expanded EXPLO 90."

EXPLO '85 leaders were encouraged with the success of a worldwide video conference through 18 commercial satellites, linked up with almost all the 94 sites in 54 countries. Simultaneous translation was provided in more than 30 languages. A continent-by-continent follow-up training course is being conducted.

#### Mission 2000

For discussion purposes, the U.S. Center for World Mission has proposed a 15-year plan called 'Mission 2000' to chart the course of cooperative mission effort (as reported by missionary News Service, February 1, 1985).

Director Ralph Winter spelled out the underlying convictions of Mission 2000 (Mission Frontiers, April-June, 1985) as follows:

1. We believe that those who are blessed by God are automatically obligated to be blessing to all the other peoples of the world(Gen. 12:1-3).

2. We believe that 'to be a blessing' means to spread the news of the saving power and sanctifying Lordship of Jesus Christ.

"3. We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do this is to plant the church within each and every one of the world' s peoples.

"4. We believe that this unique, pioneer' churchplanting activity is the most fundamental goal of missions. We are encouraged by the fact that a broad consensus of mission scholars and leaders is in agreement with this conviction.

"5. We believe there are ample evangelical resources in the world community (i.e., 147 congregations per group to be reached!) to make a serious attempt to plant the church within every people by the year 2000, and that such a goal for the year 2000 is therefore a reasonable goal to work and pray for.

"6. We believe this task is thus more readily within our grasp than ever in history, and that the very end of history may therefore be near.

#### What is God Trying To Say?

The above is an impressive list. But it is only a portion of the whole. Some are still in the embryo stage pending further decis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Satellite Mission of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Some are in the early planning stage, such as the book distribution plan of the World Literature Crusade of putting two books on salvation and Christian growth in the hands of every home on earth in their own language before the year 2000.

To these tremendous happenings David Barrett, author of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and his friends have coined a new term: Global Evangelization

Movement(GEM). But Barrett also gave his caution her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re have been at least 300 plans of world evangelization. Most of them have fizzled out and about 30 of them are still in existence today.

What were the reasons for these failures? Barrett has this to say,

"Perhaps the major reason for the failure has been the absence of any attempt either to structure the objective or to deal realistically with the major obstacles ... Pious hopes have been allowed to substitute for determined organizational and logistical investigation and action on the part of thoroughly wellinformed global missions leaders meeting and acting regularly together, with all the facts in front of them. We need to structure this global movement somewhat more realistically.

He further added, "The extraordinary thing is that most of these plans are operating in comparative isolation and in virtual ignorance of the existence of the other 30 or so plans.

What is God trying to say to you and me?

Scientists and astronomers have built clusters of giant listening devices called the "Big Ear" to listen to radio signals from outer space in order to probe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Are we today tuning our "big ears" to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ho is the Keeper of all mysteries?

We are all busy preaching, speaking, teaching, researching, writing, publishing, broadcasting and telecasting. But are we listening? Has our frantic way of life made our relation to God a one-way street? Again, what is He trying to say to you and me through all these happenings around us today?

Perhaps we should all come before the Lord like young prophet Samuel did and say to God, "Speak Lord, for thy servant is listening.



## 새바람기도회

선교도전/ **이준교** 선교사 이집트  
설교/ **이상남** 목사 한인등대교회

## 성경강해

강사/ **정영관** 목사 서울중앙감리교회

## 주제강연

특수선교 강사/ **이상현** 박사 프린스턴신학교조직신학  
주제강연I 강사/ **빌 월드롭** AD 2000 & Beyond Movement  
주제강연II 강사/ **이동휘** 목사 전주안디옥교회  
주제강연III 강사/ **림택권** 목사 필라델피아연합교회  
선교전략 강사/ **이원상**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서준택** 장로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유효명** 장로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김명혁** 목사 서울강변교회  
**김수웅** 장로 서울 온누리교회  
**배순호** 장로 서울사랑의교회

## 제넥션교대회

사회/ **이승제** 목사 체리힐한인교회  
선교보고/ **이영호** 선교사 루마니아  
선교보고/ **이길소** 선교사 칠레  
선교보고/ **신중혁** 선교사 뉴질랜드  
설교/ **임동선** 목사 동양선교교회



## 왕의 복음과 세계선교

### [새벽기도회 설교]

한인등대교회 담임 **이상남**

한인등대교회의 이상남 담임목사는 매년 1회씩 한인등대교회 선교부에서 단기선교훈련으로 중국 연변, 소련, 칠레, 멕시코 등지에 단기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성결교신학대, 송전대, 서울신학대학을 거쳐 C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여러 책을 집필했다.



#### 1. 인간의 세 가지 구성요소 (창세기 2:7 참조)

- 1) 몸(Body) - 땅의 흙으로 만들어짐
- 2) 영 (Spirit) - 창조주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짐
- 3) 혼(Living Soul) -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짐

#### 2. 인간의 삼중타락과 예수님의 삼중회복

- 1) 첫아담 인류시조의 삼중타락 (창 2:16-17, 창 3:6-7, 롬 5: 12 참조)
- 2)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삼중회복 (창 3: 15, 창 3:21, 고전 15 참조)

#### 3. 인간의 입체적인 삼중선교전략

- 1) 영 - 하나님의 말씀(복음) - 말씀사역 (롬 1: 16 참조)
- 2) 혼 - 하나님의 사랑(희생) - 사랑실천사역 (고전 13:4-7 참조)
- 3) 몸 - 물질(구제) - 생활구제사역 (히 13: 16 참조)

### [새벽기도회 선교보고]

이집트 선교사 **이준교**



# 사도행전

## [성경강해]

서울중앙감리교회 담임 정영관



196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감리교회를 담임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해외선교단체협의회 회장, 아랍선교회 회장,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건국대 교목으로 사역하는 정영관 목사는 감신대, 연세대신학대학원을 나와 풀러신학교에서 도시목회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저서로는 「증인이 되라」, 「산상보훈의 축복 연구」, 「도심지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감리교 복음주의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도전」 등의 저서가 있다.

## 서론

사도행전의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8)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의 기초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의 선교활동의 근거가 됨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고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으며 교회도, 선교도, 선교사역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의 선교를 주도하시고 계신가를 사도행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I.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

1. 주제: 세계선교

2. 요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8)

3. 성령의 사역인 선교: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문화에서 문화로, 국가에서 국가로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4. 세계선교에 초점이 맞춰진 사도행전의 구조

1) 요절인 1장 8절의 확대가 사도행전이다. 예루살렘(1:1-8:4) / 유대와 사마리아(8:5-12:25) / 땅끝(3:1-28:31)

2) 우리의 사명은 세계선교이며 선교의 필수 조건은 권능(

능력)이다.

3) 권능은 성령의 힘을 가리키며 이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4)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기도도 한다.

## II. 성령사역으로서의 선교

### 1. 선교의 필수조건으로서의 교회성장

교회성장의 유형

- 1) 생물학적 성장(Biological Growth) -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과 그 가정의 성장에 의한 성장
- 2) 이동성장(Transfer-in Growth) - 교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것
- 3) 확장성장(Extension Growth) - 교회근처에 전도하거나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하는 것
- 4) 가교성장(Bridging Growth) - 선교성장, (Mission Growth) - '하나님이 놓으신 다리를 건너서 다른 종족 타문화권에 선교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 2. 교회성장과 선교모델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 성장의 모델은 위의 교회성장 유형에 비춰 보면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이며 성장방법론에 따르면 4가지 방법이 총동원되어 종합을 이룬 성장이다. 내적성장 즉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교회성장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외적성장을 위한 전도 교회개척, 선교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성장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자.

1) 교회성장의 필수조건

- 명령 (1:4) /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 약속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순종(1:12-15) / 마음을 같이 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우리가 한 120명이 되더라.
- 성령의 임재 (2:1-4) /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첫번째 은사(2:4-13) / 방언성령의 능력 (2:14-40)/ 베드로의 첫번째 설교의 감화력

2) 교회성장의 과정

- 첫번째 성장 (2:41) / 3,000명이나 더하더라 (3.120명) 교회 기능(2:41-47) / 교제, 떡을 나눔. 기도에 전념. 유무상통. 구제, 열성적 모임, 찬미. 사람에게 칭송을 받음.
- 두번째 성장 (2:47) /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 성령의 두번째 은사(3:1-25) / 앓은병이 고침과 베드로의 두번째 설교 / 베드로와 요한의 첫번째 투옥(4:3) / 저희를 잡으매
- 세번째 성장(4:1-4) / 3,120명 + 날마다 더하게 하심 + 5,000명 교회의 기도(4:23-30) /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기사가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 또 다시 성령 충만(4:31) / 빌기를 마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네번째 성장 (4:32-36) / 교회 든든해짐. 나눔 교회의 모델 교회내의 불상사(5:1-13) /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람들이 다 두려워 함.
- 다섯번째 성장 (5:14) /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 베드로의 두번째 투옥과 석방(5:

17-41) /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 여섯번째 교회 성장과 교회성장의 부작용 (6:1-6) /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 원만한대
- 일곱번째 교회 성장 (6:7) /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의 순교(6:8-7:60) /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과 흠여짐(8:1-4) /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 사마리아교회 성장(8:5-24)과 그 요인 /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신유의 은사 전개. 그 생애 기쁨이 있더라. 세례를 받음. 성령의 임재(8:15-18)

• 최초의 이방인 전도 (8:26-40) /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말은 청지기. 성령의 역사하심 (8: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8:29, 성령이 빌립더러. 8:39, 주의 영이 빌립을) 사울의 회심(9:1-30) / 3. 하늘로서 빛이. 4. 소리 있어. 10,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15, 주께서 가라사대. 17,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 여덟번째의 교회 성장 (9:31) /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베드로의 룻다 전도(9:32-34) / 8년간 누워있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침.

• 아홉번째 교회 성장 (35) /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 베드로의 옴바 전도 (35-43) / 죽은 다비다(도르가)를 살림

• 열번째 교회 성장(42) / 온 옴바 사랑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 두번째 이방인 전도 (10:2-48) / 고넬료가의 구원 / 3.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4. 천사가 가로되, 13. 15. 소리가 있으되. 19.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44.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47. 이 사 람들이 우려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침을 금하리요, 48.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 열한번째의 교회 성장 (1:1-18) / 성장하는 교회의 문제, 그 해결방법, 해결 후에 강해 짐
- 세번째의 이방인 전도- 안다옥교회 설립 (11:19-30) /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안다옥교회 설립
- 헤롯왕의 교회 박해와 열세번째의 교회 성장 (12:1-25) /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 3) 교회성장의 결과

본격적인 해외선교의 시작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 III. 선교를 위한 회의 (15장)

영광스런 구원의 복음전파를 중단하고 방해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의견충돌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충돌은 없을 수 없으나 인간들이 저지른 악을 선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회의의 결과가 오히려 선교에 크게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된 사실을 상고하자.

### 1. 문제의 발단 (15:1-2)

제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앞에 선교보고를 하게 되었다. (14:24-28)

그 보고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는 것" 이었다.

이렇게 선교의 풍성한 열매로 온 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유다(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주장을 함으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 2.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한 상정 (15:35)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교회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길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상정한 것은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처리였다.

### 3. 예루살렘 회의 개최 (15:6)

상정된 의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원들은 사도와 장로들이었다.

### 4. 베드로 감독의 의견 제출 (15:7-11)

- 1)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
- 2) 유대인에게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사건)
- 3) 믿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심(죄씻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일반이다.
- 4)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는 명예를 이방인 자들에게 매우려는 것은 잘못이다.
- 5) 구원얻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 5. 선교보고 (15:12)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현장에서 있었던 표적들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많은 일들을 보고하였다.

### 6. 야고보 감독의 의견제출 (15:13-21)

- 1) 시몬(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베드로 감독의 의견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전적으로 동의함.
- 2) 유대인과 동시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 3) 주께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자.
- 4) 4개 금지조항 (우상의 더러운 것(제물), 음행, 목메어 죽

인 것, 피를 멀리하라)을 제시.

5) 이렇게 금지조항을 제한해야 할 이유는 예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전하기 때문이다.

7. 결의사항 (15:22-29)

- 1) 4개 금지조항 결정 - 우상의 제물, 피, 목메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 것.
- 2) 편지(결의서)를 인편으로 보내자 - 안디옥, 수리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이방인 형제들(성도라고 하지 않음)에게
- 3)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선정.

9. 결과 (15:35)

바나바와 바울이 더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됨.

10. 회의 결정에 성령의 개입하심과 회의의 결정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

- 1) 회의결의사항 : 4개 금지조항 결정 - 우상의 제물, 피, 목메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 것.
- 2) 이 결정을 위하여 오래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고넬료)에게 전도하게 하심으로 준비시키심.
- 3) 이 결정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로 인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됨.
- 4) 유다와 실라를 선정하여 의회 결의사항 전달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은 장차 실라를 선교사로 쓰시려는 성령의 개입하심. (15:40)
- 5) 모든 회의는 선교중심적이어야 함.

IV. 바울선교단의 세계선교여행

사도행전의 주제인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예루살렘(2:14-7:60)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8:1-12:24)와 땅끝까지(13:1-28:31)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바울선교단이 어떻게 세계선교를 하고 있는가, 복음

선교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선교의 주도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받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졌으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음. 유아기부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재정적으로 크게 도왔던 교회이며(11:19-30)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선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3:1-4:38, 15:36-28:31)

1. 선교사의 임명 (13:1-3)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2) 바나바, 니게라라하는 시므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사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별하여 (2) 선교사를 임명하셨다.

2. 바울 사도의 도시선교 전력

1장 8절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으로 알려진 서머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거룩한 욕망이었다.

그리하여 항상 서머나에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곧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의 심정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사도행전 19:21-22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로마서 15:22-24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머나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



내 줌을 바람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울 사도의 도시선교 전략을 말함. (Roland Allen : Missionary Methodes : St Paul's or Ours? Roger S. Greenway : Apostles to the City)

바울은 하나의 주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주에 모든 도시를 다니며 자기 자신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전도하기 용이하도록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둘 내기 세 곳의 대도시나 수도에 먼저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인근의 작은 도시나 동리에 전도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도시선교 전략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 1) 로마의 지배권 지역 (Roman Administration)
- 2) 희랍문명권 지역 (Greek Civilization)
- 3) 유대인 영향권 지역 (Jewish Influence)
- 4) 상업중심지역 (Commercial Importance)

이와 같은 선교전략에 따라 바울 사도는 아래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였다.

### 3. 제1차 세계선교여행 (13:4-14:38)

-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에서 배타고
- 구브로섬의 살라미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선택)
- 바보 (박수 엘루마의 대적의 소경됨으로 인해 서기오 바울의 믿음 13:6-12)
- 밤빌리아의 버가 (마가 요한이 중도 선교 포기 13:13)
- 비시디아의 안디옥 (긴 케리그마-전도 설교, 14:41, 그 다음 안식일에 반대에 부딪혀 쫓겨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함 44-52)
- 이고니온 (허다한 무리가 믿고 순종하나 극렬한 반대와 돌로 침을 받음 14:1-7) 루스드라(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고침, 바나바-쓰스, 바울-허메라고 예배, 14:8-18,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박해로 돌에 맞아 죽어 버려짐, 19-20)
-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버가 앓달리아에서 배타고 안디옥 교회로 귀임하여 1차 선교여행을 마침 (21-22)

### 4. 두 선교단체의 조직 (15:36-41)

- 마가로 인하여 다투고 나누임
-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을 실라를 선택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대표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해야 함 (15-27)) -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

### 5. 제2차 세계선교여행 (15:40-18:22)

- 수리아, 갈라디아 (교회를 굳게 함 15:40-41), 더베, 루스드라 (디모데 헌신 16:1-5)
- 성령의 선교계획 개입과 계획의 변경 (드로아에서 마가 도니아로 부르시는 환상을 봄, 6-10) 드로아에서 배타고 사모드라게, 내압블리
- 빌립보 (루디아를 만남, 11-15, 절하는 귀신들린 여인을 고침으로 투옥, 옥문이 열림, 간수의 회개, 로마시민권자임을 확인, 16-40), 암비블리, 아볼로니아
- 데살로니가 (소동을 일으킴, 바울 일행이 유하던 야손의 집을 쳐들어옴, 17:1-9)
- 베뢰아 (신사적, 귀부인과 남자들이 개종, 데살로니가에서 괴악한 자들이 쫓아 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두고 홀로 떠남, 10-15)
- 아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개함, 아레오바고에서 변론함, 16-34)
-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 18:1-4,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옴, 케리그마, 두려워말라고 말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음, 1년 6개월 체류, 5-11,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함, 12-17), 고린도 출발
- 에베소에 도착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행,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떠남, 18-20)
- 켈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음 (18:18)
-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 귀환 후 휴식 (1:21-22)

### 7.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호하심

- 1) 예루살렘에서의 구속 (22:1-23:30)
  - 바울의 선교보고 (22:1-26)
  -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체포하여 성전에서 끌고 나감. 바울을 죽이려는 소요가 발생. 천부장이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 백성들이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자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감. 영문 층계에서 변론을 시작함 (27-40)

- 바울의 영문 증계에서의 변론 (22:1-29)
  - 공회 앞에서의 변론 (23:1-10)
  - 밤중에 하나님의 격려 (23:11)
  - 바울 암살 결사대 조직과 기밀의 누설 (23:12-30)
  - 벨릭스 총독에게 상소, 가이사랴에 호송
  - 헤롯궁에 수감 (23:31-35)
- 2) 가이사랴에서의 재판 (24:1-26:32)
-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 (1-9)
  - 바울의 변호 (10-21)
  - 벨릭스 총독의 호의 (22-23)
  - 벨릭스 총독 부인의 호의,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함 (24-27)
  -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하여 총독이 되어 재판함 (1-12)
  - 아그립바왕의 재판, 바울의 고소와 바울의 강력한 변론 (13-27)
  - 아그립바왕의 두번째 신문 (1-29)
  -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가이사에서 호소하였으므로 기다림 (30-32)
- 3) 로마로 선교여행 (27:1-28:31)
- 항해의 시작 (선장, 백부장 율리오, 지휘받음, 1-8)
  - 미항에서 뱃너스로 항해함 (바울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한 항해를 시도, 9-12)
  - 유라굴로를 만남 (14일간 폭풍과 흑암의 세계, 바울을 구출하시기 위해 276명이 구출받음, 13-44) 멜리데섬에 닿을 내림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고침으로 후대받음. 3개월간 체류, 1-10)
  - 알렉산드리아호로 다시 항해 / 수리구사, 레기온, 보디올 삼관까지 맞으러 나옴, 11-15)
  - 로마 (주안에서 형제들에게 환영받음, 바울 사도의 케리그마, 16-28)
  - 셋집에서 2년간 케리그마(전도설교)와 디다케(교육설교)로 복음증거, 30-31

## 결론

사도행전의 주제는 세계선교이다.

(1-1, 3) 선교는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며, 복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도행전 연구의 핵심이다.  
 (2-2) 동시에 성교는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신 성령의 사랑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선교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회의는 선교중심적이어야 한다.  
 (3) 교회는 지도자들의 선교에 관심을 둔 의견의 일치에 의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3-4, 6) 바울 사도는 도시선교의 전략가였다.  
 (4-2) 선교단체의 조직도 유능한 지도자들이 언제나 함께만 있으면 선교는 비효율적이다.  
 (4-4) 성경의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세계선교사였다. (4)

# 재미한인교회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계승의 과제

## [특수선교]

프린스턴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이상현**

1980년부터 현재까지 프린스턴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재임 중인 이상현 박사는 1955년 도미 우스터대학과 하버드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간주 호프대학에서 재직했다. 지난 15년 동안 북미주의 이민신학 정착과 2세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1. 한인교회 영어권 지도자 양성의 현실

- 1) 미국 신학교의 한인학생 실태
- 2) 미국 신학교내의 한인학생들의 실태

### 2. 현존하는 영어권 목회의 모델들

### 3. 미국신학교 교육의 문제점

### 4. 지도자 계승의 과제와 대책

- 1) 1세 교회 지도자 양성
- 2) 영어목회 지도자 양성

결론 : 한인교회의 "창조적 소수"로서의 선교적 사명

# 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

## [주제강연]

미션 아메리카 국제 촉진자 **빌 월드롭**



Bill Waldrop graduated of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and had career in U.S. Air Force as fighter pilot, commander, staff officer in Pentagon. After graduated fro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he served as pastor in suburban Atlanta for 10 years. He has just become Facilitator of International Ministries for Mission America, the U.S. expression of the AD 2000 & Beyond Movement.

### INTRODUCTION: Our Generation- Could We See Closure?

- The Global Mandate "Sandwich": Two Declarations, One Command(Mt,24:1; Acts1:8; Mt 28:18-20)
- How One Church Responded: Antioch of Syria(Acts 11:19-30; 13:1-3)

### 1. CHURCH MEMBERS SOUNDLY CONVERTED

- 1) Penitent Faith (11:21)
- 2) Obedience to the Lord (11:23)

### 2. THE CHURCH REACHED OUTLOCALLY

- 1) The Initial Witness Carried On (11:19-21, 24)
- 2) The Acts 1:8 Continuum Begun

### 3. BELIEVERS WERE THOROUGHLY TAUGHT

- 1) Competent Teacher (11:25-26a)
  - a. Knew the word
  - b. Modeled the truth personally
- 2). The Teachers Were Effective (11:26b)
  - a. Disciples developed
  - b. Disciples participated in the church (11:29)

### 4. THE LEADERS WERE SPIRITUAL MEN

- A. Worshipped the Lord and Fasted (13:2a)
- B. Made Sure They Had Heard God Right (11:3a)
- C. Were Obedient (11:3b)

### CONCLUSION

- This Church's Lasting, Global Influence
- The Challenge of Joshua Project 2000

# 교회재정 60%를 선교로!

## [주제강연]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이동휘**



2,700명의 교인이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갱신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휘 목사는 한국신학대학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바울선교회 회장과 전주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 1. 선교준비가 완료된 한국교회

고원용 목사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교회의 나라를

- 영적인 부흥이 전 교회에 휩쓸고,
- 강력한 교회의 성장이 계속되며,
-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교육수준이 높고,
- 선교사가 되려는 젊은 후보생이 많고,
-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고,
- 경제적 성장과 헌신적인 모교회를 가질 수 있는 백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는 위 상황에 부합되므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본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선교한국이 되기 위함이라고 본다.

70, 80년대의 교회성장은 경이적이었다. 60년대에 5%에 불과했던 크리스찬이 20여년 사이에 25%의 급성장을 보였다. 세계 최대의 교회, 최대의 운집, 계속적인 성장으로 교회는 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재력도 막강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 GNP가 1,000불이었는데 현재 한국은 10,000불의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해 왔다.

### 2. 전주안디옥교회의 선교

필자 교회의 선교를 소개하므로 선교하는 교회의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 1) 교회 설립 이념과 목적을 선교로

1983년 3월 27일에 개척된 본 교회는 설립목적을 선교로 두

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을 선교에 맞추어 운영해 나간다. 주보 표면에 7개의 실천강령을 매주일 실고 있다.

#### 실천강령

- 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도가 된다.
- ② 본 교우는 모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선교원(선교사)이 된다.
- ③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선교와 농촌선교 및 특수선교에 주력한다.
- ④ 교회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사역에 사용한다. (십일조, 선교헌금 등)
- ⑤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⑦ 교회의 모든 사업과 집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력한다.

전주시 개발지구 600만 원 전세금으로 쉼넷 건물을 임대하여 첫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부터 선교를 했다. 땅 한 평, 우리 소유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선교하는 교회의 출발이었기에 선교만은 중단 없이 시행해 왔다. 그때 했었기에 오늘도 하고 있다고 믿는다.

#### 2) 교회재정의 60%는 선교비로 (십일조는 선교비)

삭개오가 회개한 후 주님께 대한 첫 결단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였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 패턴이라고 본다. 우리 교회는 이 정신을 앞장서서 따라야 된다고 믿는다. 주님께 바친 이상 헌금은 내 것이 아니고, 교회 것도 아니며(교회는 관리할 뿐이다) 하나님 재산이다.

하나님 재산은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세



상구원이다. 온 세상 구원을 위해 쓰라고 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재직들에게(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교회재정은 제직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십일조는 전액 선교비로 진출한다. 십일조가 교회재정의 60%를 차지하므로 60%를 선교비로 사용한다는 말과 십일조는 선교비로 지출한다는 말이 일치해 가고 있다. 개척 첫날부터 공포한 후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3) 교회는 1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기존교회에서 목회할 때 농촌교회 한 곳을 돕고자 제안했다가 당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이 1년 예산 안에 간혀있음을 보고 예산 없이 지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실천하기 위해 예산 없이 지낸다. 매월 결산만 보고할 뿐이다. 믿음선교(Faith Mission)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선교사역의 증거를 주셨고 1월부터 3, 5, 7월 갈수록 선교비는 증액되었다.

선교사역이 요청될 때마다 바로 실천하고 증액시켜 1월과 12월에는 엄청난 증액폭이 났음을 보았다. 선교사역도 1년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런 큰 확장은 없었을 것이다.

**4) 교회 내 각 기관을 보조하지 않았다.**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찬양대 등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전혀 교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운영하도록 했다. 첫 해에 펍 어려울 듯 했으나 첫 1년 결산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현금으로 굳건질하는 쓸모없는 파티나 소모적인 모든 것이 정화되었고 꼭 필요한 복음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쓰여졌다. 어떤 기관도 선장에 애로되는 일이 없었다. 활기있는 기관으로 변했고 연초 때면 우리 기관의 예산 증액이 왜 적느냐는 불평도 없어졌고 자체의 힘이 강해졌다. 그러면서도 각 기관 자체도 60%는 선교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교회학교의 경우 필요한 선교사역 외에 조건부인 먹을 것과 상주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타교회는 먹을 것도 주고 상도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냐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끝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남을 도와주는 교회'란 의식을 줌으로써 타교회로 갔던 아이들도 모두 돌아왔고 주는 정산으로 무장시켜 어린이들이 낸 헌금도 적게나마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5) 모든 봉사자는 어떤 보수도 받지 않는다**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등 봉사직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않으며 무보수 봉사자다. 또한 성탄이나 연말에도 어떤 성도에게든 수고와 감사의 예물을 주지 않는다. 일년 내내 고생과 땀을 흘린 교수나 구역장들,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많지만 상급은 천국에서 받음을 인식시키고 지상에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는 겸손과 "종에게 사례하겠느냐"는 생각으로 생략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사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으나 오히려 역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 장로, 집사에게까지 지금까지 교회재정으로 선물한 적이 없어도 충성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선물, 파티 등이 봉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았다. 제직회, 교수수련회라는 명분으로 수백만원씩 아낌없이 낭비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농촌교회 교역자의 사례비가 월 2-30만원 내외임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 사찰을 두지 않고 있다. 청소를 비롯한 제반 수고는 교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교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의무임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6) 교회를 선교체제로 운영한다.**

안디옥교회는 11개 선교위원회가 있다. 해외선교위원회, 농촌선교위원회, 특수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육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재정위원회, 의료선교위원회, 노인선교회, 관리위원회, 학원선교회 등 이 11개의 위원회에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결의하고 진행한다.

예를 들면 해외선교위원회는 각 기관의 회장과 해외선교부장(차장)으로 구성, 여기서 결의된 해외선교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으로 집행된다. 제직회나 당회의 통과를 보지 않았도 되며 제직, 당회원도 배속되어 있기에 바로 결의, 집행된다.

이 위원회의 운영으로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교회사업을 당회나 제직회의 제재로 행사가 좌절되었다는 불평도 없다. 농촌선교위원회는 각 기관의 부회장과 농촌선교 부장들이 특수선교위원회는 각 기관의 총무와 특수선교 부장들로 구성된다.

중고등부까지 포함하여 교회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진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이 제도라고 보인다.

각 기관의 명칭도(남녀신도회) 각국 이름으로 명칭케하여 '중국선교회', '케냐선교회' 등 83개의 선교회로 세분되어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한 집중적인 기도를 하도록 하였다.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모든 나라 이름을 명칭화하려 한다.

## 7) 선교는 해외선교, 농촌선교, 특수선교로 나눈다.

### (1) 해외선교

선교사훈련 및 파송을 비롯하여 해외선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바울선교와 협력하여 감당한다.

### (2) 농촌선교

미자립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3년 내에 그 교회를 자립교회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디옥교회와 해당 교회, 해당 목회자가 협력한다.

매월 얼마의 지원비만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음을 알고 2개월에 1회, 1일 세미나를 갖는다. 2개월마다 목회활동보고서도 제출토록 하여 쉬지 않고 연구하는 정신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있다.

50여 회원이 있다. 기타 농어촌교회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진도에 '농어촌선교센터'를 건립 중에 완공하면 농어촌 교역자 훈련센터로서 큰 구실을 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 (3) 특수선교

어린이 가장, 장애인, 교도소, 갱생원 등 특수지역과 기관들에 대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한국에 3백만 장애인이 있다. 바울선교회 소속교회 중 상당수가 장애인 복지관을 마련하여 장애자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있다.

# 북미주한인교회 선교활동 현황과 전망

## [주제강연]

필라델피아연합교회 담임 **림택권**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인 림택권 목사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필라델피아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총회신학교, 커버넌트신학교, 시카고신학교, 웨스터민스터신학교를 나왔고 저서로는 「예수님의 모범(Example of Jesus) (번역)」, 「1967년의 신앙고백 (Confession of 1967) (번역)」, 「또 한번의 기회」 등이 있으며 시카고한국일보에 컬럼 「실로암」(5년), 크리스찬신문에 컬럼 「이런 삶에도 은혜가」를 연재하고 있다.

### 1. 북미주 한인교회

- 1) 약사
- 2) 현황
- 가. 지역별
- 나. 교파별

### 2. 선교현황

- 1) 선교사와 교회
- 가. 지원교회
- 나. 파송교회
- 2) 선교사와 선교기관
- 3) 선교사와 선교현장

### 3. 선교전망

- 1) 한인교회의 전망과 밀접한 관계
- 가. '2원론'의 위험
- 나. '획일주의'의 위험
- 다. 이민교회와 현장
- (2) "후기 전통사회"에서 교회가 맞게 되는 "타협안"
- 가.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 "현실중시" 사고 : 출 8: 25,29 (Exodus)
- "기독교와 문화"의 5가지 개념
- A. "Against" View
- B. "For" View
- C. "Above" View
- D. "Through" View
- E. "Through-But-Above" View
- 나. "어린이들은 머물라!"

- "어른중시" 사고 출 10:8-11
- "기독교와 권위"에 대한 긴장
- A. 이민교회의 지도자
- B. 이민교회의 지도자 전승
- C. 어떤 교인이 되길 원하는가?
- A Christian Korean? or A Korean Christian?
- 다. 재산을 두고 떠나라!
- "소유만능" 사고 : 출 10:24-26
- "라면세대"의 가치관

#### 결론 :

- 1. "교회의 사명" (행 7:46-47): 초월성 - Church is not of the world, 현세성 - Church is in the world
- 2. "교회와 선교" 혹은 "선교와 교회"

이 3차 선교대회가 20세기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미스바" 모임이 되길 진심으로 빌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분을 위해 무엇을 헤드려서가 아니라 그 분이 우리를 통해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일"(고후 4:5)을 위해 기도하며 의논하려고 모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선교지향적 목회를 통한 평신도 동원

## [선교전략 평신도의 날]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이원상**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중앙선교회(CMF) 이사장을 역임하는 이원상 목사는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달라스신학교와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구약신학을 전공하였으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 서론

"선교지향적 목회를 통한 평신도 동원"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 먼저 개교회가 그 목회철학과 방향을 정할 때 "선교와 평신도"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또한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석된다.

즉 "선교와 평신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교회는 "선교와 평신도"를 떠나서는 그 존재 가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Ralph D. Winter 박사는 선교학 교재인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제1과에서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을 논하고 있다.

선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For God is a missionary God). (1) 하나님은 타문화권인 지구상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으며 (요한복음 3:16, 20:21) 우리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 14)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 신학자 Dr. George W. Peters는 "교회는 이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한 기관"이라고 하셨다. (Church has been designed for a unique purpose and mission.) (2)

그러므로 목회자가 목회 철학의 핵심을 선교 지향적으로 나갈 때 온 교회는 동일한 방향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궁극적

목표를 선교로 집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교지향적인 목회철학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신도 동원이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운동이다. 이 평신도 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적인 목회 전략이 따라야 한다.

### 본론

1. 선교 Vision을 통한 선교의 동기 부여 (Motivation through the Vision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는 평신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Vision을 가슴에 심어 주어서 자발적으로 세계선교에 직접 간접으로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3) 평신도라는 무한한 인적 물적 지원을 어떻게 물어 오느냐가 문제이다. 개교회 선교대회, 선교보고, 세계물 등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평신도선교교육 (Missions Education)

평신도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깨우기 위하여서는 체계적인 선교학 강의를 교회 유년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선교학 교과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성경 전체를 선교학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여 교육시켜야 하며 따라서 미전도종족 현황, 무슬림권 전도, 구 공산권 존도 등의 다양한 정보(4)를 소개함으로 선교에 눈을 뜨게 한다. (5)

3. 기도와 선교 헌금을 통한 선교 동참 (Mission Participation through Prayer and Support)

평신도로 하여금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케 하는 것은 가장 급선무의 일이다. 선교현장은 사탄과의 전투장이므로 기도 운동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야 한다. (Operation World by Patrick Jonstone, 1993) 또한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로 지원하는 훈련이 절대 필요하다.

#### 4.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지 훈련 (Mission Field Training as a Short Term Missionary)

평신도 선교동원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하는 길이다.

### 결론

평신도는 선교운동의 무진장한 자원이다.

평신도를 선교 운동으로 깨우기만 한다면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질 것이다. 이 운동은 상당한 부분이 개교회 담임목회자의 선교 Vision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통해서만 평신도를 선교에 동참케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Ralph D. Winter, Perspective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asadena, California: William Carey Library, 1982)
- (2)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84)
- (3)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Mary 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2)
- (4) Patrick Jonstone, Operation World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3)
- (5) Arthur O.F. Bauer, Being in Mission (New York: Friendship Press, 1987)



# 선교재정 활성화 방안과 평신도선교운동

## [선교전략 평신도의 날]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시무장로 **서준택**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이며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평신도대표 공동대회장인 서준택 장로는 연세대 상대, 디트로이트의 웨인주립대학 그리고 조지와싱턴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매릴랜드에 있는 맥클린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장로로 특별히 선교재정운영에 깊은 조예가 있다.



### 1. 선교재정후원이 선교사역에 기여하는 중요성

선교사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지역교회의 선교정책과 선교 program이 설립되면 이에 따르는 선교예산과 재정후원 계획은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2. 선교재정후원모금 계획과 조달방안

특별히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선교경비를 세우면, 이 선교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선교모금운동방안을 계획하여 이 모금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확고한 후원기관이나 또는 개인들(평신도)의 약정헌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교모금운동방안을 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선교재정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선교비 믿음 약정헌금" 모금운동(The giving through Faith Promised Movement)의 목적과 중요성

"선교비 믿음 약정헌금" 모금운동의 핵심적인 의미는 선교운동의 중요성과 사명의를 확신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이 선교모금운동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 모금운동의 핵심은 먼저 평신도들의 선교사명의를 그들의 믿음 안에 뿌려지게 다시금 확인케 하며 이 중대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정후원금을 위하여 각자의 능력 안에서 작정 헌금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비 믿음약정 헌금운동을 영어로 "The Giving Through Faith Promise Movement" 또는 "Faith Promise" 라고 알려져 있다.

### 4. "선교비 믿음약정 헌금 모금운동"과 교회성장

"선교비 믿음약정 헌금 보급운동"(Faith Promise)은 선교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평신도들의 적극 참여로, 먼저 선교부흥운동에 큰 불꽃을 일으켜,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의 선교활성화에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역교회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 평신도선교동원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평신도선교활성화

## [선교전략 평신도의 날]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류효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섬기는 유효명 장로는 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범세계한민족 기독교21세기운동 평신도선교위원장이며 논문은 「2000년대 의료선교전략」, 「평신도의 세계선교참여 - 문제점과 해결책」, 「평신도선교지도자 협력」 등이 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위엄령이요. 이 명령을 완수함에는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를 일깨우지 않고서는 (만인제사장 벧전 2:9)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로잔위원회 의장 헤이튼 포드 박사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오늘의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은 모든 사역과 복음운동을 남녀 평신도의 손으로 넘겨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신도선교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다. 평신도선교운동의 성격과 과제를 논하고 선교동원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해 보려 한다. 평신도선교운동은;

1. "가서 제자 삼으라"에 순종케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내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영적각성운동의 제자화 운동이 되어야 한다.
2. 평신도선교운동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선교사역은 이러한 평신도선교운동의 열매라 볼 수 있으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과정이다.
3. 선교운동은 평신도로 하여금 선교사역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게 하고서 평신도를 동원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4. 평신도 선교운동은 평신도로 하여금 목회자와 협력하여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 선교사역에 적극 참여토록 동원(Mobilization)하는 초교파적인 운동이다. 일차적으로는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에 참여케 하기 위한 계몽. 실천운동일 뿐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세계복음화에 기여코자 하는 운동이다.
5. 평신도선교운동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초교파적으

로 평신도 자원을 연구 개발하고 자극, 격려하며 목회자 및 선교사와 협력하여 세계복음화로 지면을 확대하기 위한 매개체요, 운동체이다. Organization이라기 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Organism)이기에 성장 확산되어야 한다.

6. 평신도선교운동은 "지상명령 기독교인"(Great Commission Christian)으로의 각성운동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 Global Christian)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각성시키는 운동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로 하여금 지상명령을 '지상명령'답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교회(Great Commission Church)가 되게 하여 세계복음화를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운동이다.

7. 전세계에는 인구 57억 8천만의 40%가 미전도종족에 속해있으며 전 세계선교사 중 오직 10%미만의 선교사만이 방대한 미전도종족선교에 임하고 있다. (90%의 선교사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미전도종족에서 사역). 이러한 엄청난 부조리의 현상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운동이 평신도선교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평신도선교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에의 장애요소, 병적현상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 및 치료법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차원 - 영적 정신 상태, 영적 빈혈증, 영적 근시안, 영적 비만증: "상단 크리스찬"(Top-Line Christian), 자애증, 이기주의, "Pea-sized Christianity",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Syndrome,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목수 예수" Syndrome

2) 제도적 차원 - 분화된 교회원칙 (Compartmentalized Church Organization), 무너지지 않은 "Berlin 장벽" - 교단

## 지역교회의 선교위원회 운영방안

### [선교전략 평신도의 날]

예장통합측 총회장 **박종순**

장로교신학대학을 나와 총신교회를 창립하고 크게 성장시킨 박종순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장으로서 목회와 선교분야에 다수의 저서가 있다.



## 협력 및 동반자 선교와 대북선교에 있어서의 평신도의 역할

### [선교전략 평신도의 날]

서울강변교회 담임 **김명혁**

서울강변교회를 담임하는 김명혁 목사는 합동신학교 교장이며 한국복음주의협회 총무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 및 한인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는 협력 및 동반자 선교와 대북한 선교라고 하겠다.

1974년 로잔 대회 이후 협력 및 동반자 사역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오고 있으며,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의 교류와 대북 선교는 한국 및 한인교회의 가장 중대한 선교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협력 및 동반자 선교는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업인데 이 두 가지 과제는 밀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두 가지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선교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책임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고 하겠다.

### 1. 협력 및 동반자 사역

인간의 생존 양식과 목회 및 선교사역의 방식이 협력 및 동반자적 양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고도 강하게 지적하며 가르치고 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은 모두 협력과 동반자적 방식으로 사역을 수행했다.

협력 및 동반자적 사역 방식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또는 한인 교회적 풍토 안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국 및 한인교회적 풍토 안에서 협력 및 동반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공명심과 한국 사람 거의 모두에게 편만되어 있는 혈연주의 또는 배타적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할 수 있다. 지도자들의 공

명심은 교파의 분열과 개교회주의를 초래했고, 배타적 집단이기주의는 각종 단체와 기관들의 경쟁과 갈등을 초래했으며 지역간의 갈등과 남북한간의 적대감까지 초래했다. 그리고 반일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과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다.

평신도들이 과연 공명심과 집단이기주의에 분열의 분열을 거듭한 한국교회와 선교운동에 협력과 동반자 사역이란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사역운동을 일으켜 낼 수 있을 것인가?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지대하다.

국내의 한인들은 한반도와 단일 민족이라는 지형적 및 역사적 요인 때문에 그리고 유교적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혈연주의와 배타적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미국 등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삶의 비결과 방식"을 체험적으로 가르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혈연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납하면서 그들과 서로 어울려 사는 방식을 보여줄 수가 있다. 내 이름이나 내 교회의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지배하려는 대신 섬기려는 자세로 봉사와 선교사역을 얼마든지 힘있게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혈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한 사례들을 함께 나누며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대북한선교

통일과 대북선교는 민족과 교회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통일과 대북선교에 대한 남한 교회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보수적인 견해는 북한 정권이 속히 붕괴되고 정치적인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 후 남한 교회가 주도적으로 북한II 교회를 재건한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견해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평화공존 체제 및 평화통일을 이루면서 남북이 협력하여 북한의 소멸되었던 교회의 뿌리를 찾아 소생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본래는 전자의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후자의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

론 통일의 방식과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대비하고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대북한선교를 논할 때 필자의 생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의 선포적 설교보다는 평신도들의 삶의 실천과 현현이라고 하겠다. 탈북 망명자 김명세 선교사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말들 중의 하나는 탈북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동포들을 만났을 때에도 기억하고 주력해서 실천해야 할 일이다. 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체사상으로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상으로 보이는 기독교 사상으로 강요당할 때 우선 거부감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선포적 가르침으로 강요하기 전에 실천적 사랑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평신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평신도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대북 선교를 이루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천하신 선교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다고 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행 1: 1).

지금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평양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거나 북한에 2,000여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조건 없이 북한에 펴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은 평신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선교중보기도운동과 평신도선교활성화

## [선교전략 평신도의 날]

서울 은누리교회 시무장로 **김수용**

서울 은누리교회 시무장로이며 평신도전도훈련을 위한 수많은 국내외 집회를 인도하는 복음전도자.



### 1.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

1) 마 28:19-20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은 -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은?  
막 16:15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행 1:9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3) 한국선교 1884-4.5 알랜 (아펜셀라)  
언더우드 두 선교사 평신도 운동은 세상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 14세기의 위클리프 운동, 루터의 종교개혁도 평신도의 손들이 떠받들어 주었던 운동이었다.)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이며, 교역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다. 평신도를 개발하고 총동원하는 것만이 급변하는 20세기의 사회속에서 교회가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2. 목자와 양의 관계

1) 목자의 역할 -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풍성한 영의 양식 공급. 양이 이리에게, 사탄(거짓 선지자)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키는 일을 한다.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매사에 모범과 본을 보이면서 인도하는 일을 한다.

2) 양의 역할 - 털을 깎고 젖을 짜내는 일, 양이 새끼를 낳는 일

### 3. 평신도 사역

1) 교회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배되는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이다.

2) 에베소서 4장에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하는 자로, 목사나 교사로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이 모든 일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며, 또한 전도훈련을 모두 받아야 한다.

3) 목회성공의 결정적 비결은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켰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한팀의 코치로 알고 혁명적 개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4) 전도는 가르치는 것 이상의 잡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5) 구령자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서 구원하라 아니 하시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 4. 전도 대상자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전도대상자 후보

- 1) 우리교회 예배시간에 참석한 일이 있는 사람
- 2)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
- 3) 교회 구역 내에 집을 사고 이사오는 새가정들
- 4) 동료실업인 - 동질성을 갖춘 사람 - 이해관계 관련된 사람들



5) 전문적 - 무리의 법칙(교역자, 교수, 공무원, 언론인, 군인, 법조인, 연예인 등)

### 5. 전략 (영적 배가 전략)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1대 - 바울
- 2대 - 디모데
- 3대 - 충성된 사람들
- 4대 - 또 다른 사람들

### 6. 전도 초청자를 위한 기도회

약 5:16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마 7:7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1)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중보기도 실시  
 선교기관 보고 -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위해 20분 집중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면 한 사람이 예수께 결신한다.
- a. 전도대상자 기도카드 작성
- b. 전도대상자 정보카드 작성
- c. 전도대상자 기도요청카드 작성

### 7. 초청 전도 모임

- 1) 장소, 시간, 강사
  - 2) 초청자가 어색하지 않도록 하라
  - 3) 올바른 메시지
- a. 복음의 전달 -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천국은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 b. 복음전달 방법의 분석 - 판매법의 5대 원칙은 주의, 관심, 욕망, 각성, 결정.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방법을 적용하셨다.
  - c. 적절한 간증사용 - 그리스도인이 구주를 효과적으로 증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명백하고 강력한 개인의 신앙간증이다.

### 8. 방문

직장방문 / 막 6:7 / 각개전투, 백병전  
 개인전도 : 거명성, 팀웍 : 2인 1조

- 1) 사랑과 관심 표명
- 2) 영적체온 파악 : 영적의식 도표
- 3) 한걸음 더 가까이

### 9. 양육

가) 딤후 2:2 / 기본화기 훈련 -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 돌봄의 과정 / 일대일, 부부대 부부 그룹

- 1) 첫걸음 - 성경, 그리스도(정체, 사역), 나
- 2) 디모데 전략 - 신앙, 생활, 사역

# 단기선교를 통한 지역교회 평신도선교 활성화

## [선교전략 평신도의 날]

서울사랑의교회 장로 **배순호**

서울사랑의교회 선교위원장인 배순호 장로는 국제대학교 영문과를 나와 시카고 무디성서신학원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전공했다.



### 1. 사랑의 교회 단기선교 현황

1978년에 시작한 젊은이선교라는 사랑의 교회 개척비전이 주효해서 그런지 교회 내 대학청년부가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실제적 사고방식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즉 기도한 후 결정하면 선교지에서 인생을 보낸다는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한 번 가서 실제로 겪어보고 맞으면 계속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 생각이 청년들을 사로 잡고 있었으며 항공 교통의 대중화와 더불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여행자유화가 교회 내 젊은이들이 단기선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동기가 되었다.

또 교회선교위원회에서는 전문인 선교사의 증가와 단기선교의 활성화가 현대세계선교의 두 큰 조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선교지향적 젊은이 지도자들을 가급적 많이 채용하였다.

이 결과 93년도에는 30명이 단기선교에 참가하였으며 94년도에는 42명, 95년에는 147명, 금년에는 157명으로 중국팀(19명), 몽골(9명), 우즈벡(16명), 키르기즈(16명), 러시아(11명), 일본(17명), 불가리아(6명), 터키(7명), 태국 AAC(35명), Love Europe(20명)으로 구성되어진 젊은이와 평신도들이 단기선교를 떠나고 있다.

단기선교에 참가하는 젊은이와 평신도 비율은 70대 30이고 주로 가는 곳은 구공산권지역인 북방지역이다.

### 2. 단기선교 형태 및 운영방안

#### 1) 단기선교목적

- 정담목적, 중보기도 목적, 선교사영성회복 및 현지인 전도와 양육의 기회

#### 2) 형태

초단기사역팀 - 현지 선교사의 요청에 의하여 5명 내외의 단기사역팀이 1-2주일간 초단기로 사역을 하고 오는 것이다. 사역내용은 현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아주면 전도폭발훈련, 기도훈련 및 전도실습을 거쳐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이다.

비전트립 - 10-20명 중심으로 2주간 내의 기간으로 선교관심자들이 나가서 선교현장에서 선교정담하거나 선교현지 답사하는 과정인데 단기선교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Love Europe / Love Asia

미전도대학입양운동 선교여행(AAC) 태국북부 치앙마이대학을 입양하여 매년 1월에 40명의 대학생을 한달간 파견한다. 오전에는 영어공부, 오후에는 캠퍼스 일대일 전도, 주말에는 초청전도파티 등

단기선교사역 - 1-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수전도단 또는 OM 랜드탐이나 선교선에 파견하고 있다. 지역전문가 육성도 이 프로그램에 속한다. 지역전문가 육성은 속칭 대학 6년 졸업하기 운동이다.

### 3) 운영방안

- 단기선교비용의 40%를 교회재정에서 지원한다.(선교위원은 50%까지 지원) 각나라 팀장은 교역자가 맡지 않고 청년이나 평신도가 맡아 지도력을 키운다. 교회 내 평신도선교학교(11주 코스)를 졸업한 사람에게 단기선교참가 우선권을 부여한다.

팀별 준비모임은 충실히 가지도록 한다.(8-10회) 준비 모임 중에는 선교지 언어연습, 중보기도, 찬양, 율동, 간증준비, 선교준비, 기도후원자 확보, 선교지연구 등을 주로 하게 한다. 갔다 온 후 평가회를 갖고 자세한 보고서 등을 팀별로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며(서류 및 영상자료) 연합집회 차원에서 보고 대회를 갖는다.

### 3. 단기선교의 효과

#### 1) 선교인력의 저변확대이다.

사랑의 교회 파송선교사 27명 중 23명이 단기선교를 체험한 본 교회의 젊은이 출신이다. 또한 4명은 교역자 출신 선교사이다.

#### 2) 선교기도의 활성화이다.

총 후원선교사 83명 (파송선교사 27명 / 협력선교사 56명)이 다락방에 할당되어 기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파송선교사 개인기도회가 4-5 그룹씩 열리고 있다.

#### 3) 교회내의 선교교육이 활성화이다.

젊은이 중심의 "겨자씨선교학교"(90명 등록)와 재직중심의 "평신도선교학교"(50명 등록)가 유익하고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

#### 4) 자비량선교사의 증가와 고무직 활동이다.

단기선교 및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해외근무를 나갈 때(특히 창의적 접근사역) 자비량 선교사로 공식 임명된다. 현재 24명이나 되는 자비량선교사가 나가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루마니아 선교사 **이영호**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칠레 선교사 **이길소**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뉴질랜드 선교사 **신종혁**



#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 [저녁선교대회 설교]

동양선교교회 원로 **임동선**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대표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임동선 목사는 서울신학대학, 숭실대학, 미북침례교신학을 나왔고 가주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로 철학박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대한민국 군중감으로 군복음화와 특수선교에 전념하였고 세계각국을 순회하며 선교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는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로 월드미션대학교/신학대학원 총장으로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절망의 극복」, 「스스로 개혁하라」,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등 다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못 성도들의 기도와 충성과 봉사가 세계 각처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이때, 한편으론 혼탁한 악의 세력이 사람과 자연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선교사마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를 교회와 선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받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의 장을 연 칭찬받는 모범적 교회입니다.

### 안디옥 교회는

#### 1.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신분은 다양했습니다. (행 13: 1)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인 유대인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자요,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흑인이고, 마나엔은 헤롯왕의 젖동생으로서 행세하는 귀족이고, 사울은 유대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각각 피부색깔이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마저 달랐지만 세계선교라는 대전제 아래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협력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의 연합운동이 인종적, 신분적, 성적 차이가 없이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공동체가 된 것을 성경(갈 3:28)은 말씀합니다.

#### 2.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독교 선교사상 위대한 분기점이 된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선교를 위해서는 성령충만이 우선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겨 간절히 금식할 때에 오순절의 체험인 성령충만을 받았 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를 능력 있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행 13:2-3)

#### 3.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음"(행 11:25-26)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학자로서 일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대 철학자 중 소크라테스가 40년, 도합 130년동안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하신 3년 동안의 교육을 따를 수 없음은 자타의 공인 사실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만큼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머물며 이룩한 교육은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 4. 인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한 큰 인물을 양성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물을 양성하기 위하여 선교를 위한 정기적인 기도회, 선교 보고회, 선교 후원회 조직, 세계선교 정 보교환 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12사람을 뽑아 양성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은 것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불확실성 시대' 라는 이름으로 21세기 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다원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악이 늘고 가정파괴 청소년 범죄 증가, 영적 감소 등의 혼돈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교회마다 유능한 인물을 양성해야 합니다.

## 5.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행 11:29-30)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도 짧은데다가 신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신자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정성스런 헌금을 하여 모교회에 보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을 받고 심령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자기 집과 밭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초대 로마교회 신자들의 구제와 봉사는 황제까지 칭찬했다고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8)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 20:35)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 11:24)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6.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3)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세계선교에 내세웠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막 16:15. 마 28:19) 개인부흥, 교회부흥, 지교회 설립, 제3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심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에스더를 파사왕후로 삼으심은 이스라엘 멸종을 면하기 위함이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은 참 신을 알리기 위함이며, 사울은 킬리기아 다소 국제도시에서 출생 성장케 함은 세계선교를 위하심과 같이 우리를 미국땅에 살게 하심은 미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의 일역을 담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환상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영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 가는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할만큼 바울은 기독교의 제2의 창설자라고까지 일컬어집니다. 바울은 위대한 학자요, 성공적인 목회자요, 능력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나 선교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을 생각하며 함께 사역한다면 어디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 1.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문벌, 학벌, 종파, 종교적 깊은 체형 등으로 보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겸손"(행 20:19)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전 15:9),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욱 작은 나"(엡 3:8),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라는 겸손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누구나 겸손하게 됩니다. 모세, 이사야, 베드로, 바울 등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벧전 5:5),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오"(사 57:15), "존귀를 주시고"(왕상 3:11-14), "영예를 주시고"(잠 22:4),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마 18:4)고 했습니다.

### 2. 눈물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맡은 바울은 눈물의 사람입니다.(행 20:19, 31, 고후 2:4, 빌 3:18) 그의 눈물은 교회와 양떼와 완악한 동족과 무지한 이방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흘린 눈물입니다.

뜻없는 심정에서 지어낼 수 없는 것이 눈물이요, 복받치는 심정에서 막아낼 수 없는 것도 또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는 자를 돌아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눈물(왕하 20:5), 욥의 눈물(욥 16:20), 다윗의 눈물(시 6:6), 예레미야의 눈물(애가 1:2), 주님의 발을 적신 여인의 눈물(눅 7:38), 나인성 과부의 눈물(눅 7:3)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세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시 126:5-6)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함과 같이 양떼와 교회와 지구촌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운 사람은 정녕 많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 3. 인내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행 20:19).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본국인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육지와 바다의 위협,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더위와 추위, 여러 번 옥고를 치르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세 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수 차례 사경의 연속에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가 참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나 선교사역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잘 참는데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혈기와 감정과 오해와 비판과 가난과 멸시와 정욕과 핍박과 고통을 못 참아서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참아내는 것이 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마 26:67)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잘 참으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 4.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나라"(행 20:36)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간 기도록 시작해서 그의 사역 중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롬 1:9, 12:12, 엡 6:18, 골 4:2, 딤후 5:5)

E.M. 바운드 박사는 "바울은 복음전도의 승리자요, 성공자다. 그의 사역에 최대의 힘을 제공한 것은 기도였다. 바울은

기도를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믿고 실천했다. 바울이 영적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설교보다도 기도였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코 쉽거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야말로 피땀어린 눈물의 결사적인 전쟁입니다. 야곱의 압박강에서의 기도, 모세의 시내산상의 기도,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기도, 다니엘의 사자굴속에서의 기도, 에스더의 하만 앞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광야와 겹세마네의 기도, 바울의 옥중에서의 기도는 육과 마귀를 이기는 결투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기도에 많은 능력을 얻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 5. 성령충만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3-24)는 말씀과 같이 성령충만의 사람 바울은 주를 위한 자기 희생과 온전한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충만하여 그가 안수하면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행 9:17)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없으면 그 병이 나았고 악귀가 떠났습니다.(행 19:12)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넘어지고 고꾸라졌으나 성령 받은 후에 위대한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모든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충만해야 승리합니다.

### 6. 전도의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행 20:21)

바울은 고전 9:16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라고 철저하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졌고 롬 1:16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식민지 작은 촌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장차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그는 학벌이 없는 노동자 목수였으나 학박사가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의 무기는 온유, 겸손, 사랑이지만 장차 창과 칼을 꺾을 것이고 세상 모든 왕과 영웅은 죽어 썩었으나 예수는 부활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이 개인, 가정,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전파에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 7. 청렴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행 20:33)함과 같이 바울은 일생동안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세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에 깨끗(요셉), 명예심에 깨끗(예수), 물질에 깨끗(사무엘)해야 합니다. 천하장사 삼손은 이성에 넘어졌고 명예심에 불탄 아비멜렉은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고 물질에 탐욕을 가진 가룟 유다는 자살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닦은 세례 요한의 거처는 광야에서, 의복은 약대 가죽옷이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글이 좋아야 하고 글보다 생활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 8. 모본의 사람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행 20:35)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전도의 모본, 낮아짐의 모본, 순종의 모본, 전도의 모본, 사랑의 모본, 청렴의 모본, 애국, 애족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4:16)고 말씀했습니다. 참교육 효과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모범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즈음 향간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고, 선생은 많으나 현모는 적고, 애비는 많으나 애비다운 애배는 적고, 목사는 많으나 참 목사는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 효과는 강단에서 말로 설교함보다는 일상생활의 행동으로 설교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전도자는 말을 하고, 좋은 전도자는 설명을 하고, 월등한 전도자는 실제로 본을 보이고, 위대한 전도자는 영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고 바울처럼 떠나시오.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성령충만함으로 교육, 봉사로 인물을 양성하여 세계선교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겸손, 눈물, 인내, 기도, 성령충만, 전도, 청렴, 모본의 사람이 되어 서로서로 적극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에 막중한 선교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새벽기도회

---

선교도전/ 황윤일 선교사 페루  
설교/ 고원용 목사 애틀란타영락교회

## 성경강해

---

강사/ 하용조 목사 온누리교회

## 주제강연

---

특수선교 강사/ 김의환 박사 총신대학  
주제강연I 강사/ 로버트 콜만 SOWM  
주제강연II 강사/ 서정운 목사 장신대  
주제강연III 강사/ 빌 브라잇 국제대학생선교회

## 프레젠테이션

---

설교/ 장영춘 목사 뉴욕퀸즈장로교회  
축사/ 제임스 크라케빅 KWMC대회장  
선언문/ 나운태 목사 시카고성결교회



# 초냉전시대의 선교사명

## [새벽기도회 설교]

애틀란타영락교회 담임 **고원용**

1975년부터 10년간 IMA 국제총무를 역임하는 동안 58개국을 순방하며 탁월한 선교활동을 벌였고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애틀란타영락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고원용 목사는 장로회신학교, 숭실대학교(철학), 풀러신학교(선교학)를 나왔으며 국제선교신학교 학장, 그레이스맹인재단 이사장이다. 저서는 「교회성장학」, 「선교사명자 안내」, 「신앙성장의 과정」, 「계시록의 7인의 비밀」 등 다수가 있다.



## 서론

하나님은 역사의 지배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역사의 어느 페이지도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며 모두 다 신의 섭리나 인한 필연적이며 뜻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믿어야 한다.

### 1. 초냉전시대의 도래

특히 초냉전시대 같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신의 섭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초냉전시대가 왜 왔으며 하나님은 이 초냉전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과 그 우방들과 소련과 동구권은 냉전을 시작했으며 피차 엄청난 국방 예산을 사용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지구촌은 언제 핵전쟁으로 전 인류가 멸망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 왔다. 우리는 이 대결의 시대에는 공산주의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대립으로 "냉전시대"라고 부른다.

공산주의 세계 혁명 세력은 1970년도 만 해도 지구의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그 체제 밑에 살아 왔다는 사실만 보아도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혁명운동을 계시록에는 붉은 말이 뛰는 것으로 묘사되었다.(계 6:3-4)

그러나 손에 저울을 든 말(계6:5-6) 즉 경제전의 시대가 개

막하자 공산주의 블록은 도저히 이 경제전에서 시장경제로 날로 풍요해지며 첨단과학 기술로 달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대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987년 12월,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미국을 방문하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군비축소에 대한 토의를 한 후에 백안관에서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 Treaty) 협정에 싸인함으로써 양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했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철수시켜서 해체한다는 협정이었으며 이 해체 작업을 양국 군의 고위급 장성들이 상호 방문하여 서로 감시하도록 했다.

이 협정이 조인되므로 미소 양국은 이제 피차에 핵전쟁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으며 소련도 고르바초프가 마음 놓고 개방 정책에 임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날 이후를 '초냉전시대'라고 부르며 지구촌이 전멸하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일시적이거나 안도의 숨을 쉬게 된 곳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소련의 개방 정책이 시작되자 동구권은 모두 소련의 강제적인 정치에서 자유를 얻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에 가입했으며 철의 장막에도 봄이 오게 된 것이다. 러시아 국민들도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지하교회들도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 2. 초냉전시대에 대한 역사 섭리

하나님이 전 역사를 섭리하시며 지배하신다면 초냉전시대와 같은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의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찾아서 시대적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초점 즉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즉 에덴 낙원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의하여 에덴을 상실했다. 창 3:24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수를 마시는 천천만 성도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이는 분명히 그 에덴 낙원의 회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아직 기독교가 소아시아 지역에도 다 전파되지 못한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황홀한 장면을 보고 너무 도취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라고 부르짖었다.

우리는 이상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역사의 섭리의 초점은 에덴의 회복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에덴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니 에덴의 회복은 필연적인 것이다. 예수의 초림은 개인 구원의 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요 그의 재림은 에덴의 회복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초냉전시대는 에덴의 회복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 누가복음 21:29-31 예언의 성취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썩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나무가 썩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예언으로 이미 1948년 8월 15일에 성취되었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예언에 대해 부정했다. 그 이유는 어떤 민족이 400년 이상 독립을 못하고 다른 민족에게 식민주의 하에 살게 되면 모두 동화되어서 독립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그 역사적인 전례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은 독립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싶어했으나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그 나라를 위협하는 약 2억의 인구를 가진 아랍국들이(이스마엘의 후손들) 450만명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며 그들의 독립을 무효로 돌리려고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이 일어난 사실도 우리들의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재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무화과나무"만 썩어 난다고 하지 않고 "모든 나무"도 썩어 나야 한다고 했다. 모든 나무는 강대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국권을 잃고 있는 약소민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지구상의 모든 약소민족들도 독립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이후에 독립하여 유엔의 회원국이 된 후 약 30년 동안에 약소민족들이 독립하여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의 수가 약 100개국에 달한다.

제1차 대전까지는 전승국의 국토가 넓어졌으나 제2차 대전은 매우 이상하게도 전승국의 국토가 좁아졌다. 영국, 프랑스, 미국 모두 해외의 식민지 국가들을 잃었다. 그러나 소련만은 예외였다. 소련 공산권에는 군사 독재주의 때문에 약소민족들이 독립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나무에 썩어 나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 냉전시대가 도래하자 모든 동구권이 자유를 얻었고 소련방이 해소되며 소련의 탄압을 받던 모든 약소민족들이 모두 독립하여 유엔의 회원국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됨을 보게 되었다. 초냉전시대는 성도들을 깨우는 경종이다. 이제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다.

#### 2) 마태복음 24:14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불가능해 보인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된다는 예언일 것이다. 이 예언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주간엔 감람산에

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이다.

제자들은 대개가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겁이 많은 자들이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모두 도망친 자들이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 죽은 후에 복음을 들고 담대히 전한다는 일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저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명을 내걸고 전도를 시작했다. 초대교회시대에 로마의 박해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으나 저들이 굴하지 아니했으며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게 정복을 당했고 복음은 온 유럽에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세계선교운동이 전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여 확장되어서 이제 곧 전세계는 복음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선교운동은 불같이 퍼져나갔다.

우리는 미구에 세계는 복음화되리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공산주의 혁명의 벽에 부딪혀 퇴색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죽였고 교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약 75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동안 기독교의 세계복음화는 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해 보였고 주님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초냉전시대가 오면서 러시아도 복음의 문을 크게 열게 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의 선교사들만도 1996년 현재 약 400명이나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만일 초냉전시대가 오지 아니했다라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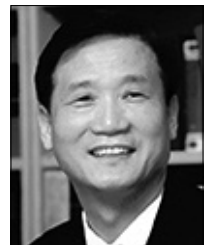
우리는 초냉전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깨어 일어나 세계복음화에 전력을 다해야겠다. 요한계시록 7:1-3에는 이 초냉전시대에 우리 모두 성령충만하여 주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을 "인치는 사역"으로 예언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 [성경강해]

온누리교회를 담임 **하용조**

연예인교회를 1976년 창립하여 4년간 시무하였고 현재는 두란노서원 원장 및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용조 목사는 건국대학(축산가공학과), 장로교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저서로는 「정신차리고 삽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 시리즈 6권」 등이 있다.



# 북한선교 전망과 전략

## [특수선교]

## 총신대학 총장 김의환



미국칼빈신학교, 웨스터민스터신학교를 거쳐 템플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총신대학 교수, 미국국제신학대학(ITS)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1974년부터 나성한인교회를 창립하여 20년간 시무하다 현재 총신대학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저서는 「도전받는 보수신학」, 「성경적 축복관」, 「복음과 역사」, 「현대신학 개설」, 「기독교회사」,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등 다수가 있다.

선교는 교회의 지상 과제이다. 그러나 선교 활동이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선교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는 여러 가지 전략성의 의견들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특별히 오늘의 북한선교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놓고 그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최근 북한이 두 개의 개신 교회당과 한 개의 구교 성당을 세우며 여러 개의 불교 사찰을 복원 개축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동기에서 위장된 하나의 통일 전선의 전략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종교 활동의 부분적 허용 상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북한의 종교적 접촉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시도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북측의 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두번째 입장은 북한 당국의 외형적으로 종교활동을 부분적이나마 허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에 동조하지 않고 주체사상을 고수하는 한, 성급하게 선교적 반응을 보이기보다 좀더 관망하며 기다려 보자는 신중론이다.

세번째 입장은 보다 적극적인 반응이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은 소련을 위시하여 동구권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종교 정책의 변화를 의식하고 결행한 북한정치권 자체의 변화의 징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종교활동에 대한 변화의 조짐을 공산국 전역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이러한 타이밍에 맞추어 북한과 적극적으로 선교적 접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선교적 차원에서 객관적 분석이 요청된다.

### 1. 부정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입장

북한의 종교활동의 허용을 "부정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1) 김일성 주체사상이 이미 종교적 성격을 띠고 주입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통해 김일성을 거의 신과 같이 절대적 존재로 신봉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종교의 허용은 있을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김일성 주체사상과 접목된 선에서 종교의 교리도 용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천교도 지도자 최덕신이 최근에 발표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 예찬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참으로 김일성 주석님이야말로 천교도에서 말하는 '한울님' 이시다. 그이께서는 미일(美日) 두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의 본보기로 우리나라를 세우셨으며 역사를 주름잡아 자기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시는 민족의 태양, 인류의 태양이실 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포괄하는 온 우주를 한 품에 안아 한없이 심원하고 무한대한 체험과 지혜와 사상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현세의 한울님이시다.' (1989.4.7). 북한 기독교도 연맹 서기장 고기준 목사도 지난 4월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회의"에서 기독교 사상과 주체사상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주석님을 받들고 있고, 기독교는 하나



님을 모시고 있어 일면 차이가 있으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정의, 자유, 평등의 일면에선 주체사상과 기독교 이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4.26, 서울신문)

2) 종교의 자유는 과거 종교 박해 사회라는 이미지를 씻고 대외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1982년 이후 성경과 찬송가를 출판하고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하고 최근에는 철골에 김일성 주석 모친의 기념 교회당인 철골교회당을 세우는 등 일련의 기독교 회복 운동은 얼핏 종교 자유의 신호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고답적인 종교박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종교를 사회적 아편으로 선전하며 말살하고 탄압하던 정책을 바꾸어 이제는 이용을 통한 종교의 변질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숨어 있던 교인들을 표면적으로 노출시켜 언젠가 필요할 때 쉽게 근절시켜 버릴 계획에 불과하다고 본다.

3) 종교단체를 부활시켜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접촉점을 구축하고 대화의 통로를 개설하려는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 진출을 위하여 새로운 대화통로를 개설하려는 의도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미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N.C.C)와 접촉 중에 있다. 이미 기독교도 연맹이 W.C.C에 회원가입 신청을 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70년대 이후 북한은 이른바 "국제적 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단체라는 기구를 부활시켜 국제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4) 종교단체를 대남 전선에 이용하려 한다.

북한 기독교도 연맹은 그 대표단을 처음으로 지난 4월에 미국으로 파견하여 미국 N.C.C와의 의회에서 종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문익환 목사의 불법 입북 사건 이후 대남 발표(89.4.4)를 통하여 "남조선의 종교 단체와 신앙인들이 문익환 목사를 탄압하려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동을 저지 파단시키기 위하여 불퇴전의 각오를 품고 건실히 싸워줄 것을 호소한다"는 등의 대남 선동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태양복음화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재미교회 지도자들과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들과 예비 회담을 개최할 때에도 조평통의 간부들이 시종 대표로 참석하여 회의

에 관련한 점도 북한선교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더욱 짚게 하였다. 이상의 이유들을 들어서 오늘의 북한의 종교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개혁이 선행되지 아니한 어떠한 선교활동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관점에서 현대계로는 북한선교를 처음부터 부정적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다.

## 2. 신중론을 펴는 입장

다음으로 시기 창조론에 입각하여 대망하면서 천천히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신중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1) 남북한간의 문제는 동서독 간의 문제와 함께 전세계 정세의 변화, 특히 동구권의 변화에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진다는 이론이다. 아무리 정색 일변도로 북한이 보수노선을 고집하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한다 해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끝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보수적인 공산주의 실패를 중주국인 소련부터 자인하고, 그 밖에 헝가리, 폴란드 등의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는 현단계에서 북한의 정지노선의 변화도 시간 문제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2) 이러한 낙관론에 근거하여 선공의 시기를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북한의 여러 교회 설립이나 성경, 찬송가 보급 자체를 80년대에 들어와 일어난 변화의 조짐으로 보고 소련의 종교자유가 확대되었듯이 북한도 장차 확대될 것이므로 그때에 무리 없이 북한선교를 하자는 주장이다. 성급히 선교를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선교적 해빙 무드가 깨어지는 역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 적극적 반응을 보이자는 입장

마지막으로 북한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대계에서 "적극적 반응을 보이자는 입장"은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1) 적극적 반응은 복음의 본질론에서 정당성을 찾는다.

남북한 당국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그 대립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이데올로기 차원을 넘어 스스로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 통일



논의에서 복음을 보려고 하는 점에 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많은 경우에 서구 신학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왔으며 기존체제의 시너 노트를 하는 자기비하의 부끄러운 걸음을 걸어 왔다.

2) 복음전파의 한계성 문제이다.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였다.

그 당시 땅끝은 황제 우상을 강요하는 로마를 포함하였다. 만약 로마의 종교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자는 신중론자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배적 입장에 있었다면 복음은 팔레스틴을 벗어나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며 아니 아마 교회는 지중해 연안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북한의 신자들이 표출화되면 언젠가 순교하게 될 것이니 그들의 신변을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선교연구론 내지 연기론이 나왔을 것이며 역사상 로마의 복음

화 내지 한국 복음화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동서독이 통독되는 데에 양독 교회 간의 교류가 기여한 사실은 묵과할 수 없다.

냉전으로 정치상 단절이 심화되어 있을 때 카톨릭과 개신교가 양독을 하나로 지탱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서울 성체 대회에 참가했던 서독의 신학자 카스퍼 주교를 통해서도 강조되었던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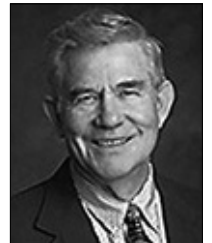
양국회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때 화해 분위기는 조성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쁨이 마련될 것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화를 이 땅 위에 가져 올 수 있음을 믿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남북한 신도의 교류를 통하여 통일에 기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한다.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

### [주제강연]

트리니티신학교 전도학교 교수 **로버트 콜만**

Robert E. Coleman is Director of the School of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and Professor of Evangelism at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He also serves as Director of the Billy Graham Institute at Wheaton and Dean of the International Schools of Evangelism. He is a graduate of Southwestern University in Texa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nd received the Ph. D. from the University of Iowa.



Dr. Coleman's ministry centers on life-style evangelism and discipleship, a concern which carries over into theological education. After serving as a pastor for six years, he joined the faculty of Asbury Theological Seminary where he taught until his appointment at Trinity. Apart from his teaching responsibilities at Trinity, Dr. Coleman frequently lectures at other college and seminaries and regularly speaks in conferences around the world.

Dr. Cloeman is a founding member of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and for many years served as Chairman of the North American Lausanne Committee. He is president of Christian Outreach Foundation, and has been President of the Academy for Evangelism in Theological Education. Twenty-one books have come from his pen, including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The Great Commission Lifestyle, and The Coming World Revival. Translations of one or more of his books are published in 95 languages, with English language editions alone having a combined circulation of about 5,000,000 copies.

# 동반자 협력선교

## [주제강연]

장신대 총장 서정운



장로교신학대학, 미국칼빈신학교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서정운 목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5년간 사역하였고 한남대, 장신대 교수를 거쳐 현재 장신대 총장으로 재임중이며 저서는 「성서개설」, 「교회와 선교」 등이 있고 역서에 「현대선교신학의 동향」, 「성서적 교회성장」 등 다수가 있다.

### 1. 하나님의 협력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바로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자신부터 협력적인 선교방안을 취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사역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과의 동반자적인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 2. 선교와 협력

#### 1) 선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는 인간끼리(또는 교회, 단체 등)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교운동을 주도해갔던 선교회들도 예외 없이 초교파적인 사람이나 교회의 협력체였었다.

#### 2) 선교대회들

세계선교를 위해 모일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협력문제가 논의된 것은 그것이 선교운동의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 3) 선교구도의 변화

오랫동안 선교가 서구기독교권에서 비기독교권으로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선교는 "어디서 어디로(from-to)"라는 형식을 벗어나 "세계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from & for all churches in the world)" 함께 수행하는 시대로 발전하였고 함께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선교시대(the era of world mission)에 들어섰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 모든 교회의 동반자적 협력을 어

느 때보다 필요로 하게 되었다.

### 3. 세계교회의 선교협력 (Partnership of the Whole Church)

#### 1) 서구교회와 2/3세계 교회의 협력

오랫동안 선교한 서구교회와 선교단체들의 경험과 이론과 힘이 2/3세계 교회의 선교사와 선교자원과 조화될 때 세계교회의 선교력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2) 2/3세계 교회와 우리(선교사)의 협력

2/3세계 교회와 우리의 협력은 주로 선교사들을 통해 진행되며 선교사도 현지교회의 원만한 협력이 없이 정상적인 선교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선교사가 현지교회들과 잘 협력하고 성숙한 현지교회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심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들로 이런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 선교사는 임시적으로 주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현지인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자리를 선교사가 하거나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 친구와 섬기는 자로 살며 현지인에게 불편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먼저 신뢰와 애정을 구축하도록 하고 친해지기까지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말고 매사에 겸허하고 친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언어, 문화, 관습에 빨리, 바로, 깊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 h. 메시아적 영성과 생활양식을 실천해야 한다.
- i. 동반자 선교는 현지인 사역자 육성이 핵심 과제이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들을 위해(for) 일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with) 일하는 태도를 고수해야 할 것이다.

### 3) 한민족 교회의 협력

2/3세계 교회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 교회의 선교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 교회의 성장이 선교자원을 증대시켰고 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있는 점, 고난 중에 성장하고 성숙해 온 약소민족 교회의 영성을 품은 것, 온 누리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등을 생각할 때 한국인 교회의 적극적인 세계선교 협력 여하가 21세기 세계선교 활성화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가 선교협력을 위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

첫째, 신학적 차이를 극복해 가는 일이다.

둘째로, 교파간의 협력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 교파간의 협력이 원활해야 한다. 앞으로 선교회들에 의한 선교가 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보다 더 강대해질 수 있는데 선교회들 간의 협력여하가 21세기 선교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넷째로, 교회와 선교회간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 선교적인 교회로 세계선교를 지향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와 선교회들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협력과 일체적 사역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계선교를 위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교회의 연결(Network)과 협력이 필요하다.

### 4. 맺는 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는 하나님과 사람들, 세계의 교회들, 세계의 선교회들, 세계의 교회와 선교회들의 동반자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21세기 기독교 지도자상

### [주제강연]

국제대학생선교회(C.C.C.) 총재 **빌 브라이트**

국제대학생선교회(C.C.C.)의 창설자이며 총재인 빌 브라이트는 70 노령에도 불구하고 두차례나 40일 금식기도를 강행하면서 18세기 중엽 조나단 에드워드 등을 통해 일어난 뉴잉글랜드 대각성운동과 19세기 말 D.L. 무디를 통해 일어난 제2차 대각성운동의 맥락을 이어 오늘날 북미주의 영적부흥과 세계선교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제3의 영적물결을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거목이다.



#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 [폐회예배 설교]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장영춘**



총회신학교 본과 졸업 및 대학원 제1회 졸업, 미국 Central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Th.M.),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Min.), 미국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ical 철학 박사(Ph.D.),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역임,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회장 역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역임, 미주기독교복음선교회 이사장, 미주기독교복음주의교회연합회 회장,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의장, 미주크리스찬신문사 사장, 미국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교장,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설립 및 현재 담임목사이다. 저서 「살아있는 나침반(어린이 강단)」,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 「평화의 이상」, 「데오빌로여 (한영대조 설교집)」 등이 있다.

### I. 시대의 긴박성과 선교적 요청

성경은 천지창조로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20세기의 황혼의 마루턱에서 21세기의 여명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의 최고 사령관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분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전하라'는 긴박하고도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입니까?

#### 1. 과학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100여년 전의 시대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걸어다녔지만 지금은 제트기로 날아다닙니다. 옛날에는 편지로 소식을 교환했으나 오늘날은 모든 것이 전산화된 시대로 전화나 팩스로 연락합니다. 이 시대는 제트기의 속도처럼이나 빨리 시대가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이 시대는 또한 신앙과 불신앙이 첨예화되어 대립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복음의 추숫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 2.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팽배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치 기준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진리보다, 정의 보다, 평화 보다, 아니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향하여 미친듯이 달려가는 세상

이 되었습니다.

돈 벌기 위하여 주일성수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돈 때문에 영생언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며 불행해지는 시대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르쿰은 이 시대를 가리켜 "The Lost Generation" 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는 인생들에게 주께로 돌아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 3.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내적이고 영원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시도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이르렀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 때는 국부적인 타락이라면 현대는 총체적인 타락이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촌 모든 곳에 이런 쾌락주의가 만연하여 가고 있습니다.



즉 지구촌이 온통 파멸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자리다툼을 하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사람들이 대책 없이 익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구촌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기 전에 어서 속히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 4. 이 시대는 강력한 성령폭발의 선교시대입니다.

어두움이 심할수록 강한 빛이 요구되듯이 최악이 관영한 시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복음의 추숫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신앙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학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죽이던 사울 청년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성령충만을 받고 나니 뽀박자였던 그가 생명을 바쳐 전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인 세계지도를 펼쳐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선교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고급 자동차를 샀어도 거기에 개스를 채워넣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운전사가 운전해 도 그 차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패역한 세대에 선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선교현장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때까지 준비하고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성령으로 세계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 II.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선교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과 정비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과 윤리와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 역사의 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선교의 절대 필요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소위 종교적 다원주의자들이나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일본에는 신도가 있고 인도에는 불교가 있고 사우디아에는 모하멧교가 있고 중국에는 유교가 있는데 하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도 전도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과 멸망의 인류를 구원할 이가 없다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장, 14장의 기록은 모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찬양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세계선교가 완성될 가능성과 그 과정과 영광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5-10절에서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속죄의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은 어린양 앞에서 서서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계 7:9-12)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류 구원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교나 미신이나 귀신을 믿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그곳에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오늘 다원화된 이 시대에 바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III.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교의 주자와 추숫군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하였고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어느 민족만의 특허물이 아닙니다. 이 구원과 생

명과 축복의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 대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 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학자는 지난 시대들의 선교의 편협된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시대 이후의 선교는 황제의 선교이고, 중세기 십자군 시대의 선교는 대결과 정복의 선교시대이며, 16세기 이후 개톨릭 선교는 교황권의 지배와 황금을 탐하는 세속적 세계 지배의 선교고, 18세기 이후 제2차 대전까지의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확장의 선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 후 60년대까지 서구 선교의 종식론과 무용론이 대두된 것입니다. 60년대 이후 세계 선교는 서구 불력의 독점물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모든 족속들로부터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모든 족속에게로 전하는 새로운 선교의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인 20세기의 마지막 고비에도 접어들면서 선교의 주체 의식은 계시록적 선교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즉 복음을 받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로 선교하는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교의 새 역사의 장에 주역은 우리 한국 민족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6.25 동란 이후인 1950년대 말 한국의 총회신학교 교장이셨던 고 박형룡 박사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계선교를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선교의 긴박성이 요청되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선교의 마지막 추숫군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에게로 흩으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 민족은 지금 세계 도처로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흩으셨습니까? 선교하라고 흩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순교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다 유대와 사

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르는 곳곳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평양성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도 세계선교를 하지 않고 있을 때 6.25 동란으로 신자들을 홀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후 세계 만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더욱 요즈음은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사업을 위하여 이민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그 곳에서 그 족속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폐회설교를 통해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라는 우리들 공동의 과제가 하루속히 성취되기 위해 금번 선교대회의 7대 목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재정립이 있어야 합니다.
2. 한인세계선교운동의 영적 쇄신과 재무장을 위한 성령 폭발을 가져와야 합니다.
3. 한인세계선교의 총집결과 동반자적 선교협력의 대광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4. 2000년대 세계한인선교사의 분명한 좌표설정과 이 좌표의 실현을 위하여 범세계적 연대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5. 2000년대 북미주 한인 선교사 1000명 파송을 위한 2세 선교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6.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한 평신도선교운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7.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을 위하여 북미주 한인교회가 300 미전도종족 입양운동과 총체적 북한선교운동의 교두보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양한 선교현안들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1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과 한인/외국인/선교사 강사들의 선택강좌가 대회중 화/수/목 오후 3:30과 5:00에 1시간씩 진행됩니다.

## 1. 선교일반

①-0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선교	최인순	화 3:30	Armerding 20
①-02	성령의 역사와 선교 [1]	장동찬	화 3:30	Armerding 126
①-03	성령의 역사와 선교 [2]	정필도	화 3:30	Pierce 201
①-04	선교의 구약성경적 근거 (요나서 중심)	윤사무엘	화 3:30	BGC 140
①-05	선교의 신약성경적 근거 (바울서신 중심)	정인찬	화 3:30	BGC 136
①-06	세계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노봉린	화 3:30	McAlister 136
①-07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이종형	화 3:30	BGC 272
①-08	한국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김명혁	화 3:30	Armerding 123
①-09	한국선교사 선교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	전호진	화 3:30	BGC 432C
①-10	한국대학생세계선교운동의 동향과 전망	김동환	화 3:30	BGC B11
①-11	선교구조신학	유용규	화 5:00	Armerding 123
①-12	성서적인 금식기도, 신앙훈련의 핵폭발력	빌 브라이트	목 3:30	Armerding Hall
①-13	영적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합주회운동	데이빗 브라이언트	수 3:30	McAlister 136
①-14	현대화와 세계선교의 동향	패트릭 존스톤	화 3:30	Pierce 108
①-15	세계경제동향과 세계선교	김춘근	화 3:30	Blanchard 222
①-16	인류공동체의 미래와 선교	이성희	수 3:30	Armerding 18
①-17	21세기 선교와 선교지도자	최찬영	화 5:00	Armerding 18
①-18	상황화와 복음	존 그레이션	목 3:30	BGC 432B
①-19	선교정보망 구축	이영제	수 5:00	BGC B10
①-20	타문화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캇 모라우	목 3:30	BGC 252
①-21	현대문화와 선교	김릭	목 3:30	BGC B10

## 2.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제

②-01	기독교21세기운동의 역사와 전망	루이스 부시	수 3:30/5:00	Armerding Hall
②-02	미완성 선교과제 현황과 추수전략	최일식	목 3:30	Pierce 108
②-03	한국교회 1700 미전도종족 입양전략	한정국	수 3:30	Blanchard 139
②-04	북미주한인교회 300 미전도종족 입양전략	김영진 오정현 김종현	수 3:30/5:00	Pierce 104
②-05	GCOWE-95와 한국기독교21세기운동의 전망	정인수	수 5:00	Blanchard 139
②-06	미전도종족 복음화전략	래리 패잇	수 5:00	Armerding 123
②-07	미전도부족선교의 실제와 전도접근방법	김학청	수 3:30	Armerding 122

## 3. 지역교회와 선교

③-01	전세계의 핍박받는 성도들	피터 토리	목 3:30	BGC 432D
③-02	불교권선교	정승희	화 3:30	Armerding 122
③-03	힌두권선교	마헨드라 싱할	화 3:30	BGC 432B
③-04	모슬렘권선교	크리스티 윌슨	수 5:00	BGC 252
③-05	모슬렘이 보는 관점에서의 모슬렘 이해	잭 채핀	화 5:00	McAlister 136
③-06	모슬렘권 선교의 역사적 성서적 이해	김만우	화 5:00	BGC 432B
③-07	팀사역을 통한 모슬렘 선교접근	이현수	화 5:00	BGC B12
③-08	로만캐톨릭선교	신상길	화 3:30	Breyer 111
③-09	유태인선교 [1]	웨슬리 테이버	화 5:00	BGC 276
③-10	유태인선교 [2]	다니엘 골드버그	수 3:30	BGC 276
③-11	국제유학생선교	오정현 김승연	화 5:00	Armerding 126
③-12	한흑관계선교과제	배현찬	화 5:00	BGC 250
③-13	북미주원주민선교	짐 해밀튼	수 3:30	BGC 252
③-14	북미주소수민족선교	테드 클라인	화/수 3:30	Blanchard 324
③-15	신세대운동에 대한 우리의 자세	김원기	수 3:30/5:00	BGC 250
③-16	이단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장석진	수 3:30	BGC 272
③-17	선교현장에서 혼합종교에 도전받는 복음주의선교사역	김영화	화 3:30	BGC B10
③-18	공산권선교	이이삭	화 3:30	Blanchard 272
③-19	집시선교	손영삼	화 3:30	BGC 253



## 4. 아시아선교

④-01	북한선교 [1]	김영철	화 3:30	Armerding 18
④-02	북한선교 [2]	허기원	화 3:30	Blanchard 125
④-03	북한교회재건운동	김중석	목 3:30	Armerding 20
④-04	일본선교	홍기표 조남수 유기남	화 3:30	BGC 255
④-05	중국선교 [1]	사무엘 링	목 3:30	Armerding 18
④-06	중국선교 [2]	조나단 차오	수 3:30	Armerding 20
④-07	중국선교 [3]	황의춘 이브루스	화 3:30	Breyer 103
④-08	중국선교 [4]	이관숙 이벤퍼 오대선	화 3:30	Breyer 207
④-09	네팔/몽고선교	백종륜 림근화 안교성	화 3:30	BGC 263
④-10	베트남/캄보디아선교	김영관 오형석	화 5:00	BGC 255
④-11	홍콩/대만선교	이병일 김달훈 이동희 이진희	화 5:00	BGC 263
④-12	필리핀선교 [1]	박기호 남후수 진기화 고광식	수 3:30	BGC 255
④-13	필리핀선교 [2]	김영일 김태현 지광남 이성일	수 5:00	BGC 255
④-14	필리핀선교 [3]	함용욱 송평구 김선숙 이교성	목 3:30	BGC 255
④-15	태국선교 [1]	윤수길 양병화 김문수	수 3:30	BGC 263
④-16	태국선교 [2]	김성곤 강대흥 김종일	수 5:00	BGC 263
④-17	인도/스리랑카선교	정윤진 노수길 최도식	화 5:00	BGC B11
④-18	방글라데시/파키스탄선교	장순호 남상희 김병교	수 3:30	BGC B11
④-19	싱가폴/말레이시아선교	손중철 노종해 김기홍	수 3:30	BGC B12
④-20	인도네시아선교 [1]	안성원 최수일 정영명	화 3:30	BGC B12
④-21	인도네시아선교 [2]	김익배 김형익 조시철	수 5:00	BGC B12

## 5. 아프리카선교

⑤-01	감비아/모로코선교	유병국 한병희 허영희	화 5:00	BGC 253
⑤-02	시에라레온/아리보리코스트선교	신대원 박광석 황익진	수 3:30	BGC 253
⑤-03	가봉/르완다/자이레선교	김필레 김창국 김경식	수 5:00	BGC 253
⑤-04	에티오피아선교	이은용 조창현 박종국	목 3:30	BGC 253
⑤-05	보츠와나/남아공선교	김주현 김신홍 이원준	목 3:30	Armerding 125
⑤-06	수단/우간다선교	탁수연 배상호 김동국	화 3:30	Blanchard 322
⑤-07	케냐선교 [1]	강인중 송충석 임태순	화 5:00	McAlister 225
⑤-08	케냐선교 [2]	정광호 박삼일 배주형	수 3:30	McAlister 225
⑤-09	소말리아/탄자니아선교	조성덕 김정림 황광인 손광주	수 5:00	McAlister 225

## 6. 중동선교

⑥-01	이집트선교	이준교 김신숙	수 5:00	BGC B11
⑥-02	이스라엘/요르단선교	김주경 정형남	목 3:30	BGC B11
⑥-03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바레인선교	조완길 주태근 허명호	목 3:30	BGC B12
⑥-04	터키선교	조용성 김원호 김세도	목 3:30	BGC 263

## 7. 유럽/동구라파선교

⑦-01	프랑스/독일선교	이극범 백남일 윤희원 이항모	화 3:30	McAlister 224
⑦-02	이태리/폴투갈선교	손영삼 강광선 김현중	화 5:00	McAlister 224
⑦-03	루마니아선교	박현규 정홍기	수 3:30	McAlister 224
⑦-04	불가리아/헝가리선교	김호동 이한기	수 5:00	McAlister 224

## 8. 구소련선교

⑧-01	모스크바/세인트피터스버그선교	박정수 박시경 유창현 김진은	화 5:00	Blanchard 125
⑧-02	카작스탄/우즈베키스탄선교	김상길 신운섭 이상웅	수 3:30	Blanchard 125
⑧-03	사할린/하바로스크선교	남일우 김완일	수 5:00	Blanchard 125
⑧-04	우크라이나/코카사스선교	윤상수 최영빈	목 3:30	Blanchard 125

## 9. 중남미선교

㉑-01	멕시코선교	이성균 신상길	화 3:30	Armerding 129
㉑-02	코스타리카/도미니카선교	민영진 박성도 최광규	화 5:00	Armerding 129
㉑-03	베네쥬엘라/콜롬비아/수리남선교	김재환 최정락 안석렬	수 3:30	Armerding 129
㉑-04	에쿠아도르/칠레선교	최태중 이길소 허원구	수 5:00	Armerding 129
㉑-05	페루/볼리비아선교	황윤일 김복향 김영진 윤도근	목 3:30	Armerding 129
㉑-06	파라과이/우루과이선교	강두호 임한곤 차재홍	화 3:30	Armerding 125
㉑-07	브라질선교	김철성 이준희 이성건	화 5:00	Armerding 125
㉑-08	아르헨티나선교	김영화 정현식 윤춘식	목 3:30	Armerding 129

## 10. 남태평양선교

㉒-01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선교	이상택 박미자 오경수	수 3:30	Armerding 125
㉒-02	괌/파푸아뉴기니/피지선교	조환 김학청 이재경	수 5:00	Armerding 125

## 11. 지역교회와 선교

㉓-01	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	로이 스미스	화 5:00	Armerding 20
㉓-02	담임목사의 선교적 목회전략	이석환	수 5:00	Armerding 18
㉓-03	지도자의 영적관리	조천일	화 3:30	Blanchard 139
㉓-04	목회자의 영적갈등 해소방안	이상택	목 3:30	Armerding 126
㉓-05	지역교회의 선교정책과 선교위원회 운영	박종순	수 3:30	Armerding 126
㉓-06	미국교계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협력	테드 바넷	화 3:30/5:00	Armerding 226
㉓-07	한국교계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협력	이영희	화 3:30	BGC 276
㉓-08	지역교회의 선교재정운영	서준택	수 5:00	BGC 138
㉓-09	소교회의 선교전략	이순각	수 5:00	BGC 140
㉓-10	예배와 선교	김한식	수 3:30	Blanchard 273
㉓-11	설교와 선교	나광삼		
㉓-12	지역교회의 선교교육	신동우	수 3:30	Blanchard 222
㉓-13	교회그룹의 전략적인 선교여행	김택용	수 3:30	Blanchard 272
㉓-14	새벽기도운동과 교회성장	김삼환	화 3:30/5:00	Armerding Hall
㉓-15	지역교회의 전도훈련 (영어권교회)	존 고	수 3:30	Blanchard 322
㉓-16	지역교회의 전도훈련 [1]	김수웅	목 3:30	Blanchard 324

11-17	지역교회의 전도훈련 [2]	박재영	수 5:00	Blanchard 324
11-18	전도를 통한 교회개혁	신홍식	화 5:00	Breyer 103
11-19	북미주한인교회 차세대지도자양성방안	이승중	화 5:00	Blanchard 273
11-20	선교와 교회성장	정남식	목 3:30	Blanchard 222
11-21	다시 생각해 보는 제자훈련과 성령사역의 균형	오정현	수 3:30/5:00	BGC 432D
11-22	목회행정과 선교행정	이기홍	화 5:00	Blanchard 272
11-23	목회자와 선교사의 시간관리	이정근	목 3:30	Blanchard 272
11-24	영성목회	서삼정	화 3:30	Breyer 9
11-25	교회의 선교적 의미	박성배	화 5:00	Blanchard 139
11-26	21세기 치유공동체를 위한 교정목회전략	김상모	화 5:00	Blanchard 222
11-27	선교적 재직훈련	방지각	화 5:00	Breyer 10
11-28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좌표	김성만		
11-29	1.5세의 교량역할사역	김피터	수 3:30	Breyer 103
11-30	제자훈련과 선교	이폴	수 5:00	Breyer 103

## 12. 선교기관/신학교

12-01	선교기관의 역할과 기능	이병길	화 5:00	BGC 140
12-02	서구선교기관의 역사적 고찰	강밖내	목 3:30	McAlister 136
12-03	선교기관에 대한 이해	래리 패이트	수 3:30	BGC B10
12-04	한국선교훈련기관 실태	강승삼	수 3:30	BGC 140
12-05	교단선교기관 운영의 현실과 모델들	임순삼	수 3:30	BGC 138
12-06	지역교회 중심 선교기관	이원상	화 3:30/5:00	BGC 138
12-07	초교파선교기관	조지 버워		
12-08	선교기관의 조직과 운영	김활영	수 5:00	BGC 272
12-09	선교단체간의 국제적인 협력	제임스 스토클리스	목 3:30	Armerding 226
12-10	선교기관의 선교사 파송과 관리	한도수	화 5:00	Armerding 122
12-11	한국선교사 재배치전략	이태웅	수/목 3:30	BGC 136
12-12	선교기관의 효율적 재정운영방안	신경희	수 3:30	Armerding 123
12-13	북미주한인교회와 신학교의 협력방안	황용현	수 5:00	Armerding 122

## 13. 선교헌신자

⑬-01	선교의 소명 어떻게 알 수 있나?	림택권	화 3:30	Barrows
⑬-02	선교지망자의 준비과정	데이빗 브로우체	화 5:00	Barrows
⑬-03	타문화권 사역을 위한 준비	레스 언튀	화 5:00	BGC B10
⑬-04	선교사의 인격훈련	존 애커	수 3:30/5:00	BGC 432B
⑬-05	선교지망자의 언어훈련	정민영	수 3:30	Armerding 129
⑬-06	선교사의 삶과 효과적인 사역훈련	폴 넬슨	수 5:00	BGC 136
⑬-07	선교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로스 레오노빅	목 3:30	Armerding 122
⑬-08	선교전략가가 되는 길	토마스 왕	수 3:30/5:00	Barrows
⑬-09	대학생들에게 달한 선교의 문은 없다!	댄 해리슨	수 5:00 목 3:30	Blanchard 273
⑬-10	세계선교를 위한 한인2세의 전략적 위치	고인호	수/목 3:30	Pierce 201
⑬-11	국제팀과의 사역	마크 브래들리	목 3:30-4:30	Armerding 123
⑬-12	북미주출신 한인여성교사의 고백	백은영	화 5:00-6:00	Blanchard 322

## 14.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⑭-01	다국적 선교지에서의 가정 이슈	폴 넬슨	화 3:30/5:00	Armerding 129
⑭-02	선교사의 가정사역	이중표	화 3:30/5:00	BGC 432D
⑭-03	선교사 가정의 갈등해결과 예방	김만풍	수 3:30	Breyer 9
⑭-04	선교사의 영성관리	이상남	목 3:30	BGC 432C
⑭-05	선교사의 건강관리	배영섭 최용규	목 3:30	Breyer 9
⑭-06	선교사의 윤리와 협력	손봉호	화/수 3:30	Piece 104
⑭-07	선교사의 자녀교육	이순영 김신숙 이옥선	화 3:30	Blanchard 273
⑭-08	선교사의 협력과 팀사역	황윤수	수 5:00	Breyer 207
⑭-09	선교사역의 갈등과 해소방안	이장식		
⑭-10	선교지의 신학교수 양성방안	김종국	수 5:00	Breyer 302
⑭-11	선교지의 신학교 사역	정광호	목 3:30	Breyer 207
⑭-12	비거주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김영자	화 3:30	Breyer 302
⑭-13	선교지의 기도학교 운영	김정복	화/수 5:00	Pierce 201
⑭-14	설교와 선교	나광삼	수 3:30	Breyer 207
⑭-15	성경암송과 선교	홍춘만	화 5:00	Breyer 207
⑭-16	최고의 사랑, 선교사에게 묻는 세가지 질문	정필도	목 3:30	Breyer 207



## 15. 단기선교

15-01	단기선교운동의 새 경향	전희근	수 5:00	Blanchard 222
15-02	단기선교의 원동력	이용걸	화 5:00	BGC 272
15-03	국제선교단체 단기선교훈련의 실태	레스 언뤼		
15-04	한국교회 단기선교의 실태	배순호	화 3:30	BGC 252
15-05	지역교회의 단기선교 훈련방안	정강현	수 5:00	Pierce 108
15-06	단기선교여행에 필요한 건강상식	김영남	목 3:30	Breyer 103
15-07	북미주한인교회 단기선교운동 실태	이데이빗	목 3:30	Breyer 302
15-08	단기의료선교 사례보고	전희근 김영훈	목 3:30	Blanchard 139
15-09	단기선교를 통한 평신도선교 활성화	이상진 김병춘 권혁수	목 3:30	BGC 276
15-10	단기선교를 통한 현지지도자 양성방안	양조셉	목 3:30	McAlister 224

## 16. 평신도/자비량선교

16-01	전문인선교사의 역사적 고찰	크리스티 윌슨		
16-02	전문인사역을 통한 미전도종족 전도	최바울	수 5:00	Blanchard 324
16-03	평신도의 세계선교참여의 문제와 해결점	유효명	화 5:00	BGC 136
16-04	지역조직활동을 통한 평신도선교 활성화	유재송 황기수 지영환 김형응	목 5:00	Blanchard 272
16-05	평신도선교훈련의 방향과 문제점	박문규 홍은선 김정환 김옥규 홍석구	목 3:30	BGC 272
16-06	직장선교	박흥일	수 3:30/5:00	BGC 432C
16-07	실업인선교	김세웅	목 3:30	Breyer 111
16-08	간호사역을 통한 복음전파	김정운 전미령	수 5:00	Breyer 111
16-09	의료선교	강원희	수 3:30	Breyer 111
16-10	북한의료선교	박세록 장현식	수 3:30	Breyer 302

## 17. 특수선교

17-01	군경선교	목사군	목 3:30	Blanchard 322
17-02	지체장애자선교 [1]	조니 에릭슨 타다	수 5:00	Armerding 126
17-03	지체장애자선교 [2]	임선숙 김혜영	화 5:00	Breyer 302
17-04	구제선교	윤남중	목 3:30	BGC 250
17-05	농업선교	김대엽	화 3:30	Breyer 10
17-06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선교	바스 벨더잠	수 3:30	Pierce 108

17-07	선교사역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전도	김영훈	수 3:30	Breyer 10
17-08	글자화되지 않은 언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휘레스트 젠더	수 3:30/5:00	Armerding 226
17-09	성경배포선교	데니스 M. 멀더		
17-10	방송선교	유관지 최은중	목 3:30	BGC 140
17-11	러시아 제한지역을 위한 방송선교	닉 레오노빅	목 3:30	Pierce 101
17-12	레코드선교	로스 랭	화 3:30/5:00	Pierce 101
17-13	음악과 연극선교	신빌	목 3:30	McAlister 225
17-14	한국외향선교	최기만 임재성	목 3:30	BGC 138
17-15	북미주외향선교	조봉기 박계로	수 5:00	BGC 272
17-16	항공선교	김영옥	수 5:00	Armerding 129
17-17	예수영화선교	김석원 최향숙	수 5:00	Blanchard 322
17-18	국제혼인가정을 통한 선교전략	강준원	수 5:00	Armerding 20
17-19	21세기 북미주한인교회의 민족성 존속과 2세 문제	김종기	화 3:30	BGC 250
17-20	지신과 현지선교	송민호	화 5:00	Breyer 111
17-21	정령송배의 이해	김상환	화 3:30	McAlister 225
17-22	지역교회의 세계선교 3대 접근방법	빌 월드롭	목 3:30	Barrows
17-23	사도행전 13장 강좌	조지 버워	화 5:00	BGC 252
17-24	선교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빌 월슨	수 5:00	Breyer 9
17-25	베이비붐 세대의 선교진출촉진	필 친	수 3:30/5:00	Pierce 101
17-26	선교사의 소명	캠프 에드워드 폴 하인스	수 5:00 목 3:30	Breyer 10
17-27	효과적인 전도전략	조슈아 강		

## 18. 선교비디오 상영

18-01	신뢰성 구축 Building Trust	NAIM	화 5:00	Blanchard 339
18-02	태양 너머로 Behind the Sun	Open Doors	화 3:30 수 5:00	Blanchard 339
18-03	유월절의 메시아 Messiah in the Passover	Chosen People	목 3:30	Blanchard 339
18-04	닫힌문들을 통과하여 Through Closed Doors	AWM	수 3:30	Blanchard 339
18-05	마케도니아 프로젝트 Macedonian Project	AD2000 & Beyond		
18-06	여호수아 프로젝트 Joshua Project	AD2000 & Beyond		
18-07	미완성과제 The Unfinished Task : It Can Be Done!	AD2000 & Beyond		
18-08	미완성과제에 대한 도전 The Challenge of Our Unfinished Task	YWAM		



## 1. 선교일반

## ①-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선교

최인순 /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담임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최인순 목사는 디트로이트 노회장도 겸임하고 있으며 미국 장로회 총회 총대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피츠버그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려는데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상품을 모르면서 팔리는 세일즈맨과 같이 integrity 없고, 또 효과 없는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성서적 신앙이라는 것,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은 어느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한 종교라는 것, 타세계적인(other worldly) 종교가 아니라 오늘 (오늘의 우리의 사명)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제목을 성서적 입장과 개혁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고려해 보려고 한다.

## ①-2 성령의 역사와 선교 [1]

장동찬 / 베다니연합감리교회 담임



베다니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장동찬 목사는 감신대와 예일대를 거쳐 드류신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로는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삼위일론의 성령론 공헌」, 「터를 넓혀라」 등이 있고 동부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각지의 단기선교 경험이 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선교의 관계를 이해한다. 교회와 구원의 관계를 다룸에 필수적인 관계는 성령 사역 이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선교의 본질적 사역을 이해하려면 성령 사역을 이해해야 한다. 그걸로 본 강의를 통하여 성령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더함으로 목회와 선교사역에 근본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 필수적인 성령사역의 이해가 부족함으로 목회와 선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에게 큰 도움에 될 줄 믿는다.

본 강의는

- 1) 목회와 성령사역의 이해
- 2) 선교와 성령사역의 본질적 이해
- 3) 선교사와 목회자의 본질적 사역과 성령사역의 관계성 이해
- 4) 선교와 목회에의 적용

## ①-3 성령의 역사와 선교 [2]

정필도 / 부산수영로교회 담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총회신학원을 거쳐 미국 리폼드신학교에서 목회학 바사를 취득한 정필도 목사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 총신대학 재단이사, ACTS 이사, 부산선교협의회 회장, 중북선교회 이사장, OM국제선교회 이사, 수영로 세계선교회 총재이며 1975년에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여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이며 복음전도자이다.

1.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엡 1:3-4, 요 15:26)
2. 일하시는 하나님 (요 5:17, 계 1:12-20, 고전 15:58, 빌 2:30, 계 2:26, 렘 48:10, 합 3:2)
3.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요 6:37-39, 행 13:48)
4. 누구나 성령의 도구가 되면 성공한다 (요 20:22, 행 1:4-8)

## 5.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 1) 깨끗한 그릇 (딤후 2:20-21)
  - ① 교역자에게는 경건이 생명이다.
  - ②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딤후 4:5)
  - ③ 경건의 매력 - 경건의 힘
  - ④ 마음관리 - 양심관리 - 입관리
  - ⑤ 시간관리
- 2) 순종의 사람
- 3) 사랑의 사람

## ①-4 선교의 구약성경적 근거 (요나서 중심)

윤사무엘 / 프린스턴영광장로교회 담임



프린스턴영광장로교회를 담임하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과 뉴브런스윅신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 윤사무엘 목사는 연세대 신대와 듀북신학교를 거쳐 하버드대학교 신학부에서 구약학 석사, 보스턴신학대학 신학부에서 구약학 신학박사 과정을 있으며 저서로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구약의 초기목사문학연구」 등이 있다.

## 1.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의 근거

구약성서에도 선교에 대한 사상이 많이 나온다.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성서에서는 선교의 개념이 희박하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성서의 선교개념의 뿌리가 구약성서에 있음을 쉬이 알 수 있다. 가령 마태복음 28:1 8-2에 나오는 주님의 지상명제(Great Commission)는 시편 67편과 117편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8 (선교지의 확장)은 이사야 19: 24-25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는 창세기 1:26-28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전 우주적, 인간적, 전문화적으로 영원에 이른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창 12:11-4)는 열국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자(선지자)들이 열국의 심판을 선언 (사 13-23장, 28-34장, 렘 46-51장, 겔 25-32장, 암 1-2장 등)한 것도 하나님의 선교영역이 열국에 미침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 2.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 1) 요나의 표적 (Sign of Jonah, 마 12:39-42, 16:4) = 선교에 대한 유대인의 무관심을 공격하며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세계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
- 2) 요나 = 당시 히브리인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함. (욘 1:3, 10, 4:1-3)
- 3) 니느웨 = 앗수르의 수도로 죄악이 극에 달한 도성임. 죄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가 12만명 거주함.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남. (3:5-9)
- 4) 배에 탄 이방인들 = 위기 때 기도하며, 요나의 설명을 듣고 여호와의 경외하게 됨. 하나님의 뜻에 순종. (1:14)
- 5) 하나님 = 요나에게 사명 주시고, 도망가는 요나를 강제적으로 회개시켜 선교지로 보내시고, 뜻을 돌이키사 (3:9, 욘 2:14, 시 85:3) 심판내리지 않으심. (요나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45회, 요나 18회 나오므로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 3. 결론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두 가지 흐름.

- 1) 모세계약(요나) : 선민, 거룩성, 제사장, 성별 할례, 안식일, 코셔(Kosher) 강조(exclusive)
- 2) 아브라함/다윗 계약 (하나님 선교) : 은총, 축복, 구원, 회개촉구(inclusive), 세계선교, 요나서에서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갈등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세계선교를 권명하시고 만민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①-5 선교의 신약성경적 근거 (바울서신 중심)

정인찬 / 휴스톤한인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에서 목회학박사(D.Min), 신학박사(Th.D)를 취득하였고 휴스톤한인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며 휴스톤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서대백과사전」(전 8권 편저자), 「은사와 은혜」, 「젠센성경교재 시리즈」 등이 있다.

1. 이교도들의 도전과 바울의 그리스도 선교 (Missio Christi)
2. 철학적 도전과 바울의 그리스도 사상
3. 정치적 도전과 바울의 선교의 힘
4. 문화 사회적 도전과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5. 적그리스도 영과 바울이 전한 성령의 역사

## ①-6 세계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노봉린 / 아시아연합대학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교회사, 선교학 교수이며 WEF Theological Commission 총무와 햇불선교센터 해외선교국장  
으로 사역하는 노봉린 목사는 1970년도부터 OMF 선교사(신약학 교수)로 싱가포르, 대만, 한국에서 사역하였으며 서울대학,  
콜롬비아성서대학, 헛튼대학, 커버넌트신학교를 거쳐 콩코디아루터란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The Great Commission  
Mt 28:19 Mk13:10 Acts13:1-4 Rom10:13-15

### ▶ European Colonial Expansion

A. Roman Catholic Nations

1. Italian contacts with the Mongolia Empire(13th)
2. Portuguese Interests in S.E. Asia(16th) Gor(Malacca 1511)
3. Spanish Interests in S. America and Asia
4. French in Indo-China(by 1885)

B. Protestant Nations

1. Dutch interest in S.E. Asia (17-18th)
- 2 British interest in Asia(17-20th)

### ▶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A. The Nestorian Missions

1. The Nestorian Tablet
- 2 Alopen from Syria to Cathay(635)

B. The Rome Catholic Missions' Domination(1500-1750):

1. Missionary friars to the Mongolian Khans(13th) John of Plano Carpini, John of Monte Cmvino, Mattee
- 2 Jesuit Missionaries: Francis Xavier
3. Missionary orders today: Jesuits, Friars, Nuns

C. The Protestant Missions(18th)

1. Pioneer Missionaries - William Carey (1761-1834)-"father of modern mission" Bapt. Miss. Soc(1792) Robert Morrison(1782-1834) in China(1809) James Hudson Taylor-OM (1865) AdoniramJudson(1~1850) in Burma

David livingston(181341-73) in Africa

2. Missionary Societies - 1784: six protestant missionary societies with 200missionaries.

London Missionary Society(1795) Church

Mission Society(1799) General Methodist Society(1796)

3. Rapid Growth of Missions during the Colonial Era(1850-)

### ▶ The Growth of Foreign Missions

A. External Factors

1. Political- Rex Romana, Pax Britanica, Pax American, rolonial expansion;
- 2 EconomicalIndustrial Revolution, transport, communication, huger-poverty;
3. Social- Breaking down of primitive cultures, school, hospitals, polygamy;
4. Intellectual -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 Internal Factors

### ▶ International Missionary Organizations

A. Ecumenical

1. World Missionary Conference in Edinburgh(1910)
2.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1921) and IMC Conferences 3. CWME in Mexiro City(1963)

B. Faith Missions

1. Evangelical Foreign Missionary Association(EFMA)
2. 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ary Association (IFMA)

▶ Raise of Third World Missions(1960's-)

1975: 3411 Missionaries in 86 countries with 19 agencies.

A. Asia:

1. Number of Asian Missionaries:

- 1980: 10,200 missionaries
- 1990: 20,933
- 2000 : 67,000
- Annual Growth rate of Asian missionaries: 15.4%
- Korea : 3,500 missionaries in 47 countries(259 with work with Indians cross culturally. Indian Evangelical Mission : 280 missionaries.

2 Missions Agencies : 1989; 322+ mission agencies

• Asia Missions Association(AMA) from Aug. 1973(by Dr. David Cho): six national missions associations:

- (1) Korean Foreign Mission Association (KFMA)
- (2) Indian Mission Association (IMA)
- (3) Philippines Mission Association (PMA)
- (4) Indonesia Fellowship of Missions (IFM)
- (5) Japanese Overseas Mission Association (JOMA)
- (6) Hong Kong Association of Christian Missions (HKACM)

3. Missions Conferences:

- AMA's 4th Triennial Convention in Pasadena, CA, Oct. 6-12,1986.
- "Mutual Fund for Third World Mission Advance" es-

tablished.

- "Joint Commission of World Mission" established.
- First Pan-Malaysia Christian Missions Conference, Feb. 1m First Asia Student Missionary Convention, Baguio, Philippines Dec. 26-31,1973.
- 4th Taiwan Christian Students Missions Conference, July 4-9, 1988.
- Asia Missions Congress, Aug. 27-31, 1990
- Chong Hyun church, Seoul, Korea Sponsor: Evangelical Fellowship of Asia(2000 delegates)

B. Italian America:

• COMIBAN '87(Nov.) drew over 3,200 participants in Sao Paulo, Brazil to Mobilize Latin American Churches for Mi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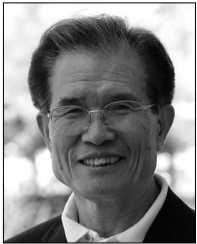
- 13,000 missionaries(1980) in South and Central America.

C. Africa:

- 1975: 917 missionaries with 18 agencies.
- 1988: Church Growth: 230 million(44%) of the Africans claim to be Christians(1987), and by 2000 AD 400million(48%) will be Christianized.
- 2,000 Africans accept Christ every day.
- 1990: 17,000 African missionaries
- Nigeria: 3,(XX) missionaries plus 30 mission agencies

## ①-7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이종형 / 시카고한미장로교회 담임



시카고 한미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이종형 목사는 경북대학, 장로회신학대학.예일대 신학부를 거쳐 유니언신학교(버지니아)에서 교회사와 선교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장로회신학교수 미주장로회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한인해외선교회(KOM)를 설립하였고 저서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 「세계선교대회와 한국기독교회」, 「삼일운동과 주한선교사」 등이 있다.

### 1. 유럽에서의 시작

- 1) 파리에 공부하던 7명의 독일법대생과 선교헌신 (17세기 초)
- 2) 독일의 할레대학과 진제돌프 겨자씨회 조직 (1710-1716)
- 3) 옥스포드대학과 웨슬레 형제 신성클럽 조직(1726). 조지아의 선교사로 (1735)
- 4) 캠브리지대학과 시므온(1779) 그리고 캠브리지 세븐 (1883)

### 2. 미국에서의 형편과 학생운동 시작

- 1) 사무엘 밀스와 헤이스택 기도회, 형제회 (1808)
- 2) 회중교회의 미국해외선교회 조직(1810)과 최초의 5명 선교사 파송 (1812)
- 3) 엔도버신학교에 선교문제연구회 조직 (1811)

### 3. 학생운동의 조직화와 변천

- 1) 프린스턴대학과 펠라델피아회 (1825)
  - 2) YMCA 운동과 Luther Wishard (프린스턴 학생)
  - 3) Robert Wilder와 프린스턴 외국선교회 (1883)
  - 4) John Mott의 회심과 헌신
  - 5) Mt. Hemon 대회(1886. 7. 6)와 학생선교자원운동 조직 (1888)
- 1889년 구호 : "우리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채택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 6) 국제학생선교대회(International Student Missionary Convention)1891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s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1895 조직되고 성장 발전하여 1920 Des Molnes 대회에서 절정. (949 학교에서 6890명 참석, 2783 새지원자)

### 4. 초기 학생운동의 특색

### 5. 학생자원운동의 쇠퇴 및 종말

6. 학생해외선교회 (The Students Foreign Mission Fellowship) 탄생 (1936)

7.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이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오다 (1939)

- 1) SFMF와 IVCF의 병합 (1945), 국제학생선교대회 (1946)
- 2) The Urbana Convention - 1948년부터 매 3년

### 8. 학생선교운동이 20세기 선교에 미친 영향

## ①-8 한국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김명혁 / 서울강변교회 담임



서울강변교회를 담임하는 김명혁 목사는 합동신학교 교장이며 한국복음주의협회 총무와 러시아선교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 ①-9 한국선교사 선교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

전호진 /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전호진 목사는 고려신학교를 나와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과 피어선신학교(현 평택대학교) 학장과 고신대학교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및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로 사역하며 저서는 「한국교회와 선교 1,2집」(편저), 「한국교회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방향」, 「선교학」,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선교전략」, 「아세아기독교와 선교전략」 등이 있다.

### 서론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역사에서 유례없는 경이적 성장을 이룬 교회이다. 과거 은둔의 나라(hermit nation)에서 희락의 나라(permit nation)로 바뀌어졌다. 이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어 한국선교사는 전세계 130여개 국가에 약 5천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선교비로 지출하는 돈은 일년에 무려 수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독교 질서는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신학과 선교에서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 선교의 특징은 국력은 아직도 중진국이지만 선교면에서는 비중있는 교회이다.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면 영적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이고 문화적응의 능력이 비교적 있는 민족, 과거 식민주의의 경험이 없는 나라라는 장점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급성장한 제3세계 국가 중에 좋은 모델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선교운동에는 약점도 있다. 역사가 일천함으로 선교경험 부족에 파송차원에서는 훈련, 정보, 파송절차 등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고 선교지에서는 이론 성과가 있으나 원칙없는 선교, 선교사들의 갈등, 돈 선교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교회 선교의 과거, 현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과거 (해방 전에서 1960년대까지)

#### 1) 선교의 개척기

초기 한국교회는 자립원리에 의하여 성장,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로 발전, 장로교회나 기타 교단도 교단이 성립되면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해외선교로 시작한다. 그러나 해외선교의 개념은 제주도이며 중국과 시베리아, 일본 등지의 교포 대상의 선교였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당시 제주도는 외국으로 취급될 만큼 문화적 차이가 있었고 러시아의 선교사가 러시아 정교회의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초기 선교는 부흥 운동의 산물이며 강력한 자립전도의 의지가 해외로 뻗어 나간 셈이다.

#### 2) 침체기

한국교회는 1920년대에서 1950년도 초기까지는 일제의 탄압과 동란으로 인하여 해외선교는 정체상태에 머문다. 이 1930년대는 일제의 문화적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한국교회



가 세계교회로부터 고립되는 시기이고 반면 신도라는 일본의 민족종교 "대양신"과 투쟁하는 시기이다. 한국교회는 첫 종교적 전쟁을 치리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였고 개인적 차원에서 투쟁하였다.

3) 새로운 출발

한국동란 이후 50년대 중반 한국교회는 정비하면서 소수의 개척자적 선교사를 중국, 태국 등에 파송함으로 선교를 새로 시작한다. 그러나 60년대는 비교적 침체시기이다.

2. 현재 (1970년대부터 현재)

이 시기의 선교특징은

- 1) 초교파선교회가 선교운동주도
- 2) 해외교포교회로부터 시작
- 3) 70년대 국내의 초교파 대형전도대회가 선교운동으로 발전
- 4) 미국의 교회성장신학소개로 선교신학의 콘센서스 형성
- 5) 평신도 선교중대 (선교에서도 성직주의 쇠퇴) (여성 선교사가 남자 선교사보다 많음)
- 6) 전문인선교운동의 시대로 돌입
- 7) 국가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유리한 혜택 이용
- 8) 선교사 파송의 절정기는 80년도 후반임
- 9) 선교로 연합운동이 증대됨

3. 미래방향

①-10 한국대학생세계선교운동의 동향과 전망

김동환 / 한국대학생선교운동



한국대학생선교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GCOWE'95 세계선교대회 때 올림픽경기장에 모인 십만명 선교현신자들이 집합했던 SM2000을 준비하였다.

①-11 선교구조신학

유용규 / 한국해외선교회 이사장

한국해외선교회 이사장인 유용규 목사는 한국선교훈련원 원장과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선교운동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서론

1. 두 구조의 정의

- Charles melhs go/come
- Ralph winter wrap woog theory
- Peter Wagner body/lag
- Paul Peterson con/mission
- Yong Kiew Huw/wife

2. 선교구조에 관한 쟁점 (Controversies in two Structures)

- 1) 단일구조론 : Mono Structural View
- 2) 임시구조론 : Temporary Structural View
- 3) 이중구조론 : Duel Structural View
- 4) 구조무의론 : Non-Structural View

본론

1. 선교구조의 존재타당성  
(The Validith of the Mission Structures)

1) 신학적(성경적) 관점 - Theological View

① 교회론 Eclessiology

• 교회의 존재성격 (본질과 속성 Essence & Attributes)  
(The Natures of the Church)

본질 : 하나님의 백성 (Essence : the People of God)

그리스도의 지체 : The Body of Christ

성령의 전 : The Temples of the Holy Spirit

속성 (Attirbutes) : 통일성 Unity, 보편성 Universality, 성결성 Sanctity, 사도성 Apostolocity

• 교회의 표지 (The Marks of the Church) - 말씀 (Work of God), 성례 (Holy communion), 권징 (Dicipline)

• 교회의 목적 (The Purposes of the Church) - 예배 (Worship), 양육 (Nurture), 교제 (Fellowship), 선교 (World mission), 봉사 (Service)

② 성령론과 선교 및 그 구조 (The holy Spirit and two Structure)

• 성경영감 - 선교목표 (The Work of the Conversion - Missionary Goal)

• 중생역사 - 선교목표 (The Development of the Gifts - Missionary Training)

• 은사개발 - 선교훈련 (The Development of the Gifts - Missionary Training)

• 개교회 창설 - 교회구조 (The Founding of the Church - Structures)

• 선교회 창설 - 선교구조 (The Founding of the Mission Structures)

2) 역사적 관점 (Historical View)

① 구약의 선교구조 (The Mission Structures of the O.T.)

② 신약의 선교구조 (The Mission Structures of the N.T.)

• 세례 요한의 갱신운동 (The Renewal Movement of John the Baptist)

• 예수님의 제자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 초대교회의 선교사팀 (The Missionary Teams of the Early Church)

• 세계교회사의 선교구조 (The Mission Structures of the World Church History)

③ 인류학적 관점 (Anthropological View)

• 사회구조적 의미에서의 교회 (The Church as the Socio - Cultural Structures)

• 형식과 의미 (Form & Meaning)

• 사회구조론 (Bounded/Centered Set)

• 기관적 의미에서의 교회 (The Church as the Institutional Context)

• 조직비대화의 기구화 (Bureaucracy and Institutionalization)

• 갱신운동과정 (Process of Renewal Movement)

2. 두 구조의 성경적 연합관계

(The Characteristic Relationship Between Two Structures)

결론

두 구조의 발전적 협력관계 모색에 대한 제안 (The Workable Relations Between Two Structures)

1) 기본적 전제 (Basic Premises Methods)

2) 방법론적 제안

① 신학적 단계 (Theological Level)

② 지도자적 단계 (Leadership Level)

③ 기능적 단계 (Functional Level)

①-12 성서적인 금식기도, 신앙훈련의 핵폭발력

빌 브라이트 / 세계대학생선교회(C.C.C.) 창설자



세계대학생선교회(C.C.C.)를 창설하고 이 시대의 대학생 청년 선교운동을 불기둥처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이제 70세가 넘었음에도 두번이나 40일 금식기도를 감행하며 200년전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1백년전의 디엘 무디를 통해 일어난 바 있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맥을 이어 제3의 영적 물결을 이 땅에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전략투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①-13 영적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합주회운동

데이빗 브라이언트 / 기도합주회 창설 및 대표



Many have called David Bryant a messenger of hope." Founder and President of Concert of Prayer International, and chairman of Amerim' National Prayer Committee, David Bryant and his team have conducted hundreds of city-wide mass prayer rallies for renewal and evangelism( called National Concert of Prayer) and his latest book is THE HOPE AT HAND: National and World Revival for the 21st Century.

Introduction

- My own pilgrimage over the past 25 years and what fve learned
- When God spoke to me: "If you bring them to me,
- I will take them from that point forward" By prayer we bring them to the Throne (Hebrews 10:19-25)
- That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in the movement of concerted prayer around the world today. And it is precisely what He can do on your campus.
- A story from India
- The model of Zechariah 8:20-23
- A model in Acts 13:1-4

1. What is it that we are praying for?

- The history of concerts of prayer over the past 300 years
- The prayer agenda in concerts of prayer
- Three major themes for every concert of prayer:

- For a fresh focus on all that Christ is-for us, in us, through us, and out ahead of us
- For a renewal and deepening of our life together in Christ
- For the advance of our mission for Christ with great power
  - Why should this kind of praying fill US with N abundant hope?" (Romans 15:13)

2. The singl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prayer mobilization: Helo people to be dear on the vision toward which they are praying. The biblical word is "hope ..

- Hope is foundational to the whole Christian life and mission
- See the power of "hope" in the Scriptures
- Take note of the power of "hope" in our life of prayer
- This is why "hope" is also crucial to prayer mobilization
- "hope" is also vital to sustaining a movement of united prayer

### 3. How do we express this "hope" toward God?

- Remember to express all three themes in a Concert of Prayer (see above)
- Express these theme by six major approaches to how we pray:
  - Rejoice in who God is, what He has done, and for all He has promised to do.
  - Worship and praise Him in anticipation of what more He is preparing to do
  - Repent of every sin-personal sin and corporate sin-that would hinder God from pouring out a greater work of His Spirit in World evangelization
  - How is the Church grieving the Spirit, or questioning the Spirit, or resisting or disobeying the Spirit in our life together
  - Resist the forces of Darkness, who are so diametrically opposed to what work of the Gospel around the world. Where has Satan raised up baniers and stronghold-both inside the church and among the nations-that could hinder world evangelization?
  - Request boldly by petition and intercession that God would fulfill all

He has promised to do in reviving His people and in advance the cause of Christ around the world Our vision and hope in God that caused us to rejoice and praise and the purposes of God, so clearly revealed in the Scriptures, should now become the basis of all we ask Him to do for us in our generation.

- Receive everything God wants to give you as you pray.

Prayer is really a two-way conversation.

As we pray, God is listening and God is also speaking, He will also answer our prayers. So as we pray, we need to be alert and constantly asking ourselves: How is God renewing me as I pray? What new promises of His Word have come alive in my heart.

Have I gained any new sense of hope about what God wants to do in me-in my church in my generation,. in my nation or among the nations? As fve praved has God

spoke to me reassurance about any of my prayers, that He will in fact answer us? Has He reinforce my hope that I will see Him do great and mighty things because we have prayed? Are there any specific steps of obedience He is asking me to take right now so that I can be better prepared for the answers, or so that I can actually become a part of the answers to our prayers?

-Finally, we need to recommit ourselves to God, to obey Him, to remain faithful in our prayers, to mobilize others with us into the same kind of prayer, and to be used by Him to be an answer to any of the prayers we have prayed no matter where it may take us or what it may cost us.

### 4. In leading a Cancer of Prayer, We can combine the 3 themes and the 5 approaches into one

"picture" that describes everything we could ever pray about. See the GRID on the following page. These 18 squares make up the full prayer agenda that must become a part of the prayers for all of us.

- Let me explain the GRID ("How To Pray For Revival")
- Let me show you some practical ways to use it as you lead a Concert of Prayer

### 5. Conclusion: It all comes together in the book of Ephesians

## ①-14 현대화와 세계선교의 동향

패트릭 존스톤 / WEC International Research Office 대표



영국 버킹햄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C International Research Office의 대표로서 전세계를 다니며 선교에 동기부여와 전략수립 및 정보수집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세계선교운동에 사건과 같은 OPERATION WORLD를 제작하였다.

### Introduction

My background as missionary, mission leader, author in evaluating the world situation

My ministry: to encourage with what God is doing in the world and that we have a finishable task to challenge that we finish world evangelization as soon as possible.

We are a privileged people. Never before has any generation had such a real prospect of actually seeing the fulfillment world evangelization. The tragedy is that few Christians realize this and miss the sense of privilege and awe that God has called us into the Kingdom for such a time as this. The clever schemes of the enemy have made missions seem irrelevant or unimportant to the average congregation and Christian.

We are also an accountable people. It will involve costly commitment, wholehearted resolve and sacrificial cooperation if we are to achieve this in our generation.

My basis for sharing: The statements of the Lord Jesus Christ in Matt 24:14 concerning world evangelization.

### 1. Unprecedented global church growth - but not everywhere

The WILL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The definiteness of the Lord Jesus Christ's word - even in the midst of the global chaos He has just described (Matt 24:3-13). It WILL happen; nothing will stop it, though I believe our disobedience delays it.

### A. The encouragements

(1) The 200-year expansion of Protestantism  
 1792-1850 : Denominational missions to the Coastlands  
 1850-1910 : Faith Missions to the Inland areas  
 1910-1970 : International Missions to the Countries of the world  
 1970-present : Global Missions to the Peoples of the world

(2) The 30 years of Evangelical growth  
 • The Great Congresses - Berlin, Lausanne, GCOWE

(3) The decades of growth  
 • The '60s for Africa, the '70s for Latin America, The 80's for East Asia, The '90s for Eurasia  
 • The Future breakthroughs-Islam?

(4) The Global plans for world evangelization  
 • David Barrett's book 700 Plans for world evangelization.  
 • Thomas Wang's message "Is God saying something to us?"  
 • The birth of the AD2000 and Beyond Movement  
 • The networking for global plans:  
 • The Radio Missions and their plans for every language spoken by over 1 million by 2000.



- The Bible translation Missions and plans for every language spoken by over 100,000 people.
- The Jesus Film plans for every language spoken by over 75,(XX).
- The Saturation Church Planting/DAWN Movement and plans for nations of world.

#### (5) The collapse of ideologies

- Communism - challenge of Brother Andrew, '84 for a 7-year prayer warfare to bring down the Iron Curtain.
- Islam - The surprising impact of fundamentalist Islam on increasing the number of converts to Christianity.
- Buddhism - discredited in Sri Lanka on defensive in S.E. Asia.
- Hinduism- Religion in politics in India the turning to God in Nepal

#### (6)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s with a witness Ibis century.

Many examples: The Kurds, The Tuareg, The Kabyle, The Iranians, The afghans, Indonesia

### B. The Challenges.

#### (1) The West: The emerging post-Christian society with its secularism, “tolerance” , New Age world view.

- The loss of confidence that the Gospel is the ONLY hope of humankind
- The loss of vision, people, and enthusiasm for missions.
- The need for the re-evangeliazion of Europe.

#### (2) The 10/40 Window region.

- Islam, Hinduism, Buddhism - the major challenges.

### 2. Unique message - but it is often compromised

- The Gospel of the Kingdom - the message that changes lives, that gives eternal hope, that is worth dying for.

### A. The popularization of Evangelicalism.

- A plea for evangelical SIKXESS not to allow a watering down of the content of the Gospel.
- The astonishing growth of Evangelicalism in the world since 1960.
- The danger of shallow teaching, easy-believism, doctrinal fads.
- We need to restore to our people the power of the Gospel the glory of the Cross, the joy of the Christian Hope, the essentiality of missions.
- The teaching of the whole councils of God is also part of the Great Commission-Luke 24:45-49.

### B. The syncretization of the Biblical message.

- The West- with materialism. The preoccupation with material things even in missions
- Africa and Latin America -with paganism.
- South Asia- with Hinduism,
- East Asia - with Buddhist works and Confucian ancestor veneration
- The loss of confidence in the uniqueness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message of the Gospel; a creeping universalism that is afflicting the West and South Asia. Tolerance is very intolerant of any absolutes.

### C. The building of empires rather than the Kingdom

- Denominationalism, isolationism, personality worship among Christians are a sad characteristic of much Christian work today - examples: what Christians did in the Eurasian Communist Bloc with the collapse of doctrinaire Communism.
- A plea for Co-operation - the trend of the future. The networking now the major source of effective long-tenn missionary endeavor.

### 3. The unprecedented clarity of our information - but it is not being used enough

- The broad and total double coverage of the world required by the Lord Jesus Christ
- These fit the basic Mark and Matthew versions of the Great Commission

A, Global - Mark 16:15 : Preach the gospel to every person, The Evangelism challenge.

- (1) The Evangelized and the unevangelized How many have never heard?
- (2) The 10/40 Window and what it means to us today.
- (3) The Countries with the fewest Christians.
- (4) The provinces and districts with the fewest Christians.

B, Ethnic - Matt 28:19 : Make disciples of every people. The church planting challenge.

- (1) The 12,000 peoples in the countries of the world
- (2) The 12 Affinity Blocs
- (3) The 140+ Gateway peoples
- (4) The Joshua Project
- (5) How close are we to seeing a church planted in every people in the world?

### 4. The exciting global mobilization for missions - but not always in partnership

- The challeng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there be preachers and testifiers.
- The eras of mission endeavor - Early Church 100-400, Celtic Church 400-800, Eastern Churches 800-1300, Roman Catholics 1300-1800, Protestants 1800-2000
- The last 15 years - Missions go global.
- Recent surveys: Larry Keyes, Larry Pate, Operation World.
- |- The impact of Pacific, African, Latin American, and

Asian missionaries on the world

The lessons we must learn:

- (1) We must work together. Partnerships are the wave of the future. We are running out of countries and even peoples. The time of the lone ranger missionary is past
- (2) We must learn to handle cultures and multi-cultural teams
- (3) We must share resources, skills, information
- (4) We must plant th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not our own denomination or culture.

### 5. The finishability of 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 - if we commit ourselves to it.

- The end and world evangelization are intimately linked. Jesus will return when the job is done.
- What can be achieved by the year 2001?
- The need for every Christian, theological training institution, congregation, denomination to be committed.
- The cost is great - What that cost will mean in time, money, pain, loss, death- that life may come to others.
- Let us be willing and eager for this!
- We want Jesus back as soon as possible! We therefore want, by God's grace, to finish the job He has given us!

**①-15 세계경제동향과 세계선교**

김춘근 / 알래스카주립대학 경제학부 수석교수



현재 알래스카주립대학 경제학부 수석교수이며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춘근 장로는 북미주에 한국기독교대학생들을 통한 영적각성운동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비전의 사람이다.

**①-16 인류공동체의 미래와 선교**

이성희 / 서울연동교회 담임



서울연동교회를 담임하는 이성희 목사는 연세대학교(철학문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를 거쳐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샌프란시스코신학교에서 교회행정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 미래사회의 특징적 추세**

- 1)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
- 2) 신세대와 미래형 인간
- 3) 과속적 변화의 시대
- 4) 기술산업의 혁명
- 5) 정보사회
- 6) 새로운 우주
- 7) 과학의 발달

**2. 미래교회의 예상되는 특징들**

- 1) 개교회주의의 토조와 에큐메니즘의 발달
- 2)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
- 3) 조직교회에 대한 반대화 영성의 부활
- 4) 선교의 통진적 이해와 디아코니아의 발달
- 5) 교회마케팅의 발달

**3. 미래세계선교를 위한 제언**

- 1) 국경없는 시대를 선교의 호기로 선용하라
- 2) 제자화 선교에서 사도화 선교로 전환하라
- 3)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 4) 세계선교는 선교의 전문화로 이끌라
- 5) 평신도 선교사를 확대하라
- 6)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라
- 7) 자세를 낮추라

## ①-17 21세기 선교와 선교지도자

최찬영 / 태국 최초 선교사



1955년도에 한국교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로 태국 방콕에서 방콕기독병원 원목, 방콕 제2교회 담임, 방콕신학교 교수, 방콕성서공회 사무총장, American Bible Society와 United Bible Societies, 아시아대표 등의 사역을 통해 40여년 간의 생애를 해외선교에 헌신하였고 장로회신학, 홍익대학, 피츠버그대학, 피츠버그신학교를 거쳐 캘리포니아신학교에서 신학박사(D.D)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풀러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최찬영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 1. 21세기 선교의 변화와 도전

- 1).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인구이동) 변화
- 2).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변화
- 3). 세계 선교 현장의 변화
- 4). 한국 교회의 세계적인 위상과 선교적 책임

### 2. 21세기 한국선교의 전략지들

- 1) 중국
- 2) 한국
- 3) 일본
- 4) 10/40 Windows, 중앙아시아
- 5) 무슬림권 나라들
- 6) 남미, 아프리카 나라들

### 3. 21세기 선교를 위한 한인 선교 지도자

- 1) 누가 선교 지도자인가? - 선교의 성패는 선교 지도자에 달려있다.
- 2) 선교 지도자는 선교 철학이 분명하다 - 성경적, 세계적 안목, 선교 경험

- 3) 선교 지도자는 자질이 중요하다 - World, Obedience, Integrity
- 4) 새로운 지도자를 계발하자 - 1.5세, 2세. 1세 젊은이들을 전략적으로 계발

### 4. 21세기 선교 지도자에 대한 제언 (Robert Clinton)

- 1) Lifelong Perspective (전 인생의 관점에서 현재를 조명하라)
- 2) Learning Posture (평생을 통해 배우라)
- 3) Leadership Selection and Development (신실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계발하라)
- 4) Relational Empowerment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 동역자들을 사랑하라)
- 5) Sense of Destiny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공헌을 확실히 알고 행하라)
- 5) Spiritual Authority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인도하라)
- 6) Philosophy of Ministry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유종의미를 거두라)

**①-18 상황화와 복음**

존 그레이션 / 휘튼대학 교수



John Gration is professor and former chair of Missions Intercultural Studies at the Wheaton College Graduate School. He was Associate Home Director of the Africa Inland Mission (AIM) for 8 years and served as a missionary in Kenya and Zaire. Dr. Gration received his B.A. from Gordon College, his M.A. from Wheaton College and his Ph.D. from New York University.

Contextualization

1. Elements in Contextualization, 2. World of Change
3. Contextualization: Multi-faceted - Evangelism, Bible Translation, Theology, The Church, Theological Education
4. Gospel and Culture, 5. Contextualization Defined, 6. Two Imperatives, 7. contextualization in Life

**①-19 선교정보망 구축**

이영제 / 한국컴퓨터선교회 대표

**①-20 타문화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캇 모라우 / 휘튼대학 교수



Graduating with a BS(Physics) from Wheaton College, A. Scott Moreau went on to earn his M.Div. & D.Miss.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For fourteen years he served on staff with CCC, ten of those year's in Africa. He taught at The Nairobi 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 for 7 years, then returned to the US to accept a position at Wheaton College and has been teaching in the Graduate School since 1991

1. What is communication?
2. For us as Christians, what is the purpose of all communication?  
- A Biblical consideration of 1 Corinthians 9:19-23

3. Theological foundation, 4. The "human" factor, 5. The complexity of what we take for granted
6. Concerning the discipline of intercultural studies, at this time, 7. Issu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8. Application

**①-21 현대문화와 선교**

김릭 / 동양선교교회 대학부담당 교역자



## 2. 세계복음화 미완성과 과제

### ②-1 기독교 21세기운동의 역사와 전망

루이스 부시 /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디렉터



Born in Argentina and raised in Brazil. Luis Bush studied theology in Texas. He is International Director for the AD2000 & Beyond Movement which seeks to encourage reoperation in establishing a church within every unreached people group and making the gospel available to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 1. A biblical comparison to a River of Life

- A. Isaiah 44:3,- "presence" of God
- C. John 7:38- "power" of God
- D. Genesis 15:17- "plan" of God
- E. Summary: River presents a vivid picture of the people of God in motion: being fruitful, acknowledging the presence of God, experiencing the peace of God, receiving the provision of God, knowing the power of God to fulfill the plan of God.

#### 2. Historical tributaries flowing in ...

- A. Regional movements from the two-thirds
- B. Conferences such as ...
  1. Berlin 1966;
  2. Lausanne I in 1974;
  3. Edinburgh '80;
  4. GCOWE '89 in Singapore,
  5. Lausanne II in Manila, July '89

#### 3. 1990-1995 -.The First Five Years of the Decade

A... seeding the clouds with the vision of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 in the hope that the rain of God's blessing would come up on all flesh.

B ... building a new kind of partnering relationship, a grassroots networking structure; a "grassroots move-

ment, a network of networks, a fusion of visions: in which "we are all controlled from the bottom up rather than from the top down," with a "... focus on catalyzing, mobilizing, multiplying resources, through networks.

C. .. with a clear purpose to "encourage cooperation among existing churches, movements, and entities to work together toward the vision of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

D ... ten global functional and global initiatives:

1. "mobilization"
2. "empowerment"
3. "penetration"
4. "compassion"
5. "collaboration"
6. "intensification"
7. "fulfillment"

#### 4. GCOWE '95- a Mid-decadal Assessment

A. Momentum increased as a result of GCOWE '95 that brought together some 4000 Christian leaders from 186 countries of the world with, The two-thirds world demonstrated its full partnership, if not primary initiative, in the cause of world evangelization. In their role as host the Korean church has become mainstream.

B. Seven reasons were given why we should work toward the goal of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with faith that we could see it occur

by December 31, 2000.

1. Because of promise in the Word of God.
2. Because a great portion of the unfinished task has already been done.
3. Because of the rapid acceleration of divine activity.
4. Because of a global Great Awakening related to a prayer movement.
5. Because the explosive growth of the Two Thirds World church.
6. Because God has endowed the church with the spiritual manpower, material resources and technology to complete the task.
7. Because of genuine partnerships and open cooperation.

5. The Launch of Joshua Project 2000 and the Last Five Years of the Decade A. Summary:

Christian leaders from 77 countries met in a seven day conference held November 28- December 2, 1995 in Colorado Springs launch a five-year final thrust of the AD2000 & Beyond Movement with the backbone of 1. National AD2000 Initiatives and 2. Joshua Project 2000 - A priority global focus on the least evangelized peoples. Both thrusts will be empowered by the AD2000 resource networks and task forces B. The initial goal of Joshua Project 2000 is to establish as a minimum, a pioneer church planting movement resulting in 100 or more believing Christians in one or more reproducing churches within every ethno-linguistic people of over 10,000 individuals.

6. Conclusion... if the Body of Christ will rise to the challenge

## ②-2 미완성 선교과제 현황과 추수전략

최일식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총무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총무로 한국교회의 선교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최일식 목사는 일찍이 도미하여 30여년간 목회에 전념하다가 1986년 본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탄생의 산파역을 담당한 제1대 사무총장으로 KWMA'88, KWMC'92 선교대회를 영광스럽게 이루어 낸 선교운동의 선두주자이다.

## ②-3 한국교회 1700 미전도종족입양전략

한정국 / 한국 OMF 대표



서울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합동신학교, 싱가포르 ACTI 선교훈련원을 나왔고 무역회사 5년, 소그룹 부교역자 사역 4년을 거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OMF와 함께 대학생선교운동과 순다종족사역을 6년간 한 뒤 싱가포르 ACTI 선교훈련원 책임자로 2년간 사역하고 1992년부터 한국 OMF 대표와 한국미전도종족 실행위원장을 사역하고 있다.

## ②-4 북미주한인교회 300 미전도종족입양전략

김영진 / 오정현 / 김종현



**김영진** : 나성한인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으며 국제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김영진 목사는 한남대, 총신대, 리폼드신학교, 컨콜디아신학교를 거쳐 신약학으로 Th.M.과 Th.D.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신약성서와 마카리오스」, 「마태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과 이방인의 관계」가 있다.



**오정현** : Biola 대학교, Talbot 신학대학원에서 M.Div., 미시간 Calvin 신학대학원에서 Th.M. 학위를 수여하고 현재 Talbot 신학교 대학원과 포체스트롬 대학교에서 신학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오정현 목사는 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KOSTA) 총무를, 미주한인OM국제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김종현** : 북미주한인교회의 탁월한 차세대 선교지도자로 부상되는 김종현은 UCLA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부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 박사 밑에서 사사하며 1990년대부터는 한미세계선교센터를 창설하고 현재까지 대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교실 세미나」, 「퍼스펙티브 코스」 강사로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해 뛰고 있다. 미전도종족중보기도 책자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선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다.

## ②-5 GCOWE'95와 한국기독교21세기운동의 전망

정인수 / 한국기독교21세기운동 사무총장



한국기독교 21세기 운동 사무총장이며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핵심 사역자로 활약하고 있다.

## ②-6 미전도종족 복음화전략

래리 패잇 / Peoples Missions International 대표



Dr. Larry D. Pate is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Missions International and a recognized global missions leader. He holds two M.A. degrees in missiology and a Doctor of Missiology degree from the School of World Miss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r. Pate has ministered in over 60 countries in the world and is or has served as a consultant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missionary associations.

### Introduction

The Great Commission injunction to "make disciples of every people (ethnos)" is the supreme standard by which we must measure the success of the Church's mission. Whatever is required to be sure every "people" have an adequate chance to know Christ must be our priority. There are at least 7,000 unreached peoples in the world. They need an effective witness in their own languages and in the mainstream of their own societies. We need to reflect deeply on the principles for providing them that witness.

### 1. Principle One: Start with the people to be reached. (Not the place!)

- 1) We must learn to see the world like the Lord of the Harvest does. (OH)
- 2) Most churches and missions concentrate on doing missions backwards. They focus on those who go as missionaries and on those who send them.

3) The most effective way to evangelize the world is to develop a specific strategy for each people group.

4) There is much available now in the arenas of motivating and mobilizing missionaries, but there is very little available and very little understanding of the issues related to evangelizing people groups.

### 2. Principle Two: Make strategies which incorporat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target people group.

1) We now have available to us an adequate amount of what could be called "Infoware" on over 15,500 peoples. (ILS and AAP)

2) We need more "Knowledgeware" and "Wisdomware" on the unreached.

3) The same thing which is required to produce wisdomware is the same thing which is required to begin the development of a good strategy.

4) Selecting People groups well is part of good strategy development

3. Principle Three: Needs Driven Strategies are the most effective.

- 1) The principle of Vertical Integration and missions: Focusing on what is needed, not just what we like to do.
- 2) Strategies must be purposefully designed to incorporate the social and community needs of people groups, as well as the spiritual needs.

4. Principle Four: Good Strategies employ "context-sensitive" objective planning processes.

To illustrate, let us build a strategy for a people group right now.

## ②-7 미전도부족선교의 실제와 전도접근방법

김학청 /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신부족선교회(New Tribes Mission) 훈련원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 파송되어 미전도부족선교에 큰 열매를 거두었다.

### 1. Introduction and outline - The plan of tribal evangelism

- 1) The importance of tribal evangelism
- 2) Unfinished task
- 3) The statistical situation of the world language group

### 2. Mission tools of the mission field

- 1) Bible only
- 2) Physical, practical tools
- 3) Language (trade & tribal) and culture study
- 4) Culture file - main aspects to culture : It is an adaptive system. It is a total system. It is a unique system.

### 3. The difference between western society and tribal society interrelationship of culture universals

### 4. The method of church planting and chronological teaching

- 1) Firm foundation
- 2) Why chronologically?
- 3) Now discipleship & topic teaching the complete chronological teaching outline
- 4) Literacy & medical support & tribal village development

### 5. Strategies of mission approach

- 1) Mission station approach
- 2) Village approach
- 3) Team approach
- 4) Colombian approach



## 3. 타종교/타문화선교

### ③-1 전세계의 핍박받는 성도들

피터 토리 / 전 월드비전 전국개발 디렉터

Peter Torry graduated from Fort Wayne Bible College and attende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ere he earned his Masters degree of Divinity. He's traveled the world, pastored two churches, and served for 10 years as the National Development Director of World Vision International. Torry is currently an active member of a large church in Pamona where he has served as Moderator.

Today around the world, Christians face significant persecution. Peter Torry has visited many of these countries and will bring us reports of the situations of which he and staff have attention on the worldwide growth of Islam and the threat it presents to religious freedom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issues of religious persecution worldwide.

### ③-2 불교권선교

정승희 / 태국 선교사



1979년 이래 태국에 파송된 이후 교회개척(40개)과 육영사업 방콕목회대학원을 통한 교역자 재교육과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 ③-3 힌두권선교

마헨드라 싱할 / Hinduism International Ministries 대표



Dr. Mahendra Singhal is the president of Hinduism International Ministries.

1. Hinduism- Brief Introduction
2. What do Hindus believe?
3. Hindu Worldviews and Mind-set
4. Hindu fears
5. Things to avoid
6. Hindu religion vs. Hindu culture
7. Sharing Christ with Hindus (10 steps) - a. Quick-sale approach, b. mutuality of Interest, c. Sharing Concerns d Sharing lives, e. Verbal communication, f. Non-verbal communication, g. Bible passages, h. Bible studies i. Testimony tapes and videos, k. Answering questions/ objections

### ③-5 모슬렘이 보는 관점에서의 모슬렘 이해

잭 채핀 / 전 아랍월드미니스트리 파송담당



Jack Chapin and his wife Hazel (both went Columbia Bible College) appointed to serve on the sending staff of Arab World Ministries in 1985. Since that time, their missionary passion has been extended throughout the Midwest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from their home base in Indianapolis. Jack has spoken at most of the evangelical colleges and seminaries in the Midwest and has organized many conferences on the Arab World and Islam throughout the Midwest.

#### INTRODUCTION: THE VISION OF ISLAM

- 1) The Meaning and Quest of "Islam"
- 2) The Growth of Islam
- 3) The Phenomenon of Islam
- 4) The Ideal of Islam

#### 1. THE ORIGIN OF ISLAM:

- 1) Edenic
- 2) Prophetic
- 3) Muhammad, The last of the Prophets

#### 2. HISTORICAL OVERVIEW:

- 1) The heir of Abraham: Ishmael
- 2) The complexity of the Arab peoples
- 3) The 7th Century Church in Saudi Arabia
- 4) Life of Muhammad:
  - Birth and Childhood
  - Marriage
  - Nature
  - Revelations
  - Preaching and Persecution in Mecca
  - The "Hijra" or Flight to Medina
  - The first "jihad", conquest of Mecca
  - The Death of Muhammad
- 5) The Spread of Islam: How and How Far!

### ③-6 모슬렘권 선교의 역사적 성서적 이해

김만우 /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담임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하는 김만우 목사는 중동선교에 특별한 사명과 열정이 있으며 중동선교사 후원회 회장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다.

#### 아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사 21:11-17)

- 시작하는 말 • 성경의 권위 • 성경의 진실성 •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 하나님 • 이삭 • 이스라엘 • 아브라함의 자손 • 아랍의 뜻 • 아랍의 간단한 역사 • 아랍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 복음화 •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비교 - 복음화전략 • 아랍선교 • 아랍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명 • 한국교회가 아랍선교를 해야 할 이유 • 한국교회의 아랍선교의 가능성 • 한국교회의 아랍선교 각성과 준비 • 아랍선교전략 - 전도방법, 선교사 양성, 아랍교회개척 • 맺는 말

**③-7 팀사역을 통한 모슬렘 선교접근**

이현수 / 남가주사랑의교회 부교역자

남가주사랑의교회 부교역자로서 중동선교로 파송될 예정이며 특히 모슬렘권 선교에 깊은 관심과 사명이 있다. .

1. What is Islam? Its understanding and beliefs
2. Understanding how Muslim respond
3. Approaching Muslims with the love of Jesus
4. Breakthroughs in the Muslim World
5. New ways to the Muslim for the Korean-American Christians - a team approach

**③-8 로마카톨릭선교**

신상길 / 멕시코 선교사

멕시코 선교사로 다년간 신학교 교수사역과 부족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③-9 유대인선교 [1]**

웨슬리 테이버 / AMF International



Wes joined American Messianic Fellowship in 1975 and married Lori Currie in 1976. Together they participated in AMF. He earned his M.Div. degree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Wes now represents AMF International in conferences and seminars, as well as to give Messiah in the Passover presentations.

**I. Introduction**

- A. Illustration: Sarah, reaching Hasidic Jews in NYC's diamond trade |
- B. Jewish people "familiar strangers"

- 1) Familiar from Bible stories
- 2) Few Christian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Jewish people

**II. Attitudinal barriers to witnessing to Jewish people**

- A. Some simply overlook them
- B. Some believe God is finished with them ("used to be God's people")
- C. Some think Jewish people don't need to believe in Jesus (dual covenant) |
- D. Some have tried to witness, without success

**III. Theological framework for Jewish evangelism**

- A. Israel: a unique people
- B. Israel: a spiritually needy people

**1) Scriptural support**

- a. John 14:6
- b. 1 John 5:12
- c. Rom 10:1-4
- d. Rom 11:25-28

**2) Contemporary evidence****IV. Practical considerations**

- A. What Judaism teaches
- B. Missing: substitutionary atonement (see L' Chaim tract)
- C. Answering Jewish objections (intellectual/emotional; theological/historical)
  - 1) God has no son
  - 2) Jesus didn't bring peace
  - 3) Where was God when six million died?
  - 4) Christians hate Jews
  - 5) I was born a Jew, I'll die a Jew

**V. Question and answer time**

## ③-10 유태인선교 [2]

다니엘 골드버그 / Chosen People Ministries 국제대표



Dr. Daniel Goldberg is a full-time missionary to the Jewish people, serving as International Ministries Representative for Chosen People Ministries. Born and raised in an Orthodox Jewish home in LA., he became a believer in the Messiah at the age of seventeen. Dr. Goldberg had a broad range of experience as a pastor, professor and administrator and holds degrees in Bible, Sociology and Theology from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Priority

- 1) Judgement "to the Jew first" (Rom 2:9)
- 2) Blessing "to the Jew first" (Rom 2:10)
- 3) Gospel "to the Jew first" (Rom 1:15, Acts 1:8)

## 2. Privation

- 1) "To the Jew first" -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church and the Jew in the middle ages.
- 2) "To the Jew first" - An evaluation of the church and the Jew in the present age.

## 3. Promise

- 1) A guarantee of Gospel success to the Jews. (Hosea 3:1-5, Psa 89:28-37)
- 2) A guarantee of Gentile blessing thru the Jews (Gen 12:3, Rev 7, Rom 11:12, 25-34)

Conclusion: A time of questions and answers based on the material handouts and the lecture

## ③-11 국제유학생선교

오정현 / 김승연



**오정현** : Biola 대학교, Talbot 신학대학원에서 M.Div., 미시간 Calvin 신학대학원에서 Th.M. 학위를 수여하고 현재 Talbot 신학교 대학원과 포체스트롬 대학교에서 신학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오정현 목사는 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KOSTA) 총무를, 미주한인OM국제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김승연** : 1983년 이래 동유럽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김승연 목사는 유럽유학생선교회(KOSTE)를 이끌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26년간 학생선교운동에 쓰임받고 있다.

### ③-12 한흑관계선교과제

배현찬 /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 담임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 담임인 배현찬 목사는 연세대학을 나오고 Debuque Seminary에서 신학, Boston University에서 사회윤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민교회의 지역선교(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한흑관계 전략에 대한 이론 및 모형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성서발견」 등의 저서가 있다.

### ③-13 북미주원주민선교

짐 해밀튼 / 북미원주민사역

They live in North America today - don't they have the Gospel? For more than 200 years missionaries have taken the Gospel to them - even one of the well-known missionaries- David Brainerd reached the Indians didn't he? This can easily be the attitude we carry toward a Native American ministry today.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ere is a tremendous job yet to be done and there are many obstacles in the way.

1. Why is it so hard to reach Native America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 1) Animistic belief roots
- 2) Cultural differences
- 3) "White Man" history and issues of today
- 4) Christianity as they have seen it is powerless
- 5) Tremendous social disintegration-tremendous need.

2. BUT, it's not impossible-There are some very encouraging things happening among Native Christians.

- 1) Missions are learning to overcome many of the obstacles that have often been ignored and making good adjustments.
- 2) CHIEF and Native Evangelical Fellow ship of Canada-Native Christian Leaders
- 3) Culturally relevant materials and resources are being developed
- 4) "Rising Above" -They are beginning to deal with some of their major problems

3. Korean Christians can easily overcome many of the significant obstacles to reaching Native Americans for Christ.

- 1) First seen in Andrew and a Native Elder
- 2) Cultural similarities-Ran
- 3) Historical life issues similar-Jin
- 4) Same physical mark at birth
- 5) Not a "Whiteman" and all that goes with that

4. Ministry opportunities



### ③-14 북미주 소수민족 선교

테드 클라인 / C&MA 국제사역 디렉터

After 16 years of missionary service in Viet Nam and in Singapore, Mr. Cline assumed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n the United States. This ministry is responsible for evangelism and church planting among immigrants of many language and culture groups.

#### 1. The Biblical reality of Mission America

- 1) The thrust of the Great America
- 2) The Holy Spirit established cross cultural witness as the norm
- 3) Cross cultural witness was the basis of Paul's ministry
- 4) God controls history

#### 2. The demographic reality of Mission America

- 1) What drives world immigration?
  - a. Population growth
  - b. World economics .
  - c. Technology
  - d. US immigration law
- 2) US population growth
  - a. History
  - b. Present
  - c. Future

#### 3. The challenge of Mission America

- 1) The challenge of first generation immigrants
- 2) The challenge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immigrants
- 3) The challenge of the integrated and intermarried
- 4) Ministry in the context of religious pluralism and relativism

#### 4. The strategy of Mission America

- 1) Objectives
- 2) Philosophy
- 3) Homogeneity and unity in diversity

#### 5. Conclusion - Partnership and servanthood in mission

### ③-15 신세대운동에 대한 우리의 자세

김원기 / 헬로우쉽교회 담임



해외협력선교회(PWM) 미주 이사장이며 밀알선교회 이사인 김원기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원,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저서로 「2000년대를 향한 성경적 지도자상」이 있고 현재 헬로우쉽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1. 시작하는 말

그동안 교계와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새 시대 운동(New Age Movement)은 드디어 미국 주류 사회계층 많은 부분에 침투

하였고, 별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전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는 남편의 대외행사 일정을 잡는데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언론의 보도와, 현 클린턴 대통령의 부

인인 힐러리 여사가 새 시대 운동(New Age Movement)의 대가들을 여러 명 초청하여 그들이 흔히 쓰는 방법들을 통하여 전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과 대화를 했다는 등의 기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 2. New Age Movement란 무엇인가?

- 1) 세속적 인문주의(Secular Humanism)의 발전 결과
- 2) 동양철학(Eastern Mysticism)의 영향
- 3)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 결핍에서 나온 현상.

3.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 1) 다신교와 이교도의 파급.
- 2) 언론기관에 침투
- 3) 연예계와 매스 미디어에 침투
- 4) 건강요법이나 정신건강을 구실로 침투
- 5)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외치며 침투
- 6) 교육분야에도 침투
- 7)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1)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
- 2)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 3) 열매를 보아야 한다

③-16 이단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장석진 / 뉴욕성결교회 담임



뉴욕성결교회를 담임하는 장석진 목사는 미주한인성결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스테이트아일랜드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목회에 관한 다수의 저서가 있다.

1. 기독교 이단의 정의

- 1) Cults
- 2) Sects

2. 기독교 이단의 기원

- 1) 종교적 이유
- 2) 사회적 이유
- 3) 심리적 이유

3. 기독교 이단의 형태(Typologies)

- 1) 이상적(Ideological) 이단
- 2) 사회학적(Sociological) 이단
- 3) 대중적(Popular) 이단

4. 기독교 이단의 주요 특징

- 1) 기독교 전통에 대한 대안 제시
- 2) 강력한 권위와 지도력
- 3) 깊은 복종적 경험유발과 개인적 욕구 충족
- 4) 외부와의 철저한 분리
- 5) 자신들을 기독교의 대표로 오해하는 경향

5. 기독교 이단의 물질적, 정신적, 심리학적 기능

-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 3) 교회에 미치는 영향

6. 기독교 이단과의 대화

- 1) 교회 성장학적 입장에서
- 2) 전도학적 입장에서

③-17 선교현장에서 혼합종교에 도전받는 복음주의선교사역

김영화 / 아르헨티나 선교사



1983년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된 김영화 목사는 현지인 엘 부엔 빠스톨 교회를 설립 담임하고 있으며 (재적 약 2,000명) 에프엠미션2000 선교방송국을 설립 매일 17시간 800만명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현지 언어로 방송하고 있으며 베리나 산타페 브리가도 멜로 지역에 원주민교회를 건축했고 아이비비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③-18 공산권선교**

이이삭 / 모퉁이돌선교회 설립, 대표

모퉁이돌선교회(Cornerstone Mission)를 설립, 대표로 특히 공산권선교와 북한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역하고 있다.

**③-19 집시선교**

손영삼 / 그리스 선교사



1987년 그리스 선교사로 파송된 손영삼 목사는 성결교신학교, 단국대학교를 나왔으며 특히 미전도집시종족 교회개혁과 구제, 의료, 교육 선교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는 「사업선교」, 「헬라에서의 바울」, 「내사랑 집시」, 「그리스 성지순례」 등이 있다.

## 4. 아시아 선교

### 4-1 북한선교 [1]

김영철 / 해외민족복음화운동 본부장



해외민족복음화운동 본부장이며 LA 가디나한인교회를 담임하는 김영철 목사는 일찍이 해방 직후부터 일본선교를 위해 헌해단을 건너가 30여년 동안 조총련 전도에 전력투구했으며 해외한민족복음화대회를 각 대륙에서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북한 평양에서 세계복음화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종이다.

북한은 우리로 하여금 때의 압박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된 마지막 때의 조류를 타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북방과 북한의 변화기류가 태의 압박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열 명의 정탐군을 보내며 기드온 특공대를 선발하듯 오늘 우리도 전도특공대를 출성시킬 때가 온 것이므로 여기에 그 선교전략으로서의 구체성을 제시해 주는 바입니다.

**1. 북한선교는 먼저 포기할 수 없는 필연적 사명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내 동포 내 겨레임이 확실하기에 한국선교가 더더욱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선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코 북녘의 내 동족과 내 겨레를 방관해서는 아니 할 것입니다.

무신론적 공산주의로 쫓겨 얼어붙었던 동구의 국가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로 탈바꿈을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의 여러고성인 38선도 한순간에 헐어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폐쇄사회를 이룩한 북녘땅에 복음화의 물결이 폭포처럼 치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의 백성으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겔 37:15-23, 사 14:1-3) 우리에게 민족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는 결코 먼 장래의 일이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출산의 때가 왔듯이)인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로 이질화된 이념사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화시키며 주체사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순화시키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0세기 말, 혹은 21세기 초까지는 세계복음화를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믿어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신속히 복음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고 김일성 주석은 자기가 독재하기 위하여 갈아놓은 사상의 밭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라는 단어만 있지 "아니요"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를 "아멘"으로만 바꾸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국이나 러시아에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2. 선교의 전망에 이어 선교전략도 반드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사명과 감정, 그리고 무작정으로 하는 선교적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특히 북한선교는 영적전쟁이므로 반드시 전략과 전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걸프전쟁에서 보았듯이 정확한 정보, 우세한 군사력의 확보, 첨단무기의 개발, 공격시기의 선택, 육해공군의 긴밀한 협력, 정치적 지원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력되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나 전략이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많은 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에 있어서 준비가 없이 선교에 무조건적으로 사명만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인력낭비, 자금낭비 심지어는 선교의 문을 닫게 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1) 북한을 바라보는 부정적 반응, 신중론, 적극적 반응 등 멀게만 바라보던 북한을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포용하고 바로 이해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함에 있어서 20여회가 넘는 적극적인 회담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북한교회현황 (조선기독교연맹이 주관)

6.25전쟁 이전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으나 1957년 이후 시작된 적극적인 교회의 탄압으로 공식적인 교회가 사라졌다. 그후 1970년대에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선보이는 제스처를 보였고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엔 십자가를 세운 교회를 세웠고 (봉수교회, 장충교회, 칠골교회 / 대외 홍보용), 성경, 찬송가 초판을 발행했다. 신학교라는 이름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김일성 대학에 학과를 설립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기독교도 연맹 발표로는 가

정교회가 500곳이 있고 목사 전도사가 200명이며 신자가 1만명이라고 한다. 최근 북한의 정보에 의하면 지하교회의 노출설도 나오고 있다.

3) 구체적인 전략으로서의 선교적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교적 전략에 있어서 협력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대변하며 변증할 수 있는 통일신학의 정립이며 선교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일된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선교를 위한 방법으로 북한선교의 달(6월)과 북한선교 주일(6월 25일)을 책정해서 공포하는 일과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 등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면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과 실행전략적인 방법에 큰 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4-2 북한선교 [2]

허기원 / 전략지역 선교사

4-3 북한교회재건운동

김중석 / 서울 사랑교회 담임



북한교회재건운동 총무이며 서울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4-4 일본 선교



홍기표  
일본 선교사



조남수  
일본 선교사



유기남  
일본 선교사

4-5 중국 선교 [1]

사무엘 링 / 횡튼대학 교수



횡튼대학 교수

4-6 중국 선교 [2] 조나단 차오 / 중국교회연구소 소장



중국교회연구소 소장으로 중국선교 전문가

4-7 중국 선교 [3]



황의춘  
트랜스한인장로교회



이부르스  
중국 선교사

4-8 중국 선교 [4]



이관숙  
중국 선교사



이벤허  
중국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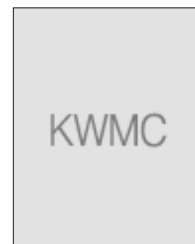


오대선  
중국 선교사

4-9 네팔 선교



백종륜  
네팔 선교사



림근화  
네팔 선교사



안교성  
네팔 선교사

④-10 베트남/캄보디아 선교



김영관  
베트남 선교사



오형석  
캄보디아 선교사

④-11 홍콩/대만 선교



이병일  
홍콩 선교사



김달훈  
대만 선교사



이동희  
대만 선교사



이진희  
대만 선교사

④-12 필리핀 선교 [1]



박기호  
필리핀 선교사



남후수  
필리핀 선교사



진기화  
필리핀 선교사



고광식  
필리핀 선교사

④-13 필리핀 선교 [2]

김영일, 김태현, 지광남, 이성일 / 필리핀 선교사

④-14 필리핀 선교 [3]



함용욱  
필리핀 선교사



송평구  
필리핀 선교사



김선숙  
필리핀 선교사



이교성  
필리핀 선교사

④-15 태국 선교 [1]



윤수길  
태국 선교사



양병화  
태국 선교사



김문수  
태국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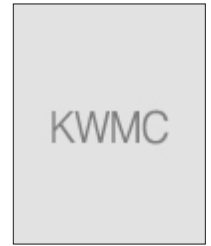
④-16 태국 선교 [2]



김성곤  
태국 선교사



강대흥  
태국 선교사



김종일  
태국 선교사

④-17 인도/스리랑카 선교



정윤진  
인도 선교사



노수길  
인도 선교사



최도식  
스리랑카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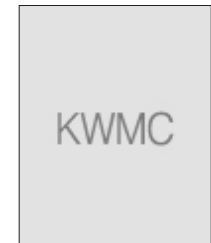
④-18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선교



장순호  
방글라데시 선교사



남상희  
방글라데시 선교사



김병교  
파키스탄 선교사

④-19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선교



손중철  
싱가폴 선교사



노종해  
말레이시아 선교사



김기홍  
말레이시아 선교사

④-20 인도네시아 선교 [1]



안성원  
인도네시아 선교사



최수일  
인도네시아 선교사



정영명  
인도네시아 선교사

④-21 인도네시아 선교 [2]



김익배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형익  
인도네시아 선교사



조시철  
인도네시아 선교사

# 5. 아프리카 선교

## ⑤-1 감비아/모로코 선교



유병국  
감비아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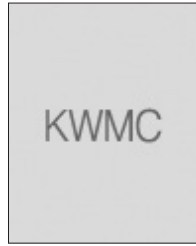


한병희  
감비아 선교사



허영희  
모로코 선교사

## ⑤-2 시에라레온/아이보리코스트 선교



신대원  
시에라레온 선교사



박광석  
시에라레온 선교사



황익진  
아이보리코스트 선교사

## ⑤-3 가봉/르완다/자이레 선교



김필레  
가봉 선교사



김창국  
르완다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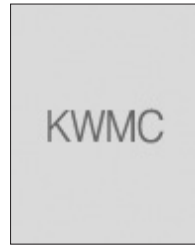


김경식  
자이레 선교사

## ⑤-4 에티오피아 선교



이은용  
에티오피아 선교사



조창현  
에티오피아 선교사



박종국  
에티오피아 선교사

## ⑤-5 보츠와나/남아공 선교



김주현  
보츠와나 선교사



김신홍  
남아공 선교사



이원준  
남아공 선교사

## ⑤-6 수단/우간다 선교



탁수연  
수단 선교사



배상호  
우간다 선교사



김동국  
우간다 선교사



5-7 케냐 선교 [1]



강인중  
케냐 선교사



송충석  
케냐 선교사



임태순  
케냐 선교사

5-8 케냐 선교 [2]



정광호  
케냐 선교사



박삼일  
케냐 선교사



배주형  
케냐 선교사

5-9 소말리아/탄자니아 선교



조OO  
소말리아 선교사



김정림  
탄자니아 선교사



황광인  
탄자니아 선교사



손광주  
탄자니아 선교사

# 6. 중동 선교

## ⑥-1 이집트 선교



이준교  
이집트 선교사



김신숙  
이집트 선교사

## ⑥-2 이스라엘/요르단 선교



김주경  
이스라엘 선교사



정형남  
요르단 선교사

## ⑥-3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바레인 선교



조완길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주태근  
UAE 선교사



허명호  
바레인 선교사

## ⑥-4 터키 선교



조용성  
터키 선교사



김원호  
터키 선교사



김세도  
터키 선교사

## 7. 유럽 선교

### 7-1 프랑스/독일 선교



이극범  
프랑스 선교사



백남일  
프랑스 선교사



윤희원  
독일 선교사



이향모  
독일 선교사

### 7-2 그리스/이태리/폴란드 선교



손영삼  
그리스 선교사



강광선  
이태리 선교사



김현중  
폴란드 선교사

### 7-3 루마니아 선교



박현규  
터키 선교사



정홍기  
터키 선교사

### 7-4 불가리아/헝가리 선교



김호동  
불가리아 선교사



이한기  
헝가리 선교사

## 8. 구소련 선교

### 8-1 모스크바/세인트피터스버그 선교



박정수  
구소련 선교사



박시경  
구소련 선교사



유창현  
구소련 선교사



김진은  
구소련 선교사

### 8-2 카작스탄/우즈베키스탄 선교



김상길  
카작스탄 선교사



신윤섭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이상웅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남일우  
구소련 선교사



김완일  
구소련 선교사

### 8-3 사할린/하바로스크 선교

### 8-4 우크라이나/코카사스 선교



윤상수  
우크라이나 선교사



최영빈  
코카서스 선교사

# 9. 중남미 선교

## 9-1 멕시코 선교



이성균  
멕시코 선교사



신상길  
멕시코 선교사

## 9-2 코스타리카/도미니카 선교



민영진  
코스타리카 선교사



박성도  
코스타리카 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 선교사

## 9-3 베네주엘라/콜롬비아/수리남 선교



김재환  
베네주엘라 선교사



최정락  
콜롬비아 선교사



안석렬  
수리남 선교사

## 9-4 에쿠아도르/칠레 선교



최태중  
에쿠아도르 선교사



이길소  
칠레 선교사



허원구  
칠레 선교사

### 9-5 페루/볼리비아 선교



황윤일  
페루 선교사



김복향  
페루 선교사



김영진  
볼리비아 선교사



윤도근  
볼리비아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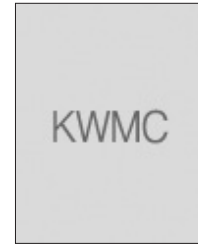
### 9-6 파라과이/우루과이 선교



강두호  
파라과이 선교사



임한곤  
파라과이 선교사



차재홍  
우루과이 선교사

### 9-7 브라질 선교



김철성  
브라질 선교사



이준희  
브라질 선교사



이성전  
브라질 선교사

### 9-8 아르헨티나 선교



김영화  
아르헨티나 선교사



정현식  
아르헨티나 선교사



윤춘식  
아르헨티나 선교사



## 10. 남태평양 선교

### 10-1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선교



이상택  
호주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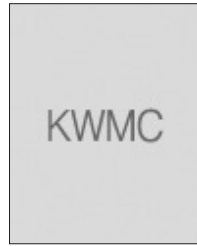
박미자  
호주 선교사



오경수  
호주 선교사



조환  
괌 선교사



김학청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이재경  
피지 선교사

### 10-2 괌/파푸아뉴기니/피지 선교

## 11. 지역교회와 선교

### 11-1 지역교회와 선교활성화

로이 스미스 / 지역교회 선교자문가



Roy C. Smith worked with churches in Singapore (94-95), and now is working with 40 countries as a consultant in mission in the local church. He graduated from Pasadena Nazareth College in 1951.

1. Intercessory Prayer
2. Witnessing in the local community
3. Giving generously to missions
4. Sending your own people cross culturally

5. Helping another church in outreach

#### Planning

1. Evaluate where you have been and where you are now
2. identify your potential
3. Implement a plan to reach your potential
4. Continue the plan by regular review

#### The Sending Process

1. Identify and track them
2. Train them in your own church
3. Encourage them regularly
4. Guide them with help in setting realistic goals

#### Oversight of Missions in the local Church

1. Responsibility
2. Requirements
3. Resources
4. Results

### 11-2 담임목사의 선교적 목회전략

이석환 / 토론토영락교회 담임



토론토영락교회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이석환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M.Div., Th.M.을 받고 미국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에서 D.Min. 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주한인장로회 캐나다 노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 1. 이민교회의 현주소

- 1) 1세들의 교회
- 2) 2세들의 교회

#### 2. 선교사명의 중요성

- 1) 1세들의 교회
- 2) 2세들의 교회

#### 3. 선교전략과 그 평가

- 1) 한국교회
- 2) 이민교회

#### 4. 바람직한 이민교회의 선교전략

- 1) 담임목사의 역할
- 2) 선교위원회의 활성화 (1, 2세)
- 3) 개교회 선교 프로그램
- 4) 선교적 교회로의 구조갱신
- 5) 미전도종족선교
5. 우리 교회의 선교비전

### 11-3 지도자의 영적관리

조천일 / 라성빌라델비아교회 담임



라성빌라델피아장로교회를 개척하여 미주이민교회의 대표적 교회의 하나로 성장시킨 조천일 목사는 제1차 한인세계선교 대회의대회장으로 선교운동에 앞장서 온 이민교회의 지도자이다.

### 11-4 목회자의 영적갈등 해소방안

이상택 / 시드니한인연합교회 담임



감신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드니 대학에서 종교역사로 Ph.D.를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상택 목사는 호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현재 시드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이며 저서로 「시드니의 방랑자」가 있다.

#### 1. 목회자의 영적갈등이 교회의 위기를 만든다

영적 갈등(struggling)이란 말은 목회자가 지닌 소명(calling)에 대한 회의(doubt), 설교자로서의 압박감(pressure for preacher), 목회자의 영적인 침체(depression),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나누는 인격적 교제가 벌어지는 위기(crisis)를 포함하고 있다.

#### 2. 목회자의 영적갈등의 세가지 영역

- 1) 실존적 위기의식(Existential Crisis)에서 오는 영적갈등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목회자는 위기의식, 고독, 두려움, 절망, 패배의식 등을 가질 수 있다. 목회하는 동안 과다한 결쟁, 교회성장의 압력, 벽찬 교회 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등에서 오는 탈진현상(Burnout)들은 실존적 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 2) 경건훈련의 결핍(Dearth of Godly Disciplines)에서 오는 영적갈등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여 오셨다. 목회자는 공인

된 사람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도덕적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이성에 대한 유혹, 재물에 관한 유혹, 인격적 품위관리의 허약점 등은 목회자의 권위의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 3) 영적개방시대(Free Spiritual Trade)에 가지는 영적갈등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시장개방시대라는 것이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질 좋은 영적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을 사들이는 고객인 성도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개방시대에 목회자는 이기적 위기와 함께 새로운 타입의 영적갈등을 경험을 하게 된다.

#### 3. 영적갈등의 해결방안

- 1) 영적과도를 일으키거나 혹은 과도를 타라  
성서에는 영적과도의 줄기가 있다.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영적과도가 진행되어 왔다. 영적인 과도를 이르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교회의 질(Quality)을 만들며 수준 높은 목회자의 영성을 만들어 가는 근원이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이라는 말은 17세기 스코트랜드의 King's College의 신학교수였던 헨리 스코걸(Henry Scou-

gal)이 쓴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목회자에게 흐를 때에 목회자는 가장 질 좋은 영적상품을 만들어 낸다. 이를 가리켜 요한복음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 했다.(요 15장). 목회자는 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파도를 타던가 혹은 영적파도를 일으키던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 없이는 영적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다.

### 2)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있으라

"부흥(Revival)"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라이언 에드워드(Brian Edwards)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어질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속에 흥건히 젖어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켜 교회의 부흥이라고 그는 정의하였다.

### 3)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

첫째로, 지적성장의 계획이다. 지적성장을 위해 나는 그 해에 내가 특별히 읽어야 할 책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 분야의 전문서적들을 읽어나간다.

둘째, 영적성장을 위한 계획을 갖는다. 나는 영적성장을 위해 금년에 읽을 성경 분량의 목표를 결정하고 규칙적으로 가져야 할 기도시간의 양과 때를 결정한다.

셋째, 내 자신의 품위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내 성격에 있어 강점과 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 약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넷째, 나는 건강관리의 계획을 세운다. 나는 이 건강관리 부분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어느 한 취미를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4) 성경에서 모범(example)을 찾아내 모방하도록 노력하라

예수님의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시다. 우리는 예수의 사상과 가르침을 모방하고 존경하며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우리의 남편으로 사랑하고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비쳐지기 때문에 스승같이 존경하고 구주같이 섬기고 싶어하고 남편같이 사랑하고 싶어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서 속에서 좋은 모범을 모방하여 자기의 생활습관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결론 - 영적갈등을 극복함으로 나타난 건강한 징조

영적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자신에게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영적건강의 징조가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둘째, 교회가 은혜로워진다.

셋째, 설교가 영감이 풍부해진다.

넷째,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게 된다.

## 11-5 지역교회의 선교정책과 선교위원회 운영

박종순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장로교신학대학을 나와 총신교회를 창립하고 크게 성장시킨 박종순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장으로서 목회와 선교분야에 다수의 저서가 있다.

## 11-6 미국교계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협력

테드 바넷 / A.I.M 미국 디렉터

As U.S. Director of Africa Inland Mission International Inc., Dr. Ted Barnett represents the third generation of his family to serve with A.I.M. His parents served with A.I.M. in Kenya, Tanzania and the Comoro Island. His grandparents were lifelong A.I.M. missionaries in Kenya. He graduated from Wheaton with M.A. in Christian Ministries and received his doctoral degree i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Education from Pepperdine University.

Introduction: The Biblical Basis for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hurch and Missions

1. Expectations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Church and Mission Agencies.
2. Structures for Partnership and Cooperation
3. Scop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4. Results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5. Conclusions

## 11-7 한국교계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협력

이영희 / 장성교회 담임



「자기를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마지막 꿈」 등의 저서를 낸 이영희 목사는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장성교회 담임목사로 P.W.M. 한국 이사장, 총회(예정합동) 해외선교위원회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교회와 선교기관,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사명의 수행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교회와 선교전문기관의 관계를 배타적 내지는 심지어 대립의 관계로 놓고 보려고 하는 입장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선교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데에서 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교회와 선교전문단체와의 관계는 협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Paradigm)에서 그 온전한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뿐만 아니라 선교전문단체 역시 선교 수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선교역사 속에서 사용하여 오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를 간략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주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상호 보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종들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1. 선교사명의 주체는 교회이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교회를 통하여 수행되므로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사명의 주체인 것도 교회가 사도들의 선교의 사명을 계승하기 때문이다.

선교의 대 위임 명령은 일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선교의 사명은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 의미를 풀어 주시며 땅끝으로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나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사도들만이 받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다. 마태복음 20:1 9-20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대위임 명령은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 까지”의 임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선교의 대위임 명령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 사명은 사도들이 세우게 될 사도적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다. 즉 그들의 사명을 계승한 교회에 주어진 것으로서 영구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다음의 성경구절들은 이러한 교회의 사도적 주체성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1)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믿는 신자 개개인은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관계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는 사역이다. 구원을 베푸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뿐인 것이다. 그 누구도 구원을 대신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사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순서가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또한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다.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 이 사명은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 이 사명의 계승이 선교(Mission)인 것이다. 엡 2:20은 이러한 사역의 계승되는 순위를 말하여 주고 있다.

(2) 빌립보서 2:25, 고린도후서 8:23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하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너희 사자" 또는 "교회의 사자"라는 구절이 나오는 "사자"라는 단어는 원어상 "사도(apostolos)"라는 말로서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사도로 묘사되고 있다.(히 3:1)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시요 사도들은 예수 그

리스도의 사도들이며 에바브로디도나 "우리 형제들"은 교회의 사도들이나, 특별히 위의 빌 2:25와 고후 8:23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은 "교회의 사자들"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당시에 교회가 파송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하여 준다.

(3) 마태복음 28:19-20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선교의 대위임 명령은 사도들에게 직접 주어졌지만 그 내용은 이 사명이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의 대사령관에 의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교회는 그 증거대로 끊임없이 교회의 사자들을 온 세상을 향하여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볼 때에도 주 예수의 교회(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례를 주는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므로 선교를 포함하지 않은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2. 선교전문기관은 성경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된다. 교회의 존재 이유 및 목적 역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의 실제적인 사역을 고려할 때에 교회는 선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타문화권 선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단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교회가 실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교는 아주 특수한 전문사역이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의 대 사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회는 선교의 전문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사명의 계승자인 고로 선교수행을 위한 교회의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이러한 기관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도 하는 것을 본다. 여기에 대하여 찬반론이 있는 것을 보면서 1) 필자는 목회자로서 또 선교기관의 실무자로서 양면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목회자로서 또 전문선교기관의 실무자로서 양면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임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선교사역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교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들 수 있다.

### (1) 위임의 원리와 일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셨고(마 10:1, 막 3:13-15)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행 6:6) 구약에서도 모세는 그 재판권을 맡길만한 여러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였던 것을 본다. 교회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효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교전문기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위임이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거나 전문기관이 교회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의 위임을 받은 선교전문기관은 교회의 선교를 완수하기 위하여 특별한 역할을 갖는 특수기관인 것이다.

### (2) 선별의 원리와 일치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상을 축복하시었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참 신분을 잊고 어두움 가운데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제도권으로부터 세례 요한을 일으키셨다. 그 후 하나님은 계속하여 교회를 일으키셨고 교회가 또 역사 속에서 그 본연의 사명을 잊고 말씀과 어긋난 가르침을 줄 때에도 교회 안의 개개인의 성도를 일으키셨다. 루터, 칼빈, 낙스, 웨슬리 등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에 둔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등을 일으키셔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도록 하셨다. 윌리엄 캐리 이후의 서구 선교는 수많은 선교단체들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보다는 선교단체들이 일어나 이방의 선교를 담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근세 선교역사의 초창기에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말씀에 사로잡혔던 소수의 신앙인들에 의하여

선교의 열기가 불붙었던 것을 우리는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선교기관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선별적인 역사에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다. 구약 시대에서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이 본연의 신분과 사명을 잊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또 부여하신 축복과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본분을 잊을 때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소수라도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후자가 선교전문기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교역사 속에서 종종 보는 것이다.

### (3) 효율성의 원리와 일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꾼들을 택하였던 것을 본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안디옥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선교의 특수 사명을 위하여 "따로" 세워서 보내었다. 따로 세움을 받았던 이들은 그 구별된 목적대로 사명의 특수성을 잘 지켜 나갔고 그 결과 이방에 효과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교회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세계선교가 단순하지 않음을 계속 체험하고 있다. 단일민족문화권(monoculturalistic area)에 살고 있는 교회가 다른 문화권에 대하여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역교회는 자신이 처하여 있는 교회가 다른 문화권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기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이질문화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교차문화권적인 시각(a cross-cultural perspective)을 가진 전문적인 사역자와 기관을 양성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이 중차대한 사역을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전문기관은 교회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다른 모체가 아니라 선교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문자 그대로 선교전문기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선교역사를 들여다보면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사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타종교 및 문화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피고 분석하여야 할 필

요들을 많이 느껴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은 특별히 20세기 후반에는 세계의 부족들과 언어 및 종교, 문화 등을 철저히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탄생하였다. 이들은 복음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문화권 선교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다. 특별히 한국 및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이러한 선교의 전문성이 눈을 차츰 뜨고 있으며 선교효과의 중대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교회가 다 할 수 없는 선교의 특수한 부분들을 선교단체들이 맡아서 전문성을 갖고 현지사역에 충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4) 협동의 원리와 일치

한 교회나 몇몇 교회의 힘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명약관화한 일이다. 협동 또는 협력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교회들과 그 구성원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선교의 협력을 통하여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한 교회 혹은 교단이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은 신앙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동역하게 될 때에 사역의 효과가 증진되어지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선교단체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교회간의 협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선교인력과 모든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 3. 협력방안

앞에서 필자는 간단하게나마 선교단체의 존재 의미와 그와 관계된 성경적인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항목에서는 다시 간략히 교회와 교회의 위임을 받은 선교단체와의 협력의 방안들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상호존중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형제애에 근거한 협력은 선교의 필수적인 요소

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분은 제자들을 들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성령께서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를 내보내실 때에도 사울이나 바나바를 각각 따로 내보내시지 않고 함께 가도록 하셨다. 이러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상호존중하는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마 28:29, 빌 2:5) 시편 133:1에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의 한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윗의 많은 아들딸들은 함께 연합하여 살지 못하고 서로 형제끼리 욕을 보이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서로 왕이 되고자 친 혈육을 배역하기도 하였는데 다윗은 자기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의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오늘날도 가만히 선교현장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몇몇 어떤 선교사들의 경우를 보면 이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선교지에 온 것인가를 의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의심을 할 정도로 선교사들이 심각하게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경우를 필자는 종종 보아왔다. 이분들은 다른 단체의 접근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단체들을 공공연히 낮추거나 무책임한 비판을 서슴없이 하는 때가 많다.

선교부 운영도 세속의 기업의 운영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선교의 제반에 걸쳐서 소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교회 내의 자성의 소리가 높아진지 꽤 오래된 것이다. 4) 이제 선교의 근본원리를 좇아 상호를 존중하는 협력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문화의 차이와 각 단체들의 상이점들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안다. 그런데 교회(교단)가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할 때에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들을 인식하고 문화간의 "황금률(Cultural Golden Rule)", 즉 자신의 문화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아주 훌륭한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탄생일 것이다.

## (2) 상호신뢰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약 4,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선교사들 중 선교사역에 있어서 연합하여 사역하는 분들은 극히 적은 것 같다. 대개 파송 교회나 교단, 혹은 선교단체별로 독단적인 선교부를 조직하여 신학교나 의료기관 또는 봉사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이 기관들은 타 기관들과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선교의 목적을 가진 기관들끼리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들이 개교회 선교를 선호할 경우 이러한 현상은 급증하는 것 같다.

같은 선교지역에서 선교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역들을 하나로 모아서 선교사들이 힘을 합치기보다는 파송한 각 교회의 명분 때문에 선교사들이 각개전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에 현지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현지인들 눈에도 쉽게 띄는 것이다. 5) 성숙한 선교는 상호존중 내지는 신뢰를 통한 상호협력하는 선교이다.

선교의 독불장군 내지 영웅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을 중심하여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주고 독려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교회간의 경쟁,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역의 중복 등이 시정되기 위하여 교회는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전문기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서로 믿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선교현지에서 그동안 많이 볼 수 있었던 인력 및 재력 낭비를 줄 수 있으며 선교부들이 주도권을 놓고 갖게 되는 인간적인 갈등과 이해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일관성 유지

보수교회 지도자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요 선교단체는 교회의 시녀 및 종으로 생각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이요 선교단체는 교회의 시녀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만이 참 선교기관이고 선교단체는 곧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된다. 교회나 선교단

체는 다 같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과 선교를 위한 기구이다. 고로 교회이든 선교단체이든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에는 하나의 신학이다.

교회는 양육과 제자 삼는 전문성이 있다.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별로 정보, 문화, 전문성이 있다. 고로 양자의 특색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4) 충실한 봉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일은 충실한 봉사이다.

## 각주

1) 이에 대한 견해는 Fuller의 Van Engen 교수의 이론과 William Carey 대학의 Winter 교수의 견해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Van Engen 교수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Winter 교수는 선교전문기관이 주축이 되어 선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이것은 알라에게의 복종을 외치는 이슬람권에서는 더욱이 필요한 부분인 듯하다. 그들은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umma)"를 자랑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협력하고 섬기는 모습은 하나의 중요한 선교전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3) 교단 내의 신학교가 잘 운영되는 것은 여러 교회가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기 때문이다. 선교단체 역시 이러한 신학교와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교단체는 교회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따로 세워진 협력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교통정리"라는 개념에 덧붙여 생각하여 볼 것은 선교신학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신학이 성경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 및 전문기관

들이 선교의 외적 기능들은 많이 추구하고 또 갖고 있지만 선교의 근본적인 선교신학, 즉 동기와 목적과 선교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성경본문(text)과 선교현장(context)을 잘 연결하고 조화롭게 통합(integration)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선교의 동기로 동시에 목적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교의 핵심이 될 때에 영혼구원은 가장 순수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순수한 구령의 열정"이야말로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고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교를 수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광과 또 마음 깊은 곳에 혹시라도 숨어있을지 모르는 순수하지 못한 선교의 동기 때문에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자기의 영광은 자기의(自己義) 내지는 자기 우월주의를 낳게 되고 이것이 부조화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선교신학의 진정한 일치를 우리는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선교사들은 받아들이는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이미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비판의 내용을 보면 한국 선교사들끼리의 반목과 불일치이다.

## 11-8 지역교회의 선교재정운영

서준택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장로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이며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평신도대표 공동대회장인 서준택 장로는 연세대학 상대, 디트로이트 웨인주립대학 그리고 조지와싱턴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매릴랜드에 있는 맥클린한인장로교회의 사무장로로 특별히 선교재정운영에 깊은 조예가 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평신도에게 안겨진 중대한 사명중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주님께서 평신도에게 분부하신 중대한 주님의 지상명령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요, 자기 민족은 이 땅을 소유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는 그들에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평신도들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라고 명령하였으며 (the Mandate of world Evangelization)(마 28-18-20),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힘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행 1:8)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은 갈렙과 같이 담대한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날까지, 다함께 이 선교사역에 참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1-9 소교회의 선교전략

이순각 / 위싱턴시온장로교회 담임



멕시코신학대학 목회신학 D.Min., 듀부신학대학 성서신학 S.T.M., 장로회신학대학 M.Div., 한남대학 성문학과 B.A., 현 위싱턴시온장로교회 시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요(마 28:18-20, 행 1:8) 오늘 우리 세대의 한민족에게 축복으로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를 섬기시는 교인들은 선교의 대열에서 처지거나 비켜서서 교회가 작다는 핑계나 원망 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크게 성장하면 그때 가서 선교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선교사도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담임해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시행하고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 Workshop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되면 교인들의 경건과 영성이 성숙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 1. 소교회의 정의와 특징

이 단원에서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소규모 교회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겠으나 소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과 문제점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재정 문제라든가 인적자원 문제, 특별히 한 두 사람에게 의해서 영향 받기 쉬운 소교회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선교할 수 없는 것인 것?

### 2.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려면

소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가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교회가 선교하려면 목회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목회자가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확신과 뜨거운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을 내려고 해도 교인들이 따라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선교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인으로 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체질을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할 수 있을까? 소규모 교회의 선교 성공 실패는 여기서 가름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 3. 선교사역의 시작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교를 시작해야하며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점진적인 선교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선교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 그리고 소교회가 가장 관심이 많은 재정(선교금) 문제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면에서 다루겠습니다.

### 4. 결론

선교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이요 투자입니다.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선교는 재미있습니다. 모금도 재미있습니다. 온 교회가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2세 교육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소교회도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키우시면서 선교사역도 키우십니다.

## 11-10 예배와 선교

김한식 / 한사랑분당교회 담임



서울대를 졸업하고 MBI에서 실천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김한식 목사는 현재 미스바구국성회 준비위원장이며 기독교 회개와 사랑의 실천운동 본부장, Good News 신문사 대표, 한사랑세계선교 신학학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티쿤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 한사랑분당교회 담임이며 대우조선, 럭키금성 등 150여 기업체에서 성경적인 직업관 강의를 하고 있다.

수레가 갈 때 두 바퀴가 돌면서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선교라는 두 바퀴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선교를 일으키고 진정한 선교는 진정한 예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보다는 먼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11-11 설교와 선교

나광삼 / 와싱톤북부장로교회 담임



와싱톤북부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나광삼 목사는 총회신학을 나왔으며 모범적인 목회자와 부흥사로 크게 쓰임받는 중이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단에서 증거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성경본문이 같거나 설교내용의 줄거리가 비슷하게 설교가 전제되면 증거하는 목회자는 망설여지고 또 듣는 사람의 생각에도 "저 설교는 지난번에 했던건데 재탕하는구나." "저 설교는 부흥회에 강사님이 했던 것을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하는구나," "또 저 설교를 하는구나. 목사님이 설교준비를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찌나 하는 생각으로 목사는 약해지고 듣는 사람은 설교판단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에 "재탕이다" 혹은 "또 그 설교다"라는 표현이나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언제나 생명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하여 먹는 음식도 항상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몸이 약하거나 병들면 같은 약을 병 낫고 강건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먹습니다.

하물며 귀한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치료하고 캄캄한 인생길가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강단은 재탕교가 풍성해야 하고 거리낌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탕설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건해지고 열매맺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증거하시는 분들은 힘을 내셔서 재탕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은 재탕설교가 하늘의 보약, 하늘의 양식으로 믿고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아 먹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 11-12 지역교회의 선교교육

신동우 / 산돌중앙교회 담임



산돌중앙교회 담임목사이며 대한신학교 선교학 주임교수, 루마니아신학교 이사장, 극동방송국 선교 21세기 진행을 맡고 있는 신동우 목사는 대한신학교, 크리스찬대학교를 거쳐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마쳤다. 82년부터 현재 까지 세계 50여개국에 정탐선교, 신학교 강의, 목회자 세미나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선교학」, 「아시아 선교전략」 등이 있다.

## 1. 교회의 선교적 본질

- 1)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역할
- 2)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역할

## 2. 교회의 선교적 과제

- 1) 목회자의 선교의식의 변화
- 2) 교회 예산 순서의 변화
- 3)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
- 4)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 5) 선교의 전략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 3. 교회선교의 형태

- 1) 파송 선교사
- 2) 협력 선교사
- 3) 평신도 선교사
- 4) 단기 선교사의 새로운 전략

## 4. 선교의 모델 안디옥교회

## 5. 교회의 선교적 전략

- 1) 선교사 선발
- 2) 선교의 동기와 사명의식
- 3) 선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
- 4) 선교현장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
- 5) 선교비의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 6) 현지교회와 단체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유익한가
- 7) 선교사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 8) 선교사의 자녀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 9) 선교사 가족이나 신변에 일어나는 긴급사고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10) 선교사의 계속공부와 연구계획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11) 선교사의 안식년과 은퇴 후의 연금제도

## 6. 교회의 실질적 후원이란

- 1) 기도 후원
- 2) 물질 후원
- 3) 초청 및 위로 후원
- 4) 현지답사 및 위로 후원
- 5) 가족 및 자녀에 대한 후원
- 6) 안식년에 대한 후원

## 11-13 교회그룹의 전략적인 선교여행

김택용 /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담임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I. 서론

Church mobilization program의 개척자인 Doug Millham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short term mission trip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Short term mission에 참여했던 교인들의 수는 1979년에는 약 25,000명이었지만 1989년에는 약 120,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단기선교기관(agency)도 50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 II. 단기선교의 정의와 목적

단기선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짧은 여행(short-term trip)에 임하는 신자들의 Group이라고 할 수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 타문화를 체험한다.
- 타문화권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한다
- 타문화권에 있는 일반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위해 봉사한다
- 현지교회와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다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은 인격성장과 영적성장을 도모하게 되며 그 결과 "세계크리스찬(World Christian)" 이 된다.

### III. 주제의 중요성과 한계

언급한 바와 같이 목회자의 선교시찰여행과 교인들로 구성된 단기선교팀들의 파송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선교여행을 통하여 목회자와 단기선교팀 멤버들을 과연 어떠한 유익을 얻는가? 단기선교팀들을

보내는 교회의 유익은 무엇인가? 단기선교팀들을 맞이하는 선교사들의 유익은 무엇인가? 단기선교팀들이 맞는 선교지 Community의 유익은 무엇인가? 본 주제에서 말하는 단기선교의 기간은 한달 이내로 국한하며 선교 이외의 다른 동기로 여행하는 것이 아닌 선교의 목적으로 선교현장을 방문하여 실제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그 한계로 한다.

### IV. 단기선교의 유익들

#### 1. 팀멤버들의 유익

1) 보는 것(seeing): 눅 14:14는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눅 7:12-14도 참조바람). 예수님은 주위를 보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팀멤버들이 미지의 세계에 여행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되며 선교지의 커뮤니티의 필요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됨으로 무지(blindness)에서 해방된다. 이같이 타문화(Cross-cultural setting)를 체험한 이들은 예수님이 보았던 안목으로 타문화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며 선교여행 후에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유익함을 갖게 된다.

2)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 : 예수님은 과부(눅 7:12-14)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또한 이해하셨으며 무리를 보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다. 즉 주님은 보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가셨다. 단기팀 멤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 걸음 발전하여 선교지인들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유익을 얻게 된다.

3) 느끼는 것(feeling) : 예수님의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심은 물론 그녀의 고통에 감정적으로도(emotionally) 동참하여 함께 아픔을 느끼셨다. 단기선교 기간 중 팀멤버들은 다른 문화에 속한 형제자매들이 겪는 슬픔과 기쁨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4) 응하는 것(responding) : 예수님은 보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주님은 애통하는 과부의 독자를 살렸으며 무리들을 고치시고 먹이셨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필요에 처한 이들에 대한 응답의 연속이었다. Jones and Engel은 단기선교에 참여했던 이들을 일반교인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했다. (1) 선교를 위해 시간과 재정을 더 제공했다. (2) 교회 장로, 집사, 주일학교 교사 등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 사역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3) 지역교회의 커뮤니티 outreach에 보다 적극적이다. (4) 현재, 또는 미래에 long term 선교지가 되는 것을 고려한다. (5) 그들의 삶에서 전도를 최우선 삼는다.

5) 생활방식의 변화(changing lifestyle) : 일반적으로 선교지는 저개발국가이므로 그곳에서의 삶을 체험하고 돌아오면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되며 물건을 절약하는 등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 2. 보내는 교회의 유익

1) 선교비전 구체화 : 보내는 교회는 선교시찰을 떠나는 목사님과 단기선교팀 멤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며 준비하게 됨으로 선교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한다.

2) 효과적인 선교전략 수립 :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지의 사역을 실제로 체험할 때 교회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3)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기회제공 :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특히 장기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4) 파송 또는 후원 선교사들과 일체감 : 가끔 서신으로만 communicate하던 선교사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들의 사역을 실제로 보고 함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교회와 선교사들과의 거리를 제거하며 함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갖게 됨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에 큰 유익이 된다.

## 3. 선교사의 유익

1) 선교사역을 보여준다 : 선교사들은 단기선교 멤버들에게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역을 실제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짧게나마 함께 동참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선교비전을 보여준다 :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아닌 곳에 있는 선교후원자들에게 그들의 비전을 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사역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흔히 미디어 presentation과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ministry의 real essence를 communicate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선교지를 찾아 온 단기선교팀 멤버들에게는 이같이 애씀이 필요없다. 선교사는 이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살면서 걸으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비전을 효과적으로 communicate 할 수 있다.

3) 선교재충전을 받게 된다 : 타국 문화에서의 생활은 종종 좌절감을 느끼고 외롭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단기선교팀들이 방문하고 사역을 후원할 때 선교사들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 받게 된다.

4)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통계적으로 교회는 단기선교팀의 선교보고를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닌 단기선교팀과 접촉했던 선교사들과 장기적인 관계(long-term partnership)를 갖게 된다. 이 같은 관계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후원, 사역자 후원, 재정적 후원 등을 의미한다.

## 4. 선교지의 유익

1) 선교지 교회의 교인들은 단기선교팀 멤버들과 나눈 교제에 감사하게 된다.

2) 선교지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절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선교지인들이 단기선교팀 여성들이 자유롭게 많은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볼 때 문화적인 눈을 뜨며 도전을 받게 된다.

3) 단기선교팀 멤버들이 베푸는 사랑과 애정에 감사하게 된다.

4) 단기선교팀들이 맞는 선교지는 그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적 수입을 올리게 된다.

## V.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한 준비사항들

## 1. 떠나기 전 준비

- 1) 자질을 갖춘 Team Leader를 잘 선택하고 리더의 Job description을 숙지케 할 것.
- 2) 단기선교 목적지를 잘 결정할 것
- 3) 선교팀 개인당 드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것
- 4) 선교팀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것
  - 지교회 선교비 예산에서 지출
  - Love offering
  - Sending Letters (supportive letter)
  - 각종 donations
  - 기타 fundraising idea를 개발할 것
- 5) 선교팀 준비코스(Team Presentation Course)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
- 6) 선교지 언어를 공부할 것
- 7)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둘 것 :
  - 멤버가 갑자기 아플 경우
  -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멤버가 있을 경우
  - 선교지 사람들을 오해할 경우
  - 단기선교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 교통문제
  -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 2. 선교지에서

- 1) Field에 가서는 Field Financial Recordkeeping을 할 것
- 2) Personal과 Team Devotion의 한 부분이 되려고 노력할 것
- 3) 선교지 community의 한 부분이 되려고 노력할 것
- 4) 휴식을 취하고 종종 선교여행을 분석, 평가할 것

## 3. 돌아와서

- 1) 다음과 같은 제목들로 각자 선교여행을 정리할 것
  - What I saw
  - What I learned
  - What I felt
  - How I will respond
- 2) 단기선교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communicate 할 것

## VI. 단기선교의 고려사항

1. 항공료와 현지 체류경비들이 적지 않다. (경비 조달방법은?)
2. 적어도 2주 이상의 기간이므로 시간적 고려가 필요하다. (교회사역의 공백을 메꾸는 길은?)
3. 현지 선교사들에게 안내 또는 대접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부담을 덜 주는 태도로)
4. 단기선교의 실제적인 효과를 쉽게 측정할 수 없다. (섬기는 자세로)
5. 선교지와 거리 등의 장애로 follow-up 하기가 쉽지 않다.

## VII. 결론

지교회에서의 선교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하면 1년에 한번 목회자의 선교현지 여행을 지원하는 것이 유익하며 단기선교도 교회의 형편에 따라 1년에 한 곳이나 두 곳으로 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목회자가 먼저 선발대 격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단기선교의 파송가능성, 적정성, 그리고 세부계획까지 수립하여 진행하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14 새벽기도운동과 교회성장

김삼환 / 서울명성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를 졸업하고 서울명성교회를 설립, 장로교단의 골지의 대교회로 성장시켰으며 특별히 새벽기도운동을 크게 일으켰다. 한국외향선교회 회장을 역임했다.

## 11-15 지역교회의 전도훈련 (영어권교회)

존 고 / 영어권 사역자

영어권 사역자

Develop the basic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needed or effectiveness, then, through a cycle of action and reflection continue developing throughout your career.

In your preparation, avoid a narrow perspective. Seek to become a wellrounded missionary. Make the connections between and among the disciplines. Learn from and apply all of them (biblical studies, church growth strategy, anthropological/ethnographic insights, personal factors, spiritual factors).

Learn to be a self-directed learner.

Make reflective practice a lifelong activity.

- 1) Be aware of your experiences; observe whether or not others have these experiences; identify the ways in which your experiences lead to desired outcomes or not.
- 2) Practice performing your skills and learning new skills; emphasize doing, emphasize serving others.
- 3) Reflect on practice. Consider the results of your activity. Make decisions about how to modify or alter your practice in order to increase your effectiveness. Decide whether and what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needed. Then engage again in your activity.

What fundamental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do you need to develop in order to be effective as a missionary?

In order to get the most benefit from your training/ preparation, you must be clear about the desired outcomes. What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would you add to this list? Attitudes& Values: love for God, love or people deep desire to ad for God glory and the peoples good positive, faithfilled perspective, able to rebound from hard times, not become paralyzed by discouragement confidence in the power of God through the gospel to change lives u deparochialization:w recognizing ones own narrowness; becoming open to appreciation of diversity; u different is not~ its just different willingness to set aside personal preferences desire to build up others; let them shine willingness to practice self-evaluation; willingness to be assessed by others

skills & Abilities :

- evangelism
- ability to facilitate personal growth in others
- preaching& teaching skill- including preaching to large groups ad facilitatin small groups
- ability to nurture leaders or the church
- practical skills -writing, <Dill,puter, building, or maintenance

Knowledge&: Understanding:

- know the Saipures
- know people
- understand the nature and mission do the church
- Know the heart language of the people, their other tongue
- know the histmy, geography, &: culture of your adopted land
- know world religions
- know answers to objections

Resources for preparation

The local church

- theologically - mission flows from the church and results in the church practically- there is no better place to nurture and develop your Good-given missionary gifts than serving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 Fonnal Bible &: missionological training
- Field experience, interships &: apprenticeships
- Veteran missionaries. Don't miss the valuable re-

source of experienced missionaries. Whenever you can, ask them the following questions:

- 1) What do you have to know, Be, and Do in order to be effective in your life and ministry as a missionary?
- 2) What experiences prov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in preparing you to be a missionary?
- 3) What recommendations do you have or me, a volunteer & missionary service?

Reference list

Chew, fun, 1990, When you cross cultures: Vital issues facing Christian missions, singapore: Navigators  
 Harley, David, 1995, Preparing to serve, Pasadena, Cal : William Carey Library  
 Lingenfelter, Sherwood, G. and Marvin K Mayers. 1986, Minister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ed, Lyman E., 1985, Preparing missionaries, Pasadena, Cal : William Carey Library  
 Ward, Ted, 1984, Uving overseas: A book preparations, New York, N.Y.: The Free Press (MacMillan, Inc.)

11-16 지역교회의 전도훈련 [1]

김수웅 / 서울 은누리교회 시무장로



서울 은누리교회 시무장로이며 평신도 전도훈련을 위한 수많은 국내외 집회를 인도하는 복음전도자이다.



**11-17 지역교회의 전도훈련 [2]**

박재영 / 뉴저지 제일한인교회 담임



뉴저지 제일한인교회에서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박재영 목사는 연세대 신학, Gordon-Conwell에서 각각 Th.B.와 M.Div. 학위를 받았다. 교단신학교와 재미고려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인세계선교협회의 뉴저지 지역 부회장과 해외협력선교회에서 창립 후 지금까지 자문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11-18 전도를 통한 교회개척**

신흥식 / 태국 선교사



1971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선교사로 최장기 사역을 하며 태국기독교총회, 방콕신학원 부원장 겸 신학대학원장인 신흥식 목사는 총신대를 거쳐 달라스신학교에서 선교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저서로는 「현대선교전략(역서)」, 「The Thought and Life of Hina yana Buddhism」,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as Luis Trated in Thai」, 「Theravada Buddhist Context」 등이 있으며 선교사역으로는 신학교육으로 현지인 교역자 양성 및 신학서적 출판, 도시교회(방콕), 개척지도 및 지원, 태국한인교회를 통한 교포선교 등이 있다.

**11-19 북미주한인교회 차세대지도자 양성방안**

이승종 / 캔사스선교교회 담임



캔사스선교교회를 개척, 담임하고 있는 이승종 목사는 다인종목회를 통해 현재 교회에서 4명의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다. Liberty University, Central Baptist Seminary, San Francisco Seminary에서 현재 이민목회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저서로 「한국교회와 청년신학」 등이 있다.

**11-20 선교와 교회성장**

정남식 /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담임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담임

## 11-21 다시 생각해보는 제자훈련과 성령사역의 균형

오정현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Biola 대학교, Talbot 신학대학원에서 M.Div. 미시간 Calvin 신학대학원에서 Th.M. 학위를 수여하고 현재 Talbot 신학교 대학원과 포체스트롬 대학교에서 신학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오정현 목사는 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KOSTA) 총무를, 미주한인 OM 국제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선교에 효과적으로 동참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란 한층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도성 계승(요 20:21)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초시간적인 원리들과 진리 등의 부활로 다시 부흥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사역과 성령사역을 균형있게 잘 매치시킬 수 있을까?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지치지 않는 기도생활, 샘솟는 영감, 찬양의 능력, 담대한 복음증거, 참다운 영성회복 등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사역의 생각의 틀, 삶의 해석 방법, 시대를 보는 안면(Mind-set)이 20세기말의 교회역사에서 이 세대에 적합한 좀 더 새로운 방법과 전략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 1. 패러다임이란?(사역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치나 규칙의 틀)

- 1) 패러다임 바꾸기
- 2) 신약과 교회사에 나타난 패러다임 변화의 사례들
- 3) 사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2. 다시 생각해 보는 교회론

- 1) 병든 신앙은 병든 교회론 때문이다.
- 2)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 3) 엡 4:1-12, 엡 1:20-22를 통한 올바른 교회론 회복
- 4) 균형잡힌 교회관을 위한 초시간적 원리 3가지

### 3. 성령사역에 대한 견해

- 1) 인격충만(Prelou)과 사역충만(Pirplemi)의 차이점
- 2) 내주하시는 성령과 사역케하는 성령
- 3) 성령님을 체험하는 현장 (하나님은 부요하신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 자신의 약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

### 4. 창조적 사역만이 해결책이다.

- 1) 1990년 이후의 흐름은?
- 2) 창조적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들
- 3) 팀사역을 통해 돌파구를 열라
- 4) 21세기를 향하여 열린 창조적 사역
- 5) 당신의 사역을 이룩시켜라

### 결론

초대교회는 뛰어난 설교가, 대단한 조직이 그 사회를 변혁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한 무명의 성도들 때문이었다.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만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말씀사역도 성령의 부으심이 없다면 빈 껍데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처음과 마지막 뚜껑은 성령님이 열고 닫으신다.

## 11-22 목회행정과 선교행정

이기홍 / LA 사우스베이선교교회 담임

## 11-23 목회자와 선교사의 시간관리

이정근 / 북가주영락교회 담임



북가주 영락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미주장로회신학교 산호세 캠퍼스의 학장인 이정근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을 거쳐 Faith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캘비니즘」, 「요한의 기독교론」, 「목사고시 문제집」을 집필했다.

## 1. 서론

## 2. 시간에 대한 사역자의 관념

## 1) 시간과 삶

- 2) 시간절약과 주의집중
  -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시간경험
  - 시간의 정통성
  - 시간관리와 문화적 영향
- 3) 효과적인 시간관리의 단계
- 4) 시간관리의 실질적 문제들
  - 분주함의 원인
  - 사역을 미루는 습관
  - 효과적인 시간관리와 방해요소
  - 균형있는 시간관리

## 3. 시간관리의 전문가가 되는 법

- 1) 시간은 돈이다
- 2) 시간에 대한 비전
- 3) 시간에 대한 талант 개발
- 4) 정보매체와 시간관리

## 5) 매너리즘의 극복

## 4. 성취지향과 시간관리

- 1) 목표설정
- 2) 일의 우선순위
- 3) 자신을 운영
- 4) 프로젝트와 시간의 설계

## 5. 목회자와 선교사

## 6. 창조적 시간관리

## 7. 영원속에 사는 현재

## 8. 결론

## 11-24 영성목회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 11-25 교회의 선교적 의미

박성배

만일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로 큰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 **교회는 한몸이다** (엡 1:22-23, 엡 5:22-23, 엡 4:1 5-16, 골 1:18, 골 2:19, 고전 12:27)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몸으로서의 교회, 예증으로부터 얻는 원리들은 무엇인가?

- 1)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하나만 있다
- 2) 몸의 지체들은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갖는다
- 3)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몸의 성장에 중요하다.
- 4) 비록 지체들은 많을지라도 몸은 오직 하나이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2. **교회는 신부이다** (엡 5:24-32)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교회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 2)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감찰하신다.

3)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령에 대하여 최선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3. **교회는 건물이다.** (마 16:18, 고전 3: 11, 엡 2:20-22, 벤전 2:5)

- 1)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고전 6:19)
- 2) 각 신자는 그 건물을 이루는 하나의 돌이다.
- 3)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건물의 초석이다.

4. **교회는 양무리이다.** (요 10:14-16)

- 1)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 2)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 3)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신다.

5. **교회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요 15:1-8)

- 1)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
- 2) 교회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 3) 교회는 보화가 담겨진 그릇이다.

## 11-26 21세기 치유공동체를 위한 교정목회전략

김상모 / 뉴욕만백성교회 담임



뉴욕만백성교회 담임인 김상모 목사는 연세대신학교에서 B.Th.와 M.Th.를, Colgate Rochester Divinity School에서 Th.M.을, 그리고 Drew University Theological School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저서로 「성령의 역사와 교회성장」, 「기독교의 평화사상」, 「목사와 마네킹」 등 다수가 있다.

Corrective Ministry란 무엇인가?

1. 왜 교정목회가 필요한가.

GNP 만불이 넘으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이 선진 정제 대국들의 교회실정이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외적으로는 물질 문명의 향락과 황금만능주의 생활 스타일로 신앙양성이 마비되고 헌신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다.

내적으로는 인간상실의 인격성의 결핍으로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내외적 오염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와 직분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일찌기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비유하셨다.

교정목회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교정목회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과감히 교정해 줌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다시 회복케 하고 능동적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랑과 관용의 미명 아래 교정을 꺼려한다. 정면충돌과 관계성 파괴를 우려하여 교정목회를 회피하고 있다.

교정목회는 사랑(love)과 신뢰(trust)의 관계성(mutuality)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엡 4:13)으로 인도하는 목회다. 파괴된 나와 속사람, 나와 주님, 나와 교회 그리고 나와 세상에 대한 관계성의 회복이다.

3. 연례행사가 되어가고 있는 각종 부흥집회에 대해서 교인들은 이미 둔감해졌고 면역이 생겼다. 각종 성경공부로부터 머리만 커졌다. 봉사와 헌신과 열정이 없는 비생산적 신앙 경화증에 걸렸다. 이러한 신드로(syndrome) 일종의 신앙적 교만이요 죄다.

교정목회는 이러한 직분자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목회(Preventive Ministry)이며 치유목회(Healing Ministry)이다. 교정목회는 21세기 교회에도 강조되어야

할 성령과 새창조(The Holy Spirit and New Creation)의 과제로서 그것은 일대일의 깊은 영성개발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과의 구체적 관계성의 회복이다. 이것은 영적인 자기 교정이며 성화(Sanctification)이다. 내적으로는 영혼구원이며 외적으로는 선교의식(Mission Awakening)을 고양하는 목회다. 영적인 자기교정 없이 진정한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정목회는 새로운 도전이요 과감한 시도다. 자칫 잘못하면 교인과 목사간의 관계성 파멸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도전적인 미래학이다.

교역자도 교정받아야 한다. 우선 다음 소주제로 연구해 보자.

- (1) 교정목회의 신학적 의의와 성서적 다섯 단계
- (2) 성령의 Nouthesia로서의 목사의 역할
- (3) 21세기 교회의 교정목회 방안과 전략
- (4) 결론

### 11-27 선교적 재직훈련

방지각 /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

### 11-28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좌표

김성만 / 휴스턴한인장로교회 담임



휴스턴한인장로교회 당회장인 김성만 목사는 총신대 신학, 원광대 영문학을 전공하고 Texas Christian University에서 목회신학으로 Th.M.을 받았고 Fuller Seminary에서 현재 D.Min. 과정을 밟고 있다. 성경연구원 원장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아시아인들의 이민 역사를 보면 일본에서 온 이민들은 출신현을 중심으로 현민회가 중요한 조직체가 되어 움직이고 재미 중국인은 종친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하와이 이민 초기부터 교회가 조직되어 이민들의 활동무대가 되고 큰 안위를 받게 되었다. 제3차 한인세계대회는 한인교회가 받은 시대적인 사명임을 세계에 선포하며 2000년대를 위한 중차대한 사명대회가 될 것이다.

**1. 역사적으로 본 이민**

- 1) 성서적 이민
  - 2) 이민의 타입
  - 3) 이민의 적응 양태
- 사회적 측면에서 본 이민
  - 교회 비전에서 본 이민

**2. 이민교회의 문제**

- 1) 이민교회의 발전
- 2) 이민교회의 비전
- 3) 목회사역과 선교사역

결론 - 선교사역에 대한 교량역할

**11-29 1.5세의 교량역할사역**

림연택 /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교수

OM선교사로 사역하였다. 림연택 박사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Korean Center의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at Fuller Theology Seminary)

**11-30 제자훈련과 선교**

이폴 / 작은불꽃선교회 대표

Paul lee earned his M Div, and Th. M,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now is the VJCe President of the little Spark Mission.

**1. Introduction**

Personal history & Testimony - My consuming Vision'  
(1Ch.12:22; Mt9".36-38; Mt,28:18-20; Jn,12:24-26; Prov .29:18; Mk.16:15; Ac.1:8; Jn,20-21; Rev,14:6)

**2. Why do we need a disciple making vision for the world?**

- (1) We need this vision because of the nature of disciple-making ministry.
- (2) We need this vision of God in order to fulfill God's purpose.
- (3) We need this consuming world vision so that we can enjoy our walk with God.
- (4) We need this disciple-making vision for a disciplined life  
(Jn,4:35; Isa.6:8; 2Ti.4:7,8; Ps.37:4,5; Am,3:3; Ps.86:11; Lk22:42; Prov .29:18; ZH,2:3,4)

**3. Application**

- (1) Start with one.
- (2) Equip yourself
- (3) Pray and know God deeply
- (4) Pay the cost  
(2Ti.2:2; 2Ch.16:9; Prov.13:20; Php.3:7,8; Lk.9"23)

**4. Conclusion**

We desperately need a dynamic disciple-making vision for the world. Without this consuming vision, the Christian life becomes stale and lifeless, and we will not be able to go on with our disciple-making ministry.

Every believer need this vision, and once such a vision is experienced, nothing else will ever satisfy the heart.

What's in your heart today? Christ's concern is the whole world, and it must be ours. (Mt9" .37; Ehp.3:20; Jer.33:3)



## 12. 선교기관/신학교

### 12-1 선교기관의 역할과 기능

이병길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선교부 총무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선교부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이병길 목사는 고신대학교/대학원을 나왔고 1985년부터 1994년까지 대만에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받아 교회개척을 사역했었다. 저서로 「중국선교의 어제와 오늘」 등이 있다.

### 12-2 서구선교기관의 역사적 고찰

강범내 / 산호세세계침례교회 담임



산호세 세계침례교회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강범내 목사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학위를 받았고 북가주침례교회 교역자 협의회 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 12-3 선교기관에 대한 이해

래리 패이트 / Peoples Missions International 회장



Dr. Larry D. Pate is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Missions International and a recognized global missions leader. He holds two M.A. degrees in missiology and a Doctor of Missiology degree from the School of World Miss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r. Pate has ministered in over 60 countries in the world and is or has served as a consultant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missionary associations.

#### INTRODUCTION

The Great Commission injunction to "make disciples of every people(ethnos)" is the supreme standard by which we must measure the success of the Church's mission. Whatever is required to be sure every "people" have an adequate chance to know Christ must be our priority. There are at least 7,000 unreached peoples in the world. They need an effective witness in their own languages and in the mainstream of their own societies. We need to reflect deeply on the principles for providing them that witness.

1. Principle One: Start with the people to be reached. (Not the place!)

(1) We must learn to see the world like the Lord of the

Harvest does. (OH)

(2) Most churches and missions concentrate on doing missions backwards. They focus on those who go as missionaries and on those who send them.

(3) The most effective way to evangelize the world is to develop a specific strategy for each people group.

(4) There is much available now in the arenas of motivating and mobilizing missionaries, but there is very little available and very little understanding of the issues related to evangelizing people groups.

2. Principle Two: Make strategies which incorporat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target people group.

(1) We now have available to us an adequate amount of what could be called "Infoware" on over 15,500 peoples. (ILS and AAP)

- (2) We need more "Knowledgeware" and "Wisdomware" on the unreached.
- (3) The same thing which is required to produce wisdom ware is the same thing which is required to begin the development of a good strategy.
- (4) Selecting People groups well is part of good strategy development.

3. Principle Three: Needs Driven Strategies are the most effective.

- (1) The principle of Vertical Integration and missions: Focusing on what is needed, not just what we like to do.
- (2) Strategies must be purposefully designed to incorporate the social and community needs of people groups, as well as the spiritual needs.

4. Principle Four: Good Strategies employ "context-sensitive" objective planning processes.

To illustrate, let us build a strategy for a people group right now.

## 12-4 한국선교훈련기관 실태

강승삼 /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합동) 선교국장



한인 최초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사역하였던 강승삼 목사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Ph.D.를 마치고 현재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합동) 선교국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12-5 교단선교기관 운영의 현실과 모델들

임순삼 / 예장총회(통합) 선교부 총무

예장총회(통합) 선교부 총무

### I. 선교사 파송

#### 1. 선교사 파송지 연구 및 개발

선교지 선정 -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 1) 아시아
- 2) 중남미
- 3) 북미
- 4) 아프리카
- 5) 유라시아
- 6) 서유럽과 동유럽
- 7) 중동

- 8) 도시들
- 9) 5백만명의 해외동포들이 밀집하여 있는 곳 (참조: 바울의 전략)
- 10) 전세계에 걸쳐 있는 이주민 집단

#### 2. 자질있는 선교사 선발 및 훈련기준

#### 3. 선교사 파송 요청 (현지에서의 파송청원)

- 1) 파송청원
- 2) 파송요청서류
- 3) 약정을 위반할 시는 선교사파송을 취소한다.

4. 선교사 파송 승인 절차

- 1) 본 선교부가 지도하여 출국 수속을 하며 훈련에 임한다.
- 2) 본 선교부는 선교목사의 소속노회에 선교지 파송청원을 한다.
- 3) 총회는 모든 철화가 끝나면 후원자와 협의하여 파송식을 하며 선교사 파송장을 준다. (파송식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4) 파송된 선교목사의 소속은 해당 노회이나 선교사로 복무기간은 총회세계선교부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5. 선교사의 파송예배

- 1) 선교사의 파송예배
- 2) 예배장소는 일반적으로 주후원교회에서 드린다.

6. 선교사 파송시 후원관계

- 선교비
  - 1) 선교비는 생활비와 사업비로 구분한다.
  - 2) 생활비는 숙식, 주택, 자녀교육, 차량운영비 후생비이며 미화 1,800(1세계는 2,100)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과 형편에 따라 가감조절 할 수 있다.
  - 3) 선교비의 상여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본봉에 한하고 연 1개월을 퇴직금으로 별도 적립한다.
  - 4) 파송 후 연 1호봉씩 가산한다. 호봉액은 미화 50불로 한다.
  - 5) 연금은 선교사와 후원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 6) 사업비는 생활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파송시특별지원비

- 1) 이전비, 항공료 : 본 선교부가 승인한 파송, 퇴임, 선교지 변경 등 이사비용을 말하며 후원자가 지불한다.
- 2)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총회세계선교부가 책임진다. (보험료를 공제한 후 부터)
- 3) 컴퓨터 등 출발시 필요한 선교장비는 선교사와 후원회가 결정한다.
- 4) 그러나 사역시 제반적인 선교장비비는 본 선교부의 승인을 요하며 후원자와 협의 하에 후원자가 지불한다.

7. 파송된 선교사의 종류

- 1) 정규선교사
- 2) 전문선교사

- 3) 단기선교사
- 4) 위탁선교사
- 5) 현지선교사
- 6) 견습선교사

II. 선교사 관리

1. 행정적 관리

- 1) 선교보고
- 2) 업무변경
- 3) 휴직
- 4) 안식년
- 5) 시무사임
- 6) 시무정년
- 7) 포상
- 8) 징계
- 9) 평가
- 10) 현지선교회 조직 · 목적 · 조직 · 임무
- 11) 해외 및 국내 선교 후원기관과 협력선교
- 12) 재산과 선교비
- 13) 선교지역별 선교프로젝트 공동연구와 실시

2. 정책적 관리

- 1) 후원에 관한 관리
  - 격려후원 (수 1:9) · 사역물자 후원 (딤후 4:13)
  - 재정후원 (빌 4:10-12) · 기도후원 (엡 6:18)
  - 연락후원 (빌 2:19) · 귀향후원 (행 14:28)
- 2) 선교사업에 관한 관리
- 3) 선교사의 건강에 관한 관리
- 4) 선교계획 (현장적용 및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
- 5) 선교부와의 유기적 관계
- 6) 협력선교를 원칙으로
- 7) 선교사와 그 복지에 대한 평가
  - 안식년
  - 선교사와 자녀
  - 선교사와 은퇴
  - 선교사와 그 가족 및 의료보험
  - 선교사와 연금

## 12-6 지역교회 중심 선교기관

이원상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당회장 및 미국에 본부를 둔 중앙선교회(Central Missionary Fellowship)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원상 목사는 계명대와 경북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달라스신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신구약으로 학위를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선교의 불길은 오늘도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지금도 선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점들도 바라보게 된다. 이미 이런 흡사한 문제들을 직면한 서구의 교회들은 선교기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이에 준하여 좀더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키 위해 교회중심적인 선교기관을 소개하려 한다.

1. 선교기관의 필요성
2. 선교의 삼위일체

- 1) 파송교회
- 2) 파송선교지
- 3) 선교기관
3. 파송관리의 2가지 분류 - 파송선교사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지역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과 선교기관이 관리하는 방법이다.
4. 교회 중심적인 선교기관 - 교회중심적인 선교기관과 일반선교기관의 차이점
5. 교회중심적인 선교기관이 주는 장점
6. 교회중심적인 선교기관에 대한 실제 예

## 12-7 초교파선교기관

조지 버워 / OM 총재



OM 총재이며 국제선교대회 강사로 크게 활약한다.

## 12-8 선교기관의 조직과 운영

김활영 / 한인 최초 필리핀 선교사



한인 최초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한 김활영 목사는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사역하였으며 Theological Seminary에서 D.Min.을 마치고 한국총회신학교 선교신학원의 교수로 사역할 예정이다.

## 12-9 선교단체간의 국제적인 협력

제임스 스톨몰리스 / 윗튼대학 선교학 교수



윗튼대학 선교학 교수

### Partnership in Mission

1. Some Definitions of Partnership - What is partnership?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partnership is "an alliance or association of persons joined together in a partnership" or "the fact or state of being a partner." A Partner is defined as "one that is associated in any action with another" or "one held to resemble such a partner in having with others joi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 Partnership in the Missionary Environment - Every successful attempt at missionary work involves some sort of partnership.

3. Biblical Foundations - The Bible has many examples of individuals and groups working together.

4. Common Examples of Supposed Partnership - Throughout history, the most common examples of partnership have been the employment of nationals to do evangelistic work alongside or in the place of missionaries.

5. Some Critiques of the Old Methods of Mission

6. Partnership Today

## 12-10 선교기관의 선교사 파송과 관리

한도수 / 바울선교회 총무



바울선교회의 한도수 총무는 선교회 소속 선교사 133명을 돌보며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선교사훈련원 원장, 한국선교사 자녀학교 총무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한신대 신학, 선교, 아시아 신학대학원을 나와 영국 M.O.C.에서 수학했다. 영국과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었다.

최근에 접어들어 많은 선교단체들이 조직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선교사를 모집하여 파송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교에 경험이 부족한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데는 열정이 있으나 선교사를 선별하는 일과 선별된 자들을 훈련하여 파송하고 관리하는 일에는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기에 오늘날 선교지에서 적지않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파송과 관리를 소홀히 한 까닭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파송이란 그저 파송예배만 드려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파송하기까지 선교사의 후보생으로 발굴하고 훈련과정을 통하여 분명한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헌신과 자질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을 때 비로소 파송을 해야 한다. 따라서 파송 후에도 선교사를 관리하고 목회적 차원에서 돕는 일(Pastoral Care)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 I. 파송 전까지의 과정

#### 1. 선별 (Selection)

선교사 후보생을 뽑을 때 중요한 몇 가지를 분명하게 체크하여 선별하여야 한다.

1) 거듭났는가? (목사, 전도사, 직책, 교단, 가족의 배경 등을 보지말고 본인 자신이 진실로 거듭났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 2) 선교사의 소명이 분명한가?
- 3)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 4) 교회봉사와 전도생활은 계속되어 왔는가?
- 5) 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되 선교부에서 만든 물음에 답하도록 해야 한다

## 2. 훈련 (Pre Field Training)

선교지에 가기 전의 훈련과정은 할 수만 있다면 3단계로 훈련함이 좋다. 1단계는 본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의 영성과 선교정책에 대하여 훈련하고, 2단계로 전문적인 선교사훈련원에 보내어 훈련하도록 하며 (자체에 전문성을 가진 훈련원이 없을 경우), 3단계로는 6개월 이상의 타문화권에 보내어 문화적응훈련을 하게 한다.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형식으로 한다.

- 1) 형식교육 (Formal Education)
- 2) 비형식교육 (Informal Education)
- 3) 무형식교육 (Nonormal Education)

## 3. 평가 (Evaluation)

훈련기관을 통하여(1-2년) 나타난 선교사 후보생들의 모든 면들을 놓고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통과된 자를 비로소 파송한다.

## II. 파송 (Dispatch)

1. 선교사 후보생이 목사일 경우 선교단체와 교단과의 협약이 사전에 있어야 한다.

## 2. 선교지 나라 선정

- 1) 선별할 때 본인이 선교지를 정한 경우
- 2) 훈련기간 중 본인이 선교지를 정한 경우
- 3) 선교단체에서 선교지를 지정해 준 경우

## 3. 파송예배

- 1) 후원한 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리는 경우

- 2) 본인이 소속한 노회나 총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리는 경우
- 3) 소속하여 일할 선교단체에서 파송예배를 드리는 경우
- 4) 파송예배시 주님께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써서 선교단체에 바치는 경우도 있다.

## III. 관리 (Supervision)

파송된 선교사는 선교지에 도착하여 현지에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될 때 실수와 긴장속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쉽고 편한 방법을 택하여 사역에 임할 경우 또 하나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과 자녀교육 및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으로 선교사 혼자서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다. 그러므로 선교단체에서는 파송예배로 끝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관리하고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 1. 현지언어 및 문화적응 훈련 (On Field Training)

현지언어 훈련 및 문화적응을 위하여 현지인과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좋으며 이때 1-2년 동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 1) 선교지 오리엔테이션
- 2) 언어훈련
- 3) 문화적응훈련
- 4) 사역훈련

## 2. 사역관리 (Ministry Supervision)

## 3. 영적관리 (Spirituality Supervision)

## 4. 가족관리 (Family Supervision)

## IV.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



## 12-11 한국선교사 재배치전략

이태웅 / 한국해외선교회(GMF) 이사장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태웅 목사는 현재 한국해외선교회(GMF) 이사장과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Mission, Commission) 선교위원회 회장이며 저서로는 「한국교회의 선교 - 그 이론과 실제」, 「제자 훈련은 이렇게」, 「심령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등과 다수의 선교훈련분야 논문이 있다.

McGavran 박사는 한국 선교운동이 한창 시작될 무렵에 벌써 한국선교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선교지 확보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교사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과거에도 얻기 어려웠고 지금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훗날 선교역사가들은 이를 "내륙 선교운동 (Inland Mission Movement)"이라 했다. 그때만 해도 해변가에만 선교사들이 있었으며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으므로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내륙선교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사를 배치하는 일을 하셨다. 이런 배치 전략은 논리적으로 얻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비전을 받아서 세워진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미전도종족운동은 연구와 논리에 입각하여 세워진 배치전략이다.

멀리는 카메룬 타운센드 같은 분들이 성경번역을 통하여 미전도종족을 찾아나섬으로 시작되었으며 가깝게는 프론티어 선교운동 (Frontier Mission Movement) 선교자 중 하나인 랄프 윈터 박사의 강조와 로잔운동의 후속조치 등을 통하여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추수지역에서 주로 선교사들을 먼저 파송해야 한다는 맥가브란(McGavran)의 교회성장이론도 역시 선교사 배치전략 중의 하나이다. 이제는 맥가브란이 없는 상황 중에서 미전도종족전략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죽은 전략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간단한 내용으로 보아도 선교사 배치전략은 간단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도 선교사 배치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 I. 선교사 배치에 대한 역사적인 논란

1. 서구선교의 교훈
2. 한국선교의 현장
  - 1) 한국이 처한 현상태
  - 2) 한국 선교사의 배치에 있어 유리한 점
  - 3) 한국선교사 배치상의 문제점
3. 한인선교의 위치

### II. 배치를 위한 준비

1. 처녀지를 개척할 경우
  - 1) 연구
  - 2) 행정적 준비
  - 3) 선발대 파송
2. 선교지에 선교사가 이미 배치된 경우
  - 1) 현지선교사의 판단의 우선권 부여 (현지팀의 성격고려, 현지팀의 전략과의 연관성)
  - 2) 교회의 역할
  - 3) 선교본부의 역할

### III. 선교사 배치원칙

1. 종교 블록별 선교사 배치
2. 유사 블록으로부터의 접근법
3. 지역별 배치
4. 전문성에 의한 배치
5. 전문인 선교사 배치
6.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역자 배치

### IV. 배치를 위한 통로

1. 국제선교기관을 통한 배치
2. 한국교단 및 선교단체를 통한 배치
3. 현재체제나 현지교회를 통한 배치

### V. 결론

**12-12 선교기관의 효율적 재정운영방안**

신경희 / 워싱턴한인침례교회 담임



신경희 목사는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리버티침례신학원을 수료하고 University of New Orleans 와 Liberty University에서 상경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워싱턴한인침례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12-13 북미주한인교회와 신학교의 협력방안**

황용현 / 뉴욕얼라이언스신학교 교수



황용현 목사는 캐나다의 안디옥선교교회를 담임했으며 Ontario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 Trinit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아 현재 New York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 13. 선교헌신자

### 13-1 선교의 소명, 어떻게 알 수 있나?

림택권 / 필라델피아연합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인 림택권 목사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필라델피아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충회신학교, 커버넌트신학교, 시카고신학교, 웨스터민스터신학교를 나왔고 저서로는 「예수님의 모범(Example of Jesus)」(번역), 「1967년의 신앙고백 (Confession of 1967)」(번역), 「또 한번의 기회」(수상집) 등이 있으며 시카고한국일보에 칼럼 「실로암」(5년), 크리스찬신문에 칼럼 「이런 삶에도 은혜가」를 연재하고 있다.

### 13-2 선교지망자의 준비과정

데이빗 브로우척 / TEAM 사역자



David Broucek is associated with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TEAM), an evangelical mission agency which helps churches send missionaries to plant reproducing churches in other nations. David attended Moody Bible Institute and earned a master of divinity and a doctorate in intercultural studies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How do you view preparation?

Inadequate : Attempt to learn everything before you go.

Better: Develop the basic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needed for effectiveness, then, through a cycle of action and reflection continue developing throughout your career.

In your preparation, avoid a narrow perspective. Seek to become a well-rounded missionary. Make the connections between and among the disciplines. Learn from and apply all of them (biblical studies, church growth strategy, anthropological/ethnographic insights, personal factors, spiritual factors).

Learn to be a self-directed learner.

Make reflective practice practice a lifelong activity.

1) Be aware of your experiences; observe whether or not others have these experiences; identify the ways in

which your experiences lead to desired outcomes or not.

2) Practice performing your skills and learning new skills; emphasize doing, emphasize serving others.

3) Reflect on practice. Consider the results of your activity. Make decisions about how to modify or alter your practice in order to increase your effectiveness. Decide whether and what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needed. Then engage again in your activity.

What fundamental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do you need to develop in order to be effective as a missionary?

In order to get the most benefit from your training/ preparation, you must be clear about the desired outcomes. What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would you add to this list? Attitudes & Values: love for God, love for people deep desire to act for God glory and the peoples good positive, faith-filled perspective, able to rebound from hard times, not become paralyzed by discouragement confidence in the power of God through the gospel to

change lives "deparochialization:" recognizing ones own narrowness; becoming open to appreciation of diversity; "different is not wrong; its just different" willingness to set aside personal preferences desire to build up others; let them shine willingness to practice self-evaluation; willingness to be assessed by others

#### skills & Abilities :

evangelism

ability to facilitate personal growth in others

preaching & teaching skill- including preaching to large groups and facilitatin small groups

ability to nurture leaders for the church

practical skills -writing, computer, building, or maintenance

#### Knowledge & Understanding:

know the Scriptures

know people

understand the nature and mission do the church

Know the heart language of the people, their other tongue

know the history, geography, & culture of your adopted land

know world religions

know answers to objections

#### Resources for preparation

The local church - theologically - mission flows from the church and results in the church practically - there is no better place t nurture and develop your Good-given missionary gifts than serving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Formal Bible & missiological training

Field experience, internships & apprenticeships

Veteran missionaries. Don't miss the valuable resource of experienced missionaries. Whenever you can, ask them the following questions:

- 1) What do you have to know, Be, and Do in order to be effective in your life and ministry as a missionary?
- 2) What experiences prov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in preparing you to be a missionary?
- 3) What recommendations do you have for me, a volunteer for missionary service?

#### Reference list

Chew, Jim, 1990, When you cross cultures: Vital issues facing Christian missions, singapore: Navigators

Harley, David, 1995, Preparing to serve, Pasadena, Cal. : William Carey Library

Lingenfelter, Sherwood, G. and Marvin K. Mayers, 1986, Minister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ed, Lyman E., 1985, Preparing missionaries, Pasadena, Cal. : William Carey Library

Ward, Ted, 1984, Living overseas : A book preparations, New York, N.Y.: The Free Press (MacMillan, Inc.)

**13-4 선교사의 인격훈련**

존 아커 / 크리스토퍼커뮤니티교회 담임

Dr. John B. Aker is the pastorteacher of Christ Community Church in Tucson, Arizona. He spent almost nine years in a monastery studying for the Catholic priesthood. Following his conversion experience in 1968, he earned his M. Div. and D. Div.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He served as President and CEO of Slavic Gospel Association and has been contributor to Decision Magazine and Sports Illustrated.

**13-5 선교지망자의 언어훈련**

정민영 / 성경번역선교회(WBT) 선교사



WBT(성경번역선교회)의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며 신약성경을 번역하고 다수의 글을 발표한 한국교회 성경번역선교의 선구자이다.

**13-6 선교사의 삶과 효과적인 사역훈련**

폴 넬슨 /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CEO

Paul E. Nelson is President and CEO of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He earned his B.A. at Taylor University and M.Ed. at Wayne State University. His ministry involvements ar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and Wycliffe Service in Peru, South America.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1. Introduction**

- 1) education for the ideal world
- 2) training for the real world

**2. Needs assessment**

- 1) who needs what kind of training
- 2) strategy for life-long learning

**3. Categories of training**

- 1). Formal (degree based)
  - ① Bible
  - ② Missiology
  - ③ Professional competence

**2) Non-formal**

- ① Spiritual
- ② Personal
- ③ Interpersonal
- ④ Cultural
- ⑤ Environmental

**3) Technical preparation**

- ① Language learning
- ② Practical living skills
- ③ Ministry strategies

**4. Learnig as an adult**

## 13-7 선교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로스 레오노빅 / Russian Women's Ministry



Rose was born into a Russian Orthodox family in Alberta, Canada. She graduated from Russian Bible Institute in Toronto and sailed for Germany to work among the Russian refugees. This is where she met her husband Nick and they have been working as a team ever since. Since 1991, Rose has been involved in Russian Women's Ministry in Russia, Belarus and Ukraine.

It is exiting to observe through the pages of Scriptures the role that women had in the preservation and propagation of faith in God. Women and their role in keeping faith in God alive even under the sourest of ungodly atheistic and heathen pressures brings honor to God who gives them their spiritual strength.

Throughout the world, even in theologically sound Christian churches the role of women is often limited to teaching children and singing in the choir. However, these same churches do send out missionary women into difficult and dark places to spread God's good news of the Savior. These missionary women do not question the fact that they are the ones to first befriend the heathen, learn their language then evangelize, plant churches and then pastor these churches until they can train a man for the leadership position. I understand that true biblical interpretation is essential to eliminate one's own prejudices concerning women evangelists and preachers, but I would personally like to see an American pastor step aside from his pulpit on a Sunday morning when the church is full and allow a woman missionary share God's word from her heart and field experiences. We all have the greatest respect for such women of God as Marilyn Laszlo of Papua New Guinea.

She not only shows strength and steadfastness in the Lord, but has a marvelous sense of humor that helps carry her through some of the most unique and strenuous situations. Let me just relate one incident. When Marilyn arrived by boat at her new station of service, the men of the village came out to the river bank to meet her. To her horror they were all quite naked, with only

a string tied around their waists. She was terrified but the sight was so strange that she started to laugh and they all laughed with her. Later when she learned their language, she asked the chief why the men were the string. The answer came back that they didn't want to walk around naked

Now this is not something that happened 100 years ago but in our lifetime. Marilyn Laszlo is our contemporary missionary. Women of this caliber are serving the Lord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day as they did in years gone by.

The Lord has privileged me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women's ministry. After I graduated from the Russian Bible Institute in 1948 in Toronto, Canada, Peter Deyneka Sr. Challenged me to go to war tom Germany to work among the Russian people who were displaced by the war and were now living in displaced persons camps. The challenge was truly great for the shy young girl that I was. Nevertheless, this gave me hands on experience of putting to practice what I learned at the Bible institute and developing ministry among women and children suitable to their needs. Remember these were Soviet people who had little or very distorted ideas of God Since those early years, I have had the joy of doing personal evangelism in Russian Old People's Homes in Nice and Menton, France.

Could you imagine the thrill of leading a Russian general's wife to the Lord the day before she celebrated her 100th birthday! She lived for 4 more years and grew in the Lord as she studied the Scriptures and shared the readings daily with her whole entourage. She was in-



deed the Russian of people' s First Lady!

Then I was involved in establishing Christian Women's Clubs, one in Monte Carlo, Monaco and another in Nice, France. Most of the women who come to the club luncheons and meetings are very sophisticated, wealthy women whose homes are in the Principality of Monaco and the French Riviera. These women come to trust the Lord and accepted God's free gift of salvation. It is whole new experience to work with women who could buy everything and anything they wanted, but could not buy the one thing they yearned for and that is faith in God. The Christian Women's Clubs are still active and are led by these women who are now able to lead their kind to the Lord.

### Women's ministry in the CIS

As soon as the Iron Curtain came down, I started personal ministry with women in Russia, Belarus and Ukraine. I will never forget my first all women' s meeting in St. Petersburg, Russia. My husband Nick was invited to speak at a newly planted church, Pastor Anatoly established the church 3 yrs earlier, and already there were 200 members with a 25 voice choir and special classes for children. The congregation was youthful, educated and eager to learn what the Bible said. They met in a theater because they had no building of their own. One evening Pastor Anatoly asked Nick to meet with the men and for me to have a women' s meeting.

The women met in the apartment of a young couple who actually had a large living room, a bedroom and a kitchen. According to Russian standards this was a luxury apartment. I spoke on the 'whole Armor of God' with emphasis on the fundamentals of our Christian faith. The women were sopping up every word like dry sponges. They would not let me stop, but after sharing for 2 hours I was tired. It was then that they asked me to write a book so that they would have something in

hand that they could refer to. Before leaving I asked our young hostess if she would be willing to lead a women' s Bible Study in her home once a week.

She is a school teacher by profession and even though the Bible was new to her, she agreed with the hope that they would all grow in the faith together.

Last October my book, 'The Christian Woman in the Whole Armor of God' came off the press in Moscow and by March all 10,000 copies were in the hands of women in Russia, Belarus and Ukraine. God helping we hope to have a second printing finished for the Russian immigrants in America by the end of August. Also another printing is being scheduled for Moscow.

An actress at the Bolshoi Theater accepted the Lord two years ago but was not sure of the elementary tenets of her faith after she read my book she realized that to grow in the Lord she must read her Bible daily and share her faith with others. How does an actress go about sharing her faith? Well she joined a drama group of young actors and is challenging them to perform plays with good morals.

The majority of Christians in Russia are women. Walk into any church in Russia and you will find that at least 80% of the congregation is made up of women. Needless to say many Christian men perished in prisons and in exile in remote places of Siberia during the Soviet rule. Women kept faith alive in their families in outstanding and courageous ways. Many took their children to the priest after the midnight hour, to have them baptized, not knowing whether the priest would report them to the authorities or not.

Last year, a young woman, Svetlana, who lives in Moscow wanted to print a Christian magazine for the women of Russia just like the ones she had seen on her visit to America. The first thing a Russian woman does is go for advice and permission to the pastor and leading brethren.

ren of the church, Svetlana did as was expected of her and the brethren told her that the women have a page in the men's magazine that should be enough. She was quite downcast when she confided in me, We talked for a while and I did not know how to encourage her to just go ahead with the magazine since she felt so strongly about it, she kept coming back to the Russian Christian tradition that the women are to obey the brethren, I turned to the bible and read that wives are to obey their husbands and asked her if she had a husband. She said "Rosa, you know very well that I am not married". Good, I answered, then you have no man to obey, go right ahead and prepare your magazine for printing. Since then she and a few other women have put out 3 issues of the magazine "Maria". Would you believe it, even the men are pleased with it now.

Five years ago Vera, a middle-aged woman realized that there was a great need for properly trained Sunday

School teachers. There was no material for teaching that would be geared to Russian culture so she developed a suitable curriculum and started teaching Sunday School teachers, that is both young men and women. Every Saturday these students come to the Baptist church for their studies. They study this way for six months, from November through April and then they get a certificate as a qualified Sunday School teacher. I met some of these graduates and truly they are outstanding. So far Vera has trained 245 teachers who are all working in the Moscow area. Her material needs to be published so that it could be available to all the SS teachers in the CIS.

I am greatly encouraged in my involvement of isolating fine, educated Christian women and helping them develop their special talents for the sake of the Gospel. Women's ministry is really each woman according to her God given ability - and each ones involvement does make a difference.

## 13-8 선교전략가가 되는 길

토마스 왕 /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대표



Thomas Wang was born in Beijing, China. He was converted at the age of 11 at a crusade of the evangelist John Sung. He was disciplined in his faith by the beloved and dedicated pastor Wang Ming Dao. At the age of fifteen Dr. Wang dedicated his life to God for fulltime ministry. In 1953 he served as a preacher and pastor in two Methodist churches in Taiwan and as an international evangelist in Europe and around world. In 1989 He was international director of the Lausanne Congress for world evangelization.

He is presently is serving as the International Chairman of the AD 2000 and Beyond Movement, motivating churches of the world to reinforce their evangelist effor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especially to unreached peoples with the goal of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by the year 2000. In 1989 he founded the Great Commission seminary which later became the Great Commission Center.

The following honorary degrees have been conferred upon Dr. Wang  
 - 1989 Doctor of Letters (Litt.D.)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 1990 Doctor of Divinity (D.D.)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 13-9 대학생들에게 닫힌 선교의 문은 없다

댄 해리슨 / InterVarsity 부회장



Dan Harrison is Vice President o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and Director of InterVarsity Missions and the URBANA Student Mission Convention. Born to missionary parents in China, Dan served with Wycliffe Bible Translators in Papua New Guinea.

Dan Harrison is Vice President o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and Director of InterVarsity Missions and the URBANA Student Mission Convention. Born to missionary parents in China, Dan served with Wycliffe Bible Translators in Papua New Guinea. I'm delighted to talk to this group of persons who love Jesus and want to make a difference for him. Some say about your generation that you are slackers and that you are uncommitted. I say that your generation is doing some of the finest mission work I have ever seen. I was speaking to a group of missionaries and one of them spoke to me after and said, I was an exhibitor at an Urbana convention. The delegates asked me all sorts of questions like What's the retirement program your mission offers? And What's the pay? And May I take my refrigerator to the field? and etc. And then

with a twinkle in his eye, he said, I suppose you wonder what convention that was. I said, Yes I do. He said, 1946. Actually I've never been asked a trivial question by an Xer.

Morse Tan was at Urbana 93 and filled out the World Evangelization Decision Card, came back to Wheaton College, and as a freshman incorpor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do evangelism through the world wide web. Numerous persons have become Christians as the result of the witness of Moses and his friends in that new ministry.

Some people don't expect much of your generation, especially in missions. I expect a great deal. Perhaps you wonder why? In 1989, my wife and I made our first trip into the Soviet Union. The Berlin wall was still up and the Soviet Union was still in existence. In 1990, there

were 13 persons who committed their hearts to Christ in our summer project in Kiev- 10 students, 2 faculty, and one pro-rector of a university. Today the Ukraine is the second fastest growing student movement in the world, staffed mostly by Ukrainians and governed by a Ukrainian board. The work among students has spread from the Ukraine to 13 of the 15 countries that used to be in the Soviet Union. The missionary work done in the Soviet Union through InterVarsity and its sister movements in th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 has been largely done by Xers. Sure there have been a few older folk, including me, that have been involved in some ways. But most of the missionary work has been done by Xers. Outstanding missionary work.

Another person that I believe in you is that students loved me into the kingdom when I was a very pagan college student. I came from a broken background where I experienced sexual abuse by a leader in the church when I was 9. At 14, I borrowed money from my dad and took a bus trip down to Florida to meet my older brother. While I was there, I got a letter from Dad reminding me of the debt I owed him, asking me how I was going to pay it bad and reminding me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he signed the letter, "Love, Dad, Dad loved me. That was the first time, and perhaps the last that Dad ever used those words with me. I didn't know my dad loved me. At age 15, I purchased an automobile with money I had earned. My dad warned me not to drive and if I did I would get in trouble and if I got in trouble not to call him. Well I didn't follow his advice or direction, and sure enough I was stopped, arrested, and put in jail. The jail cell door clanged behind me. I turned around, and there was my older brother. What a family reunion.

I was allowed one telephone call and naturally I called home. My father refused to speak to me, just as he said he would, and he wouldn't allow my mother to do so either. I quit school five or six times. I found it virtually impossible to please my missionary father. It was students like you who loved me into the kingdom. Students have always provided leadership for older adults around them. Most of the revolut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recent history have been started or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tudents.

In Romania, for example, a 14-year-old daughter of a pastor shamed her father into taking a stand against the evil regime, a courageous one that could have cost him his career and might have cost him his life. That began the revolution. In Bulgaria, one of the students in our summer program, who eventually became a Christian, was actually the student who led others in a demonstration on his university campus that spilled out into the streets, was joined by workers, and brought down the evil regime in that country.

The whole modern missions movement w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by students. Over 20,000 students committed themselves to missions through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Out of the last five Urbana student mission conventions, 67,891 delegates have turned in decision cards indicating their commitment to world missions. The revivals that have taken place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have often begun with students. When I was a missionary teacher in Papua New Guinea, high school students came to me and asked me to teach them to pray. We began praying together early in the morning. The group grew, and eventually it burst out into a chapel at the high school.

We spent all one day and most of the night, and it spread out into the missionary community. There has been a revival among Christian campuses and some universities in the 50s and 60s that resulted in a wave of missionaries. Recently I spoke at the Wheaton Christian

Fellowship, which was running upward of 600 every Sunday night. They had just had their missions emphasis week, and George Verwer, one of our speakers at Urbana '96, was the featured speaker. Whereas normally they have 70 response cards indicating commitments to missions, they had this year well over 700 responses. The prayer goal of the students in the World Christian Fellowship is that half the student body at Wheaton will attend Urbana '96.

Another reason I expect a great deal from your generation is that students can go anywhere. A group of students was welcomed in North African Islamic country of Tunisia. They were housed in the homes of their Tunisian student hosts. They spent the summer with these Tunisians. One of the Americans was a convert from Islam. Her host family spent the summer tenaciously trying to convert her back to Islam. You know what she talked about- her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Students and other young adults are doing excellent mission work I have said. Your generation is more or less color-blind. Our summer teams are 25% or more minority students. One team was in a small Ukrainian town called Nizhyn. This was the first group of Americans to come to their community. The hosts spent the day with our students. At the end of the day they had a press conference, which meant that anyone in the community could ask an American a question.

A man stood up and asked, "I'm curious; I've got to ask this question. I've noticed that you people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and yet you seem to like one another. You might even love one another. You have fun together; you socialize together; this is truly remarkable. In our country, we have differences and we hate one another. We never associate one another. Don't you have any radical prejudice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students got up to answer. She said, "Yes, we have racial prejudice in the United States. I grew up in the projects in Atlanta, and people tried to convince me that we blacks

were inferior to whites, I hated whites. But if you see a difference in our group, it is because we are followers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we're attempting to live in accordance with his teaching. Don't let me mislead you. It's not always easy. But this is why we're different."

Three students from Central Asia were invited to MOSOJW for one of our summer mission projects. They were matched up with Americans, roomed together, had their meals together, traveled together, had classes together, worshiped together, studied the Bible together, etc. Dan and Ishmael were roommates. Whereas they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in their relationship, they ended the summer as fast friends. They were sad to see one another go. Before they parted, one said to the other, "we can't both be right about our faith. I'll study your religious book if you study my religious book, until one of us converts." They both made this covenant together. Eight months later, Ishmael set aside his Islamic faith. He came back for a second summer and once again roomed with an American. He asked all sorts of questions, but by the end of the summer he committed his heart to Christ. He began insisting that we bring one of our Global Projects to his university.

His university invited our student group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knew that their prize student, who was a religious Muslim, had become a Christian as a result of spending time with the InterVarsity students. Dan took a team of 10 Americans to the country. The first summer, there were 6 conversions. By December, there were 35 and the fellowship has gotten up to 75 in number. Who did that missionary work? A group of Xers.

In 1991, the government on Ukraine gave me the highest civilian award ever given in their country, and never before or since given to a foreigner. It's the Makarenko medal, and it was given to me for InterVarsity's contribution to the moral education for the Ukraine.

Last Thanksgiving, my family hosted three officials from

a Central Asian country. They spent several days in our home, along with our extended family. One of the officials was recently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that country. He told me that when he first became Minister,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called him into his office. He was handed a "for your eyes only" file and the content of the file had been prepared by the KGB general and was an investigation of InterVarsity. It said that InterVarsity was a dangerous organization corrupting the morals of the youth of that country and that we dangerous organization corrupting the morals of the youth of that country and that we should immediately be expelled. This Minister of Education courageously stood up against the KGB general and said to his president, "Mr. President this is not the InterVarsity that I know."

The personnel from InterVarsity are quality people that are 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our country and are badly needed by our youth. I recommend that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be done and that we report back to you: The investigation was done and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wrote a letter countering the KGB recommendation, and defending InterVarsity and supporting our continuation there. That same Minister then became the president of a university, and has subsequently asked us to help him establish an international business college.

Students and young Xers are pursuing a tent-making strategy among unreached peoples in the 10/40 window-countries of the world that are the least reached, that are the most needy. Your generation cares. Many of you love Jesus and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your life. Because of that I want to ask the following question. If you were to walk up to a situation where there were 10 people attempting to lift a very heavy log and nine of them were at one end of the log, and one was at the other, where would you go to try to be helpful?

Did you know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one full-time vocational Christian, pastor, youth leader, etc.



For every 300 in the population, You may not know that in the Islamic world, there is one missionary per one million in the population. Furthermore, 90% of the Christian workers in the world are in places where the Church already exists.

Furthermore, most of the missionary work being done is focused on adults, in spite of the fact that of all the conversions that take place in the United States or all over the world for that matter, roughly 85% of them take place between the ages of 4 and 14. And furthermore, the world that you and I live in, the world of the 90s, is getting younger and younger. By the year 2000, median age will be 17.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 younger and younger population. It's only in North America and some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the population is graying.

One of the reasons that I expect so much of your generation is that groups of Xers are at work doing wonderful missionary work here in North American cities and in various places all around world quite like the team I mentioned in Central Asia. I mentioned George Verwer, the founder of Operation Mobilization, who when he was a student met on a regular basis for prayer groups, George and a group of other students went off to Mexico to do mission work.

They formed a team and went out to do the work of God. I'm thinking of some other students, including a man by the name of Paul Leary, who was involved in an InterVarsity chapter in North Carolina. He went on a summer mission project along with some of his friends. They went together on this project. They had a tremendous experience. Then they went off the Urbana and felt a real sense of call to the world mission of the Church. They committed themselves together to form into a team go reach an unreached people group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y did that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y stayed together. They finished their undergraduate work. They met annually for prayer

and for fellowship and for fun. They began to identify gifts. Paul Leary was identified as the team leader. A couple people were sent off into medical school. A couple of others were sent to train in linguistics under Wycliffe Bible Translators, and so forth. Paul was sent into InterVarsity to go on staff and then to become a staff director in order to learn how to lead.

Over a period of several years, they continued in their commitment to one another and to approach and reach an unreached people group together as a team. Today Paul Leary and his team work in an unreached people group in Uganda. Let me challenge you to form a team right in this missions conference this week. Prayerfully look for persons of like mind to tackle one of the unreached people groups in the world. There are HXX students at this conference and 2000 more at the sister conference next door. I wonder how many teams God could raise up right out of these two conferences this week?

What does Scripture say about world evangelization? Scripture declares that the gospel must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earth. In Revelation 5:9 it says, "The elders sang a new song. Worthy is the Lamb, because he with his blood purchased saints for God from every ethnos, every language and people and nation" And then in verse 11, "Then the angels sang." And in verse 13, "And every creatu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the sea." Noted British Bible teacher John Scott has said that the gospel is not the gospel unless it is proclaimed.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when you and I share the Good News, it becomes the gospel. We can breathe life into the words. And by the Holy Spirit's power they become the gospel in another's life.

When is world evangelization completed and how will we know? When the Lord returns. The Scripture says that only the Father knows when Jesus will return.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s the overriding theme of Scrip-



ture. In Genesis 12:1, Abraham is the first character who stands out as a person who first of all hears God's voice and secondly understands God's direction and thirdly ordered his ways according to God's will. In verse 1 of chapter 12, God calls Abram first to leave his country. He was to leave Ur of the Chaldeans. He was to leave his father, his people, his father's household, and to go wher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the Scripture says.

He took his nephew and his wife Sarah. And then in verse 2, we see enumerated God's promises. One, to make you a great nation to bless you, to give you a great name, to make you a blessing to bless those that bless you, curse those that curse you, and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Now that was a promise to Abraham. But in fact, you and I have been grafted into the line, the lineage of Abraham. And it is through us and through other Christians that we will be the instruments of God's blessing to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Another verse of Scripture also says to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Really Abraham and you and I as Christians are called to renounce the certainties of the past and to accept the uncertainties of the future.

The world-wid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believer. In Luke 24 starting with verse 44-47, this is made clear. In verse 44 it says, "All things written of Christ must be fulfilled." Jesus validates the Old Testament accounts, including of course Genesis 12. In verse 47 it says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should be proclaimed in his (Jesus) name to all the nations, all the ethnos, all the languages, beginning in Jerusalem. And then in Acts chapter 1 verse 8 it says that you and I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us and that we will be witnesses both in Jerusalem, in all Judea, all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How long will this go on? Matt 28:19 s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That's of course when Jesus returns. In Luke 10:2 it says that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beseech

the Lord of the Harvest, pra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the harvest field. God is a God of history, his plan being worked out a spiritual lineage including you and me. God is a covenant-making God; he makes and keeps his promises.

God is a God of blessing, especially salvation. And God is a God of mercy. Revelation 7:9 says a whole multitude will join you and me who are believers at the marriage feast of the Lamb. And Scripture also teaches lostness and Christ's uniqueness. That is without knowledge of Jesus, without confessing Jesus as Lord, a person is destined to a Christ-less eternity, separated from God. Jesus said of himself tha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person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through Jesus. God is a God of mission.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if we take the good news to them.

Again John Stott said, We need to become global Christians with a global vision for God is a global God.

Perhaps you think that you don't qualify to be a messenger of the gospel grafted into Abraham's lineage and be a source of blessing to the nations, to the ethnos, to the peoples of the earth. Perhaps you think that your brokenness or the fact that your family is dysfunctional or less than perfect disqualifies you. I wrote a book entitled Strongest in the Broken Places in which I convey the biblical truth that God delights in taking our weakness and turning it into strength. In fact, God finds it difficult to use people who think they are strong.

I was born in China and in the village where we lived there was a tinkerman. This is a person who had a little bell and whenever you heard it you knew who he was and you would bring to him your broken items. He would glue them back together, and the places where they were glued together were actually stronger than the original pottery.

One day in Papua New Guinea, my wife Shelby and I were having an argument. Shelby was sweeping the floor and got quite angry at me, turned around quickly and inadvertently the broomstick knocked her prize teapot, a souvenir of our honeymoon knocked it off the shelf, it fell to the floor and broke into hundreds of pieces. Needless to say we stopped arguing and I attempted to gather up all the pieces. Thinking about that tinkerman, I thought possibly I could glue it back together. The more pieces I picked up, the less I thought it was possible. Well I was able to glue the pot back together, and here it is. But the pot doesn't hold tea. I don't have the skill that the tinkerman had. It looks nice, and at a distance you can't tell that it doesn't hold water.

You know, God isn't finished with me. Fortunately I didn't have to wait until I was all put together in order to be used by him as an instrument of his peace and love and transmission of the gospel to the nations of the earth. God delights in using me in my weakness and turning that weakness into strength. He'll do the same for you.

Summertime this year is time for the Olympics. Do you know that over 10,000 people paid \$3,000 to carry the torch six tenths of a mile? All types of people. It must have been a thrill to be one of those persons who carried the torch forward. A fire from that eternal flame that lights the flame at the current site for the Olympics. I had that feeling when I worshiped in the church in England where John Wycliffe walked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John Wycliffe preceded Martin Luther. John Wycliffe was responsible for translating the Scriptures into English. The first time that the Scriptures had ever been available in the vernacular since New Testament days. John Wycliffe lit the torch for Bible Translation. And then William Cameron Townsend, the founder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caught that torch.

In 1984, Wycliffe sent out translators to its thousandth language group. Recently they completed their 400th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ion torch passed to my wife Shelby and me in 1964, as we finished our studies at Cornell and went off to study linguistics. The Bible translation torch has been passed to national Bible translators all over the world. It was passed to Ken and Bobbie Williams, who worked among the Chuf tribe in Guatemala. Two thousand in village churches there sent out 9 missionaries. How does God pass the torch for missions? In Isaiah chapter 6 God got Isaiah's attention with a vision God uses various means to get our attention. How has he gotten your attention? Are you listening to him?

Secondly, God enlarges our vision to test our availability. God wants to use every one of his children to complete the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Ksaisa, in that sixth chapter, responded to the vision from God by saying, "Here am I, Lord, send me."

Uncle Cam, the founder of Wycliffe, went to Guatemala to sell Spanish Bibles at the age of 19. He was out in the countryside and was confronted by a Quichua Indian, who said to him in broken Spanish, "Senor, if your God is so great, why doesn't he speak my language?" Mr. Townsend quit selling Bibles and decided to give God another language, and twelve years later had translated the New Testament into Quichua. God had used uncle Cam to raise up a church, he had built a school system, he had established a hospital and he moved on from there, eventually to found the Wycliffe Bible Translators.

Thirdly, God levels with us and teaches us to listen. The missionary call is not where can I go to be successful? It is what do you want me to do, Lord? Leave the results to him. The torch of missions is not passed to us. It's passing to the Xer generation. Your generation is uniquely qualified to complete the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There's a lot of Bible translation to do. There's great deal of work to be done in the 10/40 window, countries where the gospel has never been communicated.

God did not call you so the world would know your

name. God called you and me so the whole world know Jesus' name. Last November I had the privilege of traveling to Xinjiang province in northwest China, at the very end of the silk road, just a few miles from Kyrgyzstan and Pakistan. I was with an Islamic leader. Not very far away, there was a sign advertising Coca Cola. There we were having a Coke together. I asked do you know Jesus? Have you heard about him?

Do you know who he is? Here we are at the end of the silk road, and Coca Cola is already there. Not only are they advertising Coke, but people are buying it and drinking it, but they have never heard of Jesus. They don't know about him. Did you know that Coke has a goal of putting a can of Coke in the hand of every person on earth by the year 2000? They are of course thinking of financial profit

A Papua New Guinea grandfather asked me the questions. How long have you known Jesus? I said, Quite a few years. He said, Did your father know about Jesus? I said Yes, my father knew about Jesus. He said, "Did your grandfather know about Jesus?" I said yes, my grandfather became a Christian when he was an adult. He said, "Why has it taken so long to br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to us? You know, we've had the gospel for about 2000." D.L Moody, just about a hundred years ago, said, ~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can be done, must be done, will be done.<sup>8</sup>

And I would add, Why not in this generation. I believe that your generation can do it David Beatty came to Urbana 93 because some missionary invited him. He told me that in fact the reason he came was because his girlfriend was nearby and he wanted to go see her. But, while he was there God got hold of him. He wrote me afterwards and said, ~ world doesn't need any more ballistic missile engineers. What the world needs is persons who are available to Him to share the gospel where it has not been proclaimed." David is currently preparing himself to go into the Islamic world to share the gospel

Since you love Jesus and want to make a difference, let me challenge you to make a commitment to be available to you Lord to do whatever he wants you to do.

When Shelby and I were students, we became interested in missions. Most of our interest was focused on helping other people become involved. But along came some missionaries who shared with us about their work in Bible translation in Papua New Guinea. They told us about some needs there for teachers and teachers of missionaries' children. So we began to explore it. We went before our Lord and said, "Lord, we don't know what you want from us. We want to be available to you. And we're going to move forward toward these needs in Papua New Guinea. We ask that you either close the door or confirm that this is correct."

We went to my father, with whom I had become reconciled, and asked his opinion and blessing. Normally, he would pray and reflect about a question like that, but in this case, with a great big smile, he threw his arms around both of us and affirmed the direction we were going and gave us his blessing, and prayed God's blessing on us.

I trust that this evening you will make a commitment to the world mission of the church. Say, "yes, God, I'm willing to do what you want me to do. I'm willing to go where you want me to go."

ed with Wycliffe Bible Translators in Papua New Guinea.

## 13-10 세계선교를 위한 한인 2세의 전략적 위치

고인호 /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담임



고인호 목사는 프리스톤신학교에서 신약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서론:

세계선교를 위한 한국 2세의 전략적 위치를 생각하여 보기 전에 우리는 한국 이민사회를 잠깐 생각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국에 한국 이민은 옛날 얼마 없었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처음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미국에 이민하여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와이에 조금 있고 가주에 조금 있는 것 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하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었으나 당시 유학생은 이민이 아니요 다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왔으며 혹 이공계통을 공부한 학생들 중에 영주권을 받아서 더러는 남아 정착하기도 했으나 그 수는 아주 소수였다.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공계통의 사람들로써 미국이 필요로 하니까 영주권을 준 것이다.

본격적인 이민은 1968년에 Kennedy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에 이민법이 바뀌어서 한국 이민을 받아주기 시작한 후로부터이다. 그리하여 1972년 즈음 되어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70년도 초기가 한국 이민의 초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때 온 한국 이민들의 자녀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자도 있고 또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들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지어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중년이 넘었고 은퇴하여야 할 나이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1세들이 은퇴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한국 2세들은 한국교회를 이어 받을 수 있는가? 특히 한국 2세들을 통하여 1세들이 바라고 가꾸는 세계선교의 열이 계속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1세들이 지나가면 한국교회도 역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대개 이민은 민족율이 1세 때는 교회가 왕성하고 열심이나 과연 2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 1.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인간에게 닥쳐 왔던가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독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종신토록 수고하고 밥 흘리고 종 노릇하다가 필경 흠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15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5절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하여 쓰임을 받은 사람이 곧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 1.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전도 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 그러나



헬라교회는 타락하여 갈라지고 로마교회가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가 타락하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 칼빈, 녹스 같은 분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후 18세기 19세기에는 영국과 미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쓰셨는가? 먼저 복음을 아는 백성을 쓰셨습니다. 복음이 확실치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희미한 복음을 갖고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말경에 이 확신을 누구에게 주셨던가?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복음을 알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를 때 사람들은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본주의가 나오는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 2.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국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지? 또한 왜 20세기말에는 한국민족을 택하여 쓰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뭐가 나은 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쓰시려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한국민족을 수난의 민족으로 길러 주셨다가 지금 복음을 갖고 마지막에 쓰임을 받도록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민족을 택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 말에 믿는 사랑들은 누가나 다 인정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쓰시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쓰시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이 영국을 19세기에는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민족은 축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질적으로 축복하여 지금 한국은 물질적 자원도 없는 나라로서 지금 세계 11위에 오른 경제국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교만하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잃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세계로 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3. 20세기에 우리 민족을 드디어 Diaspora 만드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 민족을 써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하는데 쓰임을 받게 하시려는 징조가 무엇인가? 그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민족을 세계에 흩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000년동안 반도에서 다른 곳으로 갈 줄 모르는 백성을 갑자기 20세기에 와서 하나님용 우리 민족을 흩어 놓아 세계 방방곡곡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한국 백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강제노동을 하려고 갔고 중국으로 망명 갔으며 소련으로도 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70만이 있고 소련에 약 60만이 있고 중국에는 무려 300만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간 것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갔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미국에 150만이나 와 있고 캐나다와 남이 합하여 약 15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상업을 하기 위하여 또는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 백성이 중동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간 사람들을 다 합하면 지금 세계에 흩어진 한국 Diaspora가 약 700-800만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백성은 특이하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정 10가정만 모여도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미국에도 3500교회가 되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교회를 세계 각 곳에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 4. 미국에 있는 Diaspora의 중요성

첫째로 미국은 세계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무어니 무어니 하며 비판한다 할지라도 20세기에 미국은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먹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거의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차대전 이후 온 유럽이 다 파괴되고 동양도 다 파괴되고 말았을 때 미국만이 남아서 세계를 재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미국을 싫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교류하기를 원하고 미국에 유학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 이민들이 세계 어디든 지 없는 곳이 없이나 퍼져 있으나 이민 간 사람들은 미국에 가기를 원하고 남미에 간 사람들도 결국 할 수만 있으면 미국으로 재이민 오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미국을 옛 로마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은 바울이 동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먼저 복음으로 정복해야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길이 다 미국을 통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세계의 연합체라고 하는 UN이 있고 모든 통신, 항공노선, 상업, 무역, 국제정치가 다 미국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로마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면 미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을 미국에 갑자기 지난 2-30년 동안에 보내어 지금 150만이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3500이나 되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2세들을 기를 수 있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미국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소수민족이 어떻게 복음으로 미국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대망상이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소수가 다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고 미국을 도와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수적인 개혁계 계통의 신학교에 한국학생수가 20%내지 30%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합니까?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미국교회에서 2년간 시무하여 복음을 미국인들에게 전하였는데 2세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복음화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2세들이 나가서 미국을 전도하여야 합니다. 백인 교회를 섬기고 흑인 교회도 들어가 흑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1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1세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세들이 할 수 있습니다.

2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곧 1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비전과 신앙의 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20세기말에 온 것은 특이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미국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미국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기 보다 2세들이 더욱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다 신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2세들이 미국 곳곳에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2세대들이 단순히 좋은 학교만 졸업하는데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미국사회 각 계 각 분야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 5. 1세가 2세에게 하여야 할 일 ;

그러므로 1세와 2세와의 문제는 무슨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전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비전을 가지면 마음과 뜻이 통할 수 있습니다.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하여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1세대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알려주고 나눠야 합니다. 같은 비전만 있으면 2세대들은 한국말도 배우고 싶고 한국문화도 알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선교의 비전을 심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들이 그리스도가 확실하여야 합니다. 자기도 확실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남에게 전할 수가 없고 2세대들에게 말하여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 II. 미국에서 자라난 한인 2세의 특이성

2세대들은 참으로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미국사람도 아닌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련한 인간들로 보기가 쉽다. 한국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별로 출세할 수 없는 별볼일 없는 인간으로 보기가 쉽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2세대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주셨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전화 및 TV 그리고 Computer Internet을 통하여 세계는 다 이웃과 같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다양한 문화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영적인 분야만이 아니

다.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지도자는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왜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서방 선교사들이 것처럼 실패하였던가? 그들은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서양의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선교사는 동양과 서양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옛날 영국의 Rudyard Kipling은 말하기를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과 서양은 결코 만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그것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실제로 동양과 서양은 마치 극과 극처럼 차이가 심하다.

무엇이든지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다. 문장도 거꾸로 되어 있고 사고방식도 거꾸로 되어 있다. 서로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에 Kipling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 1.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가진 2세 ;

지금은 동양만 알고도 일을 할 수 없고 서양만 알고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크게 나누어 동양과 서양으로 되어 있고 동양과 서양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Businessman들이 동양과의 거래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도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마주서서 상거래를 하려 하니 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동양과 서양을 이해하는 Bi-lingual, Bi-cultural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권속에서 이중언어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어와 불어를 하고 이중언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어와 불어는 서방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동양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동양과 서양 문화권에 있는 Bi-lingual,

Bi-cultural 능력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것이 바로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이중언어를 하고 이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는 이 동양과 서양 문화권 사이에 이중언어를 하고 이중문화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누가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됩니까? 나가서 서양의 물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서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Degree 따는데 바빠서 미국에 와서 여러 해를 지내며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놀다가 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어 여기서 자녀들을 기르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곧 2세대들은 불쌍한 자녀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다면 가장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미국에서 자라는 2세대들이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서양이고 집에 들어오면 언어와 사고방식과 모든 것이 동양입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2세야말로 만약 그들이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습득한다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시려고 부르심받은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올 수 있고 이들을 통하여 세계를 누비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누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감당하였던가? 유대교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유대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자는 문제를 죄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복음을 들고 세계로 간 사람들은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곧 이중언어와 이중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당시 주도적 언어인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문화와 헬라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헬라는 서양문화의 기원이 되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헬라와 유대의 문화를 이

해하고 헬라말을 하고 유대말을 한다는 것은 곧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를 습득한 사람들이다.

## 2.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속에서 자란 자의 적합성 ;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써서 선교를 하게 하셨는가? 유대 문화권에 있는 유대적 신자들을 통하여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헬라문화를 알고 헬라언어를 아는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을 통하여 선교를 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1.5세 내지 2세대들이 한국에 사는 한국 신자들과 비교할 때 곧 헬라파 유대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곧 세계를 이해하고 이중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써서 선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해하는 이중문화권과 이중언어권에 있는 사람을 써서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과거 서구의 선교사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중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는 한국 선교사들도 똑 같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세가 2세대들에게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이 첫째로 확실한 복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확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지금 주안에서 주어진 자기의 위치 곧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능하면 한국에도 보내어 한국을 더욱 알게 하고 완전한 Bi-lingual, Bi-cultural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국에 보내주셨는가요?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비전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세의 소망은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여 하지 못한 것을 우리 2세대들이 우리의 믿음과 비전을 이어 받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2세들로 하여금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복음화하겠다는 열성을 주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온 제2의 청교도적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미국을 복음화할 때 미국을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국에 한국 백성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 The Place of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in the World Mission

### Introduction

In 1954, whe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only handful of Korean students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t was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at had devastated our country, it was divided and its economy was in shambles. Korea was not only economically depressed but America to study to go back to Korea and to rebuild the country.

America was at the time the most advanced and most affluent nation in the world, and there not a single country could have challenged its supremacy not only in military power, but also in its economy and technology. America still remains to be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influential nations in the world But God has changed Korea from one of the poorest and backward nations to one of the most advanced industrial nation in just a few decades.

It is, in a way, indeed a miracle that Korea could have rebuilded its nation economically in such a short time.

Historically, Korea was a hermit nation, Korean are a homogeneous people with one race and one language. They feared outsider, having been invaded frequently by foreigners, and never wished to live with foreigners in foreign country. Consequently Koreans, throughout the four thousand year old history, never lived very much outside Korean territory which was mainly the peninsula. Suddenly in the 20th century, God changed all that. Japan invaded, occupied, and ruled Korea for 36 years from 1919 to 1945 until Japan was defeated in the world War II. During the occupation many Korean went to Japan as forced laborers and masses of Korean people started to flee Japanese rule by immigrating north to China further north to Russia.

The diaspora continued after the Korean War in 1953. Many students started to come to the US.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many Korean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im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outh America.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went to the Middle East to work on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highways, buildings, dams and harbor facilities, which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ere building. Now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bout 7-8 million Koreans live all over the world. In this globe there is almost no country where there are no Korean populations. Among this population, approximately 1.5 Million Koreans li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at is significant of Korean-Americans, especially,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who live in the United States? Why has God made this Korean diaspora throughout the world today in the late 20th century?

### I. Identity of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It is very for young American born Koreans to lose their own identity. A young Korean boy in grade school one day looked at himself through a mirror and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that he looked different from other white American students and shouted to his mother "Mom! I look different. That was the first awaking of the identity question and will stay with this boy until he finds his God given identity. What is your identity? Are you Korean? Are you then an American? Who then are you? Some of you think that you are more Korean than American, even though you born in this country. Some of you think that you are more American than Korean. Many of you have lost it identity because you were born and raised in American, but you have not lost it completely, because most of you have Korean-Speaking parents who grew up in Korea and are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to America. You probably go to Korean church where you were taught by a Korean Sunday school teacher and by a Korean seminary student Jundosanin at your church. Many of you have more Korean friends than White

American friends. Then how much Korean and how much American are you? You feel comfortable with both cultures and maybe both languages, but where do you think belong more? Whom do you really think you will marry and live with for rest of your life raising your own children? Is he Korean(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like you) or is she American?

A second generation Korean told me that we are neither Korean nor American, but we are Korean-Americans. He said we are in a way unique. We belong to neither. We have our own distinctive culture which is different from American and different from the first generation Koreans. That is why there is great need for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church where the pastor will have to be a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It is most likely that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who graduated from a college would not seek to go to White American churches or to first generation Korean churches. But they will seek to come to Korean-American churches where they feel most comfortabl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must reach out to their own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 1. Where do they come from?

It is very important fo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to understand their roots. Although they were born in America their roots lie in Korea. It is particularly mo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racially Korean not white European, that they understand their roots more than they who are white descendants of white European. Without understanding their own roots they run the risk of identity crisis. Even though you were born and grew up in America, in order to understand your roots, you must learn and understand Korean language and its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have a strong identity as Korean-American, which you are, you need to explore your Korean roots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

tory. Recently, a seminary graduate Korean-American who virtually spoke no Korean went to Korea to learn language and culture and to find his roots for a year. He worked in a Korean church to help their English speaking ministry to Filipinos. He wrote that it was one of the best thing he had done in his life. He confessed that he have found his identity more clearly.

Even if you were born in America, you come from Korea and in a sense from its roots and culture and race. Racially you are Korean which you have to live with rest of your life and culturally you have the Korean roots which you need to understand in order to find your God given identity. It was not your choice that you would be Korean racially. God made you to be Korean racially then, you must understand Korea and be proud of it. Otherwise, your identity is on a shaky ground. In the same token it was not your choice that you live in America as an American citizen, your parents came from Korea and you were born into it. So you are Korean- American. Again it was not your choice but God's choice in making you a Korean-American. If God made you so to be Korean-American now at this end of the 20th century, what is the meaning and the will of God in making me a Korean- American in the late 20th century? That is a question we must ask ourselves.

What is my true God given identity? A Korean-American girl, who was born in the Untied States and attendant Korean church all her life and loved the fact that she was a Korean-American. She was very faithful in her youth group and college group and attended a private school and then an Ivy League college. All the while she was very proud of Korean heritage. She wanted to spend a summer in Korea working in Korean firm. So during her junior year she went to Korea and spent the summer working in a international law firm as an intern, She loved every bit of her stay in Korea. But strangely, she found out that she was not really Korean. Until that time, she considered herself much more Korean than American. In Korea she made many friends of her own age



and tried to mix with them as much as possible. But in conversation, all Korean students referred to Korea as "my country" -(우리나라) often and they were very proud of Korea, "my country" - "우리나라". She found out that although she loved Korea, where her parents came from, but she could not honestly say Korea was "my country" - "우리나라" as they did. Then, she questioned to herself "Where is my country?" Is the United States where I was born "where is my country?" But in the United States, people hardly say "my country". The "My country" concept is not really in the United States. People call the United States simply "America". Is "America" really "my country"? She wrestled with the question and came to understand her true identity and wrote her parents "my country is neither Korean nor America but Heaven. Therefore, I understand I am only a pilgrim journeying to "my country" which is heaven. But I have work to do here on earth as a heavenly citizen and as a Korean American

## 2. Why are they growing up in America?

I mentioned there are about 7-Smillion Korean diasporas living all over of the world. In China there are about 3 million, the largest Korean living outside of Korea. There are about 700 thousand Korean in Japan, 600 thousand in former USSR and also several hundred thousands are living in Canada, and also over a million living scatter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re is virtually no country where there is not a Korean living, Peculiar thing about Korean immigrants is that wherever handful of Korean gather in certain geographical area, they start a church. So you might say there Korean churches all over the world. You will find Korean Churches in London, Paris, Frankfurt, Stockholm, Nairobi, Jakarta, and even in Saudi Arabia. There are about 1.5 million Korean living in America and growing up in America. But what is so special about Korean living in America? What is God's plan for us living in America?

America is a country of immigrants. There is no native ethnos, except the Native American Indians, who have not come from other countries. Some came early from the Northern Europe, some from southern Europe, others from Africa and still others from Asia. Korean are among the latest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Started more or less early or mid nineteen seventies. Until then, there were only students and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who came specifically for training purpose. There were very few Koreans living in the US as permanent residents.

Then suddenly God was sending large numbers of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God had opened the door for the Koreans to enter the United States. Which had formerly closed for Korean by an immigration law. A large influxo of Koreans came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at period. But the peculiar thing about Korean immigrants is that whenever they form a community of a dozen families, they started churches. Korean, in US immigrant history, have planted more than 3500 Korean churches in this country, approximately one church per 500 people.

Furthermore, in many of the reformed faith seminaries, Korean students enrollment exceeds far more than others. While the Korean population is about 0.6% of the US population, Korean student enrollment in many reformed faith seminaries is anywhere between 20 to 30%. What does that tell us? What does mean? Also, in short history of Korean immigrants to US. God blessed Koreans economically. They worked very hard and were thrifty and able to make their business very successful. Korean were traditionally very eager for education and most of the second generation go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of high standing. Perhaps the parent pushed their children a little too much for study. But what is the result? We have highly educated second generation. Now we are starting to have professionals such as doctors, lawyers, engineers, and businessmen in the churches and second generation pastors and missionaries. What does it all mean?

### 3. What is their God given identity?

Korean-American growing up in American must understand their God given identity. Why are they Korean-American? They had no choice. They were born to Korean parents who came to America. That is why they are Korean. Their parents came to American instead of going to another part of the world. That is why they are Korean-American. So it is not by their choice but by God's will that they are Korean-American. In other words, their identity is not given by any human being but by God himself. It is God given identity. If it is a God given identity, we must ask why did God make me a Korean- American growing up in America? What is His specific purpose of giving me this identity in this end of 20th century?"

God has a plan in history. Ask yourself where do I fit in God's plan in history as Korean-American living in American in the late 20th century. Do you know what God's plan is in history? You can't find out God's plan in history from the Bible. It is none other than "saving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 1:21) and "turning them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Acts 26:18). Find out where you as Korean- American fit into God's plan for this ever shrinking world. There is some exciting possibility for you as a Korean-American in the divine drama of God's plan for the world. You cannot find this possibility until you know why God made you to be a Korean-American living in America. I believe God is using America in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s He had used Rome in the early century to carry out his plan for the world. Paul was most interested in Rome because he was guided by the Holy Spirit to go West rather than East as he originally intend (Acts 16:6-10). He learned that it was God's plan to second the Gospel to the world through Rome because all the roads led to Rome and the Gospel could be spread through the Rome to all parts of the world. That is why Paul was intensely interested in going to Rome. He came to Rome as a prisoner, and Rome was conquered with the Gospel of Christ be-

ginning with prison guards and leading even to Caesar's household.

God is also using Korea in this time. God has been preparing Korea for a long time to be His instrument to be used in this end time. To know your God-given identity as Korean-American, learn more about Korean history, Korean language, Korean church. If possible go to Korea and spend time there for a few months, one year, or two years to learn Korean language, history,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the Korean church and the faith of Korean Christians. Learn how fervently they pray every morning at early dawn prayer and how they fast and pray on the prayer mountain. How fervently they believe that the Gospel must be carried out to the world and how they accept that task as their God given task. I believe God has raised up Korea specifically to use in this end time to carry out the Gospel to the entire world. I believe that God intends to use the Korean church to finish the world mission before the return of Jesus Christ.

I believe God is using the Korean church as He used Jewish churches in the beginning of the first century. As there was a Jewish diaspora spread throughout the world, God has spread the Korean diaspora throughout the world at this end time. God had above all brought Korean churches to United States, the Rome of the 20th century. We must know what we are called for. I believe the Korean-American Christians are in a much more strategically important position than the Christians in Korea.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have cross cultural training from birth. Most of them are bi-lingual and bicultural in a way, and it is an important ascent that they have which others didn't have. In a way they are like the Hedonistic Christians compared to the Judaistic Christians in first century. It is the Hellenistic Christians that God had used for the world mission because they were bicultural and bi-lingual. In the first century, the Greek language was the world's language and the Hellenistic Christians were the ones who speak both lan-



guages and understood the both culture. Today, English is the world's language and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have a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western culture as well as eastern culture.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have their roots of faith in Korea. It is the peculiar combination that makes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fit for the world mission more than any other people in the world.

The world is shrinking. Now we can sit any part of the world and talk to anyone in any part of the world through cellular and long distance lines. We can watch an event hap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almost instantly.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world is becoming one community. The whole world cannot live with each other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nd society. We are living in a time of globalization in all things.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the world is demanding leaders who understand the world, not just their own locality, but the world. Narrow ethnocentricity cannot be tolerated in this world of globalization. We cannot make a local boy a leader of the world unless he understands the world, its language and culture in all areas of life.

How can we understand the world culture and world language? Is there anyone who is capable of it? What is the world language and world culture? Historically there are two cultures. One is western culture and other is eastern culture. They are distinctively different. Once Rydyard Kipling said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 and they shall not meet together□ There is a word of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in culture, language, way of thinking and way of living. Especially the way of thinking between East and West seem like opposite poles. The western mind cannot understand the Eastern mind and Eastern minds have hard time understanding the Western way of thinking. There is a profound difference between the Western way and the Eastern way. It appears that they will never meet together. That is why Kipling made such a statement. But I dare say he was

wrong. Now we are living in a different kind of world. This world is becoming one community and the East and the West are coming together. There is no way to avoid this. But I believe East and West are meeting together especially in the lives of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than in any other place, because their heritage come from the east and their current environment now living is the West.

If you are going to be successful in any realm of life, in this shrinking world of globalization, you need to negotiate a world which is made up of both East and West. In fact, if you understand both the East and the West, you understand the world. Historically world culture has been divided into East and West.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East and West at the same time. It is easy to understand another language and another culture within the East or within the West, for they are essentially the same.

It was divine providence that the West received the Gospel first before the East. The West had responsibility to give the Gospel to the East. But why did many of the Western missionaries fail in doing the mission work in the East? It is becaus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Eastern culture and the Eastern mind. They failed because they rather tried to coerce the Western way to the Eastern mind without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the way they think. Even today the reason many of the Western businessmen are failing to deal with the Eastern counterpart i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the Eastern culture and Eastern mind. In this shrinking world of globalization, the world demands leaders who understand both East and West. Otherwise they cannot be effective missionary. You must understand both East and West and both culture and both languages. To be sure you must be bi-lingual and bi-cultural person in order to be an effective leaders and successful in this world, not only in mission field but also many areas of business because the whole world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s becoming closely inter-dependent.

## II. The Uniqueness of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 1. How are they different from Koreans who grew up in Korea? How are they different from Americans who grew up in America?

In comparison to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the younger generations who are growing up in Korea today cannot escape their provincialism and localism even if they may speak fairly fluent English. Korea is highly mono-racial, mono-cultural, mono-lingual society. Such a society has its own strength but it does not provide any cross cultural experience for those growing up in Korea. Therefore, young people growing up in Korea lack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awareness. Korean young people may come over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for a few or several years but unfortunately most of them do not learn "America" in a deep sense of its culture. They are usually too busy getting their degrees in order to go back to their own country. I must say only few people really get to know America. In order to really know America, Korean young people need to come to this country when they are young, possibly not later than the late teens, and mix with American students in every areas of life. But there are how- ever very few who do that.

For those American young people who are growing up in America, although they live in multi-ethnic, multi-cultural society, they do not have such opportunity because they do not seek such an opportunity. America is a vast empire where you don't need to speak any other language but English. Therefore, most of American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learning any other language or culture. Indeed, they do not need to learn.

But the Korean Americans young people are different. They have to live constantly in two worlds, one East-

ern, other Western. When they are in school they have to speak English and have to get along with classmates who are all Western. When they come home, they have to face their first generation Korean parents and live according to their custom and culture. Most of them live in two cultures and two languages. So,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will provide the most fertile ground for the world's spiritual leadership if awakened and trained.

### 2. What is the purpose of God for sending Koreans to America is very significant.

The first generation could only struggle to establish themselves in America economically. They had neither language nor culture to be in a leadership role in this society. But they have raised the second generation, who is equipped with almost everything, who is trained in both cultures and both languages. There is no doubt it is why God has sent Koreans to America so that they may raise up the 21st century' s missionaries and world leaders in this ever shrinking world of globalization in every realm of work and every comer of life.

Therefore, I believe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should be keenly aware that they are in a most privileged position in this world which is demanding their services for God. They have more to give to America and Korea than to take. With their bi-lingual and bi-cultural understanding, they must understand their God-given identity as Korean Americans in order to be used in this time for God' s work in the world.

## III. The strategy for the World Mission through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1. Reaching out for American people (black and white) I believe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are in unique position to reach out to America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merica is not what it used to be. It is rapidly losing its dynamic spiritual power and zeal for the mission it used to have. It is rapidly becoming a mammonistic society where money is God. Look at the problems of this country: teen pregnancies, abortions, AIDS, drugs, homosexuality, sexual permissiveness, divorce, racial problems, etc. It all boils down to one big problem which is called "sin" or independence from God" which is a slavery to Satan.

This country needs another great spiritual awakening repenting their sins and coming to Jesus Christ. I believe our second generation can have the vision to be the second Puritans of this country just as we the first generations feels we are. I believe it is our responsibility to revive America spiritually once again. That is why God has sent us to this country as the latest immigrants and raise up our second generations Korean-Americans.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are truly Americans who can penetrate into all realms of life and position of life in this country and become like the second Puritan. In order to do that, you must love this country and believe that God will use America to reach out to the world as the Rome in its day was used to reach out to the world. You should know that you are privileged to be Korean-American second generation.

In most of the reformed seminaries in America, Korean-American students are anywhere between 15 to 30 percent in numbers. It is increasing every year. Why is God sending so many Korean Americans to the seminaries? It is obvious God want to use them for His work in this country and abroad. Some say there are not enough Korean churches for them to serve but I would say there are many American churches they can serve. I believe Korean American theological students should not limit their work only among the Koreans or second generation Koreans but they must consider serving the white congregations as well as black congregations in America. I believe we hav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give them. In fact the whole world is waiting to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 2. Reaching out for the world.

If we can reach America with Jesus Christ, then reaching out to the world with the Gospel of Christ would be much easier, because America is the Rome of 20th century. All the roads of commerce, air lines, politics, and world diplomacy lead and connect to the United States. I believe United States will act as the leading nation in the world until Jesus returns.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hat you are Korean-Americans who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peaking English which is the world language. So you are a specially privileged class. God has put you that way. But why? To accomplish the world mission. May God give you the vision and use all of you greatly in His plan for the world. Amen, impossible to please my missionary father. It was students like you who loved me into the kingdom. Students have always provided leadership for older adults around them. Most of the revolut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recent history have been started or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tudents.

In Romania, for example, a 14-year-old daughter of a pastor shamed her father into taking a stand against the evil regime, a courageous one that could have cost him his career and might have cost him his life. That began the revolution. In Bulgaria, one of the students in our summer program, who eventually became a Christian, was actually the student who led others in a demonstration on his university campus that spilled out into the streets, was joined by workers, and brought down the evil regime in that country.

The whole modern missions movement w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by students. Over 20,000 students committed themselves to missions through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Out of the last five Urbana student mission conventions, 67,891 delegates have turned

in decision cards indication their commitment to world missions. The revivals that have taken place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have often begun with students. When I was a missionary teacher in Papua New Guinea, high school students came to me and asked me to teach them to pray. We began praying together early in the morning. The group grew, and eventually it burst out into a chapel at the high school.

We spent all one day and most of the night, and it spread out into the missionary community. There has been a revival among Christian campuses and some universities in the 50s and 60s that resulted in a wave of missionaries. Recently I spoke at the Wheaton Christian Fellowship, which was running upward of 600 every Sunday night. They had just had their missions emphasis week, and George Verwer, one of our speakers at Urbana 96, was the featured speaker. Whereas normally they have 70 response cards indication commitments to missions, they had this year well over 700 responses. The prayer goal of the students in the World Christian Fellowship is that half the student body at Wheaton will attend Urbana 96.

Another reason I expect a great deal from your generation is that students can go anywhere. A group of students was welcomed in North African Islamic country of Tunisia. They were housed in the homes of their Tunisian student hosts. They spent the summer with these Tunisians. One of the Americans was a convert from Islam. Her host family spent the summer tenaciously trying to convert her back to Islam. You know what she talked about- her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Students and other young adults are doing excellent mission work I have said. Your generation is more or less color-blind. Our summer teams are 25% or more minority students. One team was in a small Ukrainian town called Nizhyn. This was the first group of Americans to come to their community. The hosts spent the day with our students. At the end of the day they had a

press conference, which meant that anyone in the community could ask an American a question.

A man stood up and asked, "I'm curious; I've got to ask this question. I've noticed that you people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and yet you seem to like one another. You might even love one another. You have fun together; you socialize together; this is truly remarkable. In our country, we have differences and we hate one another. We never associate one another. Don't you have any radical prejudice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students got up to answer. She said, "Yes, we have racial prejudice in the United States. I grew up in the projects in Atlanta, and people tried to convince me that we blacks were inferior to whites. I hated whites. But if you see a difference in our group, it is because we are followers.

### 13-11 국제팀과의 사역

마크 브래들리 / OMF International 선교인력 디렉터

Mark Bradley, Director for Missionary Personal for OMF International's U.S. Office, is a good Bible teacher with a warm style and years of cross-cultural experience. Mark developed Serve Japan, OMF's summer missions program that uses teaching conversational English for evangelism,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es for short term workers in Japan.

#### 1. Introduction

- 1) What Makes a Team Multicultural?
- 2) The Multicultural Team (MCI) Context

#### 2. Why Bother with MCTs?

- 1) Pros
- 2) Cons

#### 3. Critical Factors of Being a Successful MCT

- 1) Perspective on:
  - ① The Nature of the Task
  - ② Influence of Cultural Values
  - ③ Influence of Personal Values
- 2) A Healthy Respect for Others
- 3) A Commitment to God's Glory First and Foremost

#### 4. Introduction to Team Dynamics

#### 5. An Overview of Bask Values in:

- 1) Responding
- 2) Organizing
- 3) Making decisions
- 4) Accomplishing
- 5) Preparing
- 6) Performing

#### 6. Some Unique Challenges Facing Korean-American Missionaries

- 1) Attitudes of Some Western Missionaries - Guess What? You're not really Western
- 2) Expectations of Some Missionaries from Korea -Guess What? You're not really Korean
- 3) Expectations of Some in the Target Country

#### 7. Some Unique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 Missionaries

#### 8. Conclusion - Is this trip necessary?

### 13-12 북미주 출신 한인 여선교사의 고백

백은영 / PWM 필리핀 선교사



Grace Paek was sent by Partners for World Mission(PWM) as missionary to Philippines and served from 1990 to 1995. She went Smith College and earned M.A. in Christian Education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nd TESOL Certificate at Azusa Pacific University. Grace now serves as missionary in Furlough.

#### ISSUES BEFORE AFTER

#### 1. Individual Assessment

- 1) Personal
- 2) Spiritual
- 3) Purpose for the mission

#### 4) Preparation

#### 2. Field Assessment

- 1) Country
- 2) Culture
- 3) Strategies
- 4) Life Styles

#### 3. Role Expectations

- 1) As a woman
- 2) As a wife
- 3) As a mother
- 4) As a missionary

#### 4. Recommendations

- 1) Long and short terms
- 2) Korean-Americans
- 3) Women missionaries
- 4) Home missionaries



# 14.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 14-1 다국적 선교지에서의 가정 이슈

폴 넬슨 /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회장 및 CEO

Paul E. Nelson is President and CEO of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He earned his B.A. at Taylor University and M.Ed. at Wayne State University. His ministry involvements ar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and Wycliffe Service in Peru, South America.

### I. History of families in missions

1. Religious orders
2. Modern missionary movement
3. Contemporary shift in perspective

### II. Biblical models for families in ministry

1. Mary, Joseph, Jesus (Luke 2:43-52)
2. David, Adonijah and Absalom ( 1 Kings 1:6)
3. Solomon, Rehoboam (1 Kings 11:1-4)
4. Hezekiah, Manasseh (2 Kings 20:16-19)
5. Eli and Samuel (1 Sam. 2:12 and 1 Sam. 8:3)
6. Conclusions from examples
  - 1) God still prospered ministry
  - 2) Children and succeeding generations suffer

### III. Four views of families in ministry

1. Family and ministry (dichotomy)
2. Family versus ministry (adversaries)
3. Family in ministry (partnership)
4. Family in ministry (godly living)

### IV. How have Western missionaries handled family responsibilities?

1. Leave the family behind
2. Family accompanies husband to the field
  - 1) Exposing the family to risks
  - 2) Handling education
3. Boarding schools for missionary kids
  - 1) in the region or country of service

### 2) in the home country

4. Non-boarding day schools
  - 1) Single mission sponsor
  - 2) Cooperative sponsorship
  - 3) Parent controlled schools

### V. The Resilient Family

1. Accord (balanced interrelationships)
2. Celebrations
3. Communication
4. Financial Management
5. Hardiness (the capacity to rope)
6. Health
7. Leisure Activities
8. Personality (acceptance of differences)
9. Support Network
10. Traditions
11. Tune and Routines

### VI. What do we want our children to be?

1. Culturally
2. Spiritually
3. Socially
4. Academically

## 14-2 선교사의 가정사역

이종표 / 한신교회 담임



한신교회 담임목사로 설교, 행정, 심방, 교육 등의 전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이종표 목사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별세의 지도자」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창조하셨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목회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먼저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한다.

## 1. 가정의 본질

## 1) 가정의 시작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인간창조의 반복적 사건이 아니고 가정이 창조되는 신비를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의 완성을 가정에 두셨으며 가정에서 에덴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 2) 가정의 중요성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약속이요 터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세계는 오직 가정밖에 없다.

## 3) 가정은 교회의 모형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이요(롬 5:14),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다(엡 4:25).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여자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교회가 탄생되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니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최초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이다.

## 2. 가정과 교회

## 1) 가정은 이상적 교회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는 서로 사랑함으로 신랑 신부가 되어 창조의 신비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 가정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먼저 실천해야 할 목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 2) 가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성장이라는 가시적 추구 때문에 교회당에 모이는 데만 힘쓰고 있다. 많이 모이면 최고의 목회라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사업을 이루어내면 성공으로 여긴다. 그러나 목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목회란 교인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의 행복을 위하여 목사는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가정과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열심있는 교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고 경제적 헌신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심지어 교회행사 때문에 가정일을 등한히 하다가 결국 가정파탄에 이른다. 가정에서 사회, 경제생활, 인간화목의 생활을 자유롭고 규모있게 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이다.

## 4) 집에 세워져야 할 교회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에 가정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가정교회가 타락할 때 예수께서 친히 집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으니 성령은 가정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집에 세웠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행 16:15),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고전 16:19). 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하였다(골 4:15)

### 5) 가정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신앙공동체는 가정을 교회화하는 것이다. 만약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교회당처럼 큰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교회당이다. 가정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 3. 목사와 가정

### 1) 목사의 가정은 작은 교회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먼저 행복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행복한 복음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목사는 가정을 먼저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 2)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목사의 책임

신랑이 신부를 만남은 행복하기 위함이고 창조의 생명을 번영케 하는데 있다. 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목회라면 그만두어야 한다. 교회의 행복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는데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인들은 신부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예수를 예표하는 신랑의 모형이다.

목사는 자기 교인들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은 일체감을 이루는 사랑이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듯, 예수에게서 교회가 나오듯, 목사에게서 자기 교인이 나온 것처럼 자기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 4. 목회와 가정사역

### 1) 가정은 제자양육의 학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다. 인류생존의 번영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교회가 되면 태어나는 자녀는 자연적으로 교인이 된다. 어머니는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 진다. 부모는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길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해산하고 양육하는 영적사명이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 2) 가정을 교회로

가정에서는 사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진다. 부모의 권위가 있으나 약한 자가 대접을 받는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가 우선이다. 이런 윤리와 도덕은 교회가 가정화됨으로 실현되는 자연적인 질서이다.

목사는 교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교회학교요, 가정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처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임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현장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요 성전이다.

### 3) 가정의 분위기의 예배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행복을 나누는 가정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예배 분위기는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교회당에 들어갈 때 안방에 들어가는 포근한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이처럼 안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5. 가정과 사회

### 1) 가정은 공동체의 원형

가정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인간공동체이며 동시에 인간사회의 기본단위로 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사회공동체가 조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는 가정이 건설하지 않고는 기초없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나 사회의 집단은 가정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2) 이상적인 세계는 가정공동체

지금 교회가 실천해야 할 모든 계명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인류에게 가르쳐야 할 최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민족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가 섬긴 공동체를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

다. 사회의 기업가가 회사를 가정으로 생각하고 사원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섬긴다면 오늘의 모든 노사문제가 해소되어질 것이다.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최대의 메시지이다. 인류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 인류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갈 때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4-3 선교사 가정의 갈등해결과 예방

김만풍 / 위상톤지구촌교회 담임



위상톤지구촌교회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김만풍 목사는 남침례신학교 상담학 객원교수로 국제전도폭발 북미주 한인사역 대표로도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의 가정, 교회,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하느냐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눈을 감고 보지 않고, 막고 틀지 않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앓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말고는 한번 와 보시기를 바란다. 아니. 그런 사람이라도 오신다면 은근히 환영할 것이다.

1. 갈등의 정의

서로적인 혹은 반대적인 욕구나 반응의 경향들이 둘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2. 갈등의 요인

- 1) 선천적인 요인
- 2) 후천적인 요인
- 3) 현재적인 요인

3. 갈등에 대한 반응

- 1) 회피
- 2) 부인
- 3) 망각
- 4) 포기
- 5) 공격
- 6) 해결

4. 갈등해결의 방법

- 1) 후퇴
- 2) 승리
- 3) 양보
- 4) 절충
- 5) 해결

5. 인간관계 갈등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제언

- 1) 갈등을 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 2) 피할 수 없는 갈등은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3)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을 익혀두십시오.
- 4) 더불어 사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전도서 9:9)

### 14-4 선교사의 영성관리

이상남 / 한인등대교회 담임



한인등대교회의 이상남 담임목사는 매년 1회씩 한인등대교회 선교부에서 단기선교훈련으로 중국 연변, 소련, 칠레, 멕시코 등지에 단기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성결교신학대, 송전대, 서울신학대를 거쳐 C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여러 책을 집필했다.

1. 인간의 세가지 구성요소 (창 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킹제임스 성경)

2. 인간의 삼중타락과 예수님의 삼중회복

- 1) 첫 아담 인류 시조의 범죄 타락 (창 2:16-17, 창 3:6-7, 롬 5:12 참조)
- 2)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삼중회복 (창 3:15, 창 3:21, 고전 15:45 참조)

3. 인간구원을 위한 삼중선교전략 - 초대교회 사도들의 삼중선교전략 (행 6:1-6 참조)

결론 - 선교사의 영성관리

### 14-5 선교사의 건강관리



배영섭  
의료선교



최용규  
의료선교



유효명  
의료선교



장현식  
의료선교



임영규  
의료선교

### 14-6 선교사의 윤리와 협력

손봉호 /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로 서울사대 사회학 교수이며 서울영동교회 설교사역자로 봉사하고 있다.



### 14-7 선교사의 자녀교육



이순영  
선교사



김신숙  
이집트 선교사



이옥선  
선교사

### 14-8 선교사의 협력과 팀사역

황윤수 / 태국 선교사

동남아 태국선교회 회장으로 십여년간 태국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 14-9 선교사역의 갈등과 해소방안

이장식 / 선교사

### 14-10 선교지의 신학교수 양성방안

김종국 / 인도네시아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 14-11 선교지의 신학교 사역

정광호 / 아프리카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회 소속 케냐 선교사로 신학교 사역에 큰 성과를 얻고 있다.

## 14-12 비거주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김영자 / 인도 선교사



인도 선교사로 인도 사역 뿐 아니라 스리랑카 등 비거주 선교사로도 크게 활동하고 있다.

## 14-13 선교지의 기도학교 운영

김정복 / 예본교회 담임



김정복 목사는 예본교회를 담임하면서 World Mission Crusade for Christ (WMC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고 WTC 기도학교 담임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연세대/대학원을 나와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를 거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대학생 단기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옥중서신」, 「로마서」 등의 저서가 있다.

1. 서론
2. 기도학교의 정의
3. 기도학교의 필요성
4. 기도학교의 특징과 목적
5. 기도학교의 운영 및 강의계획
  - 1) 강의시간
  - 2) 기도실천
  - 3) 강의내용(성경적 기도)
    - (1) 예수님의 기도생활, 기도명령, 기도방법
    - (2) 제자들의 기도생활
    - (3) 친구약에 나오는 기도의 예
    - (4) 기도란 무엇인가?
    - (5) 기도의 내용
    - (6) Q.T.의 이론과 실습
    - (7) 기도의 목적과 원칙
    - (8) 기도의 중요성
    - (9) 기도하는 습관
    - (10) 기도의 평등과 자유
    - (11) 기도의 응답과 무응답
    - (12) 언제 기도할 것인가?
    - (13)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 (14) 새벽기도
    - (15) 금식기도
    - (16) 방언기도
    - (17) 신유기도
    - (18) 안수기도
    - (19) 예언기도
    - (20)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의 모습들
    - (21) 기도의 형태와 종류
    - (22) 기도의 사랑

## 14-14 설교와 선교

나광삼 / 워싱턴북부장로교회 담임



워싱턴북부장로교회를 담임하며 전국적인 부흥집회 인도자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워싱턴북부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나광삼 목사는 총회신학을 나왔으며 모범적인 목회자와 부흥사로 크게 쓰임받는 중이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단에서 증거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성경본문이 같거나 설교내용의 줄거리가 비슷하게 설교가 전제되면 증거하는 목회자는 망설여지고 또 듣는 사람의 생각에도 "저 설교는 지난번에 했던건데 재탕하는구나." "저 설교는 부흥회에 강사님이 했던 것을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하는구나," "또 저 설교를 하는구나. 목사님이 설교준비를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목사는 약해지고 듣는 사람은 설교판단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언컨데 하나님의 말씀에 "재탕이다" 혹은 "또 그 설교다"라는 표현이나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언제나 생명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하여 먹는 음식도 항상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몸이 약하거나 병들면 같은 약을 병 낫고 강건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먹습니다.

하물며 귀한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치료하고 캄캄한 인생길가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강단은 재탕교가 풍성해야 하고 거리낌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탕설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건해지고 열매맺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증거하시는 분들은 힘을 내셔서 재탕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은 재탕설교가 하늘의 보약, 하늘의 양식으로 믿고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아 먹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 14-15 성경암송과 선교

홍춘만 /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홍춘만 목사는 서울대 물리과대학(B.S.)을 나와 서울보성여고 교목으로 있었고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였다. 저서 「성경암기특수비결」이 있다.

## 14-16 최고의 사랑, 선교사에게 묻는 세가지 질문

정필도 / 수영로교회 담임



수영로장로교회에서 시무하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 통신대학 재단이사 ACTS 이사, 부산선교협의회 회장, 국제기아대책위원회 이사, 학원복음화협의회 회장, 중국선교회 이사장, OM국제선교회 이사과 수영로세계선교회 총재를 맡고 있는 정필도 목사는 서울대 총회신학원을 거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은혜 위에 은혜」 등이 있다.

[롬 5:5-10]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요 15:13)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롬 5:10).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은 왜 선교사가 되었나?

떨망할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지 아니했던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귀하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을 위해 그것도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최고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첫째, 전적으로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둘째, 사랑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선교사들에게 묻고 싶은 세 가지 질문

1) 여러분은 왜 선교를 시작했는가?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 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2) 여러분은 선교를 사랑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사랑없이 선교를 했다면 이것은 샅꾼이거나 날강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그 인격이 파괴되고 있다. 선교사들간에 협력이 안되고 있다.

3) 여러분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가?

왜 불만이 있는가?

그 원인은?

왜 원망을 하는가?

그 원인은?

그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 대가를? 사랑을? 명예를? 칭찬을? 지상에서의 영광을?

모세는 내세의 상급을 위해서 지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버렸다(히 11:23-26)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았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바라는 대가는 선교의 열매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열매

예) 사도 바울의 기쁨

빌 4:1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살전 2:19-20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립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나 지금까지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된다고 선교를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말라! 늘의 양식으로 믿고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아 먹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 15. 단기선교

## 15-1 단기선교운동의 새 경향

전희근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



전희근 장로는 서울의대와 펜실베니아 의대를 나와 1984년부터 인도네시아, 케냐, 인도, 자이레, 스와질랜드, 러시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페루, 에쿠아도르에서 단기선교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바이블칼리지,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하고 WMM 소속 단기의료선교사로, AIM (Africa Inland Mission) 미국 이사, 풀러신학교 의료선교학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페루의 세미한 하나님 음성」, 「의료와 선교」 등이 있고 현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 1. 이론

## 1) 서론

현대선교의 특징 중의 하나로 단기선교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 특히 단기선교를 다녀온 사람 중 약 25%가 장기선교사가 되며 장기선교사 가운데 약 75%가 이전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단기선교의 의의는 더욱 크다.

## 2) 단기선교의 목표

단기선교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선교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막연하게 복음전파를 목표를 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새롭고 적절한 목표를 강구해야 한다.

새로운 단기선교의 목표 - 개인의 변화, 교회의 변화, 선교사 후원

## 3) 단기사역의 종류

## 4) 단기선교의 장단점

## 2. 실제

## 1) 한인 단기선교의 현황 (단기선교사 설문조사 1991년)

단기팀 - 얼마나 자주 오면 좋은가?  
단기팀 - 적절한 구성인원수는?  
단기팀 - 적절한 사역기간은? 등등

## 2) 한인선교사의 스트레스의 원인 (한인선교사의 설문조사 1993년)

선교사를 후원하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후원을 해야 된다.

## 3) 단기선교 준비

- 출발 전  
- 현지에서  
- 귀국 후

## 4) 평가

## 15-2 단기선교의 원동력

이용걸 / 영생장로교회 담임



펜실베니아 영생장로교회의 담임인 이용걸 목사는 총신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등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러시아와 남미 여러 나라 선교지를 방문, 교역자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해 오고 있다. 저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강해설교집이 있다.

### 15-3 국제선교단체 단기선교훈련의 실태

레스 언뤼 / SIM 단기선교 코디네이터



Les Unruh has served with the SIM for the past 28 years. The first eight years were spent in Ethiopia involved in church planting. Then he served in Liberia reaching out to the Gola tribe in Northern Liberia. Now he is working in U.S. office serving as the International and US short term coordinator.

### 15-4 한국교회 단기선교의 실태

배순호 / 서울 사랑의교회 선교위원장



서울사랑의교회에서 선교위원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배순호 위원장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선교를 총괄하고 있다. 국제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무디성서신학원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전공했다.

#### 1. 단기선교의 정의

- 1) 선교여행 (Mission Trip)
- 2) 단기선교훈련 (Short-term Mission Training)

#### 3) 단기선교사역 (Short-term Mission Ministry)

#### 2. 단기선교활동의 현황

- 1) 북미주교회
- 2) 한국교회

#### 3. 단기선교의 문제점

- 1) 현지문화 이해부족
- 2) 선교지 언어에 대한 준비 미흡
- 3) 순수한 동기 결여
- 4) 과도한 선교비
- 5) 지역편중현상
- 6) 장기선교사 사역의 이해 미흡
- 7) 선교전략 미흡
- 8) 사역의 지속성 결여

#### 4. 단기선교의 효율적 운영방안

- 1) 동기진단
- 2) 선교단체와의 충분한 상의
- 3) 목표설정
- 4) 업무확정
- 5) 사명인식
- 6) 사전훈련
- 7) 경험정리 및 사후보고회

#### 5. 단기선교가 갖는 교회의 선교전략

- 1) 파송교회 인식제고
- 2) 훌륭한 선교교육
- 3) 제자훈련연장교육
- 4) 효과적 선교사 지원
- 5) 예비선교사 양성

#### 6. 결론



## 15-5 지역교회의 단기선교 훈련방안

정강현 / 워싱턴중앙장로교회 중앙선교회 선교목사

워싱턴중앙장로교회의 중앙선교회에서 선교목사와 총무이사로 일하는 정강현 목사는 선교에 대한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Washington Bible College와 Dallas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했다.

### 1. 단기선교의 목적

- 1) 단기선교훈련을 통해 개인적인 선교관을 확립한다.
- 2) 개인적인 선교관을 통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선교에 동참한다.
- 3) 선교지와 나와의 관계를 좁혀 선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다.
- 4) 훈련을 통해 선교지의 잃은 영혼들에 대한 구체적인 열정을 소유한다.
- 5) 선교지와 선교사의 사역에 보조역할을 담당한다.
- 6) 보고를 통해 온 교회를 선교로 깨운다.

### 2. 단기선교의 진행과정

- 1) 계획 2) 훈련 3) 파송 4) 현지사역 5) 보고 6) 평가 7) 점검

### 3. 단기선교의 실제 훈련과정

- 1) 계획과정 - 선교지와 지역교회의 초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훈련에 들어간다.
- 2) 훈련과정
  - 영성훈련(Spiritual Training) : 영성을 높이며 전적 성령에 의지한 사역을 준비한다.
  - 언어훈련(Language Training) : 언어훈련을 통해 실제 복음제시를 그들의 언어로 시행한다.
  - 지역훈련(National Training) : 타문화를 익히며 타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 육체훈련(Physical Training) : 선교지에 익숙한 체력을 단련한다.
- 3) 파송과정 - 온 교회가 성령에 의지하여 파송되어 가는 선

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확인한다.

- 4) 현지사역과정 - 현지 지도자의 계획과 명령하에 현지사역에 필요한 사역을 도우며 겸손과 사랑을 무기로 현지인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 5) 보고과정 -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행한 일들을 보고하여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선교의 시급성을 온 교회에 알리어 함께 도전을 나눈다.
- 6) 평가과정 - 모든 선교일정 전반을 평가하여 차후의 시행착오를 막을 뿐 아니라 다음에 가는 단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 7) 연장선교과정 - 선교훈련과정 뿐 아니라 선교사역이 끝난 후에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며 돌보듯 교회중심으로 연장사역에 심혈을 기울인다.

### 4. 단기선교가 주는 잇점

- 1) 단기선교는 개인적, 교회적으로 세계선교관을 넓혀준다.
- 2) 단기선교를 통해 장기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3) 단기선교를 통해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 4) 단기선교를 통해 교우들 간에 팀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5) 단기선교를 통해 타문화를 배우며 이에 도전하여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 5. 단기선교훈련의 문제점

- 1) 선교정책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2) 선교훈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3) 팀사역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4) 개인적인 선교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15-6 단기선교여행에 필요한 건강상식

김영남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선교부장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선교부장이며 단기로 선교에 많은 경험이 있다.

## 15-7 북미주한인교회 단기선교운동 실태

이데이빗 / 샌프란시스코 EM 목회자

## 15-8 단기의료선교 사례보고

전희근, 김영훈 / 의료 선교사



**전희근** : 전희근 장로는 서울의대와 펜실베니아 의대를 나와 1984년부터 인도네시아, 케냐, 인도, 자이레, 스와질랜드, 러시아, 브라질, 방글라데쉬, 페루, 에쿠아도르에서 단기선교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바이블칼리지,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WMM 소속 단기의료선교사로, AIM(Africa Inland Mission) 미국 이사, 풀러신학교 의료선교학 객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페루의 세미한 하나님 음성」, 「의료와 선교」 등이 있고 현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김영훈**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의 시무장로이며 아프리카 단기의료선교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육과 영을 함께 건지는 양수검장의 선교전략이다.

선교현지에 병원을 짓고, Clinic을 짓고 혹은 계속되는 이동진료 등을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자체의 사역이 되지 않는 한, 계속되기도 힘들고 아무리 많은 약품과 물자를 톤으로 퍼부어도 "밀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사역이 되고 말며, 더 중요한 전도와 제자훈련도 어렵게 되고,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꺼져버리고 만다.

또한 요즘은 많은 선교지들이 정식으로 선교사역을 허락치 않아서 교회설립이 불가능한 곳도 많이 있으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선교현지의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예방의학과 진료를 겸한 의료사역을 통해 전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풀어가면서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양육을 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을 Community Health Evangelists(CHE)로 훈련시키며, 이들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가가호호 심방하면서 육과 영을 함께 건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선교전략이다.

이 사역이 자기네 지역사회에 사역이라고 소유의식을 갖도록 Committee를 형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미 개척된 교회가 있을 때 교회 내에 Committee를 두고 CHE들을 훈련시켜 교회가 계속 부흥발전케 되고, 교회가 없을 때는 그 지방 유지들로 Committee를 구성하여 이들을 먼저 전도하고 훈련하도록 하고 또 CHE들을 훈련한다.

이 선교전략은 성경의 '큰 계명'과 '지상명령'을 토대로 하여 육과 영을 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펴나가는, 어떠한 선교현지의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Flexible한 Model들이 있고, 특별히 의료인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크게 경비가 필요치 않은 새로운 선교전략이다.

## 15-9 단기선교를 통한 평신도선교 활성화



**이상진**  
KWMC 공동의장



**김병춘**  
평신도선교사



**권혁수**  
평신도선교사

## 15-10 단기선교를 통한 현지지도자 양성방안

양조섭 / 밀워키한인교회 협동 및 EM 목사



Joseph S. Yang is EM Pastor and Associate Pastor at Korean Church of Milwaukee. He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Illinois majoring Electrical Engineering and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he earned M.Div. And now he is Th.M. Candidate at Trinity School.

"Raising National Leadership Through Short-Term Missions"

1. Introduction
2. Importance of National Leadership in the Mission Field
3. The Need of Continuing Education for National Pastors
4. Current Options of Raising National Leadership
5. A Suggestion for Utilizing Short-Term Missions
6. Possible Benefits

## 16. 평신도/자비량 선교

### 16-1 전문인선교사의 역사적 고찰

크리스티 윌슨 / 고든컨웰신학교 교수



- Born and raised in Tabriz, Iran
- Master of Divinity degree from Princeton Seminary
- Doctor of Philosophy in Orient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Scotland
- Post-doctoral studies in linguistics at Columbia Teachers College and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City
- Former principal of an Afghani government high school
- Taught private English lessons to the Crown Prince
- Conducted an English course for Afghan diplomat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Former pastor of the Community Christian Church in Kabul
- Former chaplai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fghanistan

- Founded the School for the Blind in Kabul, along with his wife Betty
- 17 years of full-time service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of Missions and Evangelism, Dean of the Chapel, and senior program associate for the Adoniram Judson Gordon Center for World Missions through the Ockenga Institute, the seminary's distance lear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ministry).
- Former staff o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Dr. Wilson was instrumental in developing the first major IVCF Missions Conference, the forerunner of the triennial Urbana Convention, now the largest student mission conference in the world).

### 16-2 전문인사역을 통한 미전도종족 전도

최바울 / Inter-coop(한국전문인선교회) 대표



Inter-coop(한국전문인선교회) 대표

### 16-3 평신도의 세계선교참여의 문제와 해결점

유효명 / 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섬기는 유효명 장로는 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범세계 한민족 기독교 21세기운동 평신도선교위원장이며 논문은 「2000년대 의료선교전략」, 「평신도의 세계선교참여 - 문제점과 해결책」, 「평신도선교지도자 협력」 등이 있다.

#### 1. What: 지상명령의 완수 - 세계복음화

- 1) "제자를 삼으라"(마 28: 18-20), 막 16:15-16, 눅 24:47-48, 요 20:21, 행 1:8) "가라"(장벽을 넘다),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 2) "모든 족속": 개인 vs 족속 (문제점: 지상명령의 올바른 이해부족, 지상명령을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2. Why :

- 1) 하나님께 영광 : 모여서 영광 : 예배. 찬송 / 밖으로 나가 영광 : 전도와 선교 (예배는 선교의 Fuel이요 Goal이다)
- 2)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 Great Commandment
- 3) 예수님의 지상명령 : "Great Commission" - Great Commission Life Style

문제점 :

- 영적 빈혈증
- 영적 무감각
- 무관심
- 영적 자애증, 이기심
- 영적 비만증
- 상단 크리스찬

3. Who: 예수와 함께 (마 28:20), 성령을 받아 (행 1:8)

- 1) 제자들의 사명
- 2) 선교는 크리스찬(교회)이면 누구나(어느 교회나) 다 해야 할 일
- 3) 어느 특정의 소명받은 자만의 일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보편적 사명

문제점 :

- 선교는 선교사가 - 선교위원들이 - 특정인에 의해서,
- Compartmentalized Church Structure)

4. When :

- 1)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제자가 되면서부터)
- 2)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문제점 : 성전을 짓고 나서 - 교인이 200명이 된 다음에 - 성장한 다음에, 우선순위의 문제, 영적근시안, 교회현금사용 95%(Domestic Project), 4.5%(일반선교), 0.5%(미전도족속)

5. Where : 타문화권 ("장벽을 넘어서다"): 국내, 국외

문제점 :

- 선교사 배치 90%(전도족속), 10%(미전도족속), 10/40 Window
-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syndrome

6. How : 전략 (Strategy)

- 1) 교회선교정책 작성
- 2) 선교위원회 운영
- 3) 선교교육
- 4) 선교도서실, 선교잡지
- 5) 제자화 - 영적성장
- 6) 기도운동
- 7) 선교대회
- 8) 선교정보
- 9) 단기선교, 선교훈련
- 10) 전교인 동원 Mobilization

문제점 :

- 교회조직, 구조적, 운영의 문제 - "pie" organization vs. 'doughnut' organization
- "pea-sized" Christianity - Worldly Christian

### 16-4 지역조직활동을 통한 평신도선교 활성화

유재송, 황기수, 지영환, 김형응 / 평신도 선교가

### 16-5 평신도선교훈련의 방향과 문제점



**박문규**  
평신도선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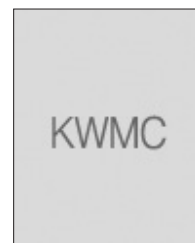
**홍은선**  
위클리프 선교사



**김정한**  
선미니스트리



**김옥규**  
평신도선교가



**홍석구**  
평신도선교가

## 16-6 직장선교

박흥일 / 세계기독교직장선교회 총무



박흥일 장로는 평신도 직장인들이 평일 중 직장에서 직장선교 신우회를 조직, 성경연구 및 기도, 전도 등 직장선교활성화를 통한 전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목표로 한국, 미국, 영국은 물론 세계 전지역에 직장선교를 확장 보급하고 있는 세계기독교직장선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 서울대/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발전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1. 정의 및 개념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직장선교, 세계선교

### 2. 최근 국제환경변화 동향

- 지역주의적 국제화
- 다자간 협력체제의 국제화
- 종교의 Bloc화
- 한국의 국제화
- 국제화의 불가피성

### 3. 국제화를 위한 일반 실천과제

- 의식의 국제화
- 가치관의 국제화
- 능력의 국제화
- 신앙의 국제화
- 선교의 국제화
- 정책, 제도, 계획 및 진행의 국제화

### 4. 직장선교의 역사 및 현황

- 직장선교의 역사 : 전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창립(1981), 워싱턴 직장선교협의회 창립(1991), 세계기독교직장선교회 창립(1993),
  - 직장선교의 현황
- 한국 : 26개 지역, 23개 직능직장선교연합회, 5000여개 직장신우회  
 해외 : 워싱턴, 매릴랜드, 뉴욕, 런던 등 4개 지역 직장선교연합회와 미주무예직장선교연합회(기조직) 및 산호세, N.C., Chicago, LA 등 추진 중

### 5. 직장선교의 기본목표 노선 및 특성

- 3대 목표
- 1)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2) 세계직장인의 복음생활화를 통한 세계 기독교 사회문화 창조

3) 국제 평신도 초교파 연합운동을 통해

- 4대 특성
- 1) 평신도(직장인) 중심
  - 2) 평일(6일) 중심
  - 3) 직장(사회) 중심
  - 4) 성경, 기도, 전도 중심

- 5대 기본노선

- 1) 말씀, 기도, 예수 중심의 순수한 세계직장복음선교운동
- 2) 국가나 여야를 초월한 국제적, 정치적 중립
- 3) 교파를 초월한 세계 초교파 평신도 연합운동
- 4) 노사관계에서 중간자, 조정자, 화해자적 입장의 촉매제 역할
- 5) 세계 직장인 교회의 세계선교 가교역할

### 6. 직장선교와 세계선교의 기본방향

- 국내외 선교활동 동향과 정보과약 및 협조기능 강화 → 세계선교정보의 네트워크
-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지향적인 직장선교활동 강화 → 21세기를 향한 직장
- 선교의 국제화, 세계화 → 세계선교
-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선교인재 양성훈련과 해외인력 최대 활용
- 국제직장선교협력의 강화 → 세계선교협력의 강화
- 21세기 태평양시대 세계선교의 주도국 건설 → 해외직장선교회 → 교민교회 → 전담목회선교사의 3각 협력관계 구축

### 7. 직장선교와 세계선교의 추진 전략

- 3대 선교표어
- 1) 직장선교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 2) 신앙과 정신은 한국인! 선교와 행동은 세계인!



3) 믿음과 기도로! 미래로! 세계로!

- 3대 추진방안
  - 1) 직장신우회 조직 (직장별, 직종별, 지역별, 국가별)
  - 2) Bible Study & Prayer Meeting
  - 3) 직장복음화 및 세계선교
- 3대 선교추진력(3M Power)
  - 1) Mind & Spiritual Power (영역)
  - 2) Man Power (인력)
  - 3) Money Power (금액)
- 3대 선교전략 :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통한 세계선교를 위해 전세계 기독교직장인이
  - 1) 1일 10분 기도하고
  - 2) 1일 1시간 선교하며
  - 3) 1개월 10 이상 헌금한다
- 3대 실천전략
  - 1) 나부터 실천하고
  - 2) 쉬운 것부터 추진하며
  - 3) 지금부터 실천한다

- 3대 격려성귀 : 직장선교와 세계선교의 꿈과 비전
  - 1)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
  - 2) 내 아들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삼상 26:25)
  - 3)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사 43:18)단기팀 - 얼마나 자주 오면 좋은가?  
단기팀 - 적절한 구성인원수는?  
단기팀 - 적절한 사역기간은? 등등
- 2) 한인선교사의 스트레스의 원인 (한인선교사의 설문조사 1993년)  
선교사를 후원하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후원을 해야 된다.
- 3) 단기선교 준비
  - 출발 전
  - 현지에서
  - 귀국 후
- 4) 평가

**16-7 실업인선교**

김세웅 / KWMC 실업인선교위원회 위원장

KWMC 실업인선교위원회 위원장이며 매릴랜드 베델교회 시무장으로

**16-8 간호사역을 통한 복음전파**

김정윤 / 탄자니아 의료선교사, 전미령 / 우간다 의료선교사



**김정윤**  
탄자니아 의료선교사



**전미령**  
우간다 의료선교사

1. 부르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전파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져야 한다. 복음을 듣는 이들 중 주님의 관심은 늘 아픈 병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눅 9:1-2,6, 눅 10:1-9, 눅 13:10-17 등등). 기독교인들이 지닌 전문성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성스런 능력의 권세이다(눅 9:1).

그러므로 주님은 특별히 의료선교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2. 쓰임받음

- 1) 적합한 도구로 쓰이기를 원할 때 먼저 영적무장이 철저해야 되겠고 전문의료직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및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타선교사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 2) 대부분의 세계 어느 나라든, 타 전문직보다 쉽게 입국할 수 있으며 특히 제3세계의 여러 나라는 실제 많은 수의 의료인이 부족하므로 환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용이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 사역의 범위가 어느 전문직 선교사보다 넓다. 의료기관, 학교, 선교센터 및 일반단체 소속으로 여러 모양의 도구로 사역할 수 있다.

3. 일함

- 1) 선교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의료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
- 2) 현지 의료인들로부터의 도움
- 3) 실제 사역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 4) 사역을 통한 기쁨과 감사

16-9 의료선교

박세록 / 한민족통일치유복지재단 국제총회, 장현식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훈련원 총무



**박세록** :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웨인주립대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박세록 장로는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 명예회장과 한민족통일치유복지재단 국제총회를 맡고 있다.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장현식**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훈련원 총무이며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섬기는 장현식 장로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평신도 운동과 북한의료선교운동과 더불어 1.5세 내지 2세 선교현신자들의 훈련, 양육, 파송에 특별한 관심과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 첫째 섭리

한국기독교는 세계선교 특히 아시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통계적으로 아시아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70-7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의 종교적 분포를 보면 모슬렘 4억4천5백만, 힌두 6억2천7백만, 불교 5억5천4백만 여기에 비하여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이 1억, 카톨릭 2억3천만을 합하여 2억3천만에 불과한 형편이다. 비율로 볼 때 세계인구의 33.7%가 기독교인인데 비하여 아시아의 기독교인은 8%에 불과하다. 이중에 인구의 25%가 되는 1천2백만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아시아 선교 즉 세계선교의 특별한 섭리를 받았다고 하겠다.

• 둘째 섭리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인을 훈련시켜주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인구의 대국인 중국, 경제 대국인 일본,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소련과 인접한 한국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냉전시대의 전초지가 되었던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켜 주신 것이다.

• 셋째 섭리

세계역사는 지금 대서양시대로부터 태평양 시대를 전환되고 있다. 서양문화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비하여 태평양 지역의 근면성, 희생정신 그리고 자기 일에 자부심 등은 높은 생산성을 이루고 있다. 태평양시대를 이끌어 갈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되겠지만 특히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한국은 세계역사를 이끌어 갈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 • 넷째 섭리

한국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1천2백만의 기독교인이 있음은 물론 해외 특히 미국에 있는 재미한인 1백50만 가운데 60%가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재미 한인교회만도 3500개가 된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국시민권을 소유하며 세계 어느 곳이든지 (북한을 포함) 갈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자기 백성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민족의 통일, 나아가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미국땅으로 보내주신 것이라 확신한다.

### • 다섯째 섭리

여기서 말하는 한국이란 남한의 경제와 기술과 북한의 순수한 노동력이 합쳐 세계를 향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통일된 하나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 • 여섯째 섭리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와 통일은 기독교정신에 의한 즉 복음을 통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 • 일곱째 섭리

북한에 있는 2천2백만의 우리 형제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철저한 일인독재 체제 하에서 극성한 식량부족과 극도로 제한된 자유 속에서 50년을 살아오고 있다. 고난을 통해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는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온 지하교인들은 세계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세계선교는 잘 훈련된 북한 기독교인들이 하게 된다는 말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을 돌보아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만이 세계 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심지어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보조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북한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될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의료선교

### (1) 왜 의료선교가 중요한가?

#### • 첫째 보편성

어떤 사회이든지 질병과 병고는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생명과 존재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치유와 의료는 인간생활에 될 수 조건이라 하겠다. 사상, 경제 또는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 • 둘째 실질성

병고에 시달리는 인간의 심리는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사랑과 봉사를 통한 복음을 받아 드리기 적합한 심리적 상태라고 하겠다. 의료선교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능하면서도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선교의 시작이라 하겠다.

#### • 셋째 효율성

기독교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의료봉사는 특히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북한과 제3세계지역에 소위 몸선교, 눈선교 등을 통해 선교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밖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다.

#### • 넷째 적십자 정신

전쟁 중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던 적군에게도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적십자 정신이야말로 의료봉사의 중립성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이렇기 때문에 의료봉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

#### • 다섯째 선교적 비전

특히 제3세계의 선교는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무질서하게 시작된 선교는 현재 과잉선교, 물질선교, 또는 뻘썩선교라는 말을 형성하게 되어 현지 정부 또는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까지 되었다. 특히 소련에서는 앞으로는 자선사업(병원, 양로원, 고아원, 재생원 등)을 하는 선교단체들만이 환영받고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현지 설정에 맞춰 시작된 의료봉사를 통해 앞으로 원대한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어 가는 현명한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 (2) 북한의 의료현황

낡은 건물, 부족한 의료 교과서 및 최신 문헌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전무상태인 의료기구와 약품은 옛날 해방직후 또는 한국동란 직후의 한국의 의료상태와 비슷하여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약이란 주로 동약(요즘은 조선 의약이라 부름)이라 하여 산에서 캐온 약재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거의 전부이다. 행정적으로는 군단위까지 완전 무상치료를 하는 조직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경제적,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실효성은 전연 없다 하겠다. 이런 가운데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영양부족, 어려운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간염, 폐결핵, 기생충병 등의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다. 여름 특히 수해가 날 때는 장질부사, 콜레라 등으로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딱한 사정이다.

##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

## (1) 설립경위

1988년 12월 박세록 장로, 장현식 장로가 북한의 의료형편을 도와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한의 의료현황, 그 내부를 보게 된 이들은 북한의 의료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통해 땅끝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의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1989년 4월에 디트로이트에서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를 발족하고 세계의료선교 특히 북한의 의료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 (2) 설립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천직으로 받은 의료봉사를 통해 병들어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기독교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함은 물론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현황

기존의 북미기독교사선교회와의 통합으로 한 단체로 되었고 현재 보스턴, 아틀란타, 시카고,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씨애틀 등지에 지부를 두고 있다.

## (4) 경과

약 50명의 회원들이 10차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하고 매번 방문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의료품과 기재들을 운반하였다.

최신 의학교과서, 세계의학연구보감 등 700권과 세계최신 의학문헌 등 총 2000여권의 책을 보내어 "기독", "선교"라는 단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좋은 결과를 이루어주셨다. 이 책들은 "인민대학습당"이란 3000석의 큰 중앙도서관에 특별 교수석을 따로 가지고 있는 귀중도서관에 진열되고 기독과 선교라는 찍혀 있는데로 북한 전국의 의사, 간호원, 약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쓰여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통하여 병원 침대 500개를 포함한 수술실(3개), 분만실(2개), 회복실(2개) 내시경 진단실, 중환자실 등 병원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료기재들을 서울에서 직접 남포로 실어 나른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다. 평양 제3병원이 500개의 병동을 가지고 지난 1995년 11월 22일 개원하고 개원예배를 드렸다.

미국에서 이동진료차 한 대를 보내어 의사, 간호사 그리고 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서 시골진료를 담당할 것이다.

지난 여름 심한 수해를 전염병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이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미국에서 서울 또 유럽에서 홍콩을 거쳐 (약 20만불 상당) 공수하여 병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극심한 식량부족 상태를 돕기 위하여 중국 단동을 통하여 밀가루를 실어 신의주, 북경 등지의 동포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WMR(World Medical Relief)을 통하여 모스크바 의료선교회, 중국 애덕사랑병원, 우크라이나 의료선교회 등에 집중적인 의료지원을 하였다.

## 평양 제3병원

지난 11월 22일 개원예배를 드리고 병실과 외래 진료실 등 500개의 병동을 갖춘 이 병원은 드디어 환자 치료를 하게 된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특히 그 안에 예배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의심치 않고 감격하고 감사하였다. 6년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과 북



잡한 세계정세, 남북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였다. 이제 제3병원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첫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늘 최선의 길과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넷째,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은 듣기에 별 대단한 것이 아니란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체험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드리는 진실된 간증이요 신앙의 기쁨이라 하겠다. 김일성 죽음 앞에서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절하지 않고 작은 신앙을 지켰던 일 등은 신앙의 승리와 믿음의 기적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때의 일을 간증하고 보고할 때는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평양 제3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지만 이것이 북한 선교의 하나의 요람이 되고 특히 그 안에 있는 예배실은 앞으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역도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조국의 금수강산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 미래비전

### (1) 평양 제3병원

최신식 첨단기술과 장비를 갖추어 북한의 의료센터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최고 권력자들을 치료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북한선교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20개의 이동진료차를 보급하여 의료봉사자들이 북한 전역 시골들을 방문하고 의료봉사를 한다. 교회설립, 의료기술 학교, 간호학교 설립, 제약회사 설립, 치과기공실 설립, 재활원 설립.

### (2) 북한 전역 교회 및 병원설립

나진, 선봉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교회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3) 한민족통일준비모임, 치유복지재단

우리 민족의 서로나눔, 특히 현재 극심한 식량부족, 의료부족 상태에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내에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전신으로 한 이 새로운 모임은 한국정부에서 법인으로 곧 인가가 날 것이며 국내 국외에 각 1만명의 기도회원을 모으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각 도시마다 많은 동역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4) 환태평양대학 및 의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2만명의 장병을 수용하던 해군기지가 폐쇄되면서 그 모든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불하받게 되었다. 여기서 세계선교, 지역사회봉사는 물론 한국의 세계화 교육, 한민족교육과 세계 환경, 정치, 도덕 정화 교육을 위한 민족대학이 설립되었고 현재 대학원(의학, 신학, 법학 등)은 설립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군병원도 곧 인수하게 되며 이것이 앞으로 의료선교와 봉사를 위한 의료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병원은 물론 의과대학, 경로원, 소망원 그리고 신앙건강원, 의료선교센터 등 의료전반에 걸친 세계의료선교의 센터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 남북한의 공동교육은 물론 의료봉사를 위한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많은 봉사자(일반 및 기술직)들이 필요하고 재정적 협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 북한선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열정과 과시, 자기만족을 위한 경쟁적인 선교정책은 이제 변화되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조용하고도 힘있는 북한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몇가지 사실을 진술함으로 결론을 내릴까 한다.

### (1) 먼저 자신을 알고 자기 주제파악부터 먼저 하자.

앞뒤를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정말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

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자는 말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신앙의 교만, 선교의 독선은 있을 수 없다. 오직 겸손과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회개와 감사만이 있을 뿐이다.

(2)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분명히 알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내가 해야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도구를 쓰이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이름은 감추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없이 바쁜 생업에 쫓기면서 그 먼길을 거쳐 평양을 다녀오는 것은 시간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더욱 모든 것이 역압되고 보기 딱한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다는 것은 답답하고 힘든 일이다.

한 번은 그 먼길을 가면서 병에 걸려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때 곁에 가던 젊은 미국 청년을 통해 성경말씀을 읽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았던 체험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늘 같이 동행하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말이다.

(3)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영혼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자.

세상의 복잡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떠나 신앙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 선교하자. 지난날의 나의 편견, 감정은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질 앞날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 사상 등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나 순수한 말씀전파와 복음전파에만 노력할 것이다.

(4) 우리의 형편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에 알맞게 선교하자.

성경책을 손에 쥐어 주는 것도 선교이지만 우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굶주림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지하교인들에게 자칫하면 우리의 물질주의, 자유주의 사공방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북한선교의 새로운 정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책이 수천권, 수만권이 배포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현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눈짓선교”, “몸선교” 등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분별없는 과잉선교가 선교자체를 방해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6) 세계선교

많은 선교지도자들이 앞으로의 세계선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때에 따라서 선교적 교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그 동안 50년 동안을 극단의 고통 가운데서 연단시키신 북한의 지하교인 또는 장래 선교사들은 세계선교를 맡을 필요충분한 자격을 갖춘 일꾼들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보호하여 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선교는 북한의 연단된 선교사들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후원과 도움이 합쳐질 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순종하며 최선을 다 할 뿐이다.



## 17. 특수선교

## 17-1 군경선교

목사군 / 군수사령부 기독교장로회 국제연락 담당

버지니아주립대에서 시장학을 강의하는 목사군 교수는 ACCTS(군인전도)의 이사, 군수사령부 기독교장로회(OCU) 국제연락 등을 담당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립대, 캔터키 주립대를 거쳐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농업시장경제로 박사를 받았고 「산 소나무」, 「농작물의 수요」, 「교회재정학」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1. 역사 및 성장배경 - 1) 시작, 2) 성장
2. AMCF 현황 - 1) 조직, 2) 목적, 목표, 전략
3. 한국 OCU의 가는 길

## 17-2 지체장애자선교 [1]

조니 에릭슨 타다 / JAF Ministries 창설자 및 총재



Joni Eareckson Tada 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JAF Ministries, an Organization accelerating Christian ministry in the disability community. A driving accident in 1967 left Mrs. Tada a quadriplegic in a wheelchair, unable to use her hands. She spent long months learning how to paint, holding a brush between her teeth. Today, she is an internationally known mouth artist.

## 17-3 지체장애자선교 [2]

임선숙 / 국제장애인선교회 총무이사, 김해영 / 보츠와나 선교사



**임선숙**: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 사모로 18년을 지내온 임선숙 선교사는 현재 국제장애인선교회 총무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KCBN 방송국에서 방송설교와 “기뻐하며 감사하며”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병원선교회도 담당하고 있다.

1. 장애인 선교의 인식
2. 장애인 선교의 필요성 - 1) 성경적 근거, 2) 장애인 선교회 실천방안
3. 장애인 선교회 참여 방법 - 1) 간접참여, 2) 직접참여
4. 미국 교포 안에 장애인 실태와 교회 참여 - 1) 재가장애인, 2) 병원, 3) 양로원



**김해영**: 장애인의 몸으로 보츠와나 그루터기 선교부의 기술학교에서 교감으로 학교의 모든 행정과 편물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해영 선교사는 불우한 환경으로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으나 불굴의 의지로 고,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또한 세계장애자기능올림픽에서 편물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1급 편물기능사이다. 현재 기술학교일 외에도 선교사로서 보츠와나 흑인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1.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역할
2. 청소년 장애인의 직업적 개발, 훈련 및 관리
3. 장애인 선교사로서의 선교현장 보고

## 17-4 구제선교

윤남중 /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이사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이사

## 17-5 농업선교

김대엽 / 칠레그루터기선교부 대표

불우한 환경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다 그루터기훈련원 11기생 훈련과정 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김대엽 선교사는 그 이후 국제기능인 선교학교를 마치고 이미 기능인 선교사로 먼저 파송받은 백귀현 선교사와 결혼, 칠레에 합류하여 사역을 시작했다. 지금은 칠레그루터기선교부 대표를 맡고 자비량사역으로 선교농장, 미싱자수업, 선교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션스쿨을 건축 중에 있다.

1. 평신도 기능인선교사로서의 부르심
2. 대상의 모양으로서의 선교접촉
3. 자비량사역으로서의 농업선교
4. 새로운 선교전략

## 17-6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선교

바스 밴더잠 / World Relief 국제사역 부회장



Bas Vanderzalm currently serves as the Vice-President for International Ministries of World Relief, development and refugee services arm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A graduate of Calvin College (B.A.), Andover Newton School of Theology (M.Div.), and Boston University (M.B.A.), Bas served with World Relief since 1982.

## Community Development And Missions

Most of those who have not yet heard the gospel live in poverty. To reach these people we must address physical needs as well as spiritual needs. This seminar will provide you with tested community development principles and strategies that you can use to design and carry out effective missionary outreach efforts to the poor.

## 17-7 선교사역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도

김영훈 / 단기의료선교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의 사무장로이며 아프리카 단기의료선교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Community Development And Missions

Most of those who have not yet heard the gospel live in poverty. To reach these people we must address physical needs as well as spiritual needs. This seminar will provide you with tested community development principles and strategies that you can use to design and carry out effective missionary outreach efforts to the poor.

## 17-8 글자화되지 않은 언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포레스트 젠더 /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Forrest G. Zander is the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 Development, North Central Region, Wycliffe Bible Translation. He worked as jungle pilot-mechanic in Peru, and field director in Columbia/Panama. Conducted U.S. Furlough Briefings in Columbia and Cameroon Africa.

HOW IN THE WORLD DO YOU TRANSLATE AN UNWRITTEN LANGUAGE?

(A graphic presentation using transparencies / overhead 45 minutes, plus 15 minute for question)

### 1. THE NEED FOR TRANSLATION

- 1) 6,628 language in use in the world today (Source: ETHNOLOGUE, Catalogue of World's Languages, Sept.1993)
- 2) Over 3,000 languages without God's Word: 7-8% of the world's population, some 300-400 million people.
- 3) How Wycliffe Bible Translators fits in

### 2. THE TOOLS FOR TRANSLATION

- 1) Phonology - Study of sound systems, alphabets (illustrated with sounds distinct from English and other alphabets from around the world)
- 2) Grammar - Study of language structure and composition (illustrated with actual field problem from Brazil)
- 3) Literacy - Teaching to read and write (illustrated by

learning to read English with new alphabet)

- 4) Anthropology - Cultural considerations,
- 5) Translation problems (illustrations)
  - different world view
  - different structures
  - no equivalent words
  - dynamic equivalence

### 3. THE RESULTS OF TRANSLATION

- 1) Evangelism
- 2) Church planting
- 3) Trained Indigenous leadership (From among the people themselves; missionary works him/ herself out of a job; the true test of successful mission work)

### 4. THE COMMITMENT TO TRANSLATION

- 1) How it fulfills the "Great Commission"
- 2) The translator as catalyst
- 3) Could I be a translator? Could I recruit someone who would be if he/ she knew about the need? Summer programs, job descriptions, further information.

17-9 성경배포선교

데니스 M. 멀더

17-10 방송선교

유관지 / 극동방송 이사, 최은종 / 시카고복음방송 대표



**유관지** : 극동방송의 유관지 이사는 연세대에서 신학을, 중앙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민족 수난의 체험과 한국현대문학」, 「북방선교론」 등의 저서를 썼다. 목양감리교회 소속목사로도 봉사하고 있다.



**최은종** : 시카고복음방송의 대표이며 본 대학의 보도분과 위원장이다.

이 한인세계선교대회와 관련 없는 행사로 1995년 5월 15일에서 17일 까지 소망 수양관(경기도 광주군 소재)에서 열린 제2차 민족과 세계복음화회의(II)에서 필자는 방송선교 분과의 발제를 맡아, 방송과 선교, 한국방송선교의 역사, 방송과 AD2000, 한국 방송선교의 과제 등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발표 후 가진 토론에서 재외동포와 방송선교 문제, 방송 환경의 변화와 방송선교 문제가 조명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번 발표는 그 때의 의견들을 되살리면서 주제를 선정했다.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방송선교 세미나에서 공동 발표를 담당한 분도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해 방송선교를 하고 있는 분(시카고 기독교방송국장 최은종 목사)이므로 이번 발표는 집약된 주제를 가지고 상호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 환경의 변화와 선교방송의 문제도 급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열리는 2000년은 AD2000 운동의 최종 연도이므로 방송을 통해 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 World By 2000의 성과가 반드시 점검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 재외동포 교회에 대한 인식변화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그리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세계 140여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530만명의 재외동포들을 "국력의 연장" "우리 민족의 중요한 자산", "외교관", "세일즈맨"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따라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교민청 설립 검토, 재외 한인의 날 제정 검토, 이중국적 허용 검토, 재산권 행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변화는 한민족 공동체 형성 추진, '판코리아나(Pan Koreana), 문화영토론(文爛土論) 등의 새로운 이론을 낳고 있다.

재외동포 교회에 대한 전체 교회의 인식이나 재외동포 교회 자체 안에서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가속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전에는 재외동포교회는 재외동포 사회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며, 신분을 인정 받을 길이 많지 않은 재외동포들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이 강했으나 이제는 타문화권 선교의 전위대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재외동포교회 교인들은 타문화권 선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적응훈련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사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 속에서 어울리는 지혜는 부족한 편이다.

1980년대 후반기 이전에는 재외동포들의 신분상 유리한 점이 선교에 활용되는 일이 많았다. 1970년대 후반기에 중국을 선두로 북방지역이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여권으로

는 이 지역에 출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때 재미동포들이 중국과 소련을 출입하면서 선교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재미동포 크리스천들은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는 요셉의 고백을 새기면서 '우리들이 일찍 미국에 와서 미국여권을 갖고 북방지역 출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북방선교에 활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깨달음을 갖고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하였다.

이 시대 효과적인 선교방법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방송은 이제 재외동포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해서 선교에 앞장서도록 하는 일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재외동포 방송망을 활용해야 한다.

## 2. 재외동포 방송망의 현실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송에 관심을 갖고 우선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방송기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에서 작성한 '지역별 동포 언론기관'을 근거로 재외동포 방송망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별 동포 언론기관 통계

시카고 기독교방송국 장세균 집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주에는 52개의 재외동포 방송기구가 여러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한국어방송을 하고 있다.

이들 재외교포 방송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가 소수민족 정책의 하나로 한국어 사용 방송국을 설립한 경우 (중국)
- 2) 국가가 소수민족 정책의 하나로 국영방송에 한국어 방송 시간을 편성한 경우 (독립국가연합)
- 3) 재외동포 단체가 현지에 한국어 방송국을 세운 경우
- 4) 재외동포 단체가 현지의 방송망을 빌어 방송하고 있는 경우

3항과 4항의 재외동포 단체 가운데는 교회나 선교기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나 선교기관은 선교방송을 따로 세워 선교에 동참하거나 다른 방송의 시간을 빌어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일을 일찍부터 해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에서 한 종교단체가 지존 라디오 방송시간을 1주에 30분 빌려 종교시간으로 방송한 것이 이민역사에 최초의 방송으로 꼽히고 있다.

앞의 해외교포문제연구소에서 작성한 동포 언론기관 목록에 따르면 시카고에는 세 개의 동포 방송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1987년에 설립되었고(시카고 한국방송) 또 하나는 1991년에 설립되었다(시카고 한미방송). 나머지 하나인 시카고 기독교방송국은 이 둘 보다 십여년 앞인 1978년 6월에 설립되어 방송시간을 꾸준히 늘여오고 있다.

재외동포 교회나 선교기관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망을 더 많이 세우거나 다른 방송의 시간을 빌어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일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참고로 독립국가연합의 사할린의 경우는 사할린 국영 TV 및 라디오 방송국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15분씩 우리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설교가 송출되고 있다.

## 3. 재외동포 선교방송 지원 : 극동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공급 문제는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한 선교방송 분야에서 겪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방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현재에서 모두 제작하는 것은 현재의 실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방송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본국에 있는 선교방송들이 재외교포 방송망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본국 교계의 흐름을 알리고 본국의 소식을 전한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것은 방송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도 상당한 기여가 된다.

극동방송은 1985년 8월 15일부터 중동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방송을 약 2년간 실시한 일이 있다. 이 방송은 인도양에 있는 극동방송국 자매기구인 FEBC-세살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9시에 30분씩 송출되었다. 당시 중동지역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호응이 적지 않았으나 사용한 전파가 단파였고 주 1회 방송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방송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 재외교포 방송망이 활성화 되면서 이들 방송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요청에 따라 워싱턴 미주방송, 시카고 기독교방송, FEBC-Saipan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여럿 있는데 중단된 이유는 공급을 시작할 때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워싱턴 미주방송),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녹음상태에 대한 항의와 극동방송의 여건 때문에(KSAI(FEBC-Saipan), 프로그램 녹음상태에 대한 현지의 항의는 현지 현업원들이 한국어를 전혀 해독 못하는 미국인들이어서 예배 실황 프로그램의 소음 등을 소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재외동포 방송망에 현지 방송기고로부터 임대 받은 시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기독교방송) 등 여러 가지이다.

현재 극동방송이 선교 프로그램을 일부 공급하고 있는 재외동포 방송망은 다음과 같다.

- 1) 라디오 코리아 (LA 소재, 사장 이장희. 1989 설립, 콜사인 KBLA)
  - 주파수 AM 1580 KHZ
  - 방송시간 매일 05:00-06:00
  - 프로그램 주안에 사는 삶  
(“생명은 빛으로 - 예배실황”, 찬양 3곡, “홈 드라마 하늬네 집”, “김혜자와 차 한 잔을”, “내가 매일 기쁘게 설교”, “안녕하십니까? 구봉서입니다” 등을 합성)
- 2) 시카고기독교방송국 (시카고 소재, 사장 최은종 목사, 1978년 설립, 콜사인 KCBS)
  - 주파수 FM 103.1 MHz
  - 방송시간 07:00-08:00
  -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구봉서입니다”, “홈 드라마 하늬네 집”
- 3) 워싱턴 기독교복음방송 (워싱턴 소재, 사장 김영호, 1971년 설립)
  - 프로그램 “김현희의 통일을 기원하며”, “안녕하십니까? 구봉서입니다”

#### 4. 하바로프스크 방송 (FEBC-Russi, 대표 세르게이 코맹코)

- 주파수 AM954 KHz
- 출력 10KW
- 방송시간 21 :00-22:00
- 프로그램 "매기성경 강해", "김현희의 통일을 기원하며", "안녕하십니까? 구봉서입니다", "소망의 시간"(곽선희 목사 설교), 귀순자 대담, 찬양 3-4곡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하바로프스크 방송이다. 옛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곤란을 겪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해체 이전에 체제선전과 방해전파 발사를 위해 많이 세워놓았던 방송망들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은 방송망을 유지할 필요도 없어졌고 유지할 경제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독립국가연합은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외화도 획득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게 방송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용하여 FEBC는 라디오 마야크라는 방송기구를 이용하여 독립국가연합 거의 전역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극동방송은 독립국가 연합 극동지역의 중심도시이며 다수의 북한 벌목공이 나와 있는 하바로프스크의 POR-8라는 방송기구를 빌어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확대되어 극동방송은 하바로프스크에 지사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건물은 1995년 6월 1일에 준공되었다.

현재 독립국가연합에서 방송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안식교이며 독가스 테러로 널리 알려진 음 진리교도 여기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극동방송은 현재 미시간 한인기독교방송, 아틀란타 복음방송으로부터 프로그램 공급을 요청받고 있는데 이같은 요청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일을 하는데 제일 큰 애로는 테이프 우송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제작과 방송 사이에 평균 3주간의 간격이 있는데 절기나 시사적인 일들에 맞춰 미리 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절기나 시사적인 일들에 맞춰 사전에 제작해서 보내기 때문에 생동감을 주고 있는데 사전 조정이 어려운 설교 프로그램들은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 때는 부활절 무렵에 성탄절 설교가



나가거나 광복절에 6.25에 대한 내용이 나간 일도 있었다.

인력이 부족하고 자체 방송망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 우선순위에 밀리고, 직원들이 귀찮아하는 경향도 있고, 현재 방송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극동방송의 공부영 편성부장은 말하고 있다.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현지 청취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4.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한 방송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이 겪는 애로는 다음과 같다.

- 전문인력 부족
- 한인 상권 미성숙으로 광고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 프로그램 제작 역부족
- 외국문화 선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있다. (브라질)
- 많은 경우 Open Channel이 아니고 Subcarrier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라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어려움은 재외동포 선교방송망에 오면 배가 된다.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운영의 영세성이라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재외동포 교회들은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한 선교방송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본국의 선교방송 기구와 교회들은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한 선교방송 지원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본국의 기독교방송이나 극동방송, 기존 선교방송 기구에 이 일을 위한 부서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의 분화는 요즘 방송사 운영의 큰 흐름이어서 방송사마다 자회사를 만들기에 바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진 자회사 설립도 바람직한 일이다.

프로덕션이 활성화되는 것이 방송계의 추세인데 (새로 제정되는 방송법에는 송신시설을 보유한 사람만을 방송사업자로 규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덕션들도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해 선교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덕션 설립도 추진할 만하다.

재외동포들은 지금 방송산업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방송과 외국 방송의 교류 사업을 주관하기 위한 기구로 1996년 4월 12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출범시켰으며 공보처 장관은 지난 5월 28일 가진 간담회에서 방송프로그램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세계 한국어 방송인들간의 친선강화 및 한국어 방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한국어 방송기관과 모국 방송계의 유대 결속을 목적으로 1995년 제1회 세계한국어방송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에 열린 '96 세계한국어방송인대회에는 세계 54개 한국어방송사 대표 58명이 참석했었다. 교회도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해 선교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회 개최를 구상해 볼 만하다.

방송환경의 변화를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프로그램 공급과 교환이 훨씬 수월해져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현재는 방송기재가 어떤 곳은 카세트, 어떤 곳은 MD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프로그램 공급과 교환에 난점이 되고 있다.

방송과 선교분야에서 재외동포 방송망을 통한 방송선교 문제가 공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차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계기가 되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 주

- 1)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이름으로 "해외 한민족", "해외동포", "교포", "교민", "동포", "한인" 지역에 따라 "조선족", "고려인"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재정립된 정부방침에 따라 1995년 12월부터 "재외동포"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 2) 민족과 세계복음화회의에서 주로 거론된 방송환경의 변화는 다매체, 다채널, 방송위성의 실용화, 디지털화, 방송운영의 경량화 등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병화로 꼽히고 있다.
- 3) 한국해외교포문제연구소 편 「세계한민족: 편람」 (세계한민족총서10)(서울 통일원, 1996) pp. 32-58을 재구성한 것임
- 4) 이장성 "캐나다 소수민족 방송정책과 한국어 방송", 한국방송공사 주최 「'96 세계한국어방송인대회 세미나 (주제: 해외 한국어방송 역량제고 방안과 소수민족 방송정책) 자료집」 p.85 이장성 씨는 1985년에 설립된 토론토 한국방송사 사장임.
- 5) 한국방송공사가 1996년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96 세계한국어방송인대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임

## 17-11 러시아 제한지역을 위한 방송선교

닉 레오노빅 / 러시아 방송선교사



Nick was born in the USSR and was brought to America in 1929. In 1958 Nick began his Russian Christian radio ministry to the USSR. Since the Iron Curtain came down, he has been working extensively in Russia, Belarus and Ukraine helping pastors get involved in using local radio for evangelism. In all he has been in Russian broadcasting for 35 years.

#### RADIO AS A MINISTRY TOOL IN RUSSIA AND OTHER RESTRICTED COUNTRIES

An introduction of the early stages of Russian Christian broadcasting.

During the Soviet era the Iron Curtain was very effective in keeping the Christian church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with the intention of sapping the life out of it. However, when Russian Christian broadcasting was introduced to the air waves in 1941 by Peter Deyneka Sr., from the facilities of HCJB in Quito, Ecuador, things started to change for encouragement of these restricted Christians.

I personally have used radio as a ministry tool to the Soviet Union for 35 years. In 1958 I started broadcast-

ing with Trans World Radio, first from Tangier, North Africa and then the facilities moved to Monte Carlo. Later in 1985 Peter Deyneka Jr., asked me to come to Wheaton, IL and from the studios here with my radio staff of 21 specialized Russian workers I continued to broadcast the gospel for another 9 years. During these last 9 years we broadcast to the USSR using 7 transmitters daily from various Christian radio stations.

One wondered how these broadcasts were being received. Could you imagine that after only two weeks of broadcasting from North Africa in 1958, our first letter came from a young man in Russia. His urgent request was to explain to him the quickest way to know God Listener's mail did not always get through to us. First there was censorship and later letters did not come through at all. However the Christians did take risks in sending their letters through contacts in satellite countries. It was

only after the celebration of the millennium of Christianity in Russia in 1988, that mail started to come more freely from the USSR. But in 1990 when the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ov guaranteed freedom of religion for all, that we got inundated with mail from our radio listeners. It was then that we learned what the Christian had to suffer for their faith.

A Christian community in the city of Bamaul, Siberia suffered extremely for their faith in God. There was a time when it seemed that all hell broke out with persecutions, harassment and imprisonment's, but God provided the short wave radio broadcasts which served uniquely to strengthen and encourage them in their faith.

One Russian couple who lived in Bamaul, Katia and Roman with a lovely family of 11 children were severely harassed because they were such an exemplary family. Their secret was to tune in to the Christian broadcasts from the West at 4 am, and then at the breakfast table they would relate the Scripture truths to their children. Tears later when we were able to meet this family personally they could not thank us enough for the broadcasts. They realized that God's family was indeed very vast and they didn't feel so utterly alone in their struggles for their faith.

There is so much one could say about past history of Christian radio ministry. We have experienced the excitement of broadcasting God's World that took root in the hearts of radio listeners clear across the 11 time zones of the USSR.

After touching on past history, let us see what is being done and still can be done now.

In the past local radio stations could not be used in the Soviet Union for Christian Broadcasting. This is the reason it was possible to get into the homes of the Soviet people only through short-wave broadcasting. Now

things have opened up for Christian programming at local radio stations all over the CIS. This is the right time to train, help, and encourage the national Christians to produce their own programs.

Translation programs into Russian (or any other language) from a foreign language isn't always the best way to reach the radio audience.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foreign broadcast is geared to the culture and needs of its own people. It is therefore prudent to seek out the capable national Christians who have an aptitude to do radio work and provide training and facilities where they could produce and record programs fit for the needs of their own people.

In the new structure of the OS since the fall of the Iron Curtain, there is a keen search for higher social and moral values. Christians who before were rated undesirable citizens are now looked up to because of their past record of enduring strength to stand upright and honest even when gravely persecuted. Among these are fine young pastors who are already involved in broadcasting. In Moscow, kind of men and women we need to help. These are the kind of men and women we want to train so that they could join the ranks of first class broadcasters.

Because of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throughout the OS, Christians from other countries would do well to bring in help to these nationals for the construction of program production and music studios.

God used our son Jim to help a group of pastors in Ukraine to get into local broadcasting. First he built them a recording studio and that was tremendous. Then through the financial help of some Canadian brethren, Jim helped these same pastors in Ukraine to set up a Christian owned radio station which is already on the air 24 hrs. a day. This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 for the radio audience because now they can phone in to the station to get advice, they write to the broadcasters and

get answers to their spiritual need within a few days. They are given addresses of churches near them where they can go personally for spiritual instruction. Because of this new radio station the ranks of believers are growing.

As a matter of fact in Zaporozhye, Ukraine, where the radio station is located, quite a few Christians have gone into business as a result of seeing that it is not wrong, but commendable for believers to own and operate profitable businesses and then to be wise in supporting local Christian ministries.

Dollar for dollar, radio actually remains the most cost effective medium to reach the masses with the Gospel. As Christians get more and more involved with media in Russia (or any other restricted country for that matter,) the spiritually starved listeners will get a greater awareness of the God of creation and will get enlightenment to their spiritual question. In restricted countries there is a subtle understanding that Evangelical Christians are a backward people. This was specifically taught by the Old Soviet order.

Today the possibilities that national Christians in the OS have for broadcasting is increasing, but there is such an enormous land mass to covers just at a glance, one could get discouraged. However, the fact is very evident that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in through low power radio which covers a small city. That is for every city to have a low power radio station of its own. This also personalized the message to a contained geographic location.

Low power radio from 100 to 250Watts of power is also reasonably affordable. Radio has a history to spawn other good professions for Christians to get involved in as a career. Why not Christian disc jockeys, news writers, anchors, reporters, engineers, radio pastors, children's programmers, music and advertising and so on!

In the OS, the current need if for Christians who could and would really get involved in using this very powerful and effective tool NOW.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uch more high quality and professional programming for all the specific audiences -youth, children, women, teens, professionals, students etc. To begin with, much of the funding still has to come from aboard. But as more local Christians get involved in money-making ventures, they will be investing more and more into radio as a tool for advertising and even owning radio stations.

This is a new time for an old ministry. It is exciting to her God's Word on a local radio station. Now this outreach must expand. It lies with those of us who love the Lord and have been called to serve Him to give of ourselves more freely to encourage young men and women in the OS and other such countries, not to fear but to boldly take that is right there before them.

I want to give you an example of how Christians work together for good and blessing and enlightenment, to the glory of God. Two years ago I was speaking in the Central Baptist Church in Moscow. After the service, a radiant lady, Natasha came bounding up to me and said: "Nikolai Pavlovich, you are my spiritual father. I accepted the Lord when you broadcast the Gospel from FEBC, in Saipan." Further she said that she just graduated from the Theological Seminary in Moscow. This seminary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brethren. Now Natasha has started Bible study groups and is very active in training others. So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we Christian servants need each other some sow the seed, some water and others harvest. All to the glory of God

## 17-12 레코드선교

로스 랭 / 가스펠레코딩



Ross Lange had been in missionary work for 35 years. In 1961, he joined World Literature Crusade with was the sponsoring body for EVERY HOME CRUSADES. They are now called Every Home for Christ and have systematic cooperative house to house literature distribution crusades in over 70 nations. Through Gospel Recordings USA, now he helps in reaching the least reached of all peoples in the world - the ILLITERATE.

ANY CHURCH CAN EFFECTIVELY ADOPT AND REACH AN UNREACHED PEOPLE WITH AUDIO GOSPEL RECORDINGS ARE INVOLVED, whether the church is large or small.

Most of the worlds UNREACHED people are small in population they will not have Christian Radio or TV in their language.

THERE IS ONLY ONE WAY TO REACH THEM FOR CHRIST and that is by way of their EARS. They must hear the Gospel from a missionary who goes and learns their language of by way of a Gospel Recording that already speaks their language. Evangelistic Gospel Recording are now available in 4,679 languages and dialects which is twice the number with any Scripture in print.

I will give you two unusual but true stories of what other churches have accomplished:

ONE REQUIRES ONLY PAPER, and is suitable for a church from the economically poorest area.

ONE REQUIRES PRAYER Plus a SHORT TERM TEAM OF VOLUNTEERS TO ACTUALLY REACH AND UNREACHED PEOPLE IN THEIR OWN LANGUAGE BY-WAY OF GOSPEL RECORDINGS.

Gospel Recordings was a Founder of the Adopt a People plan about 15 years ago before it became popular in missions. Gospel Recordings would select a people for PRAYER that it seemed no one would reach unless God took control A humanly impossible tribe to reach,

In April 1985 Gospel Recordings Director visited PARK STREET CONGREGATIONAL CHURCH in Boston, which is a very old and missionary minded church in the USA. In their missions convention he was assigned to speak to the PACERS class of children about 13, 14 or 15 years old. He told them about a tribe of the Brazilian Amazon jungles called the KREEN-AKORE. They immediately began to ask questions. He told them there are only about 85 Kreen-Akrores left. There was no missionary contact with them because "outsiders" are prohibited from that part of the jungle. And they have no Scriptures.

They listened carefully and by the end of the week, they had collected eight copies of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which had pictures of the Kreen-Akores.

About a year later Gospel Recordings Director was in Brasilia the capital of Brazil. While there he had lunch with a missionary who worked with the Kayapo tribe of Brazil She commented, "one of the Kayapos tribes favorite sports is to crush in the heads of the Kreen-Akrores". He was instantly attentive. She told him that "Kreen-Akore" is not the tribes name for itself, but rather a bad name for them that means "Round Heads".

She went on to say, last year the chief of the Kreen-Akore brought his daughter to the hospital in Brasilia. She was desperately ill and the chief said "if my daughter dies, I am going to kill 10 white people here in this hospital". The hospital staff was nervous. The chief's daughter had meningitis. She was already in a coma and could be expected to live no more than a couple of days. And then ... they went into the girl's room and she was completely well!



Gospel Recording Director asked the missionary, "When did all this occur?" She replied last April He was shocked. It was the very same time that Sunday School Class of 13, 14 & 15 year old children began praying. He felt like the Apostle Paul returning from his first missionary trip. He wrote to the Sunday School Class in Boston, When they received it the kids prayed and prayed and could hardly stay in their seats.

So in that day when some from every tribe will be gathered in heaven (Rev 5:9) we would like to think that the Lord will say of the children from that class, "See these KreenAkore that you prayed for."

THAT IS WHAT YOU CHURCH MAY DO THROUGH PRAYER ALONE FOR AN UNREACHED TRIBE.

ARE YOU PREPARED FOR YOUR CHURCH TO FOLLOW YOUR PRAYER WITH ACTION FOR YOUR ADOPTED or TARGET PEOPLE?

Here is another true story. There is a tribe in the northern part of GHANA that was without any Christian witness. A concerned missionary discovered that in each village of this unreached tribe there was a BLIND SINGER This blind singer was a respected elder who would sing each night around the fire and sing of all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the tribe.

So the missionary went to each village and gave the BLIND SINGER a handwound cassette player made by Gospel Recordings, along with the evangelistic Gospel Recording in that language.

The blind mans prestige or respect went even higher than before because now he had this electronic instrument. So he would play the Gospel Recording, and then he would SING the message himself that he had just played on the cassette. In this way churches began in each one of the villages of that tribe that before had no Christians at all.

IF YOU WILL FOLLOW YOUR PRAYERS FOR YOUR ADOPTED PEOPLE WITH ACTION, WE WILL MAKE YOU GOSPEL RECORDINGS IN THEIR LANGUAGE. (GOSPEL RECORDING MAY HAVE BEEN MADE ALREADY SINCE THEY ARE IN 4,679 LANGUAGES right now). WE WILL THEN GIVE YOU THESE RECORDINGS. THEN a TEAM FROM YOUR CHURCH CAN VISIT THE VILLAGES OF YOUR ADOPTED TRIBE AND LEAVE A CASSETTE PLAYER AND A GOSPEL RECORDING IN EACH VILLAGE. (The cassette player will need to be left with a responsible chief, Mayor or Elder to keep there from being a fight and riot over who is going to get to have the Gospel Recording next. In one village in Indonesia the Chief said that each family could have if for only 2 hours before they passed it onto their next door neighbor. That Gospel Recordings cassette was played day and night for the next 6 months).

Because AUDIO GOSPEL RECORDINGS ARE A NECESSITY FOR 2 BILLION ILLITERATES MANY MORE RECORDING TEAMS ARE NEEDED.

1992 ESTIMATES place the count of illiterates very close to 2 BILLION, rising to 2,400,000,000 by AD2000. Calculations show that slightly over 1/2 of the world's adult population is illiterate. These illiterate multitudes are often the least reached with the Gospel.

WITHOUT EMPHASIS ON AUDIO RECORDINGS THE PROBLEM GROWS

- The United Nations called the 1980's "THE LOST DECADE" because illiteracy increased.
- The 35 poorest nations of the world decreased their education budget 25%.
- In Zaire even before the civil war 20% of the teachers were fired.
- In Ghana with a reported 36% literacy many unqualified village teachers hold school for only 1 or 2 hours a day.
- In Benin the schools have been closed for several years as a corrupt government as used all the EDUCA-

TION money for personal gain,  
THE EFFECT OF ILLITERACY ON SCRIPTURE USE IS  
OBVIOUS .. .NONE ARE READ!

- Many Scripture translations completed by Wycliffe & Others in Brazil 10 or 15 years ago, today have only 1% who can read. For 99% it is like the translation was NEVER made! This situation is not limited to Brazil.
- Societies that are ORAL, without a previously written form, accept the Scriptures best IF introduced via AUDIO PRECEDING written form.
- Many Societies much PREFER AUDIO SCRIPTURES only and have little or no interest in learning to read their own language. Example the BLACKFOOT Indians of North America.

With 70 more recording teams we could make Gospel Recordings in every language of the world before the end of the year 2000 AD. You are needed to make this happen. A recordist team is usually 2 single men or 2 single women, Or a couple without small children. Will you help evangelize the unreached illiterates in this way then contact us.

IF YOU WANT TO reach illiterate unreached people in one of these 3 ways by means of AUDIO GOSPEL RECORDINGS, PLEASE CONTACT:

AUDIO RECORDING MISSION (associated with Gospel Recordings)  
Room #203, Sung Jin Bldg.  
94-3 0 Keum-Dong,  
Songa-Ku, SEOUL, KOREA  
Telephone 4Q8.6959, Fax 430-4353  
or  
Gospel Recordings,  
122 Glendale Blvd.  
Los Angeles, Ca. 90026 USA (Fax 1-213-250-0207)

## 17-13 음악과 연극선교

신빌 / 휴스턴크리스천교회 EM 목회자

EM Pastor of Houston Christian Church

## 17-14 한국외향선교

최기만 / 한국외향선교회 상임대표, 임재성 / 한국외향선교회 상임총무



**최기만** : 최기만 목사는 한국외향선교회/한국 월드컵선교회에 1974년부터 몸담아 현재는 상임대표로 있어 한국향만과 선교사 파송지에 입출향하는 전세계 외향선교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고려신학원, 워싱턴 웨일즈 복음주의신학대학에서 인문학 박사를 받았다. 「선교도상의 교회」 등의 저서가 있다.

**임재성** : 한국외향선교회 상임총무로 인천 및 한국내 향만에서 실시되는 외향선원선교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신학대를 나온 임재성 총무는 영국에서 이주민 모슬렘 선교 그 외 선상선교 등을 해왔었다.

17-15 북미주의항선교

박계로, 조봉기 / 신우세계선교회



**최기만** : 신우세계선교회의 박계로 선교사(목사)는 캐나다 밴쿠버 항만선원 선교사로서 밴쿠버항에 들어오는 한국인 선박 선원 및 세계 각국의 선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장로회 총회신학교, 국민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임재성** : 신우세계선교회에서 매일 선원센터 혹은 선박에 승선, 선원선교를 하고 있고 매주일 음식을 배부하는 노숙자선교를 하고 있는 조봉기 선교사는 서울대를 나와 총신대, Covenant Bible, Fuller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밴쿠버 외항선 선교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북미주 캐나다 서부의 유일한 관문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항구 도시 밴쿠버 항만에서 밴쿠버항을 찾아드는 세계 각국 선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자유로이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각종 편의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주안에서 즐겁게 외항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1. 나의 선원선교의 동기

2. 선원선교의 방법

1) 선박방문선교

- 선상예배, 선박교회 설립, 세례와 성찬예식
- 성경, 신앙서적, 전도지, 설교 Tape 전달
- 상담, 개인전도, Team Ministry

2) 지역교회의 예배에 초청 및 특별집회 안내

3) 병원방문(입원중인 선원) 선교

- 환자의 의사소통 및 음식문제
- 선원 가족과의 통신
- 문서전도 및 대화

4) 시내관광. Shopping 안내 및 Ride 제공

5) 가정에 초대, 선교센터에 초청, 야유회에 초청

3. 외항선원 선교의 유리한 점

1) 외항선원 선교는 세계선교이다.

2) 선교를 금지하는 국가나 이교도의 선원들에게 현지 선교사가 하기 어려운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어느 항구에서나 사명감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4) 비교적으로 경제적이다.

17-16 항공선교

김영옥 / 한국항공선교회 대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항공선교사훈련원 원장이며 교수인 김영옥 목사는 한국항공선교회 대표를 맡고 경비행기와 헬기를 통해 오지, 정글, 도서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선교사역 지원, 수송 및 의료선교, 일반선교사 지원을 하고 있다. 총신대, Brethren Bibl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카운셀링으로 D.Min.의 학위를 갖고 있다. 저서로 「목회상담을 통한 분노치료」 등이 있다.

17-17 예수영화선교

김석원 / 올랜도총현교회 담임, 최향숙 / CCC국제본부 사역



**김석원** : 서울총현교회 부목사를 거쳐 현재 올랜도총현교회 담임인 김석원 목사는 부산 고신대학, 총신대학원, 루터라이스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나왔고 CCC국제본부 사역 중에 있다.



**최향숙** : 숙명여대를 나와 오하이오주립대 및 뉴올리언스신학교에서 수학한 최향숙 선교사는 CCC국제본부에서 사역하며 한국대학생선교회 숙명여대 전임강사로도 일하고 있다.

1. 예수영화(Jesus Film)의 역사적 배경
2. 예수영화(Jesus Film)의 현황
  - 1) 번역이 끝난 언어 수 - 364언어
  - 2) 현재 번역이 진행중인 언어 수 - 194언어
  - 3) 현재까지 세계 각 나라에서 예수영화를 본 사람의 수 - 약 7억7천만명
  - 4) 예수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수 - 약 1억명
  - 5) 예수영화를 보여준 나라 수 - 218개국
  - 6) 예수영화 비디오가 나간 수 - 1,600만개
3. 예수영화(Jesus Film)을 통한 사역의 현황과 전망
  - 1) 미국 내에서의 예수영화의 사역과 전망

- Jesus Video Saturation Project Renewing American One Neighborhood at a Time
- 1995년 말까지 75개의 도시에서 2,100여개의 교회가 참석하였고 73,000여명의 전도팀이 동원되어서 580,000개의 예수영화가 각 가정에 전달되었다. 그 결과 약 1억5천만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222,000명에 이르는 굉장한 결과를 가져왔다.
- 2) 해외에서의 대표적 예수영화 사역과 전망
    - MPTA Project
    - Jesus Film Team (여호수아 project 포함)
    - International School Project (Commission)
  4. CCC국제본부의 세계선교현황

17-18 국제혼인가정을 통한 선교전략

강준원 / 벨렐한인장로교회 담임



벨렐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이면서 벨렐선교회 회장, 벨렐 교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강준원 목사는 단국대 법대, 장로회신학교를 거쳐 총신대학원을 졸업했다.

[본문: 마 28:1 9-20, 행 2:8]

1. 국제혼인가정의 특수성 개발로 전도효과 증대
  - 1) 타문화권을 이용한 선교효과 증대
- 2) 상호 다른 민족의 이질성과 복음 안에서 동질성 회복
- 3) 지구촌(다민족)을 대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교전진기지화 증대

2. 국제적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
  - 1) 교역자 및 평신도선교사로 훈련선교효과 활용
  - 2) 교파를 초월한 범교단적 선교사로 활용
  - 3) 인종을 초월한 범민족적 선교사로 활용
3. 타문화(타종교)권 선교전략
  - 1) 각 국가 중심에서 지구촌 중심으로
  - 2) 민족중심 선교에서 인종을 초월한 다민족 중심
  - 3) 각국 문화(타종교) 중심에서 다문화 중심

## 17-19 21세기 북미주한인교회의 민족성 존속과 2세 문제 김종기 / 순복음 라스베이가스교회 담임



경희대학교 음대, LA베데스타신학교, 웨이스신학(M.Div.)을 수료하고 C.B.C.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은 김종기 목사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MBC TV에서 다년간 활동하고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총회장,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한국총회 청소년 선교위원장, 미주복음신문사 북미주 교역자 수련회 강사, 청소년 세미나 주강사, 한국 성령회 대성회 강사, 현 순복음 라스베이가스 교회 담임목사이다.

지난 1993년 엘바나 회의에서 인구 조사한 보고에 우리 한국민족이 세계 105개국에 퍼져 살고 있으며 그 수는 500만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1백만이 넘는 수가 집계 보고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내의 한국교회 성장은

- 1) 1965 - 30교회
- 2) 1970년 - 100교회
- 3) 1975년 - 200교회
- 4) 1977년 - 400교회
- 5) 1980년 - 1000교회
- 6) 1983년 - 1200교회
- 7) 1990년 - 2000교회 이상
- 8) 1995년 - 2500교회에서 3500교회 이상으로 집계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교회 1세 지도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로 지속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 민족교육을 철저히 후손들에게 시켜야만 합니다.

2. 뿌리교육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 육적뿌리 (육적조상의 뿌리교육)
- 영적뿌리 (영적조상의 뿌리교육)

예수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3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생활의 뿌리 교육이다.

3가지 특권이란

이 뿌리 교육의 특징은 육적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성이나 이름을 빼 버려도 그리스도인이 이름이 남는 특권이다. 육의 성민은 이스라엘이지만 영의 성민은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 뿌리 교육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반듯이 코리안 아메리칸 (Korean-American) 이라는 이중의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몇 대가 흘러도 한국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민교회가 크게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중문화니 이중생활권이니 이중언어권이니 이중풍습이니 하는 이중성에 대한 오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민 1세니 1.5세니 2세, 3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나라와 땅에 없어도 히브리인의 민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세대가 같이 살아 간다는 철두철미한 의식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3. 효사상의 교육입니다.

교회란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며 배워야 하느냐?

효도의 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효사상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부모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되며 복받으며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엡 6:1-3참조)

- 2001년 영적생활의 미국의 동향
- 여기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 4. 쉼마 교육입니다. (신 6:4-9)

쉐마는 3500년 동안 유대인의 마음속에 흘러내린 종교교육입니다. (Religious Education) 그들은 2000여년 동안 나라도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성민이 되어 보이지 않는 나라와 땅을 소유해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쉼마교육이었습니다.

- 읽는 방법

-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전 생애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유산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쉼마교육에는 정치교육이나 군사교육은 없습니다.

#### 5. 오늘의 교육의 맹점은?

부모님들이 학교교육은 학교에 맡겨버리고 교회교육은 교회에 맡겨버리고 부모교육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 6.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될 수 있었나?

- 영적생활 속에 나타난 정신적 문제들!

(1) 정신세계의 문제성 - 인간의 제한성과 한계성을 넘어 설 수 없다.

(2) 영계는 무한하다 그 이유는 제3의 Power(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에 의존하여 무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실례

a) 인간 자체의 힘이나 능력으로서는 새같이 날 수 없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같이 날 수 있다.

b) 인간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는 시속 100m, 120m를 달릴 수 없다. 그러나 기차를 타면 달릴 수 있다.

(3) 정신세계에서 대개의 경우 인간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나 심리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보면

- 이런 실패가 계속되어 인간의 정신적인 제한성이 한계성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문제(실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심리적 의식에 잡히게 되는가?

- Maxwell-Malt가 쓴 유명한 책 인공정신 두뇌 (Psycho-Cybematic)에는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형성관계를 연구한 권위자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록 공상일지라도 행동에 옮겨지는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1) 늘 평화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행동이 평화스럽다.
- (2) 늘 10만 달러 현찰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된다.
- (3) 죄는 갑자기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 목회자 세미나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문제점들과 영적관계

- 영적 세계의 3 Stages

- 1) 1st Stage
- 2) 2nd Stage
- 3) 3rd Stage

- 3 different tracks and routin

- 1) Man's track
- 2) World's track
- 3) God's track

- Sequence of the human being (살전 5:23)

우리는 정반대인 몸과 혼과 영의 순으로 살아가고 있다.

## 17-20 자신과 현지선교

송민호 / 토론토영락교회 EM 목회자



Minho Song is Pastor in charge of English ministry at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of Toronto. He wen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earned his M.Div. and Th.M. at Regent College and presently working on his Ph.D. in Inter Cultural Studies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He is the author of 'Constructing a Local Theology for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Ministry.'

## 1. Introduction

Recently, heated debates have been waged among evangelical mission leaders concerning the understanding of "territorial spirits." When missionaries enter into spiritually oppressed regions or people groups, what should be their most effective mission strategies? Should they fight off evil spirits in a given territory through some sort of power encounter before they preach the gospel?

## 2. Territorial Spirits : Assumptions

## 3. Field Experiences

## 4. Evaluation of "Territorial Spirits"

- a challenge to the Western worldview
- a biblical critique: Demons (evil spirits) in the Scripture

## 5. Conclusion - Warning from C.S. Lewis

"There are two equal and opposite errors into which our race can fall about the devils (demons). One is to disbelieve in their existence. The other is to believe and to feel an unhealthy interest in them( (from Screwtape Letters)  
-Implications for World Missions

## 17-21 정령숭배의 이해

김상환 / 베다니교회 House of Prayer EM 목회자

Elisha is currently serving as pastor for the English Ministries at the House of Prayer, a ministry of Bethany UMC in Wayne, NJ. Before the current pastorate, he was pursuing a Th.M. degree in Missiology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He believes that missiologic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are becoming a requirement to reach different people groups that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immigrants and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people group.

1. Worldview
2. Ultimate Questions - Search for Meaning
3. Organic vs. Mechanical Analogy in Understanding Reality
4. Magic, Medicine, Prayer
5. High Religion vs. Folk Religion (Question of Truth and Power)
6. Evaluating Western Worldview in light of the Biblical Worldview

**17-22 지역교회의 세계선교 3대 접근방법**

빌 월드롭 / 미션 아메리카 국제사역 코디네이터



Bill Waldrop graduated of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and had career in U.S. Air Force as fighter pilot, commander, staff officer in Pentagon. After graduated fro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he served as pastor in suburban Atlanta for 10 years. He has just became Facilitator of International Ministries for Mission America, the U.S. expression of the AD 2000 & Beyond Movement.

**17-23 사도행전 13장 강좌**

조지 버워 / OM 총재



OM(Operation Mission) 총재이며 국제선교대회 강사로 크게 활약한다.

**17-24 선교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빌 윌슨 / OMF 북동지역 디렉터

Wilson was accepted as a member of CIM-OMF and left for Asia with a large group in 1957. Also part of that same group was Miss Dolores Henry. Bill and Dolores were engaged in Singapore and married two years later in Thailand. Now as the OMF Northeast Regional Director, his duties include representing the Mission to churches and schools in the area from Maine to West Virginia. He recruits new workers for OMF ministry in East Asia.

## PRAYER AND MISSIONS

## 1. What is Prayer?

Communion with God our Heavenly Father -Getting into harmony with God's will

## 2. The Importance of Prayer

- (1) It is commanded of us (I Thes.5:17, Heb.4:1)
- (2) It pleases God (Heb.11:6, Prov.15:8)
- (3) It helps us know God better
- (4) It is a means for accomplishing God's work

## 3. The Elements of Prayer

- (1) Worship and adoration
- (2) Thanksgiving and praise
- (3) Confession and receiving forgiveness
- (4) Petition and Intercession

## 4. God's Promises Relating to Prayer

These are too numerous to itemize

Look up: Isa.65:24\_ Ps37:4-5, 50:15, Matte.7:7-11, Mk.11:24, Jn.14:13 & 15:7, 1Jn5:14-15

## 5. Prayer and Missions

Missions is God's work and He must work if anything of eternal value is to be accomplished. God works when His people pray.

Three suggestions:

- (1) Pray for more workers Matt.9-35-38
  - (2) Maintain a general interest in God's Work worldwide
- Pray around the world on some systematic basis
- Continent by continent
  - For the missionaries your church supports

- Use Operation World or card packet of 70 spiritually Needy Nations
- (3) Get deeply involved in praying regularly for one missionary or a missionary family

Pray every day using this weekly cycle of prayer topics

- Day 1 The missionary's own relationship to God
- Day 2 The missionary's physical and emotional life
- Day 3 The missionary's family
- Day 4 The missionary's ability to communicate
- Day 5 His relationship with fellow-workers
- Day 7 His country of service

## 17-25 베이비붐 세대의 선교진출촉진

필 친 / Partners International 교회동원 디렉터

Phil Chinn is Director of Church Mobilization for Partners International. A specialist in building mission awareness and assisting mission committees to mobilize their congregations, he calls on his seventeen years of involvement in missions and his experience of leading the missions program at his own church, South Hills Community for seven years.

Mobilizing "Boomers - For World Evangelization

### 1. Who are the "Boomers"

- Why are they important.
- What makes them different.

### 2. The "Boomer Belief System.

- What makes them "tick"?

### 3. What do they look for in churches?

- Churches must be fine-tuned to meet the needs of "Boomers"

### 4. What do they expect from missions?

- Ingredients that a missions program must have to mobilize "Boomers"
- What would make them more receptive to missions.
- Key elements mission committees must address to mobilize "Boomers"

**17-26 선교사의 소명**

캠프 에드워드 / OMS International 중부지역 디렉터



Rev. Kemp Edwards currently serves as Director of the central Regional office of OMS international

His ministry being with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Rev. Paul Haines Jr. currently serves as missionary at Large for OMS International Inc.

**17-27 효과적인 선교전략**

조슈아 강 / 레이크뷰장로교회 담임



Joshua Kang graduated from U.C. Berkeley as a history major and went on to earn his M.Div. & Th.M. at Fuller Theol. Seminary. He has been to Japan & Korea on a short-term mission trip and has led several missions teams to Mexico. He currently serves as the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Lakeview Presb. Church in Chicago

**STRATEGY FOR EFFECTIVE WITNESSING**

This workshop is for those who have the desire to sharpen their witnessing skills. You will learn five proven principles that, when implemented, will turn you into the ultimate witnessing machine (or instrument) of God. The goal of this workshop is not just to display the "How To's" of witnessing, but rather to equip you with the right heart and tools for witnessing. In other words, this workshop will provide the empowerment as well as the challenge to share the Good News with passion and compassion. 「」



## 18. 선교비디오 상영

⑱-1 신뢰성 구축 Building Trust	NAIM
⑱-2 태양 너머로 Behind the Sun	Open Doors
⑱-3 유월절의 메시아 Messiah in the Passover	Chosen People
⑱-4 닫힌문들을 통과하여 Through Closed Doors	AWM
⑱-5 마케도니아 프로젝트 Macedonian Project	AD2000 & Beyond
⑱-6 여호수아 프로젝트 Joshua Project	AD2000 & Beyond
⑱-7 미완성과제 The Unfinished Task : It Can Be Done!	AD2000 & Beyond
⑱-8 미완성과제에 대한 도전 The Challenge of Our Unfinished Task	YWAM



#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가선교사

## ● 아시아

### 네팔

강원희  
강화순  
고광석  
김명호  
립근희  
백종윤  
양승민  
허인석

### 대만

김달훈  
배석순  
김동열  
이은숙  
김윤희  
박복기  
김희범  
박만선  
박인수  
이동구  
이동희  
이완복  
이진희  
장경희  
정한진  
고순혜  
최관용  
정애순  
한경희  
한덕성  
황선교

### 말레이시아

김기홍  
노종해  
립영호  
민경자  
이규석

### 몽골

안교성  
안미리

### 방글라데시

강영희  
권병희  
장성희  
김수희  
마형낙  
박형수  
세이드 피터  
남상희  
송희천  
신윤정  
유지현  
이경심  
이국진  
이석봉  
이성원  
이옥성  
임해신  
장순호  
장은주  
정익모  
박금란  
정재화  
정경자  
조현주  
한효민

### 사이판

김정남  
김정남

### 베트남

김영관  
김종애

### 스리랑카

강기종  
전유미  
백정림  
이미자  
이승상  
정미혜  
최도식  
최재영  
김경희

### 싱가폴

김대경  
김종배  
이명국  
김차진  
손중철  
이은무  
허석구  
황창선  
김교향

### 인도

김영암  
김영자  
김창환  
노수길  
노상이  
링크 닐

이영범  
이재국  
정윤진  
변미화

### 인도네시아

김동찬  
김익배  
김혜란  
김종국  
김진선  
김철용  
김화수  
김형익  
박상배  
이현석  
이운복  
박성오  
고맹래  
서광종  
서성일  
서성민  
석진용  
김금사  
신방현  
신경자  
안성원  
어성호  
윤명희  
오영호  
임경철  
임혜영  
정동원  
정영명  
김경  
조시철  
최광수  
최수일  
김수남  
홍영화

**일본**

강덕형  
권오석  
권재남  
김규동  
김기동  
김다윗 성수  
김돈영  
김동원  
김성수  
김소익  
김정주  
김종주  
김종선  
김호철  
나달식  
김경숙  
민영기  
신동길  
소기호  
손남희  
안석주  
연재선  
유기남  
유봉호  
이봉자  
이철  
이지에꼬  
이헌봉  
이헌영  
정문자  
조남수  
함광옥  
홍기표

**중국**

박범용  
양정희  
이벤허  
이사라

전홍진  
전 크리스티나  
최와렌  
최애프릴  
이관숙  
김진선  
오대선

**태국**

강대홍  
권오혁  
우종복  
김농원  
김동호  
김문수  
조영미  
김선이  
김성곤  
김성희  
한옥자  
김정수  
김정숙  
김종일  
손영란  
김태민  
박경환  
이순연  
박문수  
김선자  
박선진  
배종원  
손명숙  
송룻  
신동운  
신향실  
신옥련  
신흥식  
신순영  
양병화  
양숙자

오세관  
이병숙  
윤수길  
이교육  
신재명  
이규식  
최영미  
이양동  
이은순  
이재휘  
김정옥  
이형국  
장선옥  
장병조  
장정수  
김희자  
정도연  
이미숙  
정석천  
정승희  
정영숙  
조현준  
황운수

**파키스탄**

김병교

**필리핀**

강미경  
강병호  
강정인  
강중희  
고순하  
강진석  
고광석  
곽시동  
신순덕  
곽춘식  
권희숙  
김광기

강해종  
김광수  
송재은  
김기환  
김윤선  
김도봉  
림은영  
김말순  
김병윤  
안현수  
김삼숙  
김상찬  
김경란  
김석환  
김선국  
류마래  
김선숙  
김성일  
김수선  
김순옥  
김영국  
김영일  
김연정  
김금래  
김영섭  
김영옥  
김영출  
임창남  
김양백  
김용우  
김유식  
김유철  
김은영  
김은호  
하혜숙  
김자선  
김장영  
김정덕  
김종한  
김선옥  
김진규

김태현  
김활영  
김헌중  
임진  
김현국  
정연옥  
김형규  
남송호  
남후수  
이성희  
마원석  
박기호  
박광수  
박광수  
박도연  
박미화  
박선숙  
박세열  
안춘자  
박승옥  
박준석  
박찬식  
박현순  
박화자  
박희영  
백운영  
박은혜  
백종안  
서성범  
서승학  
허은영  
서태원  
성기정  
김미래  
손범식  
손진락  
손춘자  
송성호  
송승용  
송용천  
이급란

송평구  
이미경  
송홍석  
신영미  
신을수  
박신자  
신현규  
김경자  
심형주  
안병갑  
안옥희  
안엘리아  
안사라  
안재근  
양호창  
김복순  
오승영  
김금자  
윤광섭  
전준선  
윤미형  
윤순정  
이경수  
이광수  
전귀순  
이광운  
이교성  
이경자  
이동백  
심영주  
이상택  
이성윤  
정금심  
이성일  
이성춘  
이성영  
이숙자  
이시구  
홍승은  
이영철  
이용돌

이원식  
이인선  
이정애  
이종만  
원인규  
정미자  
임은숙  
임종용  
정용경  
임평환  
임효순  
임향  
장상운  
이명순  
장종일  
강장애  
전남주  
전숙자  
정기양  
최경순  
정동균  
정도해  
정병대  
정성수  
정영석  
정명신  
정재용  
정지영  
유옥연  
정효권  
정현석  
정희백  
박초순  
조성일  
박영자  
조용중  
조경련  
지광남  
이선희  
지선덕  
지영구

진기화  
차명호  
백은숙  
채수일  
최성자  
최광석  
최재형  
최철  
최태수  
안미경  
최현기  
한기욱  
함성자  
함용욱  
호재범  
홍승목  
김성미  
홍운  
홍희국  
황복환  
황양곤  
신미숙  
황일주

● 아프리카

**가봉**

김상옥  
김필례  
방혜숙

**감비아**

유병국  
이재환  
한병희

**기니비사우**

이옥성

**나이지리아**

김명숙

**남아공**

김신희  
이원준  
전철한

**르완다**

김창국

**모로코**

허영희

**보츠와나**

김혜영  
김주현  
박선옥

**시에라레온**

신대원

**수단**

탁수연  
탁미애

**아이보리코스트**

황익진

**에티오피아**

박종국  
이은용  
조창현

**우간다**

권오학  
김동국  
김명옥  
김문숙  
김정운  
김은희  
배상호  
박숙경  
이명시

**자이레**

김경식  
김사라

**잠비아**

허일봉  
허미령

**케냐**

강선환  
강성진  
강인중  
공성운  
김명수  
김미애  
김순태  
김승중  
권오애  
김신미  
김진호  
홍현숙  
박삼일  
박상목  
박윤석  
배주형  
서숙자  
송충석  
이형란  
신유미  
유영국  
윤민애  
이장식  
임금희  
임태순  
정광호  
조성덕  
주진국  
최명승  
최명은  
하영진  
하혜정

**탄자니아**

김선옥  
김정림  
마문구  
민찬식  
박은순  
손광주  
이광진  
이영권  
차영수  
차계숙  
홍철  
황광인

● 유럽

**그리스**

손영삼  
손희경

**독일**

김승연  
나승필  
윤희원  
이향모

**루마니아**

이영호  
박천규  
박현규  
정홍기



**불가리아**

김호동  
배점선

**영국**

박천규  
박광석

**이탈리아**

강광선

**포르투갈**

강병호

**폴란드**

김헌중  
임진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이극범

**CIS (구소련)**

김상길  
이성숙  
송창섭  
유미서  
장금주  
김창숙  
김진은  
김선일  
김성식  
김재광  
손영규  
유창현  
윤준원

김순춘  
이강수  
이희재  
전홍진  
전순혜  
정형손  
조갑수  
조화진  
최강  
김경애  
김성열  
김성은  
김완일  
이혜성  
남정우  
노준호  
문준섭  
유양엽  
박정수  
한숙자  
박영빈  
원인애  
박찬수  
서상욱  
성록인  
손왜숙  
신동교  
원규호  
이상남  
엘레나  
이상길  
박옥자  
이성재  
이성국  
서지연  
이연승  
이영성  
박미  
이정권  
유영희  
전재춘

안준상  
최신출  
이말임  
홍기영  
오혜숙  
윤상수  
신재경  
정광섭  
김갑년  
김경일  
김택주  
이옥희  
감다니엘  
김도범  
김수복  
김재순  
김스데반  
김영재  
신운섭  
김랍연  
이규동  
이명희  
이룣  
이바셀스라브  
이상웅  
이향미  
정정옥  
홍대욱  
홍성집



**바레인**

이춘우  
허명호

**사우디 아라비아**

조완길

**요르단**

정형남  
김은숙

**이스라엘**

김주경  
김천근

**이집트**

이준교  
김신숙

**터키**

김세도  
김원호  
김주찬  
박정하  
이영한  
조용성  
최인경  
한선화

**U.A.E.**

주태근

●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

민병문  
안명수

**도미니카**

최광규  
주선자  
최순이

**멕시코**

이성균

**베네쥬엘라**

김재한

**볼리비아**

서성덕  
윤도근  
정덕수  
정시연

**브라질**

강영수  
강성일  
현봉희  
김철성  
노요셉  
인정엽  
박승호  
유정인

송석수  
송진윤  
양혜란  
이만유  
이문규  
이성준  
이승재  
이신숙  
이준희  
정현명  
홍은실  
황신화

**수리남**

안석렬

**아르헨티나**

박금순  
유만열  
윤복희  
윤춘식  
윤금순  
정현식  
이혜숙  
황신화  
홍인식

**에쿠아도르**

김명숙  
이영민  
최태중  
유승지

**우루과이**

차재홍  
이미라

**칠레**

김대엽  
김종길  
백기현  
이길소  
원계희  
허원구  
배남숙  
박영완

**코스타리카**

민영진  
박영구  
박성도  
박순옥

**콜롬비아**

김위동  
이복음  
최정락

**파라과이**

강두호  
윤순애  
김정훈  
양창근  
박경주  
임성익  
임한곤  
정금태  
홍사순

**페루**

김병균  
김복향  
김성일  
김성숙  
우웅섭

김영희  
이전현  
신명자  
황윤일  
황창이

● 북미주

**미국**

고피터  
구장이  
김명희  
김순애  
김연화  
김영근  
김정남  
김정남  
김종국  
김진선  
김준영  
남영철  
박스데반  
송연기  
송채완  
송희섭  
윤마크  
윤정열  
이사무엘  
이성호  
이순재  
임주혁  
임춘식  
조레이빌  
조정자

조형섭  
최동훈  
최주원  
최춘영  
한윤희  
허귀옥

**캐나다**

김재희  
김선희  
박계로  
박선희  
신갑철

● 오세아니아

**괌**

조환

**뉴질랜드**

신종혁  
신삼은  
오경수

**파푸아뉴기니**

김학철

**피지**

이금자  
이재경

**호주**

이상택  
오경순  
박미자

● 한국

김돈수  
김동훈  
김순희  
김승호  
김은주  
김정애  
김중선  
김형미  
박경호  
신영숙  
양경숙  
양승천  
연태권  
오대선  
오선택  
오조셉  
임경심  
유토마스  
이순복  
이신철  
이해정  
이계연  
임정미  
장성희  
정준기  
조명순  
조용백

한호진  
김원심  
허명희  
홍종애

##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선교사 초청/후원

교회/기관개인	담임/대표	후원선교사수	교회/기관개인	담임/대표	후원선교사수
전주안디옥교회	이동휘	14	세계선교침례교회	강박내	3
서울명성교회	김삼환	10	헬로쉽교회	김원기	3
필라한인연합교회	림택권	10	와싱턴한인장로교회	김택용	3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10	리치몬드장로교회	배현찬	3
한국선명회	이윤구	10	북가주영락교회	이정근	3
동양선교교회	임동선/박광철	10	토론토영락교회	이석환	3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10	디트로이트제일중앙감리교회	이재형	3
서울중앙감리교회	정영관	10	와싱턴한인교회	조영진	3
휴스턴한인교회	정인찬	10	휴스턴서울침례교회	최영기	3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차현희	10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최인순	3
장현식		10	온누리교회	하용조	3
뉴저지베다니교회	장동찬	9	PWM선교회		3
위싱턴중앙장로교회	이원상	7	김수용		3
아틀란타영락교회	고원용	6	유효명		3
뉴욕만백성교회	김상모	6	벤엘교회	강준원	2
나성한인교회	김영진	6	필라임마누엘교회	고인호	2
헤브론교회	송용걸	6	과천교회	김광덕	2
한인등대교회	이상남	6	뉴욕순복음교회	김남수	2
체리힐장로교회	이승제	6	한사랑선교회	김한식	2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김의식	5	나성삼일교회	박사무엘	2
남가주사랑의교회	오정현	5	성도순복음교회	박성배	2
만나감리교회	김우영	5	직장선교회	박홍일	2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5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서삼정	2
부산수영로교회	정필도	5	벤엘교회	손인식	2
필라제일장로교회	김만우	4	시카고남부연합감리교회	손용억	2
라스베가스순복음교회	김종기	4	와싱턴한인침례교회	신경희	2
뉴욕장로교회	이영희	4	시카고남서부교회	안성기	2
캔사스선교교회	이승중	4	프린스턴영광장로교회	윤사무엘	2
한미장로교회	이종형	4	필라영생장로교회	이용걸	2
벤엘교회	이호영	4	시드니연합감리교회	이상택	2
트랜튼장로교회	황의춘	4	와싱턴시온장로교회	이순각	2
시카고성결교회	나운태	4	뉴욕성결교회	장석진	2
			스프링필드장로교회	장세운	2
			보스톤장로교회	전덕영	2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정남식	2
			빌라델비아장로교회	조천일	2
			시카고연합감리교회	조은철	2

KWMC1996 참가선교사

교회/기관/개인	담임/대표	후원선교사수	교회/기관/개인	담임/대표	후원선교사수
덴버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강진호	1	와싱턴대성침례교회	황찬규	1
미드웨스트장로교회	김대균	1	샌디아고연합장로교회	홍충만	1
LA가나안교회	김대순	1	뉴욕새순교회		1
벤나이스복음연합감리교회	김동형	1	맥클레인한인장로교회		1
지구촌교회	김만풍	1	미시간평신도선교협의회		1
신시네티제일연합감리교회	김상백	1	북방의료선교회		1
뉴욕어린양교회	김수태	1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교회		1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김영식	1	시카고기도모임		1
초원교회	김용수	1	신우선교회		1
토론토제일장로교회	김용출	1	안디옥세계선교회		1
뉴욕예일장로교회	김종훈	1	은평성결교회		1
가주말투스교회	김진섭	1	화산제일교회		1
로워박스한인교회	김풍운	1	김영훈		1
용두동감리교회	김한옥	1	서준택		1
와싱턴북부장로교회	나광삼	1	유재송		1
애스베리연합감리교회	박성상	1	전희근		1
뉴욕수정성결교회	박수복	1	정구상		1
알칸사스한인제일장로교회	박춘배	1	조권행		1
뉴욕효신장로교회	방지각	1			
안디옥침례교회	안병국	1			
퀸즈중앙장로교회	안창의	1			
올랜드제일교회	오재호	1			
랄리한인장로교회	우수명	1			
와싱턴메시아장로교회	이동철	1			
미주장로교선교부	이재풍	1			
뉴욕새교회	이학권	1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이훈경	1			
뉴욕감리교회	장철우	1			
시카고삼일교회	정상균	1			
충현선교교회	정상우	1			
온누리장로교회	조문휘	1			
뉴욕메시아장로교회	최광진	1			
서울람원교회	최덕훈	1			
포트워스한인장로교회	최명신	1			
동남아세아선교회	최형숙	1			
할렐루야침례교회	한덕수	1			
블루싱톤한인감리교회	한병철	1			
필라사랑의교회	황규명	1			
내쉬빌한인침례교회	황일현	1			